

# 南北對話年表

2001

統 一 部  
南北會談事務局

『南北對話 年表』는 南北會談 및 南北關係와 관련한 對內 主要動向·北韓 主要動向·周邊情勢 動向 등을 綜合整理한 것으로서 南北會談 對策 수립 및 南北關係 研究를 위한 基礎資料로 活用하기 위해 作成한 것임.

# 目 次

1月 .....	1
2月 .....	29
3月 .....	54
4月 .....	77
5月 .....	104
6月 .....	131
7月 .....	158
8月 .....	187
9月 .....	213
10月 .....	235
11月 .....	263
12月 .....	289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	<p>김대중 대통령 신년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 협력을 착실히 추진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가겠음.</li> <li>-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남북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음.</li> <li>-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확고한 안보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음.</li> </ul>	<p>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li> <li>- 2000년은 20세기를 빛나게 총화한 역사적인 해, 조국통일 위업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전개한 해, 조선의 존엄과 영예가 온 세상에 높이 떨친 긍지 높은 해였음.</li> <li>- 새해는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활로를 열어 나가야 할 새로운 진격의 해, 거창한 전변의 해가 되어야 함.</li> <li>- 올해 경제건설의 중심과제는 현존 경제토대 정비·고양, 인민경제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는 것임.</li> <li>- 올해는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진전을 이룩해야 함.</li> </ul> <p>김정일 위원장 및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 새해를 맞이하여 금수산기념궁전 참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남,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백학립, 홍성남, 전병호, 한성룡, 계웅태,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최영립, 김국태 등 동행</li> </ul>	<p>도이치 전 CIA 국장,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 재임중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직면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싱턴 포스트지 기고</li> <li>-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 지명자의 재임기간 동안 미국은 한 차례 이상의 중국·대만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 확실하며, 아마도 북한의 위협에 맞닥뜨릴 수 있어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임.</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	<p>박재규 통일부장관, 남북간 평화·화해협력 증진 노력 강조</p> <p>* 통일부 시무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금년에 남북간 평화와 화해협력을 넓혀 나 가는데 전력해야 하며, 서울에서 개최기로 합의 한 남북정상회담을 완벽 하게 준비해야 할 것임.</li> <li>- 우리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평화체제 정착 △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남북실질협력관계 구축 △사회·문화분야의 다각적 인 교류와 협력 활성화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국민의 동의와 지지 획득 등임.</li> </ul> <p>「한직」 사무총장에 이영구씨 내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직」은 이영구 서울지사 사무국장을 새 사무총장에 내정</li> <li>- 한편 서영훈 「한직」총재 내정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적십자회담 수석대표를 총재 보좌역이 맡을 수도 있다'고 언급</li> </ul>	<p>중방, '공동사설은 올해 우리 인민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투적 기치'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의 공동사설은 이 세기와 이 해에 우리 인민들이 수행해야 할 투쟁목표와 구체적 과업, 그 방도를 뚜렷이 밝혀 주고 있음.</li> <li>-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관철시켜 올해를 거창한 전변의 해로 빛내야 할 것임.</li> <li>- 공동사설은 우리당의 위대한 자주정치, 단결의 정치, 애국 애족의 정치를 받들고 21세기 사회주의 붉은기 진군을 다그치는데서 기본이 무엇가를 밝히고 있음.</li> </ul>	<p>워싱턴 포스트,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 3월 평양방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 대사는 그의 친구인 아메리칸 대학의 벤저민 래드너 총장과 함께 3월께 북한을 방문할 예정임.</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3	<p>서영훈 「한적」 총재 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총재는 취임사에서 남북 이산가족을 위한 인도적 협력과 북한의 민생난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 문제는 비단 한적 활동으로서의 성과일 뿐 아니라 민족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해 큰 의의가 있다고 믿어 앞으로 그 성공에 많은 힘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피력</li> </ul> <p>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천항 통해 대북지원물자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에 지원되는 물자는 젓염소 120두, 월동용 사료 60톤, 목초종자 4,080kg 등 시범목장에 지원하는 물자와 밀가루 120톤, 식용유 45,500병, 학용품 2,562상자 및 겨울의류 240상자, 일회용 주사기 33,600개 등 총25컨테이너로 10억2천만원 상당</li> </ul>	<p>평방, '6.15 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과 남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로 이룩해나가야 함.</li> </ul> <p>평방, 통일문제 해결에 있어서 민족자주의 원칙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공동선언을 지지 환영하는 모든 사람은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해야 하며 동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하면서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해치려는 반통일, 반민족 세력들을 단죄 규탄해야 함.</li> </ul>	<p>미국 의회 조사국 래리 닉시 박사, 부시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 가능성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li> <li>- 부시 행정부가 아·태지역에 배치된 미군병력에 대해 재검토하게 될 것이고 이는 주한미군의 병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li> <li>- 부시 행정부는 남북한간 직접적인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자체를 거부하지 않겠지만 협상에 앞서 사전협의를 강력히 요구할 것임.</li> <li>-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상호주의를 강화하겠지만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마련한 대북정책 검토 보고서는 폐기하지는 않을 것임.</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4	<p>통일부, 2000년도 대북지원 규모 1억1,376만달러로 집계 발표</p> <p>- 지난해 남측의 대북지원 규모는 1억1,376만달러(정부 지원 7,863만달러, 민간지원 3,513만달러)로 국제사회를 포함한 총 대북지원 규모 2억2,042만달러의 52%수준임.</p> <p>통일부, 2000년도 국내입국 탈북자 312명으로 집계 발표</p>	<p>조명록·김영춘 등 인민무력부 군인들, 김정일의 영도 및 공동사설 제시과업 관철을 위한 쉼기모임 진행(4.25문화회관)</p> <p>평방, 민족자주의 원칙과 연방제 통일 방식 강조</p> <p>- 오늘의 현실에서 북과 남의 모든 민족이 납득하고 지향하는 통일은 연방제방식의 통일 이외의 다른 통일은 없음.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현실적인 방도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음.</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총련」 중앙상임위 부의장 권순휘 및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단장 : 부장 송근학)과 담화</p> <p>김정일 위원장,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 개최(목란관)</p> <p>- 최태복, 해외동포영접국 김유호 국장(*김승익이 교체되고 새로 임명), 「청년동맹」 최휘비서, 「조총련」 권순휘 등 참가</p>	<p>교도통신, '세계은행, 북한 경제지원 용의 표명' 보도</p> <p>- '98. 2월 북한을 방문, 북한의 재정·금융 당국과 직접 협의를 가졌던 세계은행의 브래들리 밥슨 동북아태평양 담당 수석고문이 북한의 경제상황조사 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음.</p> <p>- 세계은행은 기술협력 등을 지렛대로 북한의 경제개방을 촉구할 생각인 것으로 보여 북한이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은행과 협조에 들어갈지 여부가 주목됨.</p>
1. 5	<p>외교통상부 당국자, 북한-스페인 올 상반기 수교 언급</p>	<p>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진행(김일성광장)</p>	<p>자유아시아방송(RFA), 북한 무역상 태국 방문 예정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페인 정부의 초청으로 김춘국 북한 외무성 구주국장이 지난해 12.20 마드리드를 방문,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음.</li> <li>- 양측은 올 상반기 외무장관간의 공한을 교환, 공식수교를 확정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성남, 한성룡, 최태복, 김중린, 정하철, 양만길(보고) 등 참가</li> <li style="text-align: center;">〈결의문 채택〉</li> <li>- 자주정치, 단결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 구현</li> <li>- 선군혁명 노선 관철</li> <li>- 경제건설을 통해 국가경제력 구축</li> <li>- 올해를 비약의 해, 부흥의 해로 장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의 영자신문 방콕포스터(1.2) 인용</li> <li>- 고인푹 아시아위킷 태국 상무차관은 북한의 무역상이 올해 1/4 분기 중 태국을 방문하여 쌀 외상대금(9,615만달러)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음.</li> <li>니혼게이자이 신문, '미국,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 검토' 보도</li> <li>* 폴 월포워츠 전 국방차관,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 등의 발언 인용</li> <li>- 미국 차기 공화당 부시 정권은 '94년 경수로 건설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체결된 북미 핵합의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경수로 대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지원 쪽으로 합의내용을 대폭 수정하려고 있음.</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6	<p>조선일보, '미국, 대북 경수로 화력발전소로 대체 제안'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지난해 3월 도쿄와 6월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에서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 주기로 한 '94년의 북미 제네바 핵 합의를 고쳐, 경수로 1기 대신 화력발전소 6기를 지어주자고 한국과 일본에 제안했음.</li> </ul>	<p>노동신문, '조선민족끼리 손 잡으면 통일은 문제 없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함.</li> <li>- 우리는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신의를 가지고 대하며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그 이행을 위하여 변함없이 노력할 것임.</li> </ul>	
1. 7	<p>서영훈 「한적」총재, 3차 적십자회담 3월 개최 언급 * KBS 일요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및 가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3차 적십자회담이 오는 3월에 열릴 예정임.</li> <li>-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인원과 상봉횟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li> <li>- 면회소는 교통편의와 비용을 고려해 판문점 접경지역은 물론 전국 여러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li> </ul>	<p>평방,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 제하로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면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이 강화되고 그 위력으로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의 앞길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음.</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8	<p>정부,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관련 우리측 합의서안 북측에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협추진위 제1차 회의 (2000.12.27-30)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우리측 안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전달</li> </ul> <p>통일부 관계자, 「서울-평양 신년음악회」 연기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0 서울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신년음악회 (주최 : 「아·태평화위」 및 CNA코리아)가 북측이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 연기되었음.</li> </ul> <p>현대, 금강산 카지노사업 신청 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측은 2000.10 신청한 금강산 해상호텔 카지노 임대를 위한 사업내용 변경 승인 신청을 내부사정을 이유로 자진 철회</li> </ul>	<p>중방, 신년공동시설 과업 관철을 위한 궤기대회 진행 보도</p> <p>노동신문, '일본의 헌법개정 움직임은 해외침략을 꾀하는 궤변' 제하로 대일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민주당 대표 하또야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하는 등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재침멸에 들뜬 군국주의 광신자의 정체를 드러내 놓는 것임.</li> </ul> <p>노동신문, 남북공동선언 이행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과 남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조국통일을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로 이룩해 나가야 함.</li> <li>-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서야 할 것임.</li> </ul>	<p>지지 통신, 일본 원폭 피해조사단 내달 파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정부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오는 2월초 북한에 전문가(10명)를 파견할 것임.</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9	국가정보원, 최근 입국한 탈북주민 10명 탈북경위 등 조사중 발표	<p>평방, 민족화해협의회 상무위원 이효선의 공동시설 반향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공동정신의 기본정신과 기본핵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데 대한 민족 자주원칙으로 일관되어 있는 만큼 동족과 공조하는 데로 나가야 함.</li> </ul> <p>노동신문 논평, 남북공동선언은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 실현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천명하고, 조선민족의 요구와 이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임.</li> <li>- 조선민족이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때 조국통일운동에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 것임.</li> </ul>	<p>교도통신, '북한, 오사카 동아시아 대회 불참 표명'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식통 인용</li> <li>- 북한은 올림픽위원회 유성일 전무 명의로 기술적인 이유로 제3회 동아시아 대회(오사카)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팩스를 1.8자로 보내왔다고 보도</li> </ul> <p>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차기 정부, 한반도 정책 계승 희망'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별 기자회견</li> <li>- 차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떠난 곳에서 출발하기를 희망함.</li> <li>- 한반도의 역동성과 냉전의 마지막 흔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함.</li> </ul>
1.10	「한적」, 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대북 제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평양에서 개최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0	<p>* 서영훈 「한적」 총재 명의 장재언 「북적」 위원장 앞 전통문</p> <p>-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2.26-28 서울과 평양에서 실시할 것을 제의함.</p> <p>- 제3차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일정과 생사·주소 확인(1·2월중) 및 서신 교환(3월)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1.12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p>	<p>* 김영남, 최태복, 김용순, 김영대, 류미영 등 정부·정당·사회단체 관계자 참가</p> <p>- 안전 :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평화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열어나갈 데 대해</p> <p>&lt;양형섭 보고 요지&gt;</p> <p>-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우리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 활성화</p> <p>- 2001년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할 것과 민족통일 촉진운동기간(6.15-8.15)을 설정할 것을 제의</p>	
1.11	<p>김대중 대통령,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노력 의지 피력</p> <p>* 연두기자회견</p> <p>- 정부는 올해에도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확립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음.</p>	<p>「북적」 대변인, 제3차 적십자회담 개최 제의</p> <p>- 상정된 모든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제3차 적십자회담을 1월중 개최하자는 것임.</p> <p>-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과 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병행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아갈 것임.</li> <li>-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약속대로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음.</li> </ul>	<p>신교환, 3차 방문단 교환 등 합의된 일정을 적극 추진하고 면회소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무 조치도 빨리 협의·해결해야 함.</p> <p>박성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대회에서 제시된 제안과 호소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함.</li> <li>-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북남공동선언의 이행을 외면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함.</li> </ul>	
1.12	<p>한미, 노근리 사건관련 공동조사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박한 한국전쟁 초기의 수세적인 전투상황 하에서 철수중이던 미군은 강요에 의해 1950. 7 노근리 주변에서 수 미상의 피란민을 살상하거나 부상을 입혔음.</li> </ul> <p>박재규 통일부장관, 대북 전력지원 신증 추진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일경제신문 인터뷰</li> <li>- (금강산사업 관련) 북측이</li> </ul>	<p>장재언 「북적」위원장, 제3차 적십자회담 1.29-31 금강산 개최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남 전통문</li> </ul> <p>전금진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남북간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위한 태권도 단체간 접촉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남 전통문</li> <li>- 조선태권도위원회는 쌍방 태권도 시범단 교환 실현을 위한 접촉 준비를 다그치고 있음.</li> <li>- 귀족에서도 중앙급 태권도 단체가 선정되어 빠른 시일내에</li> </ul>	<p>빌 클린턴 미 대통령, 노근리 사건 관련 유감 표명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950년 노근리에서 한국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li> <li>- 노근리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과를 정확히 가려낼 수 없었으나,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인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무</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	<p>현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어 현대측 주장(사업 대가 3억달러 삭감)을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으로 봄.</p> <p>- (대북전력지원 관련) 이르면 이달 중 북측 전력 실태에 대한 공동조사가 이뤄질 것임. 경제여건, 남북관계진전,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추진할 것임.</p>	<p>북남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위한 쌍방 태권도 단체들 사이의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바람.</p>	<p>고한 한국인 피난민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음.</p> <p>- 전쟁중 살해된 한국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위해 미국이 건립한 추모비가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사건의 종식을 가져 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p>
1.13	<p>임채정 국회남북교류특위 위원장, 여야의원 방북추진 언급</p> <p>-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사전 여건 조성과 남북의회 교류차원에서 의원들의 평양방문을 추진중임.</p> <p>- 현재 30여명의 의원들이 방북을 희망하고 있으며, 북한측과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남북교류특위와 통일의교통상위원들을 중심으로 방북 의원들을 인선할 것임.</p> <p>통일부,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에 대해 대북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p>	<p>남북경제협력추진위 대변인, 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올해에도 북남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남 사이에 합의된 협력사업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데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음.</p> <p>- 우리는 당면하게 이미 북남경제협력추진위 제1차 회의에서 토의된 전력협력을 추진하면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철도 및 도로연결·개성공업지구 건설을 빨리 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 나갈 것임.</p> <p>수산성 대변인, 남북어업실무자 접촉 촉구 담화</p> <p>- 북남 사이의 어업협력이 실현</p>	<p>니혼게이지가 신문, '스탠리 로스 미 국무부 차관보, 북미 기본합의서 수정 가능성 표명' 보도</p> <p>- 스탠리 로스 미 국무부 차관보는 1.12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는 대가로 경수로건설 등을 약속한 북미 기본합의를 재검토해 화력발전소 공여 등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음.</p> <p>- 그는 모종의 이유로 북한이 미북합의 내용 수정을 바</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3	<p>- 사업내용 : 남원 시립국악단과 평양 민속예술단의 '춘향전' 평양공연(1.25, 평양봉화예술극장) 추진</p> <p>김대중 대통령, 보안법 개정 관련 언급 * 「2000년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청와대)</p> <p>- 일부에서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고치지 않아 국가보안법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음.</p> <p>- 북한이 안하더라도 우리는 해서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갈 길임.</p> <p>현대상선, 금강산 해상호텔 카지노 입대를 위한 금강산 관광사업 내용변경 승인 재신청</p>	<p>되면 바다자원이 민족의 번영에 이용되며, 남측 어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됨.</p> <p>- 쌍방이 합의한대로 금강산 지구에서 북남 어업실무자들의 접촉을 개최할 것을 다시 남측에 제기함.</p> <p>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이일환 1비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지지 담화</p> <p>- 청년학생들이 통일조국 위업수행에 선봉적인 역할을 할 때임.</p> <p>- 해내외 청년학생들이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애국애족 위업에 힘차게 떨쳐나서리라고 믿음.</p>	<p>라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며, 다만 수정은 쌍방에 의해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p>
1.14		<p>평방, '독특하고 위력한 병선 거북선' 제하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발명 관련 보도</p>	<p>부시 미 대통령 당선자, 대북 미사일 협상안 조건부 수용 용의 표명 * 뉴욕 타임스 회견</p> <p>- 북한쪽의 합의이행을 검증하는 조건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4			<p>갖춰진다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뤄진 대북 미사일 협상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국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남한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한반도 주둔 미군의 감축 문제를 검토할 것임.</li> <li>-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북한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미국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함.</li> </ul>
1.15	<p>김대중 대통령, 보안법 개정 추진 이유 언급 * 성우회 오찬(청와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안법을 개정해도 형법으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함. 보안법 개정은 북한 때문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오·악용되고 있는 조치를 고치려고 하는 것임.</li> </ul>	<p>북한-네덜란드,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외무성과 네덜란드 외무성 대표 사이의 회담(2000.12.20-2001.1.15, 헤이그)에서 두 나라 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음.</li> </ul> <p>승상섭 「농근맹」 중앙위원장,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지지 담화</p>	<p>터키 외교부 대변인, 북한-터키 수교 양해각서 체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과 터키는 1.15 중국 베이징 터키 대사관에서 상호승인과 대사 임명을 위한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국교 수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5	<p>현대 개성공단 실무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아산 대표단 5명(단장: 이원)은 북한 개성공단 착공을 위한 실무협의를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 내놓은 제안들은 지극히 정당하고 현실적 조치들로 이를 적극 지지함.</li> <li>- 남조선 농민단체들과 농민들이 2001년을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하며 민족통일운동 촉진 기간(6.15~8.15)을 정한 데 대해 적극 호응해 나서리라는 확신을 표명함.</li> </ul>	
1.16	<p>국내언론, 김정일 위원장 중국방문 보도</p> <p>* 베이징 소식통 인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 위원장이 1.15 특별열차편으로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음.</li> <li>- 김 위원장은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을 방문,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등과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 부시 행정부와의 북미관계, 북한의 개혁·개방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li> </ul> <p>국내언론, 김정일 중국방문 확인 보도</p> <p>* 중국 공산당 소식통 인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16</li> </ul>	<p>노동신문, '민족지주, 화합과 단결로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자'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단합을 이룩하여야 외세의 지배주의 책동을 배격하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우위에 놓고 북남사이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음.</li> </ul> <p>중방, '용납못할 핵 및 생화학전기도' 제하로 일본 도쿄 소방청의 내년도 특수재해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비난</p> <p>중방, 자강도 중소형 발전소 건설 소식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강도는 지난 3년간 400여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 전</li> </ul>	<p>유엔사령부, 독일인 의사 판문점에서 월북기도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인 의사 노어베르트 폴러첸이 판문점 관광중 월북을 기도하다가 경비병에게 붙잡혔음.</li> </ul> <p>* 폴러첸은 지난해 10월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서방기자들을 허가받지 않은 구역으로 안내하고, 반북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당국으로부터 추방당한 바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6	<p>현재 상하이 금융·첨단 산업단지인 푸둥 지구를 시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p>	<p>력 56,000kW를 생산·활용하고 있음.</p>	
1.17	<p>국가안전보장회의, 2001년도 안보정책 3대 기본방향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남북화해협력 증진 관련) 남북정상회담, 이산 가족문제 등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li> <li>-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구축 관련) 한·미·일 공조 유지를 통한 전쟁억제, 4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우리 주도의 대북 관계 추진,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li> <li>- 셋째, (안보태세 유지 관련)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유지, 안보정책과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이해 확보</li> </ul> <p>이정재 「경추위」 위원장, 남북경협추진위 관련 대북 서한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경제협력추진위 구성·운영 합의서」와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1차 회의 합의문」에 대한 우</li> </ul>	<p>유영철 인민무력부 대좌, 제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남 전화통지문</li> <li>- 우리측은 회담을 1.31(일) 10시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p>「청년동맹」 창립 55돌 즈음 조선인민군 청년들의 충성의 결의 대회 진행(금수산기념궁전 광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동맹」 조선인민군위원회 오성일 1비서 보고 : 청년일꾼들과 군인들이 우리당의 청년 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모든 사업을 통 크게 밀고 나가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투사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야 함.</li> </ul> <p>평방, 일본의 역사왜곡 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역사학 관계자들이 연명으로 호소문을 발표하여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음. 일본의 역사왜곡 놀음이</li> </ul>	<p>파월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 대북정책 전면 재점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 청문회</li> <li>- 럽스펠드 국방장관 지명자와 협력, 대북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임.</li> <li>-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서두르지 않는 대신 분명한 현실주의적인 자세로 접근해 나가겠음.</li> </ul> <p>페리 전 미국 대북정책 조정관, 한국 주도 대북정책 지원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평화연구소 (USIP) 주최 세미나</li> <li>- 차기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취해온 대북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한국정부가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는 것을</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7	<p>리측 안을 북측에 전달하고, 전력협력실무협의회를 1.27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p>	<p>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임.</p>	<p>인정하고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지지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북한이 '94년 북한의 핵동결을 약속한 제네바 합의는 계속 지켜져야 함. 이 같은 일이 진전을 거두면 휴전선 병력을 뒤로 빼는 등 상호 신뢰 구축조치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li> </ul>
1.18	<p>박재규 통일부장관, 판문점-금강산 면회소 추진 언급 * 민주당사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의선이 복원돼 항구적인 면회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면회소 설치장소를 판문점과 금강산으로 정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수밖에 없음. 이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고 있음.</li> </ul> <p>현대아산 관계자, 북측에 금강산 대가 절반 2005년까지 유예 요청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로</li> </ul>	<p>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 제6기 1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인민문화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시설 제시과업 관철 보고 및 토의, 집행계획서 채택 등</li> </ul> <p>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확대 전원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제안은 통일염원을 반영한 정당한 제안임. 북과 남, 해외의 전체 불교도들은 북남공동선언 이행에 특색 있게 기여할 것을 호소하며 이들에게 보낼 편지를 채택했음.</li> </ul>	<p>이타르타스 통신, 김정일 위원장 상하이 방문 일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위원장은 1.17 주룽지 중국 총리와 함께 상하이의 「상하이 GM」 등 외국인 투자 공장을 시찰했음.</li> <li>- 또한 상하이의 증권거래소와 창찬 기술연구소도 방문했음.</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8	<p>북한에 매월 지불하는 1,200만달러 가운데 600만달러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2005년 4월부터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북한 아·태평화위측에 전달했음.</p> <p>- 이와 관련해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이 1.18 금강산을 방문했음.</p>		
1.19	<p>서영훈 「한적」 총재,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추진 관련 언급</p> <p>- 판문점은 기존시설을 이용하면 되지만 숙박이 불가능함. 기존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숙박이 가능한 곳을 마련할 계획임.</p> <p>-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가 중요한 만큼 3차 적십자회담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임. 시간이 급한 문제인 만큼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p>	<p>노동신문, 21세기전략은 경제강국 주장</p> <p>- 선군정치로 우리의 정치·군사적 기초를 천백배로 다지고 그 힘에 의거하여 최단기간내에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마련하여 21세기 세계경제강국의 대열에 위풍 당당히 들어서자는 것이 장군님의 용단이고 명략임.</p>	
1.20		<p>평방, 우리측의 국제공조 관련 비난</p> <p>- 남측 당국과 정치인들은 그 무슨 안보라는 구실 밑에 동</p>	<p>주방짜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김정일 위원장 訪中 발표</p> <p>- 김정일 북한 국방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0		<p>죽을 겨냥하여 외세와의 군사적 공조를 추구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보안법과 같은 유물에 매달리지 말아야 함.</p> <p>중·평방, 김정일 국방위원장 1.15-20 중국 방문 소식 보도                      * 김영춘, 연형묵, 김국태, 정하철, 강석주, 김양건, 박송봉, 현철해, 박재경 등 수행</p> <p>- 김정일 위원장과 강택민 주석 사이의 회담에서 양측은 각자의 국내 정황에 대해 호상 통보하였으며, 두 나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견해일치를 보았음. 강택민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음.</p> <p>평방, 동진호 문제 관련 보도</p> <p>- 동진호 사건에는 그 어떤 납치도 납북도 없음. 그 무슨 납북이니 송환이니 하는 것은 속심이 탄 데 있기 때문임.</p>	<p>원장이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요청으로 1.15-20 비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음.</p> <p>- 장주석과 김위원장은 회담에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중국과 북한의 공동 관심사와 국제문제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음.</p> <p>- 김위원장은 4일간 상하이로 방문했으며, 주룽지 중국 총리가 상하이로 가서 김위원장과 회담과 만찬을 했음.</p>
1.21	<p>김성호 민주당 의원, 6.25때 납북자 7,034명 명단 공개</p> <p>- 「한적」이 1966년 6· 25 당시 강제 납북된 사람들의 가</p>	<p>「직총」 중앙위 제43차 전원회의, 「농근맹」 중앙위 제39차 전원회의 평양에서 각각 개최</p>	<p>산케이 신문, 독일-북한 금주중 수교 결정 보도</p> <p>- 독일의회 소식통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	<p>죽들을 상대로 신고를 받은 결과, 7,034명의 가족들이 신고를 했음.</p> <p>- 이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단을 공개함.</p>		<p>인용, 독일 슈뢰더 총리정권이 금주 중반께 각의에서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p>
1.22	<p>김대중 대통령, 북한의 개혁·개방 대책 마련 지시 * 국무회의</p> <p>-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의 새로운 정책과 신사고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큼.</p> <p>- 이에 대비해 철저하고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p>	<p>「청년동맹」 중앙위 제22차 전원회의 및 「여맹」 중앙위 제36차 전원회의 진행</p>	
1.23		<p>벨기에와의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보도 발표</p> <p>- 쌍방은 12.18~1.23 브뤼셀에서 두나라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여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하기로 하였음.</p> <p>천도교청우당-조선천도교회 중앙위 합동전원회의 평양에서 진행</p>	<p>벨기에,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p> <p>- 북한의 김수익 파리주재 북한 일반대표부 대표는 1.23 벨기에를 방문, 안 드 북 벨기에 외무부 차관과 수교 합의문에 서명</p>
1.24		<p>김정일 위원장, 음력설에 즈음 조선인민군 공훈 합창단의 경축 공연 관람</p>	<p>독일, 북한과 수교 결정</p> <p>- 독일정부는 1.24 각료회의를 열어 북한</p>

■ 1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4		<p>*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김일철, 이운설, 박학림 등 수행</p>	<p>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결정하고 곧 수교 교섭에 돌입하는 것을 승인</p> <p>미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 한미정상회담 개최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시 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을 조기에 초청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함.</li> <li>- 김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북한 지원에 대한 미국의 상호주의 정책간의 조율이 필요하며, 클린턴 행정부때 이루지 못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 감축을 위한 한미 양국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함.</li> </ul>
1.25	<p>김대중 대통령-부시 미 대통령 전화통화</p> <p>* 청와대 대변인 발표</p> <p>-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25</p>	<p>장재언 「북적」위원장, 이산가족 생사·주소 회보서 1.29 교환제의</p> <p>* 대남 전화통지문</p> <p>- 9월에 생사·주소 확인 의뢰</p>	<p>독일 일간지(노이에스도이칠란드), '북, 미사일문제 협상 용의 표명'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5	<p>오전 전화통화를 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직접 만나 대북정책과 동북아 문제에 관해 협의하기로 했음.</p> <p>한갑수 농림부장관, 북한식량증산지원단 구성 계획 언급 * 대한매일신문</p> <p>- 올해부터 북한의 식량증산을 돕기 위해 종자생산, 농업시설 설치 등 각 분야의 기술지원을 담당할 「북한 농업지원협력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임.</p> <p>- 북한은 지난해 식량생산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농업과 식량문제 해결이 중요과제가 될 것임. 연해주 농업개발 등 식량증산을 위한 남북한 공동협력사업을 검토하고 있음.</p> <p>현대아산 관계자, 금강산 단축마라톤대회 개최 계획 언급</p> <p>- 2.24 금강산에서 남측과 외국인 관광객이 참가하는 통일염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로 북한과 합의했음.</p>	<p>서를 교환한 100명에 대한 회보서를 제3차 북남적십자회담(1.29-31, 금강산)때 교환,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자 200명 명단을 1.30, 판문점에서 교환하자고 제의</p> <p>- 남북적십자회담 북측 단장에 김경락 「북적」상임위원 임명, 대표에 최창훈 대신 리호림 부서기장으로 교체 통보</p> <p>외무성 대변인, 미 국무장관의 '북조선 독재자' 발언관련 기자회견</p> <p>- 파월이 미 국회 상원인준 청문회(1.18)에서 우리 최고 수뇌부를 북조선의 독재자라고 중상한 것은 조미관계 수준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임.</p> <p>- 새 미 행정부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든 그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음.</p> <p>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 평양에서 개최</p> <p>- 회의에서는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6.15-8.15)을 통일운동의 빛나는 성과로 장식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토의</p>	<p>* 최근 방북한 고레고어 기지 전 민사당 하원 원내의장 말 인용</p> <p>-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미사일 문제를 놓고 협상할 태도를 보이고 있음.</p> <p>- 그러나 북한으로서 는 무기 수출이 유일한 외화획득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만 무기 수출을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역사적 북남공동선언을 존중·이행한다면 남측 어느 정당·정치인과 손잡고 벌려 나갈 결의를 표명</li> </ul>	
1.26	<p>정부관계자,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연기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이 1.26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전력협력 실무협의회 연기를 제의했으며, 우리측도 이 제의를 받아들여기로 했음.</li> <li>- 정확한 개최 일정은 양측이 협의해야 하지만 조만간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봄.</li> </ul>	<p>중방, 일본의 핵무장 조짐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이 서유럽으로부터 핵물질 해상수송을 또다시 시작(1.19)한 것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더 많이 비축하여 핵무장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적 책동의 한 고리임.</li> </ul> <p>평방,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은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 발전에서 비상한 견인력과 생산력을 발휘하고 있음.</li> <li>- 우리는 민족 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 가까운 앞날에 조국 통일을 실현하여야 하며 올해에 통일위업 실현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야 함.</li> <li>- 북남공동선언 첫 조항에는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데 대해 명시되어 있음.</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7	<p>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 미-북 미사일 회담 진전 언급 * KBS 심야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미사일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었음.</li> <li>- 북한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li> </ul>	<p>평방, 미국의 2001년 국방보고서 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방성이 2001년 국방보고서에서 그 무슨 북조선에 의한 군사적 위협을 떠들어댔음.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그 누구를 위협하거나 전쟁과 같은 무력행사에 나설 의사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임.</li> </ul> <p>평방, 민족자주의 원칙은 통일문제 해결의 근본원칙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방식의 선택도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구미에 맞고 우리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함.</li> <li>-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통일로 가는 현실적인 방도는 연방제 통일을 실현해나가는 데 있음.</li> </ul>	
1.28	<p>이병웅 남북적십자회담 남측 수석대표, 판문점 면회소 설치 노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보다는 비용과 시간면에서 유리한 판문점에 상봉장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며, 회담 첫날에 100명의 생</li> </ul>	<p>노동신문, '나라이 드러난 검은 속심' 제하로 대일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얼마전에 일본당국자가 일련의 아프리카 나라들을 행락했음.</li> <li>-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그에 상응한 자질을 갖추기</li> </ul>	<p>산케이 신문, '부시, 북미 핵합의 전면 재검토' 보도 * 소식통 인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시 정권이 북미 핵 합의가 사찰이나 검증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전면 재검</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8	<p>사확인 명단 교환을 제의할 계획임.</p> <p>김영진 민주당 의원, '미, 북 기독교연맹위원장 초청'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준비위원회가 우리측에 보낸 초청장에서 '남북 기독교인 정치지도자의 동시 초청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li> </ul>	<p>위한 일부부터 먼저해야 함. 선차적인 것은 과거청산임.</p>	<p>토기로 결정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부시 정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일을 계속 경계하면서 당분간 1백만 명이 넘는 북한의 통상전력 삭감에 대해 북 협상의 주안점을 두기로 했음.</li> </ul>
1.29	<p>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제1일차 회의 개최(금강산여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 대표: 이병웅(수석), 고경빈, 최기성 대표</li> <li>북측대표: 김경락 단장(교체) 리금철, 리호림(교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측은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3차 방문단교환,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li> <li>- 또한 지난해 9월 명단을 교환했던 이산가족 100명의 생사·주소 확인 결과 회보서를 교환</li> </ul> <p>박재규 통일부장관, 김정일 위원장 답방 대비 범정부기구 설치 등 언급</p>	<p>평방, 제38차 「전국청소년체육 학교 속도빙상경기대회」 1.28-30간 대성산 미천호에서 진행된다고 보도</p> <p>중방,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개설 보도</p> <p>노동신문,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 제하로 북-EU간 관계개선 의미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와 유럽동맹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새 세기 국제정세와 역사발전의 요구로서, 조선반도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와 진보, 국제관계 발전을 위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임.</li> </ul>	<p>아미티지 미 국무부 장관 내정자, 한국에 햇볕정책 용어 불사용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 면담시(동아일보 보도)</li> <li>- 햇볕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김대통령에게 전해줄 것을 희망함.</li> <li>-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방문이 됐으며 좋겠음.</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9	<p>* 재외공관장회의(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성공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를 구성키로 했음.</li> <li>- 이산가족 교류 확대에 대비해 이산가족 관련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음.</li> </ul>		<p>영국정부, 제임스 호어 주북 대리대사 임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과의 수교에 따라 외무부 북아시아-태평양연구팀장인 제임스 호어 박사를 주북한 대리대사로 임명했음.</li> <li>- 호어 박사는 우선 서울에 주재하게 되며 2월중 부임할 것임.</li> </ul> <p>보스워스 주한 미대사,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p> <p>* 고별 기자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한국에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임.</li> <li>- (북미 제네바합의문 관련) 합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물론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협의해야 함.</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30	<p>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제2일 차회의 개최(금강산여관)</p> <p>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2.7 평양 개최 등 합의</p> <p>- 양측은 1.30 판문점 연락 관 접촉을 통해 남북전력 협력실무협의회(2.7-10, 평양)와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2.21-24, 평양) 개최에 합의</p> <p>현대아산, 금강산사업 대북 지불금 600만달러(당초 계약액 1,200만달러) 「아·태평화 위」측에 송금</p>	<p>중방,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보도</p> <p>- 우리측 단장은 회담에서 이미 쌍방사이에 합의된 인도주의 사업 일정과 면회소 설치 및 운영,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내놓았음.</p> <p>「농근맹」 창립 55돌 즈음 「농근맹」 사업부문 연구토론회 평양에서 개최</p> <p>- 토론회에서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농근맹」에 대한 업적과 「농근맹」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p> <p>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 제2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인민문화궁전)</p> <p>노동신문, 미 국방성의 「2001년 국방보고서」 관련 대미 비난</p> <p>- 미 국방성의 「2001년 국방보고서」는 또 다시 북조선에 의한 군사적 위협을 꺼들며 동아시아 안전보장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음.</p> <p>- 이것은 우리의 위협을 구실로 아·태지역에서 틀고 앉아 군</p>	<p>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북·러, 김정일 위원장 러시아 방문시기 합의' 언급</p> <p>- 러시아와 북한은 당분간 김위원장의 방문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방문 시기를 밝힐 수는 없으나, 방문 시기는 올 상반기가 될 것임.</p> <p>한스 기스만 독일 함부르크대 교수, '한반도 군축이 평화의 열쇠' 언급</p> <p>*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지 기고문</p> <p>- 남북한은 지금까지 연방제, 장기수 송환,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했으나 아직 군축이나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논의되고 있지 않음. 군축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없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30		<p>사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소리 외에 다른 것이 아님.</p> <p>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제2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인민문화궁전)</p> <p>-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민군대가 창조한 사상정신과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적극 따라 배워 인민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개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설데 대하여 강조하였음.</p> <p>「범청학련」 북측본부, 「한총련」 대표 김대원의 보안법 위반 실행선고 규탄 성명발표</p> <p>- 남조선 검찰이 평양을 방문하고 남조선으로 돌아간 한총련 김대원 대표에게 보안법을 걸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1.26)한데 대해 반통일적 행위로 낙인하면서 청년학생들의 이름으로 준열히 규탄함.</p>	<p>- 동서 냉전이 한반도 분단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에서의 화해는 군축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p>
1.31	<p>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 발표</p> <p>〈주요내용〉</p> <p>-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2.26-28 서울-평양 동시 교환</p> <p>- 이산가족 서신(300명) 3.15 판문점에서 교환</p>		

■ 1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31	<p>- 생사·주소확인 명단(각기 100명) 2.9 교환(결과통보 2.23)</p> <p>-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문제와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는 제4차 회담에서 협의·확정</p> <p>- 회담 일자는 4.3-5, 장소는 추후 확정</p> <p>제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 집)</p> <p>* 남측대표 : 김경덕 준장(수석), 권혁순 대령(교체), 이명훈 대령, 이명훈 중령, 정덕모 건교부 과장</p> <p>북측 대표 : 유영철 대좌(단장), 배경삼 상좌, 정창욱 상좌, 리병우 대좌, 김기복 상좌</p> <p>-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쌍방의 합의서 초안을 기초로 이견사항에 대해 중점 협의</p>	<p>김책 사망 50돌 중앙추모회, 개최(4.25 문화회관)</p> <p>* 김영남, 조명록, 김일철, 이을설, 백학림, 홍성남, 전병호, 한성룡, 계응태,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최영립, 김중린, 김용순 등 참석</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		<p>중방, 제4차 남북군사회담(1.31, 판문점) 결과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담에서 쌍방이 내놓은 합의서 초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많은 문제들에 견해일치를 보았음.</li> <li>- 다음번 회담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하기로 했으며 회담날짜는 우리측이 가까운 시일안에 통보하기로 하였음.</li> </ul>	<p>미국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 '남북 공식 종전 이전 부시 대통령 방북 곤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래리 워홀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이 작성한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과제」 보고서</li> <li>-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상호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조속히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야 하지만 한반도의 공식적인 전쟁상태가 종식되기 전에 북한을 방문해서는 안될 것임.</li> </ul>
2. 2	<p>국내언론,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북측 후보자(200명)중 6.25전쟁시 국군 전사자로 처리됐던 북한 거주자 2명 포함 보도</p> <p>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의 최고 목표는 미국과의 유대관계 강화'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AP 통신 기자회견</li> <li>-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의 최고목표는 북한의 국가</li> </ul>	<p>노동신문, '시대착오적인 망상' 제하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움직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며칠 전 미국을 찾아가간 일본 외교당국자는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실현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일본당국자들은 범죄적 과거와의 결별을 떠난 상임이사국 진출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함.</li> </ul>	<p>산케이 신문, '미국, 현대의 대북지불금 군사목적 전용 우려'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행정부 한반도 정세 담당 관계자 발언 인용</li> <li>- 미국은 '98년 이후 금강산 관광 개발의 허가 획득 등을 명목으로 현대가 북한에 지불한 3억달러의 무상원조 자금이 북한측에서 군사</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	<p>안보를 뒷받침하고 파탄 지경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임.</p> <p>- 북한은 자체의 변화가 없거나 지원과 협력을 얻지 못하고서는 현재와 같은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p> <p>서영훈 「한적」총재, 이산가족 생사확인 매년 1만명 추진 대북 제의 언급 * 한나라당 총재 예방시</p> <p>-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이 매년 1만명 정도라도 생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북측에 제의했음.</p> <p>- 이에 대해 북측은 통신사 정 미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조금 있으면 이를 받아들일 것임.</p> <p>김중권 민주당 대표, 보안법 여론 수렴후 추진 언급 * 재향군인회 주최 안보강연회</p> <p>- 보안법 문제는 여야와 국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론을 통합하는</p>	<p>중방, 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 관련 비난</p> <p>- 최근 미국의 호전세력들과 일본 반동들이 아·태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니 뭐니 하면서 일·미 동맹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떠들고 있다고 함. 이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킬 것임.</p>	<p>목적으로 전용됐다고 보고 있음.</p> <p>- 이 때문에 부시 정권은 한반도 정책의 재검토 과정에서 대북한 원조 방식에 엄중한 주의를 기울일 전망이다.</p> <p>앤더슨 KEDO 사무총장, 북한 경수로 건설 계속 언급</p> <p>- 북한에 건설 중인 경수로 원전을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음. 부시 행정부 아래에서도 경수로 건설 사업은 계속될 것임.</p> <p>- 북한에 건설되는 경수로에서 핵 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경수로로 북한에 인계할 때 안전조치를 충분히 마련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	<p>가운데 이뤄져야 함.</p> <p>- 다만 보안법이 제정 당시 입법취지와 달리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상당부분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만큼 개정돼야 함.</p> <p>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권오현), 북송희망 장기수 40여명에 이른다고 언급</p>		
2. 3	<p>「남북경협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경협추진위 제1차 회의 합의문」 교환</p> <p>* 양측은 「경협추진위 제1차 회의」(’00.12.27-30, 평양)에서 상기 두 합의서를 판문점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8부터 협의를 시작, 1.30 최종 문안에 합의하였음.</p> <p>-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박재규 통일부장관, 전금진 내각 책임참사)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쌍방 위원장(이정재 재경부차관, 박창련 국가계획위 제1부위원장)은 각각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p>	<p>중방, 우리측 군사훈련 비난 보도</p> <p>- 남조선 군 1750부대는 2.5-9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무장직송기까지 동원해서 흑한기 훈련과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벌인다고 하며, 같은 기간에 백마부대는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흑한기 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함.</p> <p>- 이것은 도시 주변 지구를 포괄하는 많은 지역들에서 연속 군사훈련을 벌여놓음으로써 불안과 긴장을 조성하는 것임.</p> <p>평방, ‘자주와 대단결, 애국애족의 대오에 합류하자’ 제하로 통일의 주체적 역량 강조</p> <p>- 통일을 갈망하는 조선사람이라면 소속과 처지를 가리지 말고 누구나 다 연합하여 통일</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3	<p>제1차 회의 합의문」에 서명하여 2.3 합의문건을 상호 교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은 「경협추진위 제1차 회의 합의문」을 통해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및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각각 2.7-10, 2.21-24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함.</li> <li>- 「남북경협추진위 제2차 회의」는 금년 2월 하순경에 서울에서 개최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협의·확정키로 함.</li> </ul>	<p>의 주체적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함.</p>	
2. 4	<p>김종권 민주당 대표, 보안법 개정은 김정일 위원장 답방 후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법 개정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 추진할 것이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임.</li> </ul> <p>국방부,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8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릴 예정임.</li> </ul>	<p>북한-유엔 아동기금(UNICEF), 「2001-2003년 협조이행을 위한 종합운영계획서」 평양에서 조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명 : 북한 UNICEF 민족조정위원회 위원장인 외무성 최수현 부상과 북한주재 UNICEF 대표 딜라와 알리 칸</li> <li>- 위 종합운영계획서에 따라 유엔아동기금은 앞으로 3년 동안 북한의 교육, 어린이 영양 및 건강, 물위생 분야에서 협조하게 됨.</li> </ul> <p>노동신문, 이시하라 도쿄 지사 발언 비난</p>	<p>보즈워스 주한 미대사, '미, 대북정책 한 국입장 존중'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 - 1TV 특별 회견</li> <li>-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는 일은 없을 것임.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존중할 것임.</li> <li>-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관련) 북한이나 한국, 일본의</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4	<p>유종근 전북지사, 방북(1.31-2.3) 후 기자회견</p> <p>-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측과 교류확대와 대화창구를 개설하기 위해 항상 연락 가능한 전화·팩스를 설치키로 했고, 전 북도와 북측의 민족화해 협의회 사이에 문화·체육·경제분야에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 의향서를 교환했음.</p>	<p>- 일본 도쿄도 지사 이시하라가 스위스 세계 경제연단회의에서 북조선에 의한 납치인 문제를 꺼들면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납치공작선을 침몰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임.</p> <p>- 일본 반동이 감히 우리에게 선불질을 한다면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그에 대처할 것임.</p>	<p>동의없이 바꾸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음. 미국은 결코 일방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p> <p>- (북한에서의 변화 가능성 관련)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점점 확실해지고 있으나, 북한이 제2의 중국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음.</p> <p>- 김위원장은 개방을 좀더 허용하려 하면서도 주민에 대한 외부세력, 특히 한국의 영향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임.</p> <p>인테르팩스 통신, '김정일 위원장 4월 중순께 러시아 방문 유력' 보도</p>
2. 5	<p>김대중 대통령, DMZ내 생태보존 지시</p> <p>* 환경부 업무보고</p> <p>-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비무장지대가 유네스코의 접경 생물권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남북협력방안</p>	<p>전국 「농근맹」 일꾼들의 백두산 밀영 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대, 백두산밀영 도착</p> <p>북한예술단(단장 전경남 해외동포원호위원회 부위원장), 미국순회 공연차 뉴욕 도착</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5	<p>등을 포함해 관계부처가 노력해야 함.</p> <p>- 비무장지대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생태지대로서 인류의 보물이 될 수 있고 북한도 이 지역의 환경보존에 협력할 것을 믿음.</p>		
2. 6	<p>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김정일 위원장의 방한은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 언급</p> <p>*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p> <p>-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온다면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임.</p> <p>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권오현 공동위원장), 추가 북송 희망 장기수 33명 발표</p> <p>- 추가로 북송을 원하는 장기수는 모두 33명이며, 그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송환해야 함.</p>	<p>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00.12.27-30) 합의문 교환 보도</p> <p>- 합의문에 의하면 북남경제협력추진위 산하에 전력 및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협력분과들을 내오되 평양에서 제1차 전력협력분과 회의(2.7-)와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협력분과 회의(2.21-)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p> <p>북한과 캐나다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보도 발표</p> <p>- 공화국 정부는 캐나다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음. 외교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외무상 백남순과 캐나다 외무상 존 맨리의 명의로 된 편지들이 2001.2.1 교환되었음.</p>	<p>캐나다 외교부, 캐나다-북한 수교 발표</p> <p>- 지난해 7월 발표한 수교방침에 따라 북한과 2.6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간에 상호 이해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함.</p> <p>아사히 신문, 김정일 위원장 4.17-18 러시아 모스크바 방문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6		<p>중국공산당 중앙위 대외연락부 대표단(단장 : 왕가서 부부장) 평양 도착</p> <p>유럽동맹 경제협력 대표단 평양 도착</p> <p>평방, 연방제 통일 주장</p> <p>-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서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당함이 없이 서로의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온 거래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국가를 세워나가야 할 것임.</p>	
2. 7	<p>박재규 통일부장관, 이산가족 화상상봉 가능 언급</p> <p>*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기초연설</p> <p>-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간 서신교환에 합의한 것은 작은 진전이지만 합의가 더 진전되면 평양·서울간 스크린 상봉도 가능할 것임.</p> <p>- 정부는 남북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하고, 경제·사회공동체를 건설해 사실상의</p>	<p>남북전력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남측대표단 비행기편으로 평양 도착</p> <p>스페인과의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p> <p>- 북 외무상과 스페인 외무상이 관계설정에 관한 편지를 교환함으로써 두나라 사이 외교관계가 설정되었음.</p> <p>- 쌍방은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하며 로마와 베이징에 상주하는 대사들을 각기 겸임대사로 임명하기로 합의하였음.</p>	<p>크레믈린 공보당국, 푸틴 대통령 3월초 이전 방한 예정 발표</p> <p>미 국무부 대변인, 한미 외무장관급회담 관련 언급</p> <p>- 한미 외무장관회담 (2.7, 미 국무부)에서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과 콜린 파워 국무장관이 양국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 등 모든 사안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7	<p>통일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음.</p> <p>한미 외무장관회담 개최</p> <p>-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7 워싱턴 미 국무부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안에 개최키로 합의하는 한편 미국이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p>	<p>김정일 위원장, 조선인민군 제 655군부대 및 동부대 관하 여성 포종대 시찰</p> <p>* 조명록, 김영춘, 이명수 등 동행</p> <p>「2.16경축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 진행(인민문화궁전)</p>	<p>특히 견해차이를 보인 문제는 없었음.</p> <p>- 회담은 이 장관이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방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에 관해 설명한 자리였음. 파월 장관은 이 장관 설명의 통찰과 포괄적인 성격을 높이 평가했음.</p> <p>조지 테넷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북한의 군사위협 관련 언급</p> <p>* 상원 정보위원회 출석 보고</p> <p>- 북한의 대담한 외교적 공세와 한국의 대북 전략 변화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군사력과 미사일 개발 계획, 군사기술의 수출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은 아직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돼야 함.</p> <p>-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방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7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수준을 크게 줄였다고는 볼 수 없음.
2. 8	<p>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p> <p>* 남측대표 : 김정덕 준장(수석), 권혁순 대령, 이명훈 대령, 이명훈 중령, 정덕모 건교부 과장</p> <p>북측 대표 : 유영철 대좌(단장), 배경삼, 정창욱, 김기복, 이병우</p> <p>- 양측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제5차 회담을 열고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총 41개항)를 채택했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합의서 주요내용&gt;</p> <p>- 관리구역 폭 : 경의선 철도 노반을 포함하여 250m</p> <p>- 관리구역내 시설물 : 관리구역내에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으며 다만 DMZ으로부터 250m 떨어진 곳에 각각 1개씩 경비초소 설치</p> <p>- 지뢰제거 범위 : 자기측 지역의 지뢰와 폭발물 제거</p> <p>- 지뢰제거 작업시기 : 작업개시 1주일 전에 상호 통보후 동시 작업</p> <p>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개최</p> <p>* 남측대표 : 유창무 산자부 심의관(수석), 엄종식 통일부 과장, 김인섭 한국전력공사 부처장</p>	<p>「김정일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무력부 발표회」 진행(4.25 문화공전)</p> <p>*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등 참가</p>	<p>크레이그 토머스 미 상원 아·태 소위원장, 주한미군 감축압력 증가 언급</p> <p>* 조선일보 회견</p> <p>- 당장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을 감축하라는 압력이 (미국내에서) 점증할 것임.</p> <p>- 미군의 기술이 여러 측면에서 발전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규모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덜 중요하게 됐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8	<p>북측대표 : 오광홍 전기 석탄공업성 부상(단장), 박성희 전기석탄공업성 국장, 조현주 「민화협」 참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은 2.8 평양 고려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전력문제에 대해 논의</li> <li>- 남측은 남북전력협력을 위해 전력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측은 남측이 50만 kW의 전력 지원을 약속한 후 실태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li> </ul> <p>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경의선 연결사업 등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의선 연결을 위해 지난해 145억 7,800만원과 올해 사업비 1,657억 8,300만원 등 총 1,803억 6,1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li> <li>- 또한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북한에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하는 경비 237억원, 제3차 이산가족교환방문 행사비용 7억원등을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li> </ul>	<p>주북 러시아대사, 리·북 조약 체결 1돌 즈음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태복(연설), 김양건, 여춘석, 홍선옥, 왈레리 제니쑤브(연설) 등 참가</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9	<p>제2차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의뢰자 교환</p> <p>- 「한적」과 「북적」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2차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의뢰자 100명씩의 명단을 교환함.</p>	<p>중방,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8, 판문점 통일각) 개최 보도</p> <p>- 이번 회담에서 쌍방은 북남관 리구역 설정과 북과 남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조항들 가운데서 미합의 문제를 토의했으며, 우리측의 노력으로 합의서가 타결되었음.</p> <p>- 우리측 단장은 합의를 채택·발효시키는 방법은 인민 무력부장과 국방부장관이 서명후 교환하기로 했으며,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을 제기했음.</p> <p>김정일 위원장,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대표단 접견 * 김국태, 김양건, 현철해, 박재경, 주북 중국대사 왕국장 등 배석</p> <p>중방, 러시아와의 「친선 선린 및 협조 조약」 체결 1돌(2.9) 즈음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발전하는 조-러 친선' 제하 보도</p>	<p>조선신보, '북, 중국식 개방 않을 것' 전망</p> <p>- 조선은 자본주의 나라와의 경제적 협조가 촉진돼도 '전 인민을 유족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의 인민을 먼저 유족하게 만든다' 는 중국식의 정책을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p> <p>- 사회주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와 자본, 금융, 기술 등 여러 형태의 연계가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곧 개혁·개방 정책의 도입과 국내 제도의 재편으로 귀착되는 것은 아님.</p>
2.10	<p>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종료</p> <p>- 양측은 2.10 위원장간 접촉을 통해 막판 절충작업을</p>	<p>중방, 전국 「직맹」 일꾼들과 직맹원들의 백두산밀영 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 혜산에서의 출발모임(2.5)을 거쳐 고향집 도착 보도</p>	<p>벨기에 대사, 북한 개방 확대 전망</p> <p>*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p>

■ 2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0	<p>벌였으나 전력조사 목적과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하였음.</p>	<p>중방,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 1차 회의(27-10, 평양)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은 북과 남사이의 전력협력을 위한 실태조사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했으며, 이 문제를 계속 협의 추진하기로 했음. 남측대표단은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음.</li> </ul> <p>북한예술단, 뉴욕 링컨센터에서 첫 미국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기에 기업들이 북한과의 무역뿐 아니라 장래 투자 가능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li> <li>- 북한의 개방이 점진적 속도로 추진될 것을 확신하며 벨기에의 역할은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개방을 최대한 돕는 것임.</li> </ul>
2.11		<p>유영철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 DMZ 합의서 서명 연기 요청</p> <p>* 대남 전통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2·14 예정된 인민무력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서명한 「북남 관리구역 설정과 북과 남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교환하기 위한 단장 접촉을 행정상의 이유로 할 수 없게 되었음. 변화된 일정에 대해서는 차후 통지할 것임.</li> </ul> <p>「직맹」, '김정일의 위대성'에 대한 사업부문 토론회 개최(중앙노동자회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2	<p>국내언론, '북한, 주적개념 철회 주장'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언론들은 북한이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2.8, 판문점 통일각)에서 우리 측에 주적개념 철회를 요구하며 2차 남북국방장관 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li> </ul> <p>조성태 국방부 장관, '주적개념 변경은 부적절'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li> <li>- 군사적으로 북한은 여전히 현존하는 위협임. 북한이 대남 군사전략을 수정하는 명백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적개념의 변경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li> </ul> <p>하나비즈닷컴 문광승 사장, 남북 IT 합작사 설립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2.5-10)후 기자회견</li> <li>-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및 평양정보센터와 공동으로 4월에 중국 단둥에 남북한 IT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음.</li> </ul>	<p>황봉영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태권도 시범단 교환관련 실무 접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장 앞 전통문</li> <li>-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위해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실무 접촉을 3.12-14 금강산 지역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p>제10차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개막식 개최(평양 빙상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성남, 양형섭, 김중린, 체육지도위원회 박명철 위원장(개막연설), 조선피겨협회 위원장 문일봉 재정상, 축전 조직위 이동호 위원장(환영연설) 등 참가</li> <li>- 벨라루시 등 6개국 참가</li> </ul> <p>무역성, 주북경제 및 무역참사단을 위한 사진전시회 및 영화감상회 마련(대동강외교단 회관)</p> <p>평방, '민족자주는 통일문제 해결의 근본열쇠' 제하로 남북공동선언 이행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따지지 말고 통일의 길로 다같이 나가야 함.</li> </ul>	<p>세계식량기구, 올 대북 식량 81만톤 지원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의 대북지원 호소 계획의 하나로 식량 81만톤으로 북한 주민 76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영양강화 곡물, 비스킷, 국수 등 특별구호 규모를 9,300만달러로 계획하고 있음.</li> </ul> <p>첼코 러시아 철도부차관, 경원선 복원관련 3자(남북한, 러시아) 회담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러 운송부문 관계발전을 위한 설명회(서울)</li> <li>- 오는 2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과 한-러 정상간 회담은 한국 중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계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임.</li> </ul>

■ 2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작회사는 자본금 200만 달러 규모로 남한과 북한이 60 대 40으로 투자하며 4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과 설비를 마련키로 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공동선언 이행에 제동을 걸면서 조국통일을 외면하고 그에 찬물을 끼얹는 자는 민족안에 있을 자리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위해 정상회담이후 남북과 러시아간 3차회담을 개최, 경원선 철도 복원대책, 투자분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li> </ul> <p>부시 미국 대통령, 국무부 부장관에 리처드 아미티지 지명</p>
2.13	<p>정부고위관계자, 임동원 국정원장 미국 방문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장은 2.12부터 9일간 일정으로 비공식적으로 미국을 방문했음.</li> <li>- 그는 파월 미 국무장관과 테넷 미 중앙정보국 국장 등 부시 미 행정부의 고위급 외교안보관련 인사들을 만날 계획임.</li> </ul> <p>현대아산, 금강산관광 관련 대북 미지급금(1월분) 600만 달러 송금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홍콩을 통해 올 1월분 미지급금 600만달러를 북측에 송금했음.</li> </ul>	<p>「범민련」 특별임시공동의장단 회의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 「범민련」 운동방향,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 활동계획, 8.15통일대축전행사 조직문제 등 토의 및 조국통일3대현장 기념탑 건립을 위한 호소문·회의결정서 등 채택</li> </ul> <p>노동신문, '잔꾀를 부리지 말라' 제하로 일본 외무성의 아시아 여성기금에 대한 자금 기증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일본 외무성은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자금기증놀음을 벌였음. 종군위안부와 같은 범죄문제는 아시아여성기금과 같은 민간기구가 맡아서 해결할 성격의 것이 아님. 일본 당국자들은 과거 청산에 성근히 응해 나와야 함.</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3		김정일 생일 즈음 「여맹」 사업 부문 연구토론회 진행(여성회관)	
2.14	<p>박준영 청와대 대변인, 한미 정상회담 개최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3.7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임.</li> <li>-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관계 강화방안과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포함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게 될 것임.</li> </ul> <p>환경부, 민통선·DMZ내 생태교량·통로 설치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의선 복원과 도로연결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민통선에 3개의 생태 교량과 17개의 야생 동물 통로를, 비무장지대에는 10개의 교량과 8개의 통로를 각각 설치키로 함.</li> </ul> <p>서영훈 「한적」 총재, 대북내의 지원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 3월말까지 내의 200만 벌을 지원할 계획임.</li> </ul>	<p>중방, 「범민련」 특별임시공동의장단 회의 결정서(2.13, 평양·서울·도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6.15- 8.15)을 설정하기로 한 「민족통일 2001년 대회의 호소」를 전적으로 지지 환영함.</li> <li>-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통일운동의 새로운 민주적 길을 열어 나갈 것임.</li> <li>- 북남 당국과 연대협력하며,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 인사들과 협력할 것임.</li> <li>-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이 8.15를 계기로 완공되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임.</li> </ul> <p>제5차 김정일화 전시회 개막식 진행(인민대학습당)</p> <p>* 최태복, 양형섭, 장철(개막사), 최종건, 양만길, 이광호, 정문산, 김중린, 이종산, 이일환(보고) 등 참가</p> <p>「2.16 경축 중앙연구토론회」 진행(인민문화궁전)</p> <p>* 최태복, 양형섭, 변영립, 강능수 등 참가</p>	<p>독일 육류업계, 대북 쇠고기 수출 허용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독일로부터 소 20만마리분의 쇠고기를 원조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독일 공영 ARD방송의 보도와 관련, 독일육류산업연맹(위원장 : 만프레트헤르틀)은 '어차피 도살될 소를 북한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라'고 촉구</li> </ul> <p>스위스, 대북 쇠고기 지원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위스 정부는 북한에 700만프랑(약 438만달러) 상당의 쇠고기를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발표</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5	<p>통일부,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 대통령에게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목표 : 남북화해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으로 남북평화 협력을 실현</li> <li>- 추진방향 :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의 본격화 △상생의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이산가족문제의 획기적·근본적 해결 추진 △대북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임.</li> </ul> <p>김대중 대통령, 2차 남북정상회담시 긴장완화 최우선 논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업무보고서</li> </ul> <p>남북적십자사, 3차 이산가족 방문 후보 생사확인 결과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위한 생사·주소확인 결과를 상대방에 통보</li> <li>- 「북적」은 200명중 160명을, 「한적」은 199명의 생사확인 결과를 각각 통보</li> </ul>	<p>김정일 위원장 생일 경축 중앙 보고대회 개최(4.25 문화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남, 홍성남, 「조총련」 서만술(축하연설) 등 참가</li> <li>- 조명록(경축보고) :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렸음.</li> <li>- 선군정치는 조선로동당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인 정치방식임. 군대가 인민들에게 혁명적인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을 심어주는 선도자, 본보기가 되어야 함.</li> <li>- 올해를 21세기 경제강국 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로, 전면적 부흥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해 나가야 함.</li> </ul>	<p>「조총련」 중앙상임위, 김정일 위원장 생일 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조선문화회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6	<p>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 올 외교과제 대통령에게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을 위해 한미 정상회담(3.7)을 통해 미국 신 행정부와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체제를 지속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남북한 협의와 함께 4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노력할 것임.</li> <li>- 한반도 주변 4국을 포함한 주요국가 등과의 실질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북한의 ADB 가입 및 ASEM, APEC 협력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등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활동도 계속 강화할 것임.</li> </ul> <p>경수로기획단 관계자, 북한 경수로 건설현장에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투입 계획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경수로공사 주계약사인 한국전력공사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15 우즈베키스탄 노무 인력 250명을 경수로 건설현장</li> </ul>	<p>중방, 김정일 위원장의 59회 생일 관련 행사 동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개최(2.16, 평양체육관)</li> <li>- 수증발레 모범공연 개최(2.16, 창광원 수영장)</li> <li>- 제10차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폐막식(2.16, 빙상관)</li> </ul>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범적인 7개 학교에 「2중영예붉은기」를, 7개 학교에 「영예붉은기」를 수여</li> <li>- 모범적인 9개 단위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85개 단위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li> </ul>	<p>대만 정부관계자, '타이완·북한, 대북 핵폐기물 수출 협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이완은 북한으로 핵폐기물들을 수출하기 위해 올들어 여러차례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li> <li>- 북한이 황해북도 평산 소재 석탄폐광의 갱도 내에 타이완을 위한 핵폐기물 저장소를 거의 완공했으며 타이완 전력공사는 북한의 설계도, 기술, 건설 관련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안전과 저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li> </ul> <p>러시아 외무차관, 푸틴 대통령 방한 계획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회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틴 대통령이 2.27-28 한국을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관계를</li> </ul>

■ 2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6	에 투입하는 내용의 인력 공급 합의서에 서명했음.		비롯한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임.
2.17	남북한 적십자사, 3차 이산가족방문단 명단 교환  - 남북한 적십자사는 3차 이산가족교환방문(2.26-28, 서울·평양)을 위해 판문점을 통해 남측 평양방문단 151명(단장:장정자 「한적」부총재), 북측 서울방문단 140명 (단장:김경락 「북적」상무위원) 명단을 교환	평양, 국립희극단 단장 유동남 (북송비전향장기수 유연철의 아들) 방문기 보도	퀴나스트 독일 농업장관, 북한과 식량지원 협의 계획 언급  - 독일정부는 2.20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관리들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문제를 협의할 예정임.
2.18		평양,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는 것은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 이라'고 주장  -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임.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참다운 주인이 되자, 바로 이것이 시대와 역사의 요청이고 부름임.	
2.19	청와대 대변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 2.27-28 방한 발표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초청으로	평양, '불순한 반복언동은 중지되어야 한다' 제하로 대남 비난  - 최근 남조선의 일부 세력들이 서울답방 문제를 가지고 매우	찰스 카트먼 미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 4자회담 재개 문제 관련 언급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19	<p>2.27-28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함.</p> <p>-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중 김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두나라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p>	<p>불순한 언동을 하고 있음.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와 마주앉을 의사가 없으며 북남 공동선언 이행에 재동을 걸고 북남관계를 대결어로 되돌리려는 고의적인 도발임.</p>	<p>-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간의 공조체제는 이상이 없음. 김대중 대통령 방미 때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임.</p> <p>- 우리는 북한이 하려고만 한다면 즉시 4자회담을 재개 하자는 입장임.</p> <p>뉴욕 타임스, '한국,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우려' 보도</p> <p>- 한국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기 말 북미 관계 정상화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미국의 정권 교체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롯됐던 데탕트의 전기가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p>
2.20	<p>담배인삼공사, 북측과 평양에 담배공장 건설 합의 발표</p> <p>- 평양 용성에 연간 생산능력 20억개비 규모의 수출 전용 공장을 올해 말까지 건설하기로 북한측과 최</p>	<p>노동신문,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관련 대일 비난</p> <p>- 일본당국자들이 이른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2.25부터 1주일간 미국에 파견하여 악랄한 반공화국소동을 벌이려 하</p>	<p>독일·북한, 쇠고기 대북지원 협의</p> <p>- 독일의 데츠켄 농업부 차관보 등과 독일 주재 북한 이권대표부의 박헌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0	<p>근 합의했음.</p> <p>- 이와 함께 북한에 22억원을 투자, 연간 3,600만개의 주사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설비를 건설해주는 대신 6년근 수삼 50톤을 북한에서 공급받고, 앞으로 인삼 계약재배도 추진할 것임.</p> <p>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방북</p>	<p>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도발행위이자 어리석은 놀음임.</p> <p>조선노동당중앙위 제1부부장 박송봉 사망</p> <p>「제5차 김정일화 전시회」 폐막식(인민대학습당)</p>	<p>대표 등은 베를린 농업부에서 독일산 쇠고기 대북지원에 관한 회담을 개최</p> <p>- 회담후 독일 정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독립적 국제구호기구를 통한 투명한 전달, 북한내 필수적 인프라 보장 등이 지원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북한측에 제시했다고 발표</p> <p>뉴욕 타임스, 북한 의료체제 붕괴 보도</p> <p>- 북한은 국제사회의 원조로 최악의 식량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지난해 가뭄으로 인한 식량부족에다 의약품 및 각종 치료장비 등이 모자라 사실상 의료 보건 체계가 붕괴되고 있음.</p>
2.21	<p>서영훈 「한적」총재, 우리측 쇠고기 대북 지원 용의 표명</p> <p>* 국회 보건복지위 답변</p>	<p>중방, 일본의 자위대 증강 비난 보도</p> <p>- 일본정부가 16일 내각회의에서 민간인들 속에서 예비 자</p>	<p>「조총련」의장 한덕수 사망</p> <p>- 한덕수 조총련 종신위원장이 2.21 오</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만간 장재언 「북적」위원장을 만나 우리 쇠고기를 보내는 것을 제안해볼 용의가 있음.</li> <li>-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쇠고기를 북한에 보내는 데 큰 문제가 없음.</li> </ul> <p>대한태권도협회, 북측에 태권도시범단 실무접촉 제의 * 대북전통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위해 실무접촉을 3.14-17 평양 또는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li> <li>- 실무접촉에 대한태권도협회 국장급 수석대표와 2명의 대표, 약간명의 수행인원과 지원인원을 보낼 것임.</li> </ul>	<p>위관의 일부를 채용하기 위한 방위청설치법 등의 개정안을 결정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는 자위대를 고도 기술화함으로써 재침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더욱 완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li> </ul> <p>중방,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참가를 위한 남측대표단의 평양 도착 소식 보도</p>	<p>후 입원중이던 도쿄 체신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p> <p>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 북한 핵개발 능력 의문 언급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 접견시(베이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능력으로 볼 때 핵개발을 하기는 어려움.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의도와 실제 능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함.</li> </ul>
2.22		<p>노동신문, 미국의 NMD 추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행정부가 국가미사일방위체제 수립을 국가안전을 위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침략성과 위협성을 가리기 위한 궤변이며 진짜 목적은 힘으로 세계를 틀어쥐기 위한 데 있음.</li> </ul>	<p>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에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약속 준수 촉구 * 정례브리핑</p>

■ 2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3	<p>남북한, 이산가족 2차 생사·주소확인 결과 교환 * 연락관 접촉</p> <p>- 남북은 북측이 의뢰한 100명중 92명을, 북측은 남측이 의뢰한 100명중 79명의 생사주소를 확인 통보함.</p> <p>박재규 통일부장관, '김정일 위원장 상반기중 답방 바람직' 언급 * 아사이신문 인터뷰</p> <p>- 여름이 되면 바빠지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상반기에 방한하는 것이 바람직함.</p> <p>- 북한측이 김위원장의 방한 시기에 대해 언급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음.</p> <p>현대 정몽헌회장, 금강산 관광사업 대북 지불금 협상 후 귀환</p>		<p>알렉산드르 러시아 철도부 제1차관, 김정일 위원장 4월 하순 방러 계획발표 * 요미우리신문 인터뷰</p>
2.24	<p>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결과</p> <p>- 남과 북은 임진강유역 수방사업 추진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2001.2.21.~24간 평양에서 개최하였음.</p>	<p>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2.21-24, 평양) 진행 사실 보도</p> <p>경제대표단, 이탈리아 방문차 평양 출발</p>	<p>교토통신, '북, 광우병 도축 오스트리아산 쇠고기 원조요청'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4	<p>- 쌍방은 조사단 구성, 조사 대상, 조사방법 등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에는 의견 접근이 됨.</p> <p>- 다만, 조사관련 자료교환, 홍수 예·경보시설 설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협의하기로 함.</p> <p>- 차기회담 개최문제를 비롯한 1차회의 공동보도문 문안과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판문점을 통해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함.</p> <p>「한적」, 이산가족 서신교환 대상자 선정(300명) 결과 공개</p>	<p>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 교류 관련 실무접촉 장소 금강산 주장 * 전화통지문</p> <p>- 대한태권도협회가 제안한 날짜와 대표단 구성에는 다른 의견이 없지만 우리측이 이미 제안했던 대로 우선 금강산지역에서 접촉하는 것을 다시 제의함.</p> <p>중방, 경공업제품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보도</p>	
2.26	<p>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상호 교환방문</p> <p>* 남측 방문단(151명) : 장정자 「한적」 부총재(단장),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단 20명</p> <p>북측 방문단(140명) : 김경락 「북적」 중앙위 상무위원(단장),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26명, 취재단 13명</p>	<p>평방, 연방제방식 통일지향 강조</p> <p>- 북과 남은 현존하는 사상과 체도를 그대로 두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 하나 풀어나가면서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해야 함.</p> <p>중방, '군국주의 망령' 제하로 대일 비난</p> <p>- 21일 일본의 전 방위청장관 노로타가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묘사한 것은 일본</p>	<p>톨로라야 러시아 제1 아시아 국장, 한반도-러시아 철도연결사업에 10억달러 투자 용의 표명</p> <p>- 러시아는 남북한을 잇는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사업에 10억달러까지 투자할 용의가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6	<p>이정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남북경추위」 2차회의 개최일정 조정관련 대북전통문 발송</p> <p>서영훈 「한적」 총재, 이산가족문제 근본적 해결노력 언급 * 북측 이산가족방문단 환영 만찬(2.26, 메리어트 호텔)</p> <p>-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및 상봉 등 이산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임.</p>	<p>반동들이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역사왜곡 날조행위의 하나로써 군국주의 망령을 실증해주고 있음.</p>	<p>미국, '북,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불고려' 언급</p> <p>- 토머스 허바드 미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직무대행은 남북 일 본인 친척들과 회담한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의사가 없다고 언급</p>
2.27	<p>남북 이산가족, 서울과 평양에서 개별 상봉</p> <p>박재규 통일부장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제의</p> <p>-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2.27 대북 전통문을 통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3.13~16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p> <p>한-러 정상회담 개최</p> <p>- 김대중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27 청와대에서 정상</p>	<p>중방, 제3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관련 보도</p> <p>- 「한적」 장정자 부총재 일행, 북적 장재언 위원장과 담화</p> <p>- 「북적」 중앙위, 2.26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연회 개최</p> <p>「일제의 조선강점 비법성에 대한 남북공동 자료전시회」에 참가할 남측대표단(단장: 사운연구소장 이종학) 평양 도착</p> <p>주북 캐나다 신임대사 호워드 로버트 발로치 평양 도착</p>	<p>미 월포워츠, 미북 기본합의 폐기 반대 표명</p> <p>- 폴 월포워츠 미국 방부 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위한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기본합의를 준수하는 한 폐기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27	<p>회담을 갖고 남북간 화해·협력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 7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p>	<p>중방,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대일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침략행위를 구미 자본주의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아시아 나라들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역사에 대한 파렴치한 왜곡임.</li> </ul>	
2.28	<p>제3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과 북 이산가족 각 100명은 2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서울과 평양으로 귀환</li> </ul> <p>북측 이산가족 방문단장, 비전향장기수 송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경락 북측 방문단장은 서울 출발성명에서 북으로 갈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힘.</li> </ul>	<p>주북 캐나다 신임대사 호워드 로버트 발로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 제정</p>	<p>클레바노프, 러시아 부총리 '한국, 러시아제 군사 및 민간용 장비 구입 예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타르타스 통신 회견</li> <li>- 한국과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서울 방문에 앞서 열린 제3차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이 7억달러 상당의 러시아제 군사 및 민간용 장비를 구매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에 서명했다고 언급</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	<p>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답방 때 군사문제 등 합의 도출 언급</p> <p>* 경남신문·충청일보 창간 기념 회견</p> <p>-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냉전종식을 위해 평화협정 또는 평화선언 등 군사적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음.</p> <p>- 남북정상회담과 각료회담 등을 정례화하고, 이산가족 만남을 포함한 교류협력을 상례화하기 위해 문화·체육 교류 등을 활성화하겠음.</p> <p>통일부, 북한 억류 국군포로 351명으로 집계</p> <p>* 「2001년 통일백서」,</p> <p>- 2001년 12월 말 현재 탈북주민 등의 증언을 통해 재북 국군포로 351명의 명단을 확인했음.</p> <p>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 파키스탄에 발전 장비 수출' 확인</p> <p>- 북한이 1.12 준공된 파키스탄의 한 중형 수력발전소에 발전용 소형 모터</p>	<p>중앙통신, 독일과 수교 합의 보도</p> <p>- 두나라 사이에 2001.3.1부터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상대방 나라의 수도에 외교대표부를 설치하고 대사를 각각 파견하기로 합의하였음.</p> <p>외무성 대변인, 미 국무성의 「세계 인권형편에 관한 연례보고서」 비난</p> <p>- 미국은 자기의 인권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샅대질하려는 오만성을 버려야 할 것임.</p>	<p>미 국무부, 북한을 마약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p> <p>* 「2001년도 국제 마약 통제전략 보고서」</p> <p>- 북한은 양귀비, 헤로인 등을 불법적으로 재배하거나 생산해 거래를 계속하고 있어 여전히 마약 우려 대상국으로 남음.</p> <p>일본 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 '북한, 군사력 강화' 평가</p> <p>* 「동아시아 전략개관 2001」 보고서,</p> <p>-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음.</p> <p>- 현재 100여만명의 육군 병력 중 1/3을 비무장지대 부근에 전진배치하고 있으며, 240mm 다연발 로켓과 170mm 포의 숫자를 늘리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	<p>등 전력장비 65만달러어치를 수출했음.</p>		
3. 2	<p>김대중 대통령·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김정일 위원장 답방 성사 노력 합의</p> <p>* 만찬회동후 공동발표문</p> <p>-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까운 장래에 이뤄져 남북간 군사적 대결구도와 냉전구조가 청산되도록 하고, 이것이 남북 상호간 교류·협력의 증대는 물론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음.</p> <p>「한적」, 이산가족 서신교환 대상자 300명 확정</p> <p>- 이들 300명은 △1,2차 생사·주소확인 의뢰를 통해 북한내 가족을 찾은 122명 △1~3차 교환방문단 후보로 북측 가족을 찾았으나 방문단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64명 △1~3차 교환방문단으로 평양을 다녀온 이산가족 가운데 직계 및 고통자 우선 원칙으로 선정</p>	<p>스웨덴 수상 특사 외무성 총서기 한스 달 그렌 평양 도착</p> <p>「일제의 조선강점 비법성에 대한 남북공동자료전시회」 참가 남북학자, 일본당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책동규탄 공동성명 발표</p> <p>- 북과 남의 진체 역사학자들은 일본 극우의 반동단체인 「새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에 태평양 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으로, 조선 강점을 정당한 합병으로 서술한 역사교과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단호히 단죄 규탄하면서 이를 당장 중지하고 우리 민족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p>	<p>스웨덴 외무부 대변인, 스웨덴 대표단 평양 파견 발표</p> <p>- 남북대화에 스웨덴이 할 수 있는 지원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3.2 스웨덴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음.</p> <p>주한 독일대사관, 북한-독일 수교내용 발표</p> <p>- 북한과 독일은 3.1 일자로 외교관계를 수립했음.</p> <p>- 수교 관련 합의사항은 △북한내 독일 외교관과 원조기관의 활동자유 보장 △원조기관이 원조사업의 진행상황을 직접 보는 자유의 보장 △북한내 독일기자의 활동 편의제공 및 독일기자의 입국 허용 △인권, 지역안보, 군비축소,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기술</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	<p>정부, 美 국가미사일방어체제 추진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날의 세계 안보상황은 냉전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도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함.</li> <li>-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추구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을 신뢰하는 바임.</li> <li>- 우리는 미국정부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동맹국 및 관련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를 바랍.</li> </ul>		<p>비확산 문제 등 군비관리에 대한 논의 추진 등임.</p> <p>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경수로사업 보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하원 국제관계위는 부시 대통령에게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이 끝날 때까지 경수로 건설사업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li> </ul>
3. 3	<p>정부,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대북서한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영철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우리측 수석대표는 우리측의 「남북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에 관한 합의서」 수정안을 북측 박호영 단장에게 전달</li> </ul>	<p>외무성 대변인, 미국에 북미기본합의문 이행 실천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우리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2.21)를 두고 우리가 저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내돌리면서 조미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경우의 책임을 벌써 우리에게 넘겨치고 있음.</li> <li>- 미국측은 자기의 책임으로 빚어진 전력손실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함.</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4		<p>노동신문, '공동선언에 대한 태도는 통일문제에 대한 태도' 제하로 외세와의 공조배격 등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과 남이 북남공동선언에서 통일방도를 확정한 이상 안보라는 명목으로 외세와의 군사적 야합과 공조를 추구하지 말아야 함.</li> <li>- 또한 구시대의 사고방식과 관념에 사로잡혀 대화상대방을 주적이요 뭐요 하고 모욕하거나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해야 함.</li> </ul>	
3. 5	<p>임성준 외교통상부 차관보, 한미정상회담시 김정일 위원장 서울 답방 문제 논의 예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정상회담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임.</li> </ul>	<p>북-룩셈부르크 외교관계 설정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은 3.5 룩셈부르크에서 회담을 갖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하기로 합의</li> </ul> <p>「조총련」 의장 한덕수 영결식 참가 북 조의대표단(단장 : 양형섭) 평양으로 귀환</p>	<p>독일 DPA 통신, '스위스 육류산업단체, 북한에 쇠고기 700톤 지원'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우병 우려에 따른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다량의 쇠고기를 구입했던 스위스의 한 육류산업단체가 이중 일부(700t)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결정했음.</li> </ul>
3. 6	<p>김대중 대통령, 한미 동맹 재확인 예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전 인사말</li> </ul>	<p>외무성 대변인, 미 국무성의 「연례 마약 보고서」 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무성이 3.1 발표한 「연례 마약 통제보고서」에서 순수</li> </ul>	<p>뉴욕 타임스, '북, 미사일개발 포기 대가로 작년 10억달러 물품 요구'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6	<p>- 한미 정상회담은 부시행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열리는 중요한 회담임. 21세기 한미 동반자관계의 발전방향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임.</p> <p>현대아산 관계자, 최악의 경우 금강산 사업 포기 언급</p> <p>- 자금사정 악화로 북한에 지불해온 월 1,200만달러에 달하는 금강산사업 대가를 더 이상 송금할 수 없게 되었음.</p> <p>- 북한측이 관광사업 대가를 600만달러 수준으로 낮춰주지 않고 있는 데다 정부의 증자참여나 합작법인 설립 등도 여의치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음. 극단적인 경우 금강산 관광사업을 포기하겠음.</p>	<p>억측을 가지고 우리를 걸고 든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헐뜯고 우리를 고립·질식시켜 보려는 불순한 기도에서 출발한 것임.</p>	<p>- 지난해 10월 김정일·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면담시 △사정 사거리 300마일 이상 미사일개발 중지 △미사일 부품과 기술 원조를 포함한 미사일 수출중단을 약속하면서, 현금이 아닌 10억달러어치의 식량·석탄 등 경제회복에 필요한 물품 원조를 미국에 요청했음.</p> <p>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시간문제' 언급 * 기자회견(베이징)</p> <p>- 김대통령이 지난해 평양을 방문하여 김 위원장의 열렬한 환영과 성대한 접대를 받은 만큼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시간문제임.</p> <p>-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남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안정정책과 상반되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7	<p>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방북 계획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문화·관광·체육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3.10부터 4일간 평양을 방문함.</li> <li>- 이번 방문에서 남북문화장관회담의 정례화와 남북연계 관광문제, 제46회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를 중점 논의할 계획임.</li> </ul> <p>통일부 관계자, 현대-북한간 협상 통한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바람직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현대와 북측과의 관광 대가 조정협상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정부로서는 현대와 북측의 대가조정 협상이 잘 진행돼 사업의 활성화가 이뤄진 뒤에나 중·장기적으로 지원 가능한 것을 검토할 수 있음.</li> </ul>	<p>전금진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남북장관급회담 3.13-16 개최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남전통문</li> <li>- 제5차 북남상급회담을 3.13-16 서울에게 개최하자는 제의에 동의함.</li> </ul> <p>평방, 연방제 방식이 조국통일의 최선의 방도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비현실적임.</li> <li>-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는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임.</li> </ul> <p>정부문화대표단(단장 :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홍선옥), 러시아 및 유고 방문차 평양 출발</p>	<p>한미정상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정상은 북미 제네바 핵 합의 이행문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재래식무기 감축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음.</li> </ul> <p>&lt;공동 기자회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중 대통령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냉전을 종식하기 위해 두나라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고 대북정책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음.</li> </ul> <p>부시 대통령 나는 북한 지도자에 대해 약간의 회의심을 갖고 있음을 표현했음.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하지만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고 우려를 표명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7	<p>김대중 대통령, 포괄적 상호주의 바람직 언급</p> <p>* 한반도문제 전문가 간담회 (워싱턴 매디슨 호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무력도발 포기를 보장받고 그 반대급부로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포괄적 상호주의가 바람직함.</li> <li>- 미국과 한국은 대북정책에서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 시각 차이는 없음.</li> </ul>		<p>&lt;공동보도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은 한미 안보동맹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안보·정치 등 분야에서 한미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음.</li> <li>- 부시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김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음.</li> <li>- 두 정상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음.</li> <li>- 두 정상은 북미 제네바합의를 계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7			치를 취하도록 권장하기로 했음.
3. 8	<p>통일부, 남북노동절 행사 추진을 위한 「민노총」 등의 방북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과 노동절행사 및 농민통일토론회 개최 협의 목적의 방북을 승인</li> </ul> <p>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답방시 평화선언 없을 것'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기업연구소와 외교협회의 오찬 간담회(워싱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중 등 한국전 참전 4자간 회담에서 논의될 문제인 만큼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시 그 논의는 없을 것이며, 긴장완화문제는 평화선언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li> <li>-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불가침 합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임.</li> <li>- 북한의 취약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은 사안별로 동시적인</li> </ul>	<p>국제부녀절 91돌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인민문화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형섭, 김중린, 류미영, 백남순 등 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순희 「여맹」위원장 보고 : 당과 수령의 영도밑에 여성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담게 이바지하고 있음.</li> </ul> <p>북한-그리스, 외교관계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두 나라 대표들이 3.8 아테네에서 두나라 사이의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li> </ul>	<p>파월 미 국무장관, 제네바 합의 일부 재검토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년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기본합의를 계속 준수하되 경수로의 전용 가능성과 감독방법 등 일부 우려되는 부분을 재검토할 것임.</li> <li>- 현재 '94년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재검토 또는 변경을 원할 수도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임.</li> <li>- 북한을 통치하는 사람이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개방을 해야 할 것이나 일단 개방을 하면 어떻게 되든 북한은 붕괴될 것임. 우리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하는 일을 지지함.</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8	<p>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바람직함.</p> <p>- 포괄적 상호주의를 통해 한미 양국이 북한에게서 받을 것은 △제네바 합의 준수 △미사일 제조·판매 중단 △대남무력도발 포기 보장이며, 반대급부로 북한에 줄 것은 △북한 안전에 대한 한·미 보장 △적정한 경제협력 △국제사회진출 △차관 지원 등임.</p>		<p>IMF 및 IBRD 총재, '북한 워크샵' 제안</p> <p>* 방미중인 김대중 대통령과 조찬시</p> <p>- 북한에 IMF 등이 조사단을 보내 북한의 경제 시스템, 시급한 당면과제 등을 조사하고, 남북한과 국제기구가 참여해 북한의 경제재건 모델을 개발하는 '북한 워크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p>
3. 9		<p>북한 -브라질 외교관계 설정</p> <p>- 뉴욕에서 진행한 쌍무협상에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대사들을 교환하기로 합의</p> <p>중방, 주한미군의 특수작전용 MH-47E 직승기 배치계획 관련 대미 비난</p> <p>- 이 직승기는 미사일 등을 갖추고 고속기동과 공중급유를 할 수 있는 최신 직승기이며 이미 이라크 공습때 '사막의 폭풍작전'에 동원돼서 성능을 시험한 작전기라고 함.</p>	<p>워싱턴 타임스, '북, 미사일 수출부품 선적' 보도</p> <p>- 미국 정찰위성이 최근 며칠 사이에 남포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미사일 부품을 촬영하는데 성공했음.</p> <p>- 북한이 수출하려는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산 스킨드C 또는 스킨드B 미사일의 부품으로 제3국 조립용인 것으로 보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9		<p>- 미제는 겉으로는 조선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떠들면서 실제로는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강행하고 있음.</p>	<p>미 국무부 대변인, 대북정책 6대원칙 제시 * 정례 브리핑</p> <p>- 파월 국무장관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이르기까지 미 정부가 취해 온 태도는 대북정책추진에 관한 몇가지 핵심적 요소를 담고 있음.</p> <p>- 이는 △한·미·일 정책공조 △한반도 긴장완화 지지 △북한 정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대북 검증·점검 △북한 무기확산에 주목 등임.</p>
3.10		<p>중방,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평양 도착 보도</p> <p>- 김장관 일행이 3.10 평양에 도착하여 강능수 문화상과 면담했음.</p> <p>중방, '6.15공동선언은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0		<p>- 6.15 북남공동선언이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되는 것은 이 선언에 연방제와 같은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 이익이 반영되어 있고, 조국통일 실현의 근본원칙과 방도인 조국통일 3대원칙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임.</p>	
3.11	<p>김대중 대통령 방미 귀국 보고</p> <p>-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간 공조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음.</p> <p>- 미북 관계에 대한 한미 양국간 의견조절은 이제부터 협의할 것임.</p> <p>-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다소의 의구심을 표시한 것도 사실임. 부시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 염려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부시 대통령의 생각을 북한에도 전달할 생각임.</p>	<p>노동신문,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비난</p> <p>- 일본이 역사의 진실을 왜곡한 범죄적 교과서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분명 사리를 분별 못하는 정신적 미숙아들을 길러내는 것으로 밖에 안됨.</p>	<p>뉴욕 타임스, '부시 미 대통령, 대북정책 혼란' 보도</p> <p>-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문제 처리 방안을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끼여 혼란에 빠져 있음.</p> <p>- 파월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수출 및 생산을 중단하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워싱턴 강경파는 군사적 기술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p>
3.12	<p>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내의 150만벌 대북지원 의결</p>	<p>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장, 영국 외무성 차관 일행과 담화(만수대 의사당)</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3	<p>박재규 통일부장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연기관련 유감 표명 대북 전화통지문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이 예정된 회담 당일에 일반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온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임.</li> <li>- 회담일정을 다시 정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촉구함.</li> </ul>	<p>전금진 북측단장,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연기관련 대남 전화통지문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오늘 (3.13) 회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음.</li> </ul> <p>중방, 남북한 농민단체 및 노동단체 대표들 실무협의(3.10~11, 금강산) 진행 보도</p>	<p>미 국무부 대변인, 남북장관급회담 연기 미 국 탓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연기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노선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li> <li>- 북한은 전에도 회담을 취소해 일정을 재조정됐던 전례가 있음.</li> </ul>
3.14	<p>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방북결과 기자회견 * 김포공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호경 아·태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의 문화·관광·체육관련 고위 당국자들과 7차례 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이 구두합의를 했음.</li> <li>- 남북은 개성과 고성 내금강을 포함한 금강산지역을 관광자유특구로 지정해 육로관광을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오는 4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단일팀을 출전시키기로 합의했음.</li> </ul>	<p>노동신문, '미국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마라' 제하로 대미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올해에 들어와서 조선반도 주변에서 무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우리의 위협을 결코 침략적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을 강행하고 있음.</li> <li>- 미국이 우리에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상 우리도 그에 강경히 대응해 나갈 것임.</li> </ul> <p>중방,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일행의 평양 출발 소식 보도</p>	<p>존 커 영국 외무차관, 방북(3.10~12) 결과 설명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및 국방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 인사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li> <li>- 그러나 군부를 중심으로 한 북측 인사들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화해를 꾀려 한다'는 등 높은 강도로 미국을 비난했음.</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4			<p>매닝 미 외교관계협의회 국장, '대북 전력지원은 제네바 합의 위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아시아 방송 인터뷰</li> <li>- 남쪽이 북에 무상으로 전력을 지원하는 것은 제네바 합의문 위반임.</li> <li>- 남한이 북한에 전력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조사하려는 IAEA에 북한이 협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li> </ul>
3.15	<p>남북 이산가족 서신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문점을 통해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의 편지 300 통씩 교환</li> </ul> <p>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연기 관련 대책 논의 및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의 방북(3.10-14)결과 보고 청취</li> </ul>	<p>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 소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과 사회주의 헌법 제92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를 2001.4.5 소집</li> </ul> <p>북-유고 「2001-2003 문화교류계획서」 조인</p> <p>중방, '남을 걸고들지 말아야 한다' 제하로 대미 비난</p>	<p>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 한국의 대북정책 지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 브리핑</li> <li>- 부시 대통령은 김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려는 김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임.</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투명성 결여가 되어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생트집임.</li> <li>-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에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우리도 재갈길을 갈 것임.</li> </ul>	<p>파월 미 국무장관, 재미 이산가족 대북협상 의제 상정 언급 * 하원 예산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접근정책을 마련하고 있음.</li> <li>- 나는 재미 한국인 이산가족 문제를 우리가 상정할 대북협상 의제중 하나로 상정하고자 함.</li> </ul> <p>켈리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북한에 일방적 양보 없다'고 언급 *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떤 일방적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검증할 수 없는 협정은 맺지 않을 것임.</li> </ul>
3.16	<p>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개성 관광 대가 없다'고 언급 * 국회 문화관광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을 개방하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li> </ul>	<p>중방, '강권과 압력은 통하지 않는다' 제하로 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에서 미사일 위협을 조성하는 장본인도, 아태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li> </ul>	<p>미 백악관 대변인, 부시 대통령 아시아 순방 예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시 대통령은 오는 10월 일본과 한</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6	<p>추가 대가 지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함.</p> <p>- (개성 육로 관광과 관련) 북측과 관광 대가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p>	<p>군비경쟁을 부추키는 주범은 미국임.</p> <p>- 미국은 우리에게는 강권과 압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부질없는 책동을 그만둬야 함.</p>	<p>국을 방문하고 이어 상하이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임.</p>
3.17		<p>노동신문, '우리는 제 갈길을 갈 것이다' 제하로 미북기본합의문 파기 경고</p> <p>- 미국이 경수로대상건설의 지연으로 우리가 입은 피해보상대책은 세우지 않고, 우리더러 그 무슨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은 경수로대상건설을 질질 끌면서 우리의 자립적 핵동력공업발전을 가로막고 경제·군사적 잠재력을 약화시키자는 것임.</p> <p>- 우리는 이행되지도 않는 조미기본합의문에 무한정 구속되어 있을 수 없으며 제 갈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음.</p>	<p>일본 원폭피해조사단, 북 원폭피해자 현황 발표</p> <p>* 조사단은 북한내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해 방북(3.13-17)후 기자회견(북경)</p> <p>- 북한의 원폭 피해자 1,353명 가운데 928명이 살아 있으며, 이들은 일본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음.</p>
3.18	<p>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평양에 남북공동대학설립 발표</p> <p>- 한국의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과 연변과학기술대학측은 3.1 북한 교육성으로부터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설립을</p>	<p>「조평통」 서기국, '미국의 전쟁시기 살인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보상 요구</p> <p>- 최근 경산에서 있는 한 광산에서 미제침략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2,000구 이상의 유골들이 발굴되었음.</p>	<p>국제탁구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승인</p> <p>- 4.23부터 일본 오사키에서 열리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 출전을 승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8	<p>허가 받았음.</p> <p>- 이 대학 설립을 위해 북측은 평양 시내에 100만 km<sup>2</sup> 규모의 터를 제공하고, 대학시설의 설계 및 시공 뿐만 아니라 운영을 재단과 북측이 공동으로하기로 합의했음.</p>	<p>- 이와 같이 미제는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늑은이와 어린이 등에게 무차별적인 폭격과 총포탄사격을 가하는 피비린내 나는 인민대학살 만행을 감행하였음.</p> <p>노동신문,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비난 논평</p> <p>- 부시 행정부가 우리에게 위협 국가니 뭐니 하면서 강경대응으로 나가겠다고 한 것은 무력으로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극히 위험한 범죄적 기도임.</p> <p>- 부시 행정부가 고압적인 군사적 위협과 압력으로 우리를 굴복시켜 보려는 것은 심히 잘못된 선택임.</p>	
3.19	<p>통일부, 금강산관광 협력사업 변경 승인 유보</p> <p>- 현대가 금강산지역 해상호텔내에 카지노장 임대와 면세점 운영을 위해 신청한 「금강산관광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유보 조치</p> <p>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우즈벡 인력 경수로건설 현장 투입계획 발표</p>	<p>노동신문, 대미 관계개선 희망 논평</p> <p>- 미국을 선제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조미사이의 대결이 해소되고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임</p> <p>중방, 남한내 미군첨단장비 배치 관련 비난</p> <p>- 특수작전용 직승기 및 F-15 전투기 등 전쟁장비의 남조선</p>	<p>중국 북방항공, 평양노선 재취항 계획 발표</p> <p>- 3.26부터 매주 두차례(월·금) 북경-대련-평양 구간을 2년만에 재취항할 계획임.</p> <p>데루스케 주한 일본대사, 경수로 화전 대체 관련 한·미·일 합의 필요 언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19	<p>- KEDO는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20 우즈벡 인력(207명)을 공사현장에 투입할 계획임.</p> <p>「한적」, 아동용 내의 대북지원 계획 발표</p> <p>- 46억6천만원 상당의 아동용 내의 152만벌을 3.20 「북적」 중앙위에 보낼 계획임.</p>	<p>배치는 군사적인 힘으로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의 침략 야망이 변함없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p> <p>김일성의 금성뜨락또르 공장 현지지도 30돌 기념 보고회 진행</p>	<p>- 대북경수로의 화력 발전소 대체는 한국이 70%, 일본이 10억 달러의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한·일 양국과의 합의 없이 결정할 수 없음.</p> <p>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북에 제네바 합의 준수 촉구 * 정레브리핑</p> <p>- 북한이 제네바 기본 합의를 지키면 미국도 이를 준수할 것임.</p>
3.20	<p>통일연구원, 남북자 수 3,790명으로 발표 * 「북한인권백서 2001」</p> <p>- 휴전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모두 3,790명이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억류된 사람은 487명임.</p>	<p>중방, 미국의 NMD 추진 비난</p> <p>- 미국이 NMD 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다른 대국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 의도이며,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의 국가방위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임.</p>	<p>미북, 미군유해발굴 실무회의 개최</p> <p>- 미군유해 발굴장소를 확대하기로 한 지난해 12월 미북 유해발굴회담 합의에 따라 3.20부터 5일간 일정으로 평양에서 실무회의 개최</p>
3.21	<p>김대중 대통령,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연관성 강조 *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 만찬</p>	<p>노동신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의도 비난</p> <p>- 일본의 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p>	<p>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 미 대북정책 재검토 신중 필요 강조 * 한미협회초청 연설</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1	<p>- 남북관계는 미북관계의 진전없이 발전할 수 없고 미북관계도 남북관계의 발전없이 진전되기 어려움.</p> <p>-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봤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립이 안됐고 북한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임.</p> <p>대북지원관련 「민·관정책협의회」 1차회의 개최</p> <p>* 이 회의는 민·관 협력의 제도화 방안의 하나로써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에 의해 제안된 것임.</p>	<p>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군사적 해외침략을 국가정책으로 공식화하려는 의도로서 이는 일본의 파멸을 자초할 것임.</p> <p>중방, 노동신문 글 '강권을 이기는 힘은 민족의 단합' 보도</p> <p>- 미제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하여 민족자주통일로 좋게 흐르던 조선반도의 정세는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음.</p> <p>-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강권행사는 온 민족에 대한 도전임.</p> <p>-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이에 맞서야 함.</p>	<p>-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는 신중해야 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검증과 상호주의 프로그램이 필요함.</p> <p>- 또한 한·미·일 사이에도 협조 및 투명성이 이루어져야 함.</p> <p>미 민주당의원, 클린턴의 대북정책 승계 촉구</p> <p>* 국회의사당 기자회견</p> <p>- 비니 프랭크 하인의 원 등 5명은 부시 행정부에 대북 강경책을 포기하고 클린턴 정부의 포용정책을 승계해야 한다고 촉구</p>
3.22	<p>현대, 금강산사업 대북협상 미타결 발표</p> <p>- 3.20 출국한 김윤규 현대아산 및 현대건설사장은 금강산사업 대북지급금 협상을 위해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 협상중 정명예회장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거 귀국, 결국</p>	<p>김정일 위원장, 정주영 명예회장 유가족에 조전 전달(방송 및 대남 전화통지문)</p> <p>-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 민족대단결과 통일애국 사업에 기여한 정주영 선생의 사망에 즈음하여 현대그룹과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함.</p>	<p>조선신보, 제3차 총련 고향방문단 방한 발표</p> <p>- 제3차 총련동포 고향방문단이 4월6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고향을 방문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2	<p>대북지급금 문제에 합의를 보지 못했음.</p> <p>박재규 통일부장관, '정회장 사후 남북경협 지장없을 것' 전망 *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p> <p>- 정주영 명예회장의 별세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임.</p>	<p>김정일 위원장, 중국공산당 조 직부장 접견</p> <p>- 조명록, 지재룡, 왕귀장 등이 배석했으며 이날 저녁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최 만찬 개최</p>	<p>- 방문단은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위원회 채홍열 위 원장을 단장으로 80 명의 동포들과 수 행원 6명, 기자 2 명으로 구성됨.</p> <p>로빈 쿡 영국 외무장 관, 금년말에 평양에 영국대사관 설치 계 획 발표</p>
3.23		<p>노동신문, 부시 행정부 비난</p> <p>- 미국 정부가 선임 행정부 시 기에 우리와 진행해 오던 대 회를 중단하고, 있지도 않은 우리의 미사일 위협을 걸고 늘어지면서 군사적 압력을 강 화하고 있음.</p>	<p>파월 미 국무장관, 대 북 정책 검토 시사 * 전미신문협회 기자 회견</p> <p>- 미국은 한·일과 협 력 아래 정책검토 를 할 것이며 확고 한 정책적 입장이 확보되면 곧 우리 가 선택한 시기에 포용에 나설 것임.</p>
3.24	<p>북측 조문단(故정주영 명예 회장 조문) 서울 도착</p> <p>- 3.24 오전 10시경 평양 순 안 공항을 떠나 서해안 직항로를 통해 김포공항 에 도착.</p>	<p>제105차 IPU총회 북대표단, 평 양 출발</p> <p>- 4.1-4.7 쿠바 아바나에서 열 리는 제105차 IPU총회 북측 대표단(단장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장 김영대) 평양 출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4	<p>- 북측 조문단은 아태평화 위 송호경 부위원장, 강중훈 서기장, 리재상 참사, 리명일 참사 등 4명으로 구성</p> <p>KCRP, 남북 종교지도자 금강산 접촉 계획 발표</p> <p>-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와 베이징에서 접촉하기로 했던 당초계획을 북측의 요청에 의해 3.27 금강산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사흘간의 일정으로 접촉할 계획이라고 발표</p>	<p>중방, 제19차 봄 친선 예술축전 개최(4.15, 평양) 계획 보도</p>	
3.25	<p>임동원 통일부장관 취임</p>	<p>북-뉴질랜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p> <p>* 북한은 금년 현재까지 네덜란드(1.15), 벨기에(1.23), 캐나다(2.6), 스페인(2.7), 독일(3.1), 룩셈부르크(3.5), 그리스(3.8), 브라질(3.9) 등 총 9개국과 수교</p>	<p>뉴질랜드 외무장관, 북군비 감축희망 언급</p> <p>- 고프 외무장관은 북한에 원조계획은 계속 유지할 것이지만 추가 원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측의 군사비 지출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p>
3.26	<p>「한적」, 제4차 적십자회담 서울 개최 제의</p> <p>- 제3차 적십자회담(2000.1.30 공동보도문)에서 시기(4.3</p>	<p>노동당 국제부 대변인,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방북 계획발표</p> <p>- 올해안에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북을 공식 친선방문하기</p>	<p>미 외교협회(CFR), 제네바합의 재검토 건의</p> <p>- 3.22 부시대통령에게 전달된 이 권고</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6	<p>-5)만 합의하고 장소는 추후 협의·확정하기로 했던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장소를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전통문을 북측에 발송</p> <p>한·미·일 3자협의회, 대북 공조 지속 합의</p> <p>- 3국은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나가는 데 협력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공조를 더욱더 긴밀히 해나가기로 합의했음. 또한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추가적 협의를 위해 5월중 또는 이 보다 빠른 시기에 차기 3자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음.</p>	<p>로 중국 공산당대표단과 합의 하였음.</p> <p>북한 정부과학기술단 및 외무성 대표단,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p> <p>노동신문, '강도적 논리' 제하로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론 등 비난</p> <p>- 재래식 군사력 축감론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과 무력증강을 합리화 하기 위한 궤변으로 저들의 군사적 우세를 확보하여 우리를 불시에 타격하기 위한 뒤집어 놓은 북침론임.</p> <p>- 부시 행정부의 각계층이 우리의 미사일 및 재래식 군사력 축감문제 토의를 거론하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강도적 궤변임.</p>	<p>서한은 △한국의 포용정책 지지 △북한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종결을 위한 협상 재개 △한미간 포괄적 안보협의를 통한 대북 억지력 확보 △한·미·일간 3자 공조체제 강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p> <p>중국 북방항공, 베이징-평양 재취항</p> <p>* 북방항공은 '98년 3월 20일 베이징-다렌-평양노선을 처음 개설. 이후 '99년 4월 19일 승객 부족을 들어 운항을 중단하였음.</p>
3.27	<p>임동원 통일부장관, 화해·협력 정책 유지 강조</p> <p>* 취임사</p> <p>- 앞으로 남북간 화해·협력을 확대해가면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음.</p> <p>- 이를 위해 △기존 남북관계 모멘텀의 유지 발전</p>	<p>노동신문, 미 정부의 대북 강경 태도 비난</p> <p>- 미 권력층의 강경발언은 조미 관계를 폭발적 단계로 몰아가 북남 화해과정을 파탄시키고 조선반도 정세발전을 역전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행위임.</p>	<p>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 북한위협 상존 주장</p> <p>* 미상원 군사위원회 증언</p> <p>- 북한의 위협은 지난해 상황보다 심각함. 또한 과거보다 훨씬 더 할뿐 아니라 더 가깝고 치명적이고 집요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7	<p>△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유관국간 긴밀한 공조 및 협조체제 확보 △국민의 지지와 협조에 바탕을 둔 대북정책 추진 등 4가지에 역점을 두겠음.</p>		
3.28	<p>한국종교인평화회의(KCPR)-북한종교인협회, 금강산 접촉 종료</p> <p>- 양측은 이틀(3.27-28)간 금강산에서 접촉을 갖고 6.15 공동선언 1주년 기념 행사를 서울과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일본역사교과서왜곡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종료</p> <p>조총련계 축구선수 양규사, 현대 프로축구단 입단</p>	<p>북한탁구협회, 제46회 세계탁구 선수권 단일팀 불참통보</p> <p>- 현시점에서 쌍방이 완전합의를 이룩하기 어렵게 된 형편에서 준비상 관계로 유일팀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정식으로 알리는 바임.</p> <p>북·중 과학기술협조의정서 조인</p> <p>- 북한 강동근 과학원 부원장은 중국 리쉐용 과학기술부 부부장과 제37차 과학기술협조위원회를 열고 의정서에 각각 조인함.</p>	<p>ILO집행이사회, 6월 제네바 총회에 북한 옵저버 참석승인</p> <p>* 남북은 지난 91년 12월 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전까지는 각각 옵서버 자격으로 ILO에 참석했으나 한국이 정식회원국이 된 이후 북한은 옵서버 참석초청을 계속 거부해옴.</p>
3.29		<p>전국청년전위들의 사회주의 붉은기 총진군대회 개최(인민문화궁전)</p>	<p>스웨덴 EU 몰린데르 대사, 북한인권 우려 표명</p> <p>*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p> <p>- 북한의 인권상황이 많은 면에서 여전히 외부관찰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임. 특히 정치범의 상황, 법치의 부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29			그리고 전반적으로 열악한 인도적인 여건 등이 우려됨.
3.30	<p>국가정보원, 최근 탈북주민 12명 제3국 경유 입국 발표</p> <p>* 공식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금년 들어 모두 103명</p> <p>「한적」, 남북교류국 신설 발표</p> <p>- 이산가족상봉사업과 남북적십자회담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남북교류팀과 이산가족대책본부를 없애고 남북교류국을 41부터 신설함.</p>	<p>중방, 98.3월 이후 3천여명이 주소안내소를 통해 가족을 상봉했다고 보도</p> <p>북-이집트 「2001-2003 문화교류계획서」 조인</p>	<p>존 F. 케리 미 상원의원, 부시정부에 포용정책 추진 촉구</p> <p>* 워싱턴 포스트지 기고문</p> <p>- 부시 행정부는 전임 클린턴 행정부가 닦아놓은 틀을 깨지 말고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함.</p>
3.31	<p>통일부, 통일연대 금강산 방북신청 불허 통보</p> <p>- 금강산에서 북측 민화협과 실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통일연대측이 신청한 방북신청을 불허</p>	<p>노동신문, 김동신 국방장관 취임사 비난</p> <p>- 한미연합 방위체제, 정책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깨고 우리를 해치려는 의도임.</p>	<p>독일 외무부 차관-북 최수현 외무성 부상, 베를린에서 회담개최</p> <p>- 양국간 협력 방안과 남북한 화해, 대량 파괴무기 비확산 문제 등에 대해 논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	<p>「과학과 국제문제에 관한 퍼그워시 회의」 개막(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를 대주제로 △한반도 평화 △중국·대만·미국의 삼각관계 △미사일방어와 동북아 안보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 억제문제 등에 대해 토론</li> </ul> <p>임동원 통일부장관, 금강산 육로관광 추진 시사 * KBS-TV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채산성 문제가 불거진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 도로를 이용한 관광 등으로 사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음.</li> </ul> <p>김대중 대통령, 남북평화체제 구축 시급 강조 * 중국 인민일보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시급한 것은 남북간 상호 불가침과 냉전종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임. 또한 우리의 과제는 즉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임.</li> </ul>	<p>김영대 IPU총회 북측 단장, '미국의 대북정책 관망 후 대응방침 결정' 언급 * 기자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대북강경 태도는 시대착오적이고 상당히 불쾌한 것임. 미국이 올 상반기 중 대북정책을 정리하겠다고 했으니 이를 지켜본 뒤 대미 대응방침을 결정할 것임.</li> </ul> <p>노동신문, 미 NMD추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NMD 수립은 우리의 위협을 대비한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부당한 논리임. 부시 행정부가 중·러들에 대한 견제·제압 책동을 우리의 위협으로 감싸려하고 있는 것임.</li> </ul>	<p>EU집행위원회, 대북 수교 방침 15개 회원국에 통보</p> <p>佛 시민단체, 북 변화 촉구 성명서 발표 * 佛 「북한주민돕기 위원회」는 최수헌 부상 訪佛에 맞춰 '최씨는 무엇하러 파리에 왔는가' 라는 성명서를 발표, 북한의 변화를 촉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3	<p>「한적」,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 촉구 대북 전통문 발송</p> <p>한국관광공사, 남북연계관광코스 개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여행사인 라메종드라신사와 공동으로 남북한 연계관광상품을 기획하여 프랑스 관광단을 유치할 계획임.</li> <li>- 이 상품은 12박 일정으로 서울·경주 등 문화관광지를 경유한 후 북한의 관광지를 답사하는 코스로 짜여져 있음.</li> </ul>	<p>「조총련」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 참가차 평양 도착</p> <p>네델란드 경제대표단, 인민문화궁전에서 광범기 부총리와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델란드 대표단은 3.31 평양도착</li> </ul> <p>중방, 미국의 국제안보 담당 국무차관(존 볼트) 임명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우리의 정치체제를 헐뜯고 압력을 가하려는 오만 무례한 발언을 늘어놓은 인물을 지명한 것은 냉전 체제로의 복귀시도가 구체화되고 있는 증거임.</li> </ul>	<p>러시아 외무차관, 김정일 방러 일정 불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타르타스 통신</li> <li>- 김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일정에는 변화가 없으며 그 시기가 4월 중순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구체적인 방문일정은 양측이 서로 비공개하기로 한 사항임.</li> </ul> <p>독일 농무부 대변인, 쇠고기 1만8천톤 대북 지원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쇠고기 지원은 해당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검사를 거칠 것이며 쇠고기 지원비용은 약 3천만 마르크 정도임.</li> </ul> <p>ADB 총재, '북한 정회원 가입 검토중'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노다다오 총재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가입여부와 관련된 회신을 보내주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4		<p>노동신문, 블레어 미 태평양 총사령관 발언 비난</p> <p>- 우리공화국이 미국의 제일 주적이니 남조선과 일본전역을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느니 뭐니하는 호전적인 말을 하고 있음. 이는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기어이 우리와 대결의 길로 나오겠다는 발로임.</p>	
4. 5	<p>제1회 「과학과 국제에 관한 퍼그위시」 서울회의 종료</p> <p>- 비공개로 4.2~5 일정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문제,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계가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토론</p> <p>두만강개발계획 5개국위원회, 사업지역 확대 합의</p> <p>* 제5차 회의(4.5, 홍콩)에서 사업범위를 현재의 청진·연길·나훔가 지역에서 몽골·한국·일본 등지로 확대키로 합의</p>	<p>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 개최(만수대의사당)</p> <p>* 김정일,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김영춘, 계웅태, 최영림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4.5 당일 종료</p> <p>&lt;의 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각의 2000년 사업정형과 2001년 과업(홍성남 총리보고)</li> <li>· 2000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1년 국가예산(약99억달러)(문일봉 재정상 보고)</li> <li>·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채택 법률안 승인(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li> <li>· 조직문제</li> </ul> <p>- 홍성남 내각총리는 보고에서 모든 나라들과 자주성·내정불간섭·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며 국제기구사업에 적극</p>	<p>독일 의회 대표단 방북계획 취소</p> <p>- 이달 말 판문점을 통해 방북하려던 코시크 하원의원 등 독일 의회대표단 7명은 북한이 중국을 경유해 입북할 것을 요구하자 방북을 취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5		<p>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p> <p>가수 김연자 평양도착 * 제19차 4월의 봄 친선축전 (4.10~18)참가차 방북</p>	
4. 6	<p>제3차 「총련, 고향방문단 방한 * 총 72명으로 구성(단장 : 채홍열 재일본 재일동맹 위원장)</p> <p>통일부, 1/4분기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281억 3천만원으로 집계 발표</p> <p>- 이는 작년 동기 56억 2천만원 대비 5배이상 증가된 것으로서 이 가운데 농업의 농산물지원 159억 3천만원을 제외할 경우 122억 5천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배 증가한 것임.</p> <p>김대통령,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 진행 언급 * 코스타리카 대통령과의 만찬시</p> <p>- 지금 한반도는 평화와 화해협력의 새 역사가 열리고 있으며 남과 북이 반세기의 갈등과 적대를 뒤로 하고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새로운 길을 함께 개척해 가고 있음.</p>	<p>북-네델란드, 평양에서 경제무역관련 회담 개최</p> <p>- 무역성 김룡문 부장과 네델란드 경제성 국제무역 및 투자위원회 위원장 도미니크 바우든간 회담 개최</p> <p>중방, 미·일 상설사무국 설치 비난</p> <p>- 이는 미국이 일본과 동맹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잡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결국 이 기구가 합동군사지휘부가 될 것임은 자명함.</p>	<p>美전략문제연구소(CSIS), 북한 대포동 2호 시험발사 가능성 제기 *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보고서</p> <p>- 북한은 올해 대포동 2호를 발사할 가능성이 있음.</p> <p>- 현재 개발중인 이 미사일은 2단계 추진을 통해 수십kg의 탄두를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운반 가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6	<p>정부 및 민주당, 금강산 관광선내 카지노 허용불가 입장 확인</p> <p>* 통일관련 당정 임시대책 협의</p> <p>- 장전항에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북한이 정할 문제이나 관광선상에 설치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선이 내항선이므로 내항선에는 카지노를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함.</p>		
4. 7	<p>통일부, 3월말 현재 대북협력기금 신청 10개 단체로 집계 발표</p>	<p>외무성 대변인,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지 촉구 성명</p> <p>- 일본 당국은 최악의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분식하는 책동을 당장 중지해야함. 우리는 이러한 역사관을 가진 일본당국이 과연 조·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p> <p>김일성의 북청확대회의 40돌 기념 중앙보고회 북청군에서 진행</p> <p>* 계응태·곽범기 등 참석</p> <p>가수 김연자, 청년문화회관에서 공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8	<p>대외경제연구원(KIEP), 남북 교역 확대 가능성 분석 자료 공개</p> <p>* 「한국의 교역패턴 및 지역경제권의 영향」 보고서</p> <p>- 동 보고서에서 남북한간 연간 교역규모 2억9천만 달러는 거리, 인구, 인접 여부 등 지리적 요인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정상 교역규모(14억달러)의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p> <p>- 만약 교역장애 요인이 제거된다면 남북간 교역규모는 43억달러까지 확대 될 수도 있다고 평가</p>	<p>전국 과수부문 일꾼회의 북청군에서 진행</p> <p>* 김창식 농업상 등 참가</p>	<p>UN·NGO, 최근 대북 구호활동에 대한 북측 태도 변화 양상 공개</p> <p>* 유엔 인도지원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명서</p> <p>- 북한은 구호단체들의 활동지역 확대를 허용했으며 모니터링을 위한 수혜자 가정방문도 거부하고 있지 않음.</p> <p>- 아울러 원조계획을 둘러싼 북한 당국과의 협의도 개선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고 있음.</p>
4. 9	<p>중국 다이빙귀 대외연락부장 방한</p> <p>통일부, 현대 지원설 부인</p> <p>* 보도자료</p> <p>-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정부는 현대는 물론 어떤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대북사업 참여를 요청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p>	<p>김일성 위원장 추대 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문화회관)</p> <p>노동신문, '비굴한 청탁놀이' 제하로 대일 비난 논평</p> <p>- 일본 총리 등이 최근의 수뇌 회담에서까지 허황한 납치문제를 집요하게 들고 다니는 것은 과거청산을 회피해 보려는 비열한 모략의 산물이자 일제의 침략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인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국제정의와 세계의 양심에 대한 도전임.</p>	<p>미 국무부, 내년 대북 중유 9천만달러 지원 방침</p> <p>- 2002 회계연도에 포함될 이 액수는 KEDO에 지원할 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서 이는 지난해 지원액 5천 487만 9천달러에 비해 73.1% 증액된 것임.</p> <p>중국 국제방송, 북한 경제 호전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9			<p>- 북한의 공업과 농업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총체적 경제정세도 뚜렷하게 호전되기 시작했으며 인민생활도 개선되었다고 보도</p> <p>「제인스 인테리전스 리뷰」, 북한 대규모 컴퓨터 생산능력 보유 평가</p> <p>- 북한은 이미 대규모 컴퓨터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고, 해킹기술 및 컴퓨터 바이러스 주입 능력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통신망이 광케이블로 대체되고 있고 군부대간 또는 정부부처간 컴퓨터망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p>
4.10	<p>김대중 대통령,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의지 강조</p> <p>* 캄보디아 총리와의 만찬</p> <p>- 북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햇볕정책은 유일한 대안임.</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스위스 외무성 국무비서 프란츠 폰 데니겐과 담화 (만수대 의사당)</p> <p>김정일 위원장, 제884 비행군부대 시찰</p> <p>* 현해철, 박재경 동행</p>	<p>스웨덴 총리 대변인, EU 대표단 남북 동시 방문 계획 발표</p> <p>- 페르손 스웨덴 총리, 크리스 패튼 대외관계 담당 EU 집행위원, 하비에르 솔</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0	<p>- 앞으로 화해·협력을 더욱 확실하게 뿌리내리면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시키는데 주력해 나갈 것임.</p> <p>통일부, 20~30년후 통일 가능 전망 * 홍보책자 ('대북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p> <p>임동원 통일부장관,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대북사업 추진 언급 *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p> <p>- 민간차원의 경험은 정경분리 원칙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 스스로 상업적 판단과 책임하에 추진 중이며 정부가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경험을 추진한다는 것이 아님.</p> <p>합참, 북한 경비정 북방한계선(NLL)월선 발표</p> <p>- 4.9 오후3시 44분경 북한 경비정 한척이 서해 백령도 서북방 6마일 해상에서 20분간 NLL남쪽으로 3마일 가량 침범했다가 4시 6분경 다시 NLL 북쪽으로 올라갔음.</p>	<p>제1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문화회관) * 홍성남(축하연설), 양형섭, 정하철, 장철(개막사), 강능수, 양만길 등 참가</p> <p>- 홍성남 내각총리는 개막식 축하연설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을 일관성 있게 관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와 친선 및 문화적 연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힘.</p> <p>이형철 유엔주재 북한대사, 미국의 NMD추진 비난</p> <p>- 미국은 NMD체제 구축을 위해 부당하게 우리를 비난하고 있음. 이에 대해 우리의 대응은 범위와 깊이에서 제한이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할 잠재력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p>	<p>라나 EU외교안보정책 대표 등 EU 대표단이 5.2-4 남북한을 방문할 예정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0	<p>- 또한 4.10 오전 9시 30분 경 150톤급 경비정 1척과 200톤급 1척이 서해 연평도 서방 11마일 지점에서 북방한계선을 6분간 침범했다가 북측으로 복귀하였음.</p>		
4.11	<p>김대중 대통령, '북한도 미국과 대화 희망' 견해 표명 * 필그림 미 상원의원 등 접견시</p> <p>-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북한은 최근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고 미국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내용을 보면 미국과의 대화를 몹시 바라고 있음.</p> <p>김대중 대통령,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다이빙귀 접견</p> <p>- 김대통령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서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을 표했고 이에 대해 다이빙귀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남북간의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 노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개진함.</p>	<p>김정일 위원장, 함흥에서 김연자 공연 관람 * 정하철, 현철해, 박재경, 이태남, 장성택, 주규창 등 동행</p> <p>김정일 위원장, 함흥시내 공장·기업소 현지지도</p> <p>태양절 기념 송화미술원 미술전람회 개막(평양국제문화회관)</p>	<p>파월 미 국무장관, '현 단계에서 대북 외교관계 수립 불고려' 언급 * EU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p> <p>- 북한은 아직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국가로서 현 단계에서는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대통령 당시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끝날 때까지 북한정부와 접촉할 계획이 없음.</p> <p>페르손 스웨덴총리, EU 대표단 방북목적 언급</p> <p>- EU 대표단의 이번 방북은 북한과의 화해를 통해 북한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1			어두운 곳으로부터 끌어내려는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
4.12	<p>통일부, 「하나원」 현황 공개</p> <p>- 「하나원」 개원(99년 7월) 이후 4.12 현재까지 총 12개기 470명이 입소하고 10개기 357명이 사회에 편입되었으며, 현재 2개기 112명이 교육중이며 그중 남성이 273명(58%) 여성이 197명(42%)임.</p> <p>「한적」, 북한측에 이산가족 서신교환(3.15, 300통) 결과 상호 교환 제의</p> <p>* 연락관 전화통보</p>	<p>중방,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비난</p> <p>- 이 훈련은 미제 침략자들이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그것을 실질적인 전장도발의 계기로 이끌어갈 위험천만한 모험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임.</p> <p>「청년전위들의 충성의 맹세모임」 진행(금수산기념궁전)</p> <p>가수 김연자 일행 평양 출발</p> <p>* 문화성 송석환 부상 등이 전송</p> <p>북-시리아, 「2001-2003 문화협정 이행 집행계획서」 조인</p> <p>인민군 승진 관련 「최고사령관 제00140호 명령」 발표</p> <p>* 상장 1명, 중장 3명, 소장 15명 승진 인사</p>	<p>유엔 인도지원국, 올해 대북 지원자금 3억 8천만달러 책정</p> <p>- 이중 식량지원 3억 6천만달러, 보건·영양지원 1,754만달러, 식수·위생지원 250만달러, 사업조정지원 130만달러, 교육지원 49만달러로 각각 책정</p> <p>- 국제기구별로는 세계식량계획(WFP)이 3억1,592만달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4,000만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이 1,050만달러, 세계보건기구(WHO)가 835만달러, 비정부기구(NGO)가 711만달러 지원 예정</p>
4.13	김대중 대통령, 한미 안보동맹 관계 강조	인민군, 태양절 즈음 김일성·김정일에 충성맹세 예식 진행(인민문화궁전)	이태리 FILA社, 스포츠유니폼 대북 지원결정 발표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3	<p>* 리처드 셀비 미 상원의원 정보위원장 접견시</p> <p>- 양국 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근간으로 한국의 대북 화해 협력정책도 한미 안보동맹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음.</p> <p>-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 속에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내에서의 역할을 당부함.</p> <p>남북한, 이산가족 서신교환 결과 교환</p> <p>* 연락관 전화통화</p> <p>농림부, 「북한 농업지원 협력단」 발족 발표</p> <p>- 북한 농업개발에 대한 전문적 기술자문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기구를 민·관 북한농업전문가 21명으로 구성하였음.</p> <p>- 분야별 협의과제는 △씨감자 생산 및 바이러스검정기술협력 △협동농장단위 중소규모 관개시설개발 협력 △잠업 생산성증대와 품질개선지원 협력</p>	<p>*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박기서, 이종산, 김용연 등 참석</p> <p>평양 「고려의학종합병원」 개원</p> <p>제4차 「현 시대와 민족예술에 관한 미술토론회」 진행</p> <p>* 제1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국 관계자 참석</p>	<p>* 휠라코리아 윤운수 대표 이태리 본사로부터 계약체결 사실 접수</p> <p>- 앞으로 3년간 북한 올림픽위원회 산하 22개 종목 대표팀 유니폼을 모두 지원하고 국제대회성적에 따라 상금까지 주는 북한 스포츠 지원계약을 체결했음.</p>

■ 4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3	<p>△축산업 발전방향과 민간기업의 협력사업 추진 △과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 등임.</p>		
4.14	<p>외교통상부, '김정일 여름 이후 답방 전망' 마이니치신문 보도내용 부인</p> <p>김동신 국방장관, 군사적 신뢰구축 통한 긴장완화 추진 언급 * 국방부 업무보고</p> <p>-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현 국내의 안보상황은 전환기적 상황임을 직시하여 새로운 인식과 발상으로 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음.</p> <p>-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긴장완화를 적극 추진하되 이에 따른 장비의 대적관과 안보관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음.</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 의사당에서 체코공산당 대표단(단장 : 스테판 공산당 총비서)과 환담</p>	<p>UN, 북한내 국제기구 활동 현황 공개 * 대북지원호소 보고서</p> <p>- 현재 유엔 산하 기구와 국제사회의 비정부기구(NGO) 등 18개 국제기구의 90명이 북한에서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음.</p> <p>- 여기에는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적십자연맹(IFRC),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소 등이 활동 중임.</p>
4.15		<p>김정일 위원장, 인민군 제2629부대 및 제580부대 시찰 * 리명수 등 장령 수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6	<p>임동원 통일부장관, 북한의 남북장관급회담 연기 배경 관련 언급</p> <p>* 「통외위」 답변</p> <p>- 북측이 지난 3월 대남전통문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의 연기사유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라고 한 것은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이 정립될 때까지 기다려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함.</p> <p>「전경련」, 대북 내의 지원 추진계획 발표</p> <p>- 북한에 내의 100만벌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50억원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맡길 계획임.</p> <p>- (주)태창 등 국내 중소기업체들이 지난해 북한에 보낼 내의를 만들었다가 내의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지원계획을 추진키로 했음.</p>	<p>외무성 대변인, 「한미연합전시증원(RSOI)연습」 비난담화</p> <p>- 이 같은 전쟁연습은 대화상대방을 위협하지 않기로 한 조미사이의 합의를 뒤집고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시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을 실증하는 것임.</p> <p>- 미국의 전쟁책동에 남조선당국이 노골적으로 동조·가담하려는 것은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행위임.</p> <p>김정일 위원장, 인민군 제347포대대 및 제757부대 시찰</p> <p>*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장성택 등 수행</p> <p>노동신문, 군축협의 선결조건으로 미군철수 주장</p> <p>- 우리는 미제 침략군의 위협을 받는 조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무력감축을 할 수 없음. 미국이 진심으로 조선반도에서의 군축과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의 상용무력감축문제를 논하기 전에 남조선 강점 미군부터 철수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함. 이것이 조미관계의 중핵이며 관건임.</p>	<p>이바노프 러 외무장관, '김정일 위원장 방러문제 협의중' 언급</p> <p>-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임. 모스크바와 평양은 현재 외교채널을 통해 김위원장의 방러 일정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또한 방문 날짜는 후에 추가로 공표될 것임.</p> <p>페르손 총리, EU대표단 남북한 방문시 북한 미사일 문제 논의 시사</p> <p>* 스웨덴 라디오 방송 회견</p> <p>- EU대표단의 남북한 방문시 북한의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체제에 관해 논의하겠음. EU가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검토하고자 한다는 인상을 주는 논의는 없을 것임.</p> <p>- 이번 방문은 남북간 긴장완화를 촉진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6		<p>김정일 위원장, 쿠바공산당 창당 40주년 즈음 카스트로 당중앙위 제1비서에게 축전</p> <p>- 양국의 우호·협력 확대와 반제 공동투쟁을 강조</p>	<p>는데 있으며 유럽과 남북한간의 경협, 북한 인권문제, 인도주의적 지원방안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임.</p> <p>세계식량계획(WFP)북한지부 대표, 북한의 곡물수확 현황 공개 * 기자회견(베이징)</p> <p>- 세계식량계획 북한지부 데이비드 모튼 대표는 지난해 가을 북한의 옥수수와 보리 수확량은 비료부족과 봄가뭄으로 인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480만톤 가운데 300만톤에 그쳤다고 밝히면서, 올해가 지난해보다 영양결핍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p>
4.17	<p>김대중 대통령, '북·미관계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변수'라고 언급</p> <p>* 뉴스 위크지 특별회견</p> <p>- 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자들은 여러번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약속</p>	<p>김정일 위원장, 제841군부대 및 제998부대 시찰</p> <p>* 전재선 차수, 리명수·현천해·박재경 대장, 리용철·장성택 당중앙위 제1부부장 등 수행</p>	<p>텍사스 주립대, 「한반도학술회의」 개최</p> <p>* 조지 부시 前 미국 대통령·제임스 베이커 前 국무장관·윌리엄 페리 前 국방장관·존 매클러런 CIA부국장·</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7	<p>했었음. 변수는 북미 관계이며 양국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이지만 만일 미국과 북한이 미사일 및 다른 현안들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다면 김위원장의 방문은 보다 확실해질 것임.</p> <p>- 향후 남북관계는 미국이 대북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상당부분 달려있음.</p> <p>「한국노총」·「민주노총」, 남북노동자 공동기념행사 추진 일정 발표</p> <p>-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 600명은 4.30 금강산을 방문, 북한 「직총」 소속 1,000여명과 공동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 반대 서명식을 갖기로 하였음.</p>	<p>평방, 미국의 재래식 무기감축 요구 비난</p> <p>- 미국이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바란다면 우리의 미사일 문제와 상용무력 감축 문제를 논하기 전에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부터 철수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함. 재래식 무기 감축론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리화하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논리성과 타당성이 없음.</p>	<p>양성철 주미대사 등 참석</p> <p>- 「오늘의 북한 : 포용인가 대치인가」를 주제로 △북한의 내부동향 △한반도 군사상황 △남북관계 현황 △미국의 동북아 정책 등에 대해 토론</p> <p>UNDP, 대북 비료지원 호소</p> <p>* UNDP 특별보고서</p> <p>- 북한은 올해 농사를 위해 최소한 62만톤의 비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량은 27만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올해 북한의 식량 확보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대북 비료지원을 호소</p>
4.18	<p>임동원 통일부장관, 김정일 위원장 답방시기 예측근란 언급</p> <p>*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예방시</p>	<p>제19차 4월의 봄 친선축전 폐막 (4.25 문화회관)</p> <p>* 양형섭, 정하철, 장철, 강능수, 양만길 등 참석</p> <p>- 축전에는 46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86개 예술단체 740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8	<p>- 김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는 것은 서로 합의된 만큼 약속을 지키리라 기대함.</p> <p>- 다만 구체적인 일정협의를 없었으며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움. 올 4-5월에 방문해달라는 의사를 표명한 적은 있으나 지금은 좀 지연되는 것으로 생각함.</p> <p>통일부, 「남북수송장비 운행 승인고시」 개정</p> <p>- 남북한 사이를 오가는 선박의 운행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골자로 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한간을 왕래하려는 선박은 북한주민접촉 승인서 사본, 운행계획서, 선박재원, 보험증서, 통신체계도, 항로도 등을 통일부에 제출해 장관의 운행 승인을 받아야 함.</p> <p>홍양호 통일부 인도지원국장, '대북 비료지원 검토 중' 언급</p> <p>-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모내기철인 5월 중순경 북한에 비료 20만톤</p>	<p>명의 예술인들이 초청됐음. 폐막식은 우수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식, 김정일 총비서에 대한 편지 채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 감사문 전달 등으로 진행</p> <p>중방, '냉전적 사고와 행동방식 으른 얻을 것이 없다' 제하로 대미 비난</p> <p>- 냉전적 사고와 행동방식을 버리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세계평화와 미국 자신을 위하여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미 행정부는 때 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좋을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8	<p>규모를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중임.</p> <p>- 지원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년수준이 될 것임.</p> <p>통일부, 국양해운(주)에 인천-남포간 정기운행(월 3회 이상) 승인</p>		
4.19	<p>합참, 북한 경비정 1척 북방한계선 (NLL) 越線(4.19) 발표</p> <p>* 금년들어 북한의 NLL침범은 현재까지 다섯차례 (2.5, 3.3, 4.9, 4.10, 4.19)</p> <p>임동원 통일부장관, 北체제 점진적 변화 전망</p> <p>* 국방부 및 합참 강연</p> <p>-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서 북 체제도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임. 정부는 이 같은 변화 흐름에 맞춰 북한을 상대해 나갈 것임.</p>	<p>「북적, 「한적」에 요소비료 20만 톤 지원 요청</p> <p>* 서영훈 한적총재 앞으로 장재인 「북적」위원장 명의의 대남 전화통지문</p> <p>- 북과 남 사이에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서 협력해 온 전례를 가지고 있음. 우리는 귀측에 올해 농사에 쓸 비료 20만톤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력해 줄 것을 제안함. 비료 인도·인수 방법 등 실무적인 절차는 지난 시기와 같이 하면 될 것임.</p> <p>노동신문,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비난 논평</p> <p>- 94년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은 지난해부터 주일미군까지 참가하여 전쟁도 발을 위한 실전훈련으로 실시되고 있음.</p>	<p>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영국간 2000년 교역규모 2천663만달러로 집계 발표</p> <p>- 북한의 2000년 대영 수출은 130만여 달러이고, 수입은 2천533만여달러로 총 교역은 2천663만여 달러임. 이는 '99년 2천455만달러, '98년 1천 942만달러 대비 각각 8.5%, 37% 증가한 것임.</p> <p>유엔 인도지원사무국, 금년도 1/4분기 외부의 대북 식량지원 15만여톤으로 집계 발표</p> <p>- 미국이 밀 3만5천 톤, 일본이 쌀 8만 톤, 한국이 옥수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19		<p>김정일 위원장, 「총련」에 자녀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 2억4천 660만엔 전달</p> <p>* 지금까지 147차에 걸쳐 총 446억 396만 3천엔 지원</p> <p>노동당 중앙위원회, 베트남 「제9차 공산당 전당대회」 축전 발송</p> <p>* 북한은 50년 1월 베트남과 수교후 단교, 84년 대사급 외교관계 재개</p> <p>- 우리는 베트남 공산당 제9차 대회가 귀당을 강화하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음.</p>	<p>1만5천톤, 유럽연합이 밀 9천톤 등을 지원하였음.</p> <p>존 매클러런 미 CIA 부국장,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제기</p> <p>* CNN방송</p> <p>- 지난 94년 이후 북한 영변의 핵 발전소는 가동이 중단됐지만 우리는 아직 북한의 플루토늄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함. 아마도 북한이 한 두 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화학무기와 함께 생물학 무기도 개발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p>
4.20	<p>김대중 대통령, 남북관계 소강국면 극복 노력 언급</p> <p>*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 간담회</p> <p>-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사업 등의 남북협력사업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함.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이지만 이를 극복하기</p>	<p>외무성 대변인,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중지 촉구</p> <p>- 중동문제의 공정하고 포괄적 해결을 위한 아랍인민들의 정당한 위업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냄. 중동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파괴하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레바논 공습은 노골적인 침략행위로서 이를 단호히 규탄함.</p>	<p>로스코프 러시아 외무차관, 김정일 위원장 방러일정 연기 시사</p> <p>* 이타르타스 통신</p> <p>-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북한측의 요청에 따라 연기되었으나, 올해 중 성사될 수 있을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20	<p>위해 지혜를 모아야 함.</p> <p>남북노동자단체, 「5·1 남북노동자 공동기념 행사」 관련 금강산 실무접촉 진행</p> <p>*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 3명 방북</p> <p>김동신 국방장관, 미국의 원-원 전략 수정 가능성 관련 언급</p> <p>* 대통령 주재 통일·외교·안보 장관 간담회</p> <p>- 현재 미국이 내부적으로 원-원 전략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인 만큼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음.</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페루 대사에 유창운 임명</p>	<p>러시아 소리방송,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 남북화해에 악영향' 보도</p>
4.21		<p>평방,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비난</p> <p>- 부시 행정부가 미국식 위선과 오만에 젖어 아직도 낡아빠진 힘의 정책, 냉전정책에 기초하여 주권국가를 억누르겠다고 강경 대응을 운운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오산이며 그것이 우리에게서 절대로 통할 수 없음.</p>	<p>IAEA 데이비드 키드 대변인, 북한의 핵 보유 여부 확인 곤란 언급</p> <p>- '94년 이후 북한에 대한 일체의 핵사찰을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탄두를 만들 충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21		김정일, 「러시아 협주단」의 만수대예술극장 공연 관람 * 김국태, 계응태, 한성룡, 김중린, 정하철, 장철, 강석주, 이용철, 장성택, 현해철, 박재경 등 관람	
4.22	「한국노총」·「민주노총」, 남북노동자 행사 일정 발표  - 4.20~21 양일간 금강산에서 북측 「직총」 대표단과 협의를 갖고 5.1 노동절 남북공동행사 개최일정(4.30~5.2, 금강산) 등을 최종 합의하였음.  - 이 행사에는 남측 양대노총 노동자 600명, 북측 「직총」 소속 노동자 600명과 취재진 및 행사요원 100여명 등이 참석함.  - 정식명칭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로 결정하였음.	군창건 69돌(4.25) 기념행사 진행 (인민문화궁전)  노동신문,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은 전쟁의 화근' 제하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등 비난	스웨덴 외무부, EU 대표단 방북(5.2~3)시 서방기자 52명 동행 예정 발표
4.23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 대북 비료지원 방침 결정  - 북에 대한 비료지원 방침은 결정하고 다만 지원	중방, 미 행정부 대외정책 관련 비난  -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지 석달이 되었으나 국제관계 분야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년 미-북 교역 99년 대비 74.4% 감소 집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23	<p>규모와 시기, 절차 등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하기로 함.</p>	<p>지 못하고 있고 정부내 견해의 일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하나같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간섭 지배하자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양국간 교역은 총 289만1천 달러로 1999년 1천129만4천달러와 비교시 74.4% 감소하였음.</li> <li>- 2000년 북한의 대미 수출은 15만 4천달러, 수입은 273만 7천달러였으며, 옥수수가 전체수입의 84%인 230만8천달러로 수입품목 1위였음.</li> </ul>
4.24	<p>김대중 대통령, 대화 통한 미북 관계 해결 강조 * 創軍원로와의 오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지금 미국과 간절히 대화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와도 협조하려고 하고 있음. 미국으로도 북한으로도 대화로 문제를 푸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음.</li> <li>- 북한을 믿으니까 주고받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하니까 주고받자는 것임. 상대가 약속을 지키면 서로 믿음이 생기는 것임.</li> </ul>	<p>노동신문·조선인민군 공동논설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지애에 당과 혁명의 전도가 달려 있음. 김정일 동지의 영도 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동지의 구호를 더욱 추켜들고 나가야 함.</li> <li>-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해 사상문화적 침투를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음. 자그마한 비사회주의적 요소도 허용할 수 없음.</li> </ul> <p>김영춘 총참모장, 군창건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대미 비난 * 인민문화궁전</p>	<p>세계식량계획(WFP), 북한 식량배급 감량 확인 * 세계식량계획 긴급구호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3월 들어 북한의 식량 배급량이 성인 기준 하루 300g~400g에서 200g으로 감소되었음.</li> <li>- 올해의 경우 지난해 곡물 수확분은 1월말 이미 배급이 끝나 북한의 춘궁기가 예년에 비해 일찍 시작됐음. 지난 3월 미국이 밀 3만톤과 콩 1만톤</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24	<p>통일부, 3월말 현재 북한이 탈 국내 거주자 1,285명으로 집계 발표</p> <p>* 국회 예결위 보고서</p> <p>- 3월말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1,508명으로 그중 사망 190명, 이민 33명을 제외한 총 1,285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98년 71명, 99년 148명, 2000년 312명, 올해 1-3월 101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p>	<p>- 미국의 무모한 도발과 침략책동으로 완화와 통일로 나아가던 조선반도 정세는 또 다시 대결과 긴장 격화로 되돌아갈 위험이 조성되고 있음.</p> <p>- 미국은 조미 관계의 진전도, 북남화해와 자주통일의 기운도 차단해 버리고 우리와의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있음.</p> <p>베트남 방문 노동당 대표단(단장 : 최태복) 평양 귀환</p> <p>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일행 평양 도착</p>	<p>등 총 1천90만달러 어치의 곡물을 WFP에 기여했으나 34만9천톤 상당의 곡물이 여전히 부족함.</p> <p>태국 아디사이 상업장관, 대북 쌀 판매 계획 발표</p> <p>* 방콕 포스트紙</p> <p>- 태국정부가 해외에 판매할 쌀 200만톤 중 북한에 약 50만톤을 판매할 예정임.</p> <p>- 이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무역성 장관이 5월말 태국을 방문할 예정임.</p>
4.25	<p>통일부, 2001년도 1/4분기 남북교역 현황 발표</p> <p>- 1/4분기 남북교역액은 7천 656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에 그쳤으며 이중 대북지원과 경수로 발전소 건설 등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실질 거래는 4천348만달러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음.</p> <p>- 또한 1/4분기 중 남북교역업체는 총193개, 남북간</p>	<p>노동신문, 군창건 기념 논설</p> <p>- 누구나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워야 함. 전체 인민들은 인민군 군대가 창조한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워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야 함.</p> <p>- 인민군대의 총대 위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으며,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p>	<p>워싱턴 대서양협회, 한반도 문제 관련 세미나 개최</p> <p>- 동 세미나에서 스웨덴 보에릭슨 주미 부대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EU는 북미 관계의 틈새를 이용하거나 미국과 경쟁할 뜻은 없다는 점을 밝힘.</p> <p>- 또한 EU 대표단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25	<p>교역 품목수는 342개였으며 위탁가공업체는 79개로 위탁가공교역 품목은 154종류임.</p> <p>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 중국석탄 도입시 북한철도 이용방안 검토 피력 * 중국 방문중 기자회견</p> <p>- 경의선 철도가 완공되면 중국석탄 도입시 북한을 경유하는 방안이 실현될 것임. 중국정부와도 이 문제를 협의했음.</p> <p>- 대북 전력지원문제가 구체화되면 전력지원의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철로 이용권을 얻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p>	<p>이라는 군 중시의 철학으로부터 나오는 3군사상과 이론에는 우리시대의 혁명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전략전술과 방도들이 있음.</p> <p>김정일 위원장, 군창건 즈음 제 671군부대 시찰 *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명수, 현철해 등 대동</p> <p>정몽헌 현대회장, 김용순·송호경 등과 담화 후 평양 출발</p> <p>백남순 외무상, 라오스 외무장관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p>	<p>방북은 북한 경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접목시키는 과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함.</p> <p>- 방북중 △논쟁은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권, 핵 비확산, 투명성 등의 면에서 국제 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며 △EJ와의 대화가 남북 또는 북미 대화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등도 밝힐 것이라고 언급</p> <p>국제카리타스, 2001년도 대북지원 326만달러 책정 * 2000년 지원액은 256만달러</p>
4.26	<p>제7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비료 20만톤 대북지원 결정</p> <p>- 동 회의에서 대북 비료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함.</p> <p>- 비종은 요소 및 복합비료를</p>	<p>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모스크바 방문</p> <p>「당초급선전일꾼대회」 진행 (4.25 문화회관) * 최춘황 당중앙위 선전부 제1 부부장 보고</p> <p>- 최춘황 부부장은 보고에서 당</p>	<p>미 국무부 차관보, 제네바 합의 준수 시사 * 켈리 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내정자, 상원 외교위 인사 청문회 증언</p> <p>- 조만간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26	<p>중심으로 선정하고 북한의 시비기를 감안하여 조기에 전달을 완료하며, 지원절차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위임키로 함.</p> <p>- 지원경비는 68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사후정산방법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키로 함</p> <p>한미, 외교·안보 고위협의 회 개최</p> <p>-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김동신 국방부장관, 에번스 리비아 주미대사대리,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 등은 이날 최근 남북관계 상황과 개정된 SOFA 운영방안, 미·중 정찰기 사건 협상경과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p> <p>김대중 대통령, 미북간 대화 기대 표명</p> <p>* 민족 화해협력과 통일기원 대법회</p> <p>- 머지않아 남북한간은 물론 북미간에도 대화를 통한 협력의 길이 열릴 것임.</p> <p>- 지금 남북관계가 정체되</p>	<p>의 선군혁명노선 관철을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p> <p>평방, 미·일 군사 동맹강화 비난</p> <p>- 일본기지에서 조선전선에 비행기나 함선을 출격시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보복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됨. 그 기회가 도래한다면 우리는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여 값비싼 피의 대가를 받아낼 것임.</p> <p>북한 고위군사대표단 모스크바 도착</p> <p>* 단장 : 김일철 인민무력부장</p>	<p>끝내고 북한과 대화를 지속할 방침임.</p> <p>- 94년 맺은 제네바 합의를 지키면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p> <p>페르손 스웨덴 총리, 한반도 평화지원 노력 다짐</p> <p>* 브리센 기자회견</p> <p>- EU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남북한간에 진행되고 있는 평화 과정을 지지하고 중재하는 것임. 이번 남북한 방문의 최선의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 지지임.</p> <p>KEDO, 신임 사무총장에 카트먼 前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 임명</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26	<p>있으나 우리는 결코 비관할 필요가 없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햇볕정책 이상의 대안은 없다는 것을 미·일·중·러와 EU 등 전 세계가 다같이 인정하고 있음.</p> <p>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방북 결과 발표 * 인천공항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방북에서 고성항에서 통천까지 관광특구와 경제특구를 지정,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음.</li> <li>- 또한 육로관광을 위한 육로와 철도 착공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했음.</li> </ul>		
4.27	<p>「민주노총」 중앙집행위, 남북 노동절 행사 관련 정부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이규재 통일위원장 겸 부위원장을 국보법 위반혐의로 방북을 불허할 경우 방북단 전체가 방북하지 않을 계획임.</li> </ul>	<p>노동신문,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스피리트 연습을 대신한 진형적 북침 공격작전 연습임. 남조선 군사당국은 이에 가담해 나섬으로서 저들의 배신적 정체를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음.</li> </ul>	<p>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년 북-독일간 교역 현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양국간 교역은 총7천790만8천달러로 99년 대비 38.5% 증가했음. 이중 수출은 2천473만달러이며, 수입은</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27	<p>- 검찰이 국보법을 악용해 일부러 1년이 넘도록 사건종결 처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노동자 교류를 가로막고 있음.</p>		<p>5천317만달러임.</p> <p>북-러 군사협력협정 체결</p> <p>- 방려중인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클레바노프 러시아 부총리와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바노프 국방장관과는 「2001년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 등 2개의 정부간 협정을 체결</p>
4.28		<p>김정일 위원장, 경희극 '청춘은 빛나라' 관람(만수대에술극장)</p> <p>* 김국태, 최태복, 정하철, 강석승, 강능수, 최철남, 김기룡, 차승수,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현철해, 박재경 등 동행</p>	<p>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러시아 군부대 방문</p> <p>- 모스크바 군관구 산하 군부대와 중앙무력박물관, 레닌묘 등을 방문</p>
4.29	<p>장성민 민주당 의원, 미국에 대북 포용정책 촉구</p> <p>- 북미갈등이 한미갈등과 연동돼 있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갈등으로 전환되게 돼 있는 것이 오늘날 한반도의 역학관계임.</p>	<p>「직총」 중앙위 대변인, 「민주노총」 이규제 부위원장 방북불허 조치 관련 비난성명 발표</p> <p>-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기치 밑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전체 북남노동자들의 의로운 투쟁 앞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음.</p>	<p>영국 선데이 타임스, '러시아, 북한에 무기판매 계획' 보도</p> <p>- 러시아는 북한에 제트전투기, 정보수집 전투기, 기타 첨단기술장비 등 3억5천만 파운드 (7천억</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29	<p>- 이러한 복잡한 문제의 해법은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승리하는 트리플 윈(Triple-win)의 접근법이며 그 정책수단은 바로 대북 포용정책임.</p>	<p>- 남조선 당국은 민주노총 이 부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불허 조치를 철회하고 6.15공동선언을 지지 관철하는 5.1절 북남노동자들의 통일대회에 남측대표 전원이 무조건 참가할 수 있게 모든 조건을 보장해야 할 것임.</p>	<p>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p>
4.30	<p>통일부, 2001 통일백서 영문판 발간</p> <p>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현대상선 금강산 사업 철수 발표 * 기자회견</p>	<p>중방, 유럽연합대표단(단장, 페르손 스웨덴 수상) 방북예정 보도</p>	<p>미국,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p> <p>* 북한은 1988년 이후 계속 테러지원국으로 지정</p> <p>- 미 국무부는 4.30 발표한 연례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다른 6개국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	<p>대순진리회, 러시아에서 재배한 벼 북한에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순진리회(종무원장 이유종)는 러시아 연해주 쟈추스니 농장에서 재배한 벼 204톤을 북한에 전달</li> <li>- 대순진리회는 앞으로 매년 러시아 농장에서 재배되는 벼(200~240톤)를 북한에 계속 지원할 계획</li> </ul>	<p>김정일 위원장 황해남도 토지정리 현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하철, 리용철, 장성택, 주규창,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 등 동행</li> </ul> <p>국제노동자절(5.1절) 111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p> <p>남북 노동절 공동행사 개최(금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중앙방송은 '북남 노동자 5.1절 통일대회'라고 지칭 보도</li> <li>- 북측 「직총」 최창만 조국통일본부장은 환영사에서 6.15 북남공동선언을 지지, 관철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언급</li> <li>-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측은 남북노동자들이 외세의 무력적 위협을 반대하고 남북의 평화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투쟁 할 것을 주장</li> </ul> <p>「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대변인, 일본정부의 왜곡 역사 교과서 승인 관련 비난 담화</p> <p>노동신문, '아무리 떠들어도 통하지 않는다' 제하로 대미 비난</p>	<p>김정남(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남)으로 추정되는 인물,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p> <p>KEDO 대표단, 전문가회의 참석차 방북(5.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에서 고위 전문가회의를 통해 공사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차 방북</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		<p>-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결코 구걸하지 않음. 미제가 광고하는 우리의 위협이란 완전한 모략이고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위험한 책략임.</p>	
5. 2	<p>한·미 정상, 국가미사일방어(NMD)계획 및 대북정책 논의</p> <p>* 전화통화</p> <p>-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새로운 미사일 방어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맹국 및 이해 당사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현재 진행중인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한다는 뜻을 미국측에 전달하였음.</p> <p>통일부, 2001년 1/4분기 남북 선박 물동량 집계 발표</p> <p>- 운항횟수는 편도기준으로 505회, 물동량은 8만1천 56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6%, 26.2% 감소하였음.</p>	<p>김정일 위원장, EU대표단과 담화</p> <p>* 강석주 배석</p> <p>노동당 대표단, 앙골라 인민해방운동대표단과 회담</p> <p>* 북측단장 계응태, 앙골라대표단장 까르발류</p> <p>노동신문, '재앙의 화근을 뿌리 뽑아야 한다' 제하로 대미 비난</p> <p>남북 공동 노동절행사 방북단 귀환</p> <p>-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 방북단은 설봉호 편으로 속초항에 귀환하여 해단식을 가짐.</p> <p>「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일본 문부성의 역사 왜곡 교과서 통과 관련 규탄 성명 발표</p>	<p>페르손 스웨덴 총리 등 EU 고위 대표단 평양 도착</p> <p>* 솔라나 EU공동안보정책 고위 대표, 페튼 EU대외관계담당 집행위원 등 공식수행원 15명을 비롯 대표단 23명</p> <p>페르손 스웨덴 총리, 김정일 위원장 면담결과 브리핑</p> <p>* 고려호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p> <p>- 실질 현안은 다루지 않고 공식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해 합의했음.</p> <p>- 공식회담에서의 주 의제는 화해과정, 인권 및 북한내 인도적 상황, 북한의 경제개혁과 미사일 정책이 될 것임.</p>

■ 5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	<p>국립보건원,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약품 대북지원 발표</p> <p>대북비료지원 선적선 첫 출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비료지원(20만톤)을 위해 「슈퍼선」호가 요소비료 1만 3천톤을 싣고 남포항을 향해 여수항을 출발</li> </ul>		<p>부시 미 대통령 미사일 방어체제 확대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대학 연설</li> <li>- 현재 계획중인 국가미사일방위(NM D)체제를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과 해외주둔군도 방어하는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체제로 확대 추진할 것임.</li> </ul> <p>미 국방부, 미군유해발굴단 북한 도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년이후 총107구 유해 발굴, 이중 8구 신원확인</li> </ul>
5. 3	<p>현대 아산, '북한에 금강산사업 일괄타결 요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24 방북시 관광객수에 비례한 관광 대가 지급, 육로관광 개설, 금강산·개성 경제특구 조기지정 등 세가지 현안을 일괄처리하자고 북한측에 요구하였음.</li> </ul> <p>통일부, 2001년 4월중 민간 대북지원 34억6천만원으로 집계 발표</p>	<p>중통, '테러문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제하로 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무성이 4.30 연례 테러 보고서에서 또 다시 우리를 테러지원국으로 걸고 든 것은 공화국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노골적인 적대시 책동의 일환으로서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도발적인 범죄 행위임.</li> </ul> <p>김정일 위원장, EU대표단 주최 오찬 참석</p>	<p>페르손 총리,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백화원 초대소 영빈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르손 총리는 북한이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임하고 대외경제개방 및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EU는 대북경제지원에 나서겠다고 언급</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3	<p>김대중 대통령, EU대표단과 만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공존하고 평화교류하는 가운데 장차의 평화통일에 기여하자는 햇볕정책은 남북 모두에게 유익하며 미·일·중·러 주변 4대국과 EU 등 전 세계가 일치해서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설명</li> <li>- 페르손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이 작년 김대통령과의 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남, 조명록, 김일철, 연형묵, 최태복, 김국태, 백남순, 강석주 배석</li> </ul> <p>중방, EU대표단 평양출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남, 백남순, 이광근 등 환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위원장은 서울 답방을 희망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회담이 없을 것이며 북의 미사일 발사 유예가 200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li> </ul>
5. 4	<p>국정원, 북한 이탈주민 8명 국내 입국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제3국에 체류해 오던 서미화(가명) 등 이탈주민 8명이 입국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중임.</li> </ul> <p>韓-EU 정상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중 대통령은 EU와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 제시</li> <li>- 페르손 스웨덴 총리는 김</li> </ul>	<p>중방, EU대표단 기자회견(고려호텔) 내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동맹 최고위급 대표들은 북과 남 사이에 화해과정이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자기들은 이 과정이 촉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li> </ul> <p>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 기자회견</li> </ul>	<p>리처드 바우처 미국 무부 대변인, '북 미사일 시험 유예는 건설적 조치'라고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래 브리핑</li> <li>- 북한측의 미사일 유예 표명을 건설적 조치라고 평가한다면서 부시 행정부가 대북관계를 재검토중이지만 이러한 재검토가 남북 대화의 속도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4	<p>정일 위원장이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울답방을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과 시장경제 도입 등 대외 개방·개혁에 대한 확실한 노선을 정립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투자보장, 국민에 대한 경제교육, 연구개발, 공공예산 등 시장경제 운용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음을 설명</p>	<p>- 미국의 새 행정부가 우리에게 구태의연하게 테러지원국 감투를 씌우려하는 것은 지난해 10월의 조미 공동성명을 뒤집어 엮고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해나가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 것임.</p>	<p>다고 보며 우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p>
5. 5		<p>「정보산업시대에 관한 주체적 사상이론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 진행(인민문화궁전)          * 김영남, 홍성남, 김철만, 양형섭, 최영립, 조창덕, 곽범기, 김영태 참석</p> <p>평방, 제4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참가 대표단 도착 보도          * 러, 獨, 伊, 佛, 英, 中 등 참가</p>	
5. 6		<p>노동신문, '남조선 강점 미군은 침략군이다' 제하로 대미 비난</p> <p>- 부시행정부 탐이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 계속 눌러두려고 별의별 소리를 다 늘어놓고 있으나 미제의 평화유지, 전쟁억제력, 군사력 불균형 타령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간섭과 침략의 구호임.</p>	<p>한스 달그렌 스웨덴 외무차관, EU대표단 방북결과 브리핑          * EU 15국 외무장관 회의 및 기자회견</p> <p>- 김정일은 현재의 남북한 화해 과정이 동일해 이르게 될 것이라는 낙관하고 있었다고 전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7	<p>「한적」, 비료수송계획 대북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영훈 총재 명의의 전화 통지문을 「북적」 장재언 위원장 앞으로 보내 비료 20만톤 지원관련 4-10항차 수송일정을 통보</li> </ul> <p>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北 인권개선 방안 언급 * AP통신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인권을 개선하는 민주국가라는 사실은 북한이 자국민을 어떻게 다뤄야하는 지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음.</li> <li>- 그러나 인권 외에도 우리가 머지않아 대처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으며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이 대북 정책의 우선사항임.</li> </ul>	<p>노동신문, '노골적인 반공화국 대결책동' 제하로 남측의 야외기동훈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경비사령부가 5.7부터 13일간 실시하는 야외기동훈련은 남조선에서 높아가는 통일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관계를 차단하며 전쟁준비를 완료하자는데 목적이 있음.</li> </ul> <p>김정일 위원장, 제415 군부대 및 제567 군부대에서 건설한 임진강 제1발전소 등 시찰 *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이 용철, 장성택 등 동행</p> <p>중방, '억지레변은 통할 수 없다' 제하로 미 중앙정보국 부장관의 북한 미사일위협 및 핵·생화학 무기 보유 발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의 발언은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전이고 도발이며, 우리 공화국과 미국 사이의 대화가 파탄된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영구주둔 구실을 어떻게 하나 만들어 내자는데 목적을 둔 그런 의도적인 것임.</li> </ul>	<p>EU, 北 미사일 판매 계속되면 대화 중단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대표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다니엘슨 스웨덴 총리실 국무장관은 평양의 미사일 수출은 EU입장에서도 큰 걱정이라며 북이 미사일 판매를 계속한다면 EU와 북의 관계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임.</li> <li>- 김정일 위원장은 보상을 전제로 미사일 판매중단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임.</li> </ul>
5. 8	<p>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정부 입장 일본에 전달</p>	<p>김정일 위원장, 제688 군부대 시찰 및 제233 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p>	<p>노베르트 폴레스텐 박사, '대북지원 구호식량 주민 배급에 문제' 주장</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8	<p>- 테라다 테루스케 주한 일본대사에게 35개항의 수정요구자료를 전달하면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평화·인권·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선언 및 통합 실천 체계」 등 국제사회가 천명하는 역사 교육 기본입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p> <p>- 이와 같은 국제적 약속 및 합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시정조치와 함께 이러한 역사왜곡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p>	<p>*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주규창 등 동행</p> <p>김정일 위원장, 황해남도 강령군 내동협동농장 현지지도</p> <p>* 김국태, 정하철, 주규창,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동행</p> <p>노동신문, '핵 위협과 핵 전파의 장본인' 제하로 대미 비난</p> <p>- 얼마전 미 중앙정보국 부장관 머클러 플린이 텍사스의 한 대학이 조직한 대북문제 학술회의에서 우리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열거한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라고 해야 할 것임.</p> <p>평방, 주한미군의 MH-47E 헬리콥터 배치계획 비난</p>	<p>* 동인은 독일 구호단체소속으로 평양에서의 의료활동중 지난해 12월에 북한에서 추방된 인물</p>
5. 9	<p>통일부, 2001년 1-4월 인적교류현황 집계 발표</p> <p>* 1989-2001.4월중 총방북인원 20,399명</p> <p>- 2001년 1-4월중 각 부문별 인적교류는 방북인원 1,798명, 남한방문 145명, 북한주민접촉 914명, 금강산 관광객 30,003명임.</p>	<p>김정일 위원장, 전국 농악무 경연대회 우수단체에 문화기재 전달</p> <p>노동당 대표단, 나이지리아 인민민주당대표단과 회담</p> <p>주북 스페인 및 네덜란드 신임 대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신임장 제정</p> <p>* 만수대의사당</p>	<p>한미, 대북정책 및 미사일 방어체제 협의</p> <p>-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일행은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 미국의 대북정책 중간 검토결과와 미사일 방어 계획(MD)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9		<p>노동신문, '혁명군대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주체적 관점' 제하로 군대의 역할 강조</p> <p>- 군대의 역할은 현 시기 인민 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근본 문제의 하나임.</p>	<p>- 김대통령은 미사일 방어(MD)체제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대북 정책 검토가 조속히 완료되어 미북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p> <p>- 부시 미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p>
5.10	<p>김대중 대통령, 남북대화 본격 추진방침 시사</p> <p>* 제33회 국가조찬기도회 (힐튼호텔)</p> <p>-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체상태에 있으나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속에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개</p>	<p>노동신문, '외세의 침을 맞은 자의 싱거운 넋두리' 제하로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의 북한 인권 관련 발언 비난</p> <p>- 남한에서는 국가보안법 등으로 자유와 권리가 짓밟히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이 탄압받고 있음. 한장관의 발언</p>	<p>진념 부총리, 국제사회와 북한간 상호이해 노력 촉구</p> <p>* 제34차 ADB 연차총회 기조연설(하와이)</p> <p>- 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이후 남북경제협력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0	<p>선을 실현시켜 나갈 것임.</p> <p>임동원 통일부장관,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과 대북 정책 등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미사일방어(MD)체제 추진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북미관계와 대북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 발전되어야 하며 북미간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li> <li>- 아미티지 부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반영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가까운 장래에 완료되고 이후 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MD구상의 전략적 정당성을 재차 강조</li> </ul> <p>통일부, 정부의 현대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 보도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li> <li>- 정부가 현대의 금강산 사업을 곧 지원하고 북한측과 실무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li> </ul>	<p>은 제 코드 못씻으면서 남을 홍보는 자의 싱거은 녀뚜리라 해야 할 것임.</p> <p>김정일 위원장, 제224군부대 관하 포종대 및 제230군부대 관하 포종대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명수, 김국태, 정하철, 이용철 동행</li> </ul> <p>「직맹」, 중앙위 대변인,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검정통과 관련 규탄성명 발표</p> <p>중·평방, '위험한 생각' 제하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무성 부장관 아미티지가 일본의 고위당국자들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미사일 방위구상 실현에 일본을 끌어내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함. 이는 미제가 일본 반동들과 야합해서 얼마나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임.</li> </ul>	<p>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북한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나가야 함.</p> <p>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 미 대북정책 기조 불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레브리핑</li> <li>-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의 대화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서울발언과 관련,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북한에 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언급</li> </ul> <p>佛 외무부, 대북수교 입장 미정 공식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과의 수교에 관해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바 없으며 수교조건인 북한내 인권상황개선, NGO 및 원조기관의 북한내 활동 보장, 언</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0			<p>론인 입국 및 취재 허용 등이 성숙되지 않고 있음.</p>
5.11	<p>국정원, 북한이탈주민 13명 입국 발표</p> <p>- 최근 김인철(가명, 33) 등 이탈주민 13명이 제3국을 경유 입국,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중임.</p> <p>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경운기 100대 대북지원 발표</p> <p>- 4.11부터 전개한 「희망의 경운기 보내기 운동」을 통해 모아진 경운기 100대를 5.15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예정임.</p>	<p>김정일 위원장, 황해남도 배천군 수원협동농장 현지지도</p> <p>* 김국태, 정하철, 이용철, 이명수 동행</p> <p>당 역사연구소장 강석승 사망</p> <p>* 향년 68세</p> <p>평방, '조선민족의 존엄과 본때' 제하로 대미 비난</p> <p>-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냉각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공화국을 저들의 위협대상으로 간주하면서 압살책동의 도수를 높이고 있는 미제 때문임.</p> <p>- 푸에블로호사건(68.1)은 미제로 하여금 조선인민을 잘못 알고 덤뻐다가는 뼈도 추리지 못한다는 교훈을 새기게 하였음.</p> <p>중방, '노골적인 미사일전쟁 책동' 제하로 미국의 이지스함 2척 동해 배치계획 비난</p>	<p>치노 다다오 ADB총재, 北 ADB 가입 유보 언급</p> <p>* 호놀룰루</p> <p>-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북한의 정회원 가입 문제에 대해 작년 8월 가입의사를 밝힌 북한의 편지를 이사회에 통보한 후 현재 회원국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음.</p> <p>박의춘 주러 北대사, 러 외무차관과 회동</p> <p>* 이타르타스 통신</p>
5.12	<p>장광근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 보안법 조기개정 반대 논평 발표</p>	<p>노동신문, '용납못할 위험한 군사행동' 제하로 대남 비난</p>	<p>조선신보, '북 미사일 유예, 북미 회담 메시지' 제하 사실 게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2		<p>- 남조선당국이 미제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편승하여 스탠다드 미사일발사대의 부분품 구입을 미국에 정식요청하고 최신형 전투기와 공격용 직승기 구입 등 무분별한 무력증강책동에 가담한다면 그들에게 치러질 것은 과멸과 죽음 밖에 없음.</p> <p>중방, '불은 불로 다스릴 것이다' 제하로 주한미군 제2사단의 기동훈련(5.7-20) 비난</p> <p>도시경영대표단(단장 : 도시경영상 최종건) 및 외무성 대표단(단장 : 부상 최수현), 중국방문차 평양출발</p>	<p>- 김정일 총비서가 EU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사, 2003년까지 미사일발사 유예 등을 밝힌 것은 남측에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미 행정부에 대해서는 미사일 협의를 비롯한 조미대화를 신속히 재개해 관계개선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임.</p> <p>- EU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 외교의 과녁은 미국이며 조미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자는 것이 최종 목적임.</p>
5.13	<p>통일부 대변인, 6.15공동행사 대북 제의 언론 보도 부인</p> <p>- 5.14 동아일보 1면에 정부가 최근 6.15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판문점에서 남북공동으로 갖자고</p>	<p>김정일 위원장, 제243군부대 관하 포종대·제534군부대 메기공장 시찰 및 황남 과일군 과수종합농장·신대농장 현지지도</p> <p>*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등 동행</p>	<p>피트먼 미 국무부 대변인, 대북 식량원조 계속 시사</p> <p>* AP통신</p> <p>- 미국은 미사일 수출을 둘러싼 북한과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3	<p>제외한 보도는 사실이 아님.</p>	<p>장웅 북한 IOC위원, 월드컵 분산 개최 곤란 언급 * 교도통신 인터뷰</p> <p>- 남과 일본,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다르며 현재의 상황으로는 남과 일본이 공동개최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인민들의 생각임.</p>	<p>긴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식량원조는 계속할 것이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10만톤의 식량을 제공, 아동과 임산부 등 북한 주민들에게 배분되도록 할 것임.</p>
5. 14	<p>임동원 통일부장관, '미국측에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상호보완적 관계 강조' 언급 * 아미티지 부장관과의 회담결과보고(민주당 최고위원회)</p> <p>- 미북관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큰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함. 미사일방어(MD)체제와 북한과의 미사일협상은 병행추진이 가능함.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있으므로 기회를 활용해야 하며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는 분리하기 힘든 상호보완적 관계로 같이 나가야 한다고 미국측에 권고했음.</p> <p>- 북한이 한국을 믿고 개방을 시작한 만큼 북한이 안심하고 개방과 변화에</p>	<p>중방,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 제하의 해설 게재</p> <p>- 지난해 6월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이 마련되고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주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자주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임.</p> <p>평방, '미국의 시녀가 되지 말아야 한다' 제하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련 비난</p> <p>-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 엘 바르테이가 경수로 완공시기가 2008년으로 연기될 것이라면서 그 원인이 북조선이 사찰에 응하지 않은데 있다고 했음. 부지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사찰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은 당치않은 생트집임.</p>	<p>에드윈 플너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美 햇볕정책 지지 언급 * 한국자유총연맹 주최 초청강연회</p> <p>-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 한미 양국의 전략적 관계는 어떤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던 최상의 관계임.</p> <p>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대북정책 검토 완료 후 대화재개 언급 * CNN방송 인터뷰</p> <p>- 우리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돼 적절한 시기에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4	<p>나서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교류와 협력 증대를 통해 화해와 신뢰를 구축하며 안보위협은 협상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측 견해를 미국측에 전달했음.</p> <p>외교통상부 대변인, EU의 북한 수교결정 환영 성명</p> <p>- 이번 EU의 대북한 수교 방침 결정이 EU·북한간 양자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p>		<p>함을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는 정책검토가 완료된 후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재개될 것임.</p> <p>EU집행위,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결정 성명 발표</p> <p>- 집행위원회는 EU회원국과의 협의 아래 북한과 EU의 외교관계 수립을 결정했음. 이번 결정이 한반도 화해를 지원하고 북한의 경제개혁, 식량난, 보건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EU의 노력을 용이하게 하길 바람.</p> <p>콘돌리사 리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북 포용정책 추진에 검증 필요 언급 * 국제민주연합(IDU) 정책설명회</p>
5.15	<p>국정원, 북한이탈주민 11명 입국 발표</p>	<p>조선역사학회, 일본당국의 왜곡 서술된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관련 규탄성명 발표</p>	<p>이만섭 국회의장, 러측에 남·북·러 국회회담 필요성 제기 * 모스크바</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5	<p>- 제3국에 체류해 오던 김성룡(가명,45) 등 북한 이 탈주민 11명이 입국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 중임.</p> <p>한·뉴질랜드 정상회담 개최 * 청와대</p> <p>- 김대중 대통령은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평화화를 위해선 햇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음.</p> <p>이경호 보건복지부차관, 보건분야 남북협력 증진 위한 WTO역할 당부 * 제54차 세계보건기구(WTO) 총회 기조 연설(제네바)</p> <p>현대상선, 금강산 유람선 추가 감축</p> <p>- 당초 운항스케줄의 1/4 수준으로 감축 운행</p>	<p>중방, '종자론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 강성대국 건설 방도'라고 강조</p> <p>- 종자론을 철저히 구현해서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치자면 당정책을 깊이 연구해야 하며 정열적인 사색가, 적극적인 실천가가 되어야 함. 또한 21세기에 상응한 실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p> <p>평방, '반민족 반통일 범죄행위' 제하로 대남 비난</p> <p>- 남조선 당국이 외세와 야합해서 동족을 해치려고 하고 있으니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와 조선반도 정세가 엄중한 국면에 처하지 않을 수 없음.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의 침략정책에 편승해 나선 남조선 당국에 있음.</p> <p>노동신문, '책임은 미국에 있다' 제하로 경수로건설 지연 관련 대미 비난</p> <p>- IAEA 총국장 바라데이는 최근 외국신문과의 회견에서 경수로건설 지연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려고 걸고 들었음. 그가 사태의 본질을 뒤집어 미국의 책임을 우리에게</p>	<p>- 이르쿠츠크 가스전 파이프라인 북한 통과 등 한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3국 경험을 원활히 추진키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 협력 방안이 긴요함.</p> <p>최수현 北 외무성 부상, 북한의 아동사망률 및 평균수명 공개 * 유엔아동보호기금(UNICEF) 회의 시 보고</p> <p>- 홍수와 가뭄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22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고 평균수명도 93년 73.2세에서 99년 66.8세로 줄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5		<p>전가시키려 하는 것은 비열하고 너절한 처사임.</p>	
5.16	<p>김기배 한나라당 사무총장, 대북지원 투명성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지원물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어 정부가 투명성 문제를 확실히 하고 지원해야 하며 올해도 대북 원조를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 하고 있으나 국회 차원에서 투명성 문제를 규명하고 예산을 확정지어야 할 것임.</li> </ul> <p>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탈북난민보호 청원서 UN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천180만495명 서명</li> <li>- 국내에서 박해를 피해나온 탈북자들을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인정해 강제송환을 막고 적절한 장소에 난민 보호소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UN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li> </ul>	<p>외무성 대변인, 유럽동맹과의 외교관계 결정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와 유럽동맹 사이의 쌍무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염원으로부터 출발한 이 결정을 환영하며, 이들과의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li> </ul> <p>중앙통신,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른 경수로건설 지연에 대한 상보'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합의문에서 지닌 자기의 의무를 100%이상 초과 수행하고 있으나, 미국측에 의해 경수로 발전건설은 대폭 지연되고 있음.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분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흑연감속로를 되살리는 정황이 조성되지 않을 수 없음.</li> </ul>	<p>英 전략문제연구소(ISS), 미국의 MD효율성 회의적으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정세 및 각 지역의 안보문제에 관한 연례조사보고서</li> <li>- 부시 대통령이 임기중 MD체제를 도입할 것은 확실하지만,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의구심이 생기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효율성도 의문임. 부시 행정부가 MD구축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가장 손질이 많이 필요한 아시아에 대해서는 구체적 구상을 내놓지 않고 있음.</li> </ul>
5.17	<p>「한적」, 대북비료 지원계획 통보</p>	<p>중방, 문덕 이남 서해안지역 및 황남북·강원·평남·함남 등 가뭄피해 극복 투쟁 보도</p>	<p>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계자회의 개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7	<p>* 서영훈 총재명의 전화통지문</p> <p>- 「북적」 장재언 위원장 앞으로 11-20항차분 8만7천톤 수송계획 통보</p> <p>현대아산, 북한 자연산 활어 반입</p> <p>- 북 민족경제연합회 산하 개성무역총회사와 지난달 자연산 활어 반입계약을 체결하고 첫 반입분으로 광어 150kg과 털게 150kg을 산 상태로 설봉호를 통해 들여옴.</p>	<p>묘향산 등산 노정 개척 김정일 현지지도 20돌 기념보고회 평북 향산군에서 진행</p> <p>평방,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대미 비난</p> <p>- 북남관계가 좋게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방해해 나섰음. 미국은 처음부터 관광대가에 군사비 전용이라는 딱지를 붙여 이 사업에 직접 간섭해 나섰으며 여러모로 방해책동을 해왔음.</p> <p>리용호 북한 외무성 안보군축담당참사, 남북대화 추진여부 미국태도 관망후 결정 언급</p> <p>*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고위관리회의 참석시 인터뷰(하노이)</p> <p>- 미국의 태도가 워낙 강경해 남북대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대화의 시기는 미국의 태도를 지켜본 뒤에 결정할 문제임.</p>	<p>* 베트남 하노이, 23개국 참가</p> <p>코피 아난 UN사무총장, 햇볕정책 지지 확인 및 남북한 방문 용의 표명</p> <p>* 제54차 세계보건기구 총회 참석시 기자회견(제네바)</p> <p>러·EU정상회담 개최</p> <p>* 모스크바</p> <p>-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EU의장국인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 등 EU대표단은 정상회담후 공동선언에서 지난해 6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한의 긍정적인 노력들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밝힘.</p> <p>헤리티지재단 래리 워첼 박사, 'UN이 미국 대신 對北 평화협정 체결 필요' 주장</p>
5.18	<p>김대중 대통령, 한반도 상황 긍정적 전개 조짐 언급</p> <p>* 통일외교안보장관 오찬 간담회</p>	<p>김정일 위원장, 제1129 군부대 및 제851 군부대 시찰</p> <p>* 이명수, 현철해, 이용철 등 동행</p>	<p>제임스 루빈 前 미국 무부 대변인, 미국의 미사일 문제 접근방식에 대해 문제점 제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남북한 연쇄방문과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이후 한반도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조짐이 있음.</li> <li>- 이러한 상황변화에 적극 대처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냉전종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며,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li> </ul> <p>남북경제협력의서 관련 대북서한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합의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안)」 등을 북측에 전달하고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li> </ul>	<p>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겸 서기실 실장 리성복 사망</p> <p>중방,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 제하로 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본토로부터 4일 이내에 기동할 수 있는 2개 여단무력을 내년까지 조직하기로 한 것은 힘으로 우리를 압살 하려는 것을 대조선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증하는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은 옳지만 북한 미사일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li> <li>- 미국의 새 도전은 모든 문명 국가들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대열에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부시 행정부의 문제는 바로 이같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 외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li> </ul> <p>하비에르 솔라나 EU 공동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EU의 대북협력분야는 인도적 분야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샤 노보스테 이紙 회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는 북한과 인도의 주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18			전략적인 부분은 북한과 미국이 논의해야할 문제임.
5.19		<p>중방,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 정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에게 과학기술 발전, 정보산업 건설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li> </ul> <p>평방, '긴장격화해서 무엇을 노리는가' 제하로 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 군사수뇌간의 군사동맹관계 강화 합의 사실 비난</li> </ul>	
5.20	<p>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남북간 IT분야 경험발전 위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필요성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남북한간에 정보기술(IT)분야에 대한 경험이 열기를 띠고 있으나 이 분야의 경험이 적극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해제가 필요함.</li> </ul>	<p>김정일 위원장, 해군 제256군부대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철해, 박재경 등 동행</li> </ul> <p>노동신문, 미국의 윈윈(win-win) 전략 수정 보도 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군사전략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를 폭발 직전까지 끌고 가는 위험한 전략이며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고 전 조선을 틀어쥐며 이곳을 발판으로 침략적인 대아시아 전략을 실현하려는 것임.</li> </ul>	<p>이만섭 국회의장, 한·핀란드 대북 합작투자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헨싱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핀란드 및 한·EU 우호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리포넨 총리를 통해 핀란드 정부측에 한·핀란드간 대북 합작 투자를 제안</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1	<p>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p> <p>- 북한과 현대간 관계는 북한과 개별기업간 관계이지만 금강산 관광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남북 당국간 문제이며 앞으로 이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남북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p>	<p>무역성 대표단, 독일 바이에른 주 대표단과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 쌍무적 협조에 관한 회담록」 조인</p> <p>* 만수대의사당</p> <p>중방, '누구를 위한 군사전략인가' 제하로 미국의 새로운 군사 전략 보도관련 비난</p> <p>- 미국이 기존의 win-win 전략을 수정하여 유럽·중동지역 무력을 아·태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대미 비난</p>	<p>리처드 게파트 민주당 원내총무, '미국의 한반도협상 불개입은 실수'라고 평가</p> <p>* 기자회견</p> <p>-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음.</p> <p>- 미국이 한반도문제에서 탈피하는 것은 실수이며 부시 행정부는 남북한 문제에 계속 관여할 필요가 있음.</p>
5.22	<p>국무회의, 남북경협 4대 합의서 의결</p> <p>- 2000년 12월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재 등 남북간 경제협력 4대 합의서를 심의·의결</p>	<p>중방, 강원도내 가뭄·바람 피해 복구 투쟁소식 보도</p> <p>평방, 금강산사업 중단시 美 책입 주장</p> <p>-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한 책동이 보다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남조선으로부터의 자금이 우리의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날조극을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음.</p>	<p>이만섭 국회의장, 노르웨이측에 남북적십자회담 중재 요청</p> <p>* 오슬로</p> <p>- 스페레 룬데 노르웨이 외무부 한반도담당과장이 오는 28일 북한 방문시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2		<p>- 만약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거나 파탄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지게 될 것임.</p> <p>평방, 국제원자력기구대표단 평양도착 보도 * 미북기본합의문 이행관련 제16차 협상 참가차 방북</p>	<p>청한 바, 노르웨이 측은 한국측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키로 함.</p>
5.23	<p>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북측에 6.15선언 1주년 기념 민간행사 공동개최관련 실무회담 제의</p>	<p>김정일 위원장, 제4차 군인가족 예술소조공연 관람</p> <p>중방, 북-바레인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발표</p>	<p>미 상원 외교위원회, 대북정책 청문회 개최</p> <p>- 헬름스 외교위원장, 레이니 전대사, 갈루치 조지타운대 국제대학원장 등이 참석, 부시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 제시</p>
5.24	<p>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에게 서울답방 일정 제시 촉구 * 서울상주 외신기자 다과회</p> <p>-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서울방문에 대한 확실한 스케줄을 밝혀주고 이를 세계에 밝혀줄 것을 진심으로 바랍.</p> <p>김형기 통일부차관, 남북 장관급회담 기대 표명</p>	<p>김정일 위원장, 제173군부대 시찰 *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등 동행</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총련 제19차 전체대회(5.25-26)에 축전</p> <p>- 새 세대를 중심으로 한 광범한 동포군중을 굳게 묶어 세울 것을 요구</p>	<p>ASEM 외무장관회의 개막 * 베이징</p> <p>佛 르몽드, EU 대북 접근은 북한 정권에 도움 주장</p> <p>- EU의 대북 접근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4	<p>* 평화문제연구소·獨 한 스자이델 재단 공동주최,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재외동포 초청 국제세미나 기조연설</p> <p>- 최근 주변여건과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남북간 제반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p> <p>-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소강국면이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대화가 재개될 경우 남북간 협력사업과 이산가족 상봉면회소 설치문제 등 제반 현안들을 북측과 협의 추진해 나갈 것임.</p>	<p>조선중앙TV,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가뭄이라고 보도</p>	<p>이나 실제로는 북한 정권에 행동의 여지를 넓혀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p> <p>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 핵 종식 위해 기본합의서 개선 검토 시사</p> <p>* 정례브리핑</p> <p>- 미국의 주요 목표는 북한 핵계획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종식이며 우리는 이 목표를 진척시키기 위해 기본합의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p>
5.25	<p>김대중 대통령 한반도 평화공존 및 남북한간 평화교류 강조</p> <p>* 리핑(李鵬)중국 「전인대」 상임위원장과 회담(청와대)</p> <p>-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차의 통일을 목표로 하면서 우선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며, 햇볕정책은 남과 북은 물론 중국과 세계</p>	<p>중방,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고위관리회의」 의장 보고에 북한 관련 조항이 언급되었다고 보도</p> <p>* 베트남 하노이</p> <p>김정일 위원장, 제826 군부대 시찰 및 제243·233 군부대 군인가족 예술소조 공연 관람</p> <p>*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이용철, 장성택, 주규창 등 동행</p>	<p>오토 비스호이獨 바 이에른주 경제·교통·기술부장관, 북한 개방의지 소개</p> <p>* 기자회견(신라호텔)</p> <p>- 북한이 유럽으로부터 많은 투자 특히, 전력 등 에너지와 식품, 기계, 교통, 통신망 등에 투자를 희망하였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5	<p>모든 나라에도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정책임.</p> <p>국정원, 북한이탈주민 12명 국내 입국 발표</p> <p>- 북한이탈주민 12명이 최근 제3국을 경유 입국해 관계기관이 합동조사중임.</p> <p>전국경제인연합회, 2001년 제1차 남북경제협력위원회 개최</p>	<p>중방, '대결과 전쟁을 고취하는 반통일적 행위' 제하로 한미군사훈련 비난</p> <p>- 육군 황금독수리부대와 주한미 제7공군 헌병기지 교관들의 참가하에 진행될 연합특공훈련 등 관련 비난</p>	<p>제3차 ASEM 외무장관회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촉구 의장성명 발표</p> <p>- 외무장관들은 제3차 ASEM(2000.10.20-21)에서 채택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서울선언」을 상기하고, 2000년 6월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한이 취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개최 등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p> <p>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무장관, 부시행정부에 대북 포용정책지지 촉구</p> <p>*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초청강연회</p> <p>- 부시 행정부는 군사우위 유지, 국제분쟁 해결,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대외경제 촉진, 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5			<p>방과의 동맹관계 강화 등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반도에서 김대통령의 포용정책을 지지해야 할 것임.</p>
5.26		<p>조총련 제19차 전체회의 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서만술, 책임부의장 허종만 선출</li> </ul>	
5.27	<p>전국경제인연합회, 「통일한국 남북한 산업지도」 발표</p>	<p>평방, 미국에 정전체제의 평화보장체제로의 전환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다른 두 제도를 가진 남북한의 통일방식으로 연방제가 가장 적합한 방도이며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려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져야 하고 미국은 낡은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 바꾸는 데로 나와야 할 것임.</li> <li>-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남조선 강점정책을 끝장내고 조미 기본합의문에서 공약한 대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실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li> </ul>	<p>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공동발표문 채택후 폐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와이 호놀룰루</li> </ul> <p>&lt;공동발표문 요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 및 김대중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 지지</li> <li>· 대북정책추진에 있어서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및 인도적 문제 등에 대한 3국 간 지속적인 협의와 중요성 재확인</li> <li>· 94년 제네바합의 지속 입장 재확인 및 북한의 제네바합의 이행 조치 동참 촉구</li> <li>· 미·일대표단은 2차</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7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의 실질적 긴장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표명 등
5.28	<p>김대중 대통령, 대북정책 EU의 협조 당부</p> <p>* 페레로 발트너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접견</p> <p>- 김대통령은 남북대화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시점에 EU집행위가 북한과 수교 방침을 결정하는 등 대북 관계 개선 노력을 보여준 데 대해 평가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EU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p>	<p>「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당·단체 합동회의」 개최(인민문화궁전)</p> <p>* 보고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p> <p>- 양형섭은 보고에서 남북 및 해외의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통일대토론회」 개최를 제의</p> <p>- 6.15-8.15중 제반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합동회의 북측 준비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동 위원장에 김영대를 선출</p> <p>평양, '남조선 강점 미군 철수는 조선반도 군축의 선결조건' 제하 대담 보도</p> <p>-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한 조건에서 군축을 실현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p> <p>- 민족의 안전과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제침략군이 철수한 다음에야 북과 남의 군축 문제가 상정될 수 있는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29	<p>합동참모본부, 북한 경비정 북방 한계선(NLL) 월선 발표 * 울들어 8차례 NLL월선</p> <p>- NLL인근 해상에서 활동 중이던 북한 경비정 1척이 중국 어선을 확인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때 NLL을 침범하여 우리 해군 고속정 2척이 긴급 출동 하였음.</p> <p>「한적」, 비료수송계획 대북 통보 * 서영훈 총재명의 전화통지문</p> <p>- 내달 1-5일 4차례에 걸친 비료 3만2천톤 수송을 마지막으로 비료 20만톤에 대한 모두 24차례의 대북 수송이 종료됨을 밝힘.</p> <p>국정원, 북한이탈주민 5명 입국 발표</p> <p>- 북한이탈주민 5명이 최근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중임.</p>	<p>평방, '의세의존을 배격해야 한다' 제하 보도</p> <p>-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 공세를 계속 악랄하게 감행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는 긴장격화에로 치달고 있으며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또다시 이전의 대결상태로 되돌아가고 있음.</p> <p>- 6.15 북남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핵으로 하고 있음.</p> <p>「조·중 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제40차 회의 개최(평양)</p> <p>- 「압록강·두만강 이용에 관한 합의서」 조인</p>	<p>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 남북정상회담 지지 언급 * 정레브리핑</p> <p>-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함.</p> <p>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 北 94년 이후 플루토늄 미추출 언급 * 방한 기자회견</p> <p>- 북한이 94년 이후 영변단지에서 플루토늄 등 핵분열물질을 더 이상 추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음.</p> <p>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 부시 대통령 대북 포용정책 계승 희망 피력</p> <p>-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 뒤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지속되기를 희망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30	<p>김대중 대통령,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 접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가 우리의 대북 포용 정책을 적극 지지한데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li> </ul> <p>권철현 한나라당 대변인, 「6.15 통일대토론회」 반대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측의 대토론회 제의는 정부를 배제한 채 민간차원의 접촉 전술을 강화, 확대하겠다는 속셈이며 정권의 조바심을 유발하여 더 많은 대북지원을 유도하겠다는 속셈과 함께 참석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유도, 남남갈등을 조장하겠다는 의도임.</li> </ul>	<p>「북한-쿠바 정부간 2001-2003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li> </ul> <p>중방, 부시 대통령의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 비난</p> <p>중방, '무엇을 노린 추모식 놀음인가' 제하로 대일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정부의 제2차 세계대전 해외전몰자에 대한 추모식(5.28)을 비난</li> </ul>	
5.31	<p>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김정일 위원장 답방 약속 이행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 예방시</li> <li>-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지켜야 하며 미국의</li> </ul>	<p>중방,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는 위험한 군사행동' 제하 대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공군의 2001년도 공중전투지원훈련은 군사적인 대결과 긴장상태를 조성함으로써 좋게 발전하고 있는 북남관계에 제동을 걸고 더 나아</li> </ul>	<p>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 핵안전훈련 프로그램에 北 관리 초청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오찬 회견</li> </ul>

■ 5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31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임.	가서는 북침을 기어이 단행해 보려는 남조선 군사당국자들의 범죄적인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음.	- 올해 말경 약 6명의 북한관리를 핵 안전훈련 프로그램에 초청, 북한의 핵 시설을 NPT와 IAEA의 기준에 맞추도록 지원할 예정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	<p>김대중 대통령, 리차드 루거 미 상원 농업위원장 접견</p> <p>- 김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북대화와 남북대화가 병행되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p>	<p>노동신문, '새 전쟁 도발을 노린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 제하로 한·미·일 비난</p> <p>- MH-47헬기 배치계획, 한미 전시지원연습, 미일 합동군사 훈련 등 비난</p>	<p>리차드 루거 미 상원 의원, 美 대북관계 상호주의 강조</p> <p>- 미국의 대북관계에서 상호주의가 중요하고 미 의회는 이에 기초한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원할 것이며 북한이 받기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북한의 개방, 투명성, 검증의 방향으로 북미관계가 유지돼야 함.</p> <p>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 개소</p>
6. 2	<p>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p> <p>-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및 방향을 논의하고 북미대화의 재개가 남북관계 개선에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p> <p>- 금강산관광사업과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금강산 개최 관련 정부차원 지원여부 등을 논의</p>	<p>스페인 외무부 대표단 평양 도착 * 단장 : 미켈 라다 외무차관</p> <p>한복패션 디자이너 이영희 일행, 「민족옷 전시회」 개최차 평양 도착</p> <p>노동신문, '후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하로 대남 비난 논평</p> <p>- 공군의 2001년도 공중전투지원훈련을 민족에 대한 배신, 반역행위라고 비난</p>	<p>세계식량계획(WFP), 北 주민 1인당 하루 150g 배급 발표 * 긴급구호보고서 22호</p> <p>- 북 주민 식량배급이 개인 기준 하루 150g씩이며 남한의 식량 지원분이 이용되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3	<p>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 청와대</p> <p>- 청진2호, 령군봉호 등 북한 상선 3척의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첫 제주해협 무단 침범(6.2, 6.3)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 제주해협 통과를 원하는 북한 상선이 우리 측에 사전통보나 허가 요청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방침을 확정</p>	<p>중방, '자주권을 위협하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미 공화당 인사들의 북한의 위협론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미제와의 관계 정상화를 결코 구걸하지 않는다고 주장</p>	<p>랄프 코사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 소장, 北 제네바 합의 이행 평가</p> <p>- 최소한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국 이상으로 제네바 합의 이행을 더 잘 하고 있으며 미국이 제네바 합의의 수정이나 변경의 의도가 없음을 확실히 확인했음.</p>
6. 4	<p>정부, 북측선박 우리 영해 통과관련 대북 전통문 발송 * 임동원 통일부장관 명의</p> <p>- 북측 선박이 우리측 영해를 통과할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우리측 당국에 사전 신고 및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또다시 무단으로 영해를 침범할 경우 강력 대처할 것임.</p> <p>- 유사사태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남북간 해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조속히 남북간 해운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함.</p>	<p>백남순 외무상, 시에드 하미드 말레이시아 외무상 일행과 회담</p> <p>한복패션 디자이너 이영희 「민족옷 전시회」 진행(청년중앙회관)</p> <p>노동신문, '올바른 대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하로 대미 비난</p> <p>- 부시 행정부가 검증·상용무력 감축·사찰 등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평등과 공정성에 준하여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p> <p>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스페인 외무성 대표단과 환담(만수대의사당)</p>	<p>찰스 카트먼 KEDO사 무총장, 대북 경수로 2기 건설지속 언급</p> <p>-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북한 신포 금호지구에 건설중인 대북 경수로 2기 공사를 계속해 나가기를 재확인했으며, 지난 94년에 맺은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도 계속 이뤄질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4	<p>한-멕시코 정상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스 멕시코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에 대해 멕시코 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li> </ul> <p>임동원 통일부장관, 카트먼 KEDO 사무총장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 건설 진척상황과 경수로의 화력발전소 대체문제 등 양측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li> </ul> <p>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에 비해 33.1% 증가한 19억 6,954만달러로 북한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수출은 5억 5,633만달러로 전년대비 8.0% 증가하고 수입은 14억 1,321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46.5%가 증가하였음.</li> </ul>	<p>중방, '미국은 왜 구걸외교에 나섰다' 제하로 미국의 MD추진 계획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정계·군부 고위인물들의 해외방문목적이 MD 수립에 대한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한 데 있다고 비난</li> </ul>	<p>데이비드 키드 국제원자력기구(IAEA)대변인, 영변 핵시설에 대한 조기 핵사찰 방침 통보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달 22-25일 평양에서 열린 제16차 북한·IAEA 실무회담에서 조기 핵사찰 방침을 통보하였음.</li> </ul> <p>워싱턴 포스트, 北 미사일 발사유에 미 대북정책과 연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남순 외무상이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을 미루느냐 마느냐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약속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li> </ul>
6. 5	<p>임동원 통일부장관, 남북대화 재개 전망</p>	<p>중앙통신, '미국은 전력손실 보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제하로 대미 비난</p>	<p>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 대북 협상 재개 필요 지적</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5	<p>*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 및 지역협의회장 합동회의 「대북 정책추진보고」</p> <p>- 최근 한반도 주변상황이 정리되고 있어 머지않아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강산 육로 관광 추진 등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방안,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과 제2차 정상회담 개최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임.</p> <p>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북한에 남북대화 촉구</p> <p>- 장관급회담 등 남북한간 교섭이 중단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하지만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남한으로부터 기대했던 경제지원 등이 어렵다고 보고 대화를 미루는 것으로 보임.</p> <p>- 북한은 이유를 대지말고 성의있게 남북대화에 나서야 함.</p>	<p>- 미국이 북한의 핵관련 시설 조기사찰을 거론하는 것은 전력손실 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것임.</p> <p>중방, '우리에게는 군사적 압력은 통하지 않는다'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미 국방성 고위당국자가 임의 시기에 언제든지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비난</p> <p>평방, '남북간 사상과 제도가 달라 발생하는 의견차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p>	<p>* 뉴욕 타임스 기고문</p> <p>- 부시 행정부가 MD에 관한 합의도출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북한과 합리적 조건에 관한 회담을 재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 부각되는 위협을 약화시키거나 과거의 위협을 되살리지 않는 방식으로 광범위한 제안을 해야 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5	<p>통일부, 동북아교육문화협력 재단에 대해 남북협력사업(자) 승인</p> <p>* 사업내용 : 평양정보과학 기술대학 건립·운영</p>		
6. 6	<p>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서울답방 약속 이행 재언급</p> <p>* 제46회 현충일 추념식</p> <p>- 북한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남북공동선언의 준수를 다짐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될 것으로 믿음.</p>	<p>중방, '우리 나라에서 심각해지는 가뭄피해 현상' 제하 보도</p> <p>- 6월초까지 가뭄피해 면적은 전체 농경지의 72%인 133만여 정보에 달함.</p> <p>노동신문, 조선소년단 창립절 즈음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 부흥강국의 미래' 제하의 사설 게재</p> <p>중앙통신, 10개년 나무심기계획을 전국민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보도</p>	<p>부시 미 대통령, 북한과 대화재개 선언</p> <p>-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였고 안보팀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진지한 논의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음.</p> <p>- 의제는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된 기본합의 이행의 개선, 북한 미사일계획의 검증 가능한 억제 및 미사일 수출금지, 재래식 군사력 태세 등을 포함하고 있음.</p> <p>-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틀에서 추진할 것임.</p> <p>- 한반도 평화, 미국과의 건설적인 관계 및 지역내 안정증대를 향한 진전을 모색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6			<p>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美 대북정책 재검토 사실상 완료 시사</p> <p>* 정례브리핑</p> <p>-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재검토가 사실상 완료됐음.</p>
6. 7	<p>김동신 국방장관, 북한 선박 영해침범 재발시 무력사용 등 강력대처 언급</p> <p>*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보고</p> <p>- 우리군은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차후 북한 비무장선박이 영해를 침범하는 사례가 재발할 경우 교전규칙, 작전예규에 따라 무력사용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며 특히 북방한계선(NLL)의 경우 현행 교전규칙을 적용해 절대 확보할 것임.</p> <p>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북한 선박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 침범사태 관련 견해 표명</p> <p>- 정전상태이니 영해 침범에 대해 경고 검색하고 나포절차를 취했어야 했음.</p>	<p>김일성 노작 '보건일꾼들은 당의 붉은 전사가 되어야 한다', 발표 40돌 기념보고회 개최</p> <p>* 최태복, 김수학 등 참가</p> <p>함흥시 청년염소목장 종업원들, 김정일 현지도 말씀 관철 퀘기모임 진행</p> <p>조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북송 비전향장기수 김인서와 상봉</p> <p>노동신문, '비싼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미국의 이지스함 동해 배치 움직임은 군비경쟁과 냉전 행위임.</p> <p>중방, '해외침략 야망 실현을 위한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 제하로 대일 비난</p>	<p>미켈 나달 스페인 외무차관, 북 미사일 발사유에 준수 언급</p> <p>* 6.2-5, 북한방문</p> <p>- 북한은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할 것이라는 약속을 준수할 것이며 북한 당국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남북 대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로 보고 있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7	<p>「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금강산 토론회 개최 합의 발표</p> <p>한미 외무장관회담 개최 * 워싱턴</p> <p>-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안을 논의하고 북미 대화 시기 및 의제, 대화 수위와 장소, 제2차 남북정상 회담 등 대북정책 현안을 집중 조율</p> <p>박준영 청와대 대변인, 부시 미 대통령 성명에 대한 논평 발표</p> <p>- 북한측이 미국과의 대화에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미북대화가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북관계가 개선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구축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p>	<p>북한 기상관계자, 이번 가뭄을 '천년만의 왕가뭄'이라고 표현</p>	<p>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북한반응 기대 언급 * 한미 외무장관회담후 기자회견</p> <p>-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하는 가운데 대북 정책 검토를 끝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태세가 돼 있으나 협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음.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며 북미대화는 뉴욕 실무 채널에서 재개될 것임.</p>
6. 8	<p>통일부, 2001년 5월중 대북 지원 동향 집계</p> <p>- 5월중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4천 358만달러임.</p>	<p>「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일본정부의 북한대표단 입국 저지관련 규탄 성명 발표</p>	<p>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미 대화제의 북측 미응답 언급 * 정레브리핑</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중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액은 총 9억 9,988만원이고 5월까지 누계액은 416억으로 전년 동기는 109억원의 3.8배 수준임.</li> <li>- 민간단체 관계자의 방북은 총 27건 328명이며 누계는 61건 499명으로 작년 동기 23건 173명 보다 2.9배 증가하였음.</li> </ul>	<p>평방, '민족적 자존심이 없으면 치욕밖에 없다' 제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시 미 행정부의 압살정책에 민족적 자존심을 높여 맞서야 함.</li> </ul> <p>중방, '위험한 우주 군사화 책동' 제하로 미 행정부의 미사일 방위체계 추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측과 실무선에서 접촉해 왔으나 현지점에서 북한측의 어떠한 공개 반응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음.</li> </ul>
6. 9	<p>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금강산관광 관련 합의 내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회장은 금강산관광 사업 협상차 6.7-9 방북</li> <li>- 유로관광은 양측이 남북 정부에 빨리 협상하도록 건의키로 했음.</li> <li>- 현대아산이 앞으로 직접 관광사업을 운영하고, 뱃길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지속할 것임.</li> <li>- 관광대가 미지불금은 현대 아산의 형편에 따라 지불하도록 합의함.</li> </ul>	<p>중방,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공정 90% 진척 보도</p> <p>강원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원의 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년 73세</li> </ul> <p>평방, '핵위협과 핵전파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제하로 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부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북한이 1-2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사일 기술을 전파하며 북의 노동미사일 등이 미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다고 한 것을 비난</li> </ul> <p>조선그리스도교연맹대표단, 독일·스위스 방문차 평양 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 위원장 강영섭</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0	<p>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금강산관광 연체금 남북협력기금 보전 반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가 잘못해 금강산관광 대북지불금 2천200백만달러 지급이 지체된 것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안되며, 정부는 당초 정경분리 원칙을 천명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 국민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li> </ul> <p>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금강산 육로관광 내년 하반기 가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아산은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측과 지난 2월부터 연체된 대북지불금 2천200백만달러를 송금하고 앞으로는 관광객 수에 비례해 관광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 했음.</li> <li>- 통일전망대에서 북측 삼일포까지 13.7km 구간 도로를 연결한 육로관광을 실시키로 합의했고 이를 위한 양 당국간 협상이 이달 개최될 수 있도록 현대아산과 조선아태평화위가 노력하기로 했음.</li> </ul>	<p>김정일 위원장, 러시아 주권선 포일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p> <p>평방, 「6.10 만세운동」 발발 75돌 즈음 '민족의 기개를 떨친 영웅적인 반일시위 투쟁' 제하로 보도</p> <p>노동신문, 부시행정부의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 및 교토의정서 이행 거부 움직임 등에 대한 논평 보도</p>	<p>스칼라피노 버클리대 교수, 대북정책 점진적 상호주의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을 위한 적절한 목표는 점진적 상호주의, 즉 북한의 능력과 자존심을 고려해 상호주의를 실천할 의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것임.</li> <li>- 점진적 과정을 통해 북한이 현대 세계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알맞은 목표이며 이 과정에 지연과 퇴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목적은 유지돼야 하며 남한의 대북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li> </ul> <p>뉴욕 타임스, 부시 강경입장에서 현실 타협 노선으로 선회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강경입장을 고수하던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내외 현실에 부합하는 노선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1	<p>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북미대화 재개 촉구</p> <p>* 미 기업연구소 주최 초청연설(워싱턴)</p> <p>-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는 같은 방향을 지향해야 하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함.</p> <p>- 평양의 최우선 외교정책 목표는 워싱턴과의 관계정상화이며 북미관계 진전 없이는 남북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가 어려움.</p>	<p>중방,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자' 제하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및 5대방침을 강조</p> <p>중방, '미제는 조선의 평화와 통일의 기본장애물'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적 평화통일을 미국이 방해하고 있음.</p>	<p>미국 외교협회(CFR), 북한 미사일 제거와 전력지원 연계 주장</p> <p>- 북한의 미사일 제거와 전력 지원을 연계시키고 한국과 일본이 나서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새로운 대북정책 권고안 제기</p>
6.12	<p>전국농민회총동맹(의장 : 정광훈) 소속 농민 1,250명 방북 신청</p> <p>- 남북공동행사 참가자로는 최대규모로 6.20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남북농민 통일단오명절 놀이」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 신청</p>	<p>외무성 대변인, 「증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 대표단의 일본입국 불허관련 대일 비난</p> <p>* 중앙통신 기자회견</p> <p>- 국제적 도의에 위반되는 몰상식한 행위로 도발적인 행위를 감행했으며,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북한) 대표단의 참가만을 차단함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적대감을 국제사회 앞에서 공공연히 드러낸 것임.</p> <p>김정일 위원장, 제233군부대 군인가족 예술소조원 공연 관람</p> <p>*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정하철, 이용철, 장성택, 조규창 등 동행</p>	<p>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美 4자회담 상시 추진태세 언급</p> <p>*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태소위「미국의 동아태외교정책」 청문회</p> <p>-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을 언제든 추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4자회담은 휴전협정의 대체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실질적인 장으로 남아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2		<p>전국 「직맹」 일꾼들과 초급선전 일꾼들의 정일봉답사행군대, 김정일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 개척 45돌 즈음 혜산 출발</p> <p>재일조선인대표단·국제고려인 통일연합대표단·재중조선인 총연합회대표단, 「민족통일토론회」 참가차 평양도착</p> <p>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 해외동포 대표 도착</p>	
6.13	<p>임동원 통일부장관, 조만간 남북관계 정상상태 복원 언급</p> <p>* 통일연구원 주최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축사</p> <p>- 최근 북미대화 재개가 모색되고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체간 합의가 이뤄지는 등 주변여건과 상황이 정리되고 있어 남북관계도 조만간 정상상태로 복원될 것임.</p>	<p>비전향장기수 윤용기 사망</p> <p>* 향년 74세</p>	<p>미 국무부, 북-미회담 발표</p> <p>- 잭 프리처드 미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와 이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뉴욕의 유엔대표부에서 만나 양자 회담 준비 문제를 논의했으며 회담은 실무적이고 유익하였음.</p>
6.14	<p>김대중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 언급</p> <p>* 국가유공자 및 유족 청와대 초청 오찬</p>	<p>「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 개최(인민문화궁전)</p> <p>* 양형섭, 최태복, 김용순, 류미영, 오익제 참가</p>	<p>로버트 스칼라피노 미 버클리대 교수, 부시-클린턴 대북정책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p> <p>* 포항공대 강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4	<p>- 남북관계에선 금강산 관광이 잘 풀리고 있으며 머지않아 육로관광이 시작될 것임.</p> <p>임동원 통일부장관, 남북 장관급 회담 조속 개최 촉구 *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자간담회</p> <p>- 남북한간 경의선 복원, 4대 경협합의서 발효, 이산가족 상봉 본격 추진, 금강산 육로관광 등 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남북장관급 회담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북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함.</p> <p>통일부 대변인, 정상회담시 북측 선박 통과 논의 부인</p> <p>- 작년 6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음.</p>	<p>평방,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남북공동사진전시회 '백두에서 한라까지' 개막식 진행(인민대학습당)</p> <p>기상수문국 중앙예보연구소 부소장, 가뭄 극복 대책과 장마철 대책의 필요성 강조</p> <p>중방, '모험적인 우주군사화 책동을 막아야 한다'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미 국방장관 럽스펠드의 우주군사화 계획 및 그에 따른 군개편 계획을 비난</p>	<p>EU-美 정상회담, 햇볕정책 지지 성명 발표 * EU-美 공동성명</p> <p>- 양측은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및 화해정책을 지지하고 유럽연합 대표단의 남북한 동시방문 결과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유예, 남북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화해조치 지속 약속 준수에 중요성을 논의했음.</p> <p>- EU는 미국이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함.</p>
6.15	<p>김대중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촉구 *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각계대표 오찬 간담회(청와대)</p> <p>-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되려면 남북정상회담이 정</p>	<p>김정일 위원장, 해군 제597군부대 시찰 *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등 동행</p> <p>노동신문,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해 나가자」 제하 사설 게재</p>	<p>미국난민위원회(USCR), '중국, 지난해 탈북난민 6,000명 북한 송환' 발표 * 2001년 세계난민 실태조사 보고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5	<p>레화되어야 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년내에 와야 한다며 연내 답방을 거듭 촉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이어 내년 평양 재방문 추진 시사</p> <p>합동참모본부, 북 상선 연이 뜰때 NLL 통과 발표 * 6월 들어 7번째, 동해상에서 4번째</p> <p>- 자전거를 싣고 일본 교토(京都)이즈루항(舞鶴)을 출발, 원산으로 가던 남포호(392t)가 14일 오후 11:10분쯤 강원도 저진항 동쪽 약 188km 지점 NLL을 통과해 해군초계함 익산함이 NLL 남쪽 9km 지점에서 북상중인 남포호를 발견, 통신검색을 실시했으며 남포호가 통과한 NLL 지점은 우리 해군의 집중경비구역 외곽지역으로 NLL을 침범한 것은 아님.</p> <p>박준영 청와대 대변인, 북한 상선 제주해협 통과 이면합의 부인</p> <p>-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와 관련 남북간 이면합</p>	<p>중·평방, 민족통일대토론회 진행사실 보도 * 공동보도문 및 일본당국의 역사왜곡 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발표(금강산)</p> <p>남북·해외 대표들, 6.15 공동선언 발표 기념연회 참석 및 평양 모란봉 교예단 공연 관람 * 금강산</p> <p>김정일 위원장, 제288비행군부대 시찰 *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동행</p> <p>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남북 불교도 동시법회 북한 각지 사찰에서 진행 *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와 각도·시·군 위원회 교직자들, 해당 사찰의 주지들과 승려, 신도들이 참가</p> <p>노동신문, '평화파괴를 노린 행위' 제하로 대일 비난</p> <p>- 일본 방위청의 자위대원의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계획을 비난</p> <p>노동신문,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조국통일 위협을 실현해 나가자' 제하의 논설 보도</p> <p>6.15 민족통일대토론회, 남북 공동행사로 개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5	<p>의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면합의는 단연코 없음.</p> <p>남북장관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북측대표 단장에게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축하전통문 발송</p> <p>김대중 대통령, 남북공동선언 1주년 맞아 각계 대표와 대화 및 오찬</p>	<p>* 금강산</p> <p>- 남측의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소속 420명과 북측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 북측 준비위원회」 소속 340명은 6.15선언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성명과 공동보도문 발표</p> <p>중방, 6.15공동선언 발표 1돌 즈음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 단장간의 축하편지 교환(6.15) 사실 보도</p>	
6.16	<p>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연내답방 신뢰 피력</p> <p>* 제주평화포럼 기조연설</p> <p>-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져야만 남북간의 평화와 협력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김위원장의 서울답방이 금년 중에 실현될 것으로 믿고 있음.</p> <p>- 미북관계의 일시적 정체와 그로 인한 남북관계의 동반 정체상태가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으나 햇볕정책이 결국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개선은 미북관계</p>	<p>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 남북·해외 대표들 금강산 구룡연 관광</p> <p>6.15 민족통일대토론회 남북 공동행사 폐막</p> <p>* 금강산</p> <p>- 민족통일대토론회가 16일 오전 금강산 합동 등반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남측 추진본부 420여명은 오후 설봉호편으로 귀환</p>	<p>윌리엄 페리 전 미국 대북정책조정관, 북미 지도자회담 추진 필요성 제기</p> <p>* 제주평화포럼 특별연설</p> <p>- 미국 지도자가 6개월전 합의한 북·미 공동코뮤니케에 따라 북한 지도자와의 회담을 계속 추진해야 하며 그렇게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6	<p>개선과 병행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음.</p>		<p>독일정부, 북한에 220만달러 상당 긴급 식량지원</p> <p>재미교포단체, 북한보건성과 장기적인 의료지원 합의</p> <p>- 재미교포단체인 국제전략화해연구소(ISR)는 북한 11개 시도의 병원에 의약품 및 의료기를 지원키로 합의</p>
6.17		<p>중방, 김정일이 당 중앙위에서 사업을 시작한 37돌 기념 논설 보도</p> <p>평방, '이치에 맞지 않는 황당한 궤변'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미 고위인사의 상용무력 감축 선행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주장</p>	<p>파월-라이스, '러시아 반대 불구 미사일방어(MD) 강행' 시사</p> <p>- ABC-TV, NBC-TV에 각각 출연,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방어계획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p>
6.18	<p>임동원 통일부장관, 대북지원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언급</p> <p>* 제3차 대북협력 국제NGO 회의</p> <p>- 북한의 식량난을 극복하는 것은 남북 화해협력을 회구하는 모든 한국인과 동</p>	<p>평방, '위대한 광폭정치의 빛나는 결실' 제하로 김정일 위원장 영도력 칭송</p> <p>- 역사적 평양상봉과 6.15 북남 공동선언 발표는 김정일 장군의 애국, 애족, 애민의 광폭 정치에 의해 마련되었음.</p>	<p>국제원자력기구, '북·이라크 NPT 준수 불투명' 성명 발표</p> <p>- 북한이 작성한 핵물질에 관한 최초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아직도 검증할 수 없으며 핵</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8	<p>북아 안정을 바라는 세계인의 관심과 책임이 됐으며 북한이 조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식량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지원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함.</p> <p>- 북한은 인도적 지원물자의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을 전향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국제사회 또한 이를 북한에 촉구해야 할 것임.</p> <p>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한국 주도 재래식 무기협상 미국측에 전달 *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보고</p> <p>- 대북협상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감축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핵·미사일 문제에선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되 진전사항은 상호 통보하도록 한미 양국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음.</p>	<p>외무성 대변인, 미 대통령의 대북대화재개 성명 관련 담화 발표</p> <p>- 미국이 재래식 군사력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의(6.6)에 대해 '경수로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자'고 주장</p> <p>평방, '조미 회담에서는 마땅히 전력손실 보상문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제하의 논평 보도</p> <p>- 미국측의 핵·미사일·상용 무력 감축 등 대화재개 상정 의제의 부당성을 적시하는 가운데 경수로제공 지연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요구</p>	<p>물질이 전용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없음.</p> <p>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경수로 건설 지연 보상 거부 시사 * 정레브리핑</p> <p>- 미국은 기본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방침이나 어떤 특정한 보상도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북한이 궁극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규정 준수를 포함해 기본합의에 따른 스스로의 의무도 준수하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계속 추구할 작정임.</p> <p>푸틴 러시아 대통령, 北 미사일 기술수준 미국 안보 위협 부인 * 미국 기자단 대담</p> <p>- 북한은 이미 구식이 된 독일과 구 소련의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을 뿐이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8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없음.
6.19	<p>임동원 통일부장관, 북한 선박 자유통행 고려 부인</p> <p>* 국회 본회의</p> <p>-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 당시 우리측 선박 9척이 1천16명의 국민을 싣고 북측 관할 해역을 통행하거나 정박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무력 조치부터 취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대응수단을 높여가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판단했음.</p> <p>- 북한 선박이 우리영해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을 해야 하고 정부는 사안별로 검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남북간 선박의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음.</p> <p>정우택 해양수산부장관, 남북 해운합의서 무해통항권과 무관 언급</p> <p>* 외신기자 간담회</p> <p>- 남북 해운합의서는 교역물자 수송지원을 위한 것으로 무해통항권과 무관</p>	<p>김정일 위원장, 제567 대연합부대 군인가족 예술소조원들 공연 관람</p> <p>*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정하철, 이용철, 장성택, 김희택 등 참가</p> <p>중방, 김정일 당 중앙위 사업 시작 37돌 즈음 '김정일은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세련된 영도자이시다' 제하 논설 보도</p> <p>중방, '남을 걸고드는 악습을 버려야 한다' 제하로 대미 비난</p> <p>- 부시 미 대통령이 나토 정상 회담에서 북한위협론을 거론한데 대한 비난</p> <p>중앙통신, 일본의 PKO협력법 개정안 비난</p> <p>- PKO협력법 개정안은 일본 침략무력의 해외파병과 군사행동의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놓으려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경계심을 높여야 할 것임.</p>	<p>미 상원 외교위원장 조지프 바이든 민주당 의원, 北 미사일 확산 차단 주장</p> <p>* 국제비확산회의 연설 (워싱턴)</p> <p>- 북한이 제기하는 대량파괴무기 확산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할 분야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의 생산과 미사일 및 재료 또는 기술의 판매를 종식한다는 검증 가능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19	<p>하며 북한측과 어떤 협의도 한 적이 없음.</p> <p>김형기 통일부차관, 북한 영해침범 강력대처 언급 * 2001통일고문회의 워크숍</p> <p>- 북한측에 우리의 확고한 영해 관할권 행사의지와 함께 향후 우리측이 취할 조치를 분명히 전달한 만큼 정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임.</p> <p>- 북한이 사전에 승인을 신청할 경우 우리측 선박 북측 해상통항을 감안,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p>		
6.20	<p>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 사업 참여 발표</p> <p>- 지난해 8월부터 현대아산과 업무 제휴를 맺고 금강산 관광의 해외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 8일 현대와 북측간의 육로관광 합의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하여 현대측의 요청에 따라 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키로 했음.</p>	<p>전국 「직맹」 일꾼들·직맹원들의 백두산 답사행군대, 김정일의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 개척 45돌 및 당사업 개시 37돌 기념 충성의 모임 진행 * 백두산 밀영(혁명의 성지)</p> <p>노동신문, '의문부터 풀어주어야 한다' 제하로 대미 비난 논평</p> <p>- 부시 행정부의 북미대화 재개 제안이 일방적이고 전제조건적이라고 비난</p>	<p>에번스 J.R 리비어 주한 미대사대리, 北 재래식 무기 쉬운 것부터 협상 전망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조찬간담회</p> <p>-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해 쉽고 단순한 문제부터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의제는 워싱턴의 판단과 북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0	<p>통일부, 국제옥수수재단의 남북협력사업 변경 승인</p> <p>- 국제옥수수재단(이사장 : 김순권)이 98년 6월부터 북측의 농업과학원과 추진하고 있는 신품종 옥수수 개발 남북 농업기술 협력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연장, 이에 따른 예상 투자규모 증액 및 사업영역 확대를 승인</p>	<p>중방, '위험한 단계에 이른 해외 파병 야망' 제하로 대일 비난</p> <p>- 일본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법 수정법안에서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자위대 무력을 해당 지역에 파견,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비난</p>	<p>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임.</p> <p>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北 재래식 군사력 북미협상의 궁극적 논의 의제 언급</p> <p>*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p> <p>-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재래식 군사력 대치문제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는 어려움.</p>
6.21	<p>김동신 국방장관, 미측에 북 재래식 군사력협상 한국 주도 피력</p> <p>* 한미국방장관회담(워싱턴)</p> <p>- 과거 핵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미사일은 미국이,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맡는 역할분담을 강조</p>	<p>김정일 위원장, 제983군부대와 제567 대연합부대 건설 메기공장 시찰</p> <p>*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동행</p> <p>「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 행사 관련 「직맹원」들의 성토모임</p> <p>서면호 격침기념비 앞에서 진행</p> <p>중방, 김정일의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길 개척 45돌 즈음 전국 청소년들의 백두산밀영 고향집으로 답사행군 시작</p> <p>평방,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절대로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제하 대담 보도</p>	<p>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북 상선 영해 침범 대응 적절 평가</p> <p>* 한미 국방장관회담(워싱턴)</p> <p>- 북한 상선의 한국 영해 침범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이 의연하고 지혜로우며 적절한 조치였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 협상의제와 관련 대화에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 것을 촉구</li> </ul>	
6.22	<p>임동원 통일부장관, 정상회담은 통일문제 해결의 길 언급</p> <p>*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발전협력위원회 세미나</p> <p>- 지난 1년 동안 정상간의 약속이 진행됐지만 이제 다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와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야 하며 통일문제의 해결의 길은 정상회담임.</p> <p>임동원 통일부장관, 금강산 관광사업 수익 가능 시사</p> <p>* 국회 통일외교통상위</p> <p>-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이 활성화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봄.</p>	<p>평양시 청소년학생들, '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 즈음 성토대회 진행(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p> <p>김철주포병중합군관학교, 김정일 현지도사적비 '만대에 길이 전하라' 제막식 진행</p> <p>* 여춘석 상장 등 참가</p> <p>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남측 천도교 중앙총부 김철 교령과 담화</p> <p>평방, '위험한 무력증강 책동'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미국의 최신형 미사일 발사장비(MK-41) 판매결정은 무모한 무력증강 책동임.</p>	<p>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대북협상 단계적 상호주의 주장</p> <p>* 한·미교류협회 이사회 기자회견</p> <p>- 양측이 서로 조치를 취하며 단계별로 진행돼야 하며 대북협상은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 관계가 중요함.</p>
6.23	<p>통일부,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협력사업 변경 승인</p> <p>- 금강산 관광사업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이 공동으로 제출한 금강산 관광사업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변경을 승인</p>	<p>시사논평, '너절한 놀음을 견어치워야 한다'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미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 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상정하여 논의한 것을 비난</p>	<p>딕 체니 미 부통령, 재래식 무기협상 한국 주도 지지</p> <p>* 김동신 국방장관 백악관 예방시</p> <p>- 미국은 한미 동맹관계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3			재래식 무기협상의 한국의 주도적 역 할에 전적으로 동의
6.24	<p>합동참모본부, NLL 침범 北 어선에 경고사격 발표</p> <p>* NLL을 넘은 북측 선박에 대해 무력대응한 경우는 99.6월 서해교전 이후 처음</p> <p>- 6.24 오전 2시 50분께 북한 어선(9톤급) 1척이 서해 백령도 서북방 4.5마일 해상의 NLL을 2.5마일 가량 침범한 채 남하하자 대청도 해상에서 초계중이던 우리 해군 고속정 편대가 즉각 출동, 기적과 경고방송 등 검색을 시도했으나 불응하여 경고사격을 가했음.</p> <p>통일부,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p> <p>-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해 76.7%의 지지율을 보인 가운데 금강산 관광사업은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65.5%,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78.2%,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65.8%, 김정일 국</p>	<p>평양시 근로자들, '미제 반대투쟁의 날' 즈음 군중대회 및 반미시위 진행(김일성광장)</p> <p>* 양형섭, 최대복, 이종산, 곽범기, 양만길, 김영대, 류미영 등 참가</p> <p>노동신문, '지독한 재침야망' 제하로 대일 비난 논평</p> <p>- 일본이 북한 정찰을 목적으로 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연기하면서까지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실현하려고 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4	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는 85.7%가 찬성 의견을 나타냄.		
6.25	<p>김대중 대통령, 안보수호 및 평화협정 필요성 강조</p> <p>* 6.25 51주년 참전용사 위로연</p> <p>- 한반도에서 휴전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남북간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영해와 북방한계선은 굳건히 지킬 것임.</p> <p>통일부, 인천-남포간 선박운항 차질에 따른 피해업체 지원계획 발표</p> <p>-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인천-남포간 선박운항 차질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교역업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으로 저리(3-4%)의 교역자금을 대출할 예정임.</p>	<p>김정일 위원장, 오중흠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근위 제1보병사단 시찰</p> <p>* 현철해, 박재경 등 동행</p> <p>중방, '조국통일의 장애물은 미제' 제하로 대미 논평</p> <p>- 미국의 카이로회담, 알타회담, 38도선 설정, 남한점령과 관련하여 대미 비난</p> <p>평방, '침략자의 정체'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미국은 철두철미 조선전쟁을 준비하고 개시한 도발자, 침략자라고 비난</p>	
6.26	<p>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김정일 위원장, 과거사 사과 필요' 주장</p> <p>* 재향군인회 회장단 면담</p> <p>- 이미 남북정상간에 2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p>	<p>백남순 외무상 일행, 호주방문차 평양 출발</p> <p>비전향장기수, 조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 성원들과 상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6	<p>오지 말라는 애기처럼 들릴 수 있는 만큼 답방의 전제조건으로는 안한다 해도 반드시 사과가 있어야 함.</p>		
6.27	<p>임동원 통일부장관, 남북대화 재개시 경의선 복원공사 우선 논의 시사 * 6.15 1주년 특별강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당국간 대화가 소강 상태에 있지만 조만간 재개되길 기대하며 경의선 복원 공사 등을 우선 논의하게 될 것임.</li> <li>- 서울에서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조치 등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시작할 지 논의할 것임.</li> </ul> <p>통일부 대변인,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방침 결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를 열고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하기로 결정하였음.</li> <li>- 남북협력기금법과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국회보고 등 필요한 절</li> </ul>	<p>노동신문, '현지지도의 길위에 빛나는 선군영도의 위대한 역사' 제하의 글 게재</p> <p>중·평방, 북한-터어키간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 보도 * 외교관계설정일 : 2001.1.15</p> <p>중방, '침략야망 실현에 미쳐 날뛰는 호전광' 제하로 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방장관 럽스펜드가 최근에 남조선 국방부장관과 일본 방위청장관을 워싱턴에 연이어 불러다 놓고 범죄적인 모의를 벌였다고 비난</li> </ul> <p>중앙통신, '해결책은 대조선 적대시정책 포기에 있다' 제하의 논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 협상재개와 관련 전력손실 보상문제를 재강조</li> </ul>	<p>미 국무부, 중국의 탈북가족 처리 방식 제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대표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베이징 사무소와 이 문제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는 탈북난민 7명의 사건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7	<p>차를 거친 후 구체적인 대 출규모 및 조건 등을 결정하게 될 것임.</p> <p>최성홍 외교통상부차관, 중국에 탈북자 의사존중 희망 피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가 신중한 가운데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 베이징 소재 유엔난민 고등판무관(UHCR) 사무소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자유의사대로 정착지를 결정하기를 희망함.</li> </ul>		
6.28	<p>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 · 터키 수교발표 환영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과 터키의 외교관계 수립이 양자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li> </ul> <p>통일부 대변인, 국회 통일외교통상 상임위원회 유회 관련 입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에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없고 상황 변화가 있을</li> </ul>	<p>중방, '위대한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제하 보도</p> <p>중방, '선군혁명노선은 사회주의 수호와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위대한 노선' 제하 논설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공동선언을 포함한 지난 6년간의 성과는 선군혁명노선의 결실이라고 강조</li> </ul> <p>평방, '장군님의 선군 길' 제하로 김정일 찬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도와 전선시찰 길이 강성부흥을 불러온다고 주장</li> </ul>	<p>장치웨이(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 北주민 7명 인도주의 처리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주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에 난민 지위와 망명을 요청한 북한주민 7명의 처리 문제와 관련, 중국은 줄곧 국제 및 중국의 법률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대해 왔음.</li> </ul> <p>호주 외무부 대변인, 북한 · 호주 대사관 개설 합의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8	<p>때마다 이를 소상히 협의해 왔음.</p>	<p>백남순 외무상 일행, 호주 외무상과 상주대사관 개설에 관한 공동보도문 서명식 등 회담 진행</p>	<p>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北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근접 시사 * 하원 군사위원회</p> <p>-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에 매우 근접해 있으며 소수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음.</p> <p>콜린 미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대표, 북한주민 7명 제3국행 관련 성명 발표</p> <p>- 중국은 이들 가족의 건강상의 우려들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출국을 반대하지 않았음.</p>
6.29	<p>김대중 대통령, 남북대화 준비 및 안보태세 강조 * 안보분야 장관 오찬간담회</p> <p>- 남북은 평화공존과 교류를 통해 다시 전쟁을 하지 않는 환경을 정착시키고 통일은 장기적 목표로</p>	<p>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 대변인, 일본 나가노현 지사발언 규탄 담화 발표</p> <p>- 지난 6월 중순 간담회 및 기자회견 등에서 북조선에서는 개인의 존엄있는 생활, 발언이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어</p>	<p>이타르타스 통신, 박의춘 북한대사-러시아 외무차관 회동 보도</p> <p>- 박의춘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가 게오르기 마메도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9	<p>보고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우리의 안보태세를 갖추고 한미 연합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북한이 미국을 비롯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함.</li> </ul> <p>통일부 대변인,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 대출 승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결정</li> <li>-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 승인하고 대출조건은 연리 4%, 대출기간은 8년(3년거치 5년상환)으로 하였음.</li> </ul> <p>외교통상부 대변인, 장길수 가족 제3국 출국관련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베이징 사무소에 진입한 탈북 7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제3국으로 출국시키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UNHCR가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li> </ul>	<p>있다고 한 나가노현 지사의 발언을 비난</p> <p>외무성 대변인, 장길수 가족 관련 중통기자와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길수 가족은 피난민이 아니라 명백한 비법월경자들임.</li> <li>- 북남 화해를 달가와 하지 않는 남조선 불순세력과 정보요원들이 남조선으로 이들을 끌고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비열한 책동을 계속하고 있음.</li> <li>- 민족적 화해와 통일 열망이 달아오르는 때에 이러한 불순한 처사에 응당한 경계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음.</li> </ul>	<p>동한 자리에서, 부시 미 행정부 등장 이후 한반도 평화 전망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29	<p>유엔의 정신에 따라 이들 탈북자를 배려하고 인도 주의적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와 함께 노력해온 점을 평가함.</p>		
6.30		<p>김정일 위원장, 강택민 총서기에게 중국공산당 창건 80돌 기념 축전 발송</p> <p>중방, '군비확장과 평화는 양립될 수 없다' 제하로 미국의 내년도 국방 및 미사일 관련 예산증액 비난</p>	

■ 7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		<p>김정일 위원장, 중국공산당 창당 80주년기념 연회 참석차 주북 중국대사관 방문</p> <p>* 김영춘, 김일철(연설), 이용무, 김국태,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등 참가</p>	<p>KOTRA, 2000년 북한의 대일 교역액 4억6천400만달러로 집계</p> <p>- 그중 북한의 대일 수출은 1999년 대비 26.82% 늘어난 2억5천700만 달러이며 수입은 39.85% 늘어난 2억700만달러임.</p> <p>- 대일 수출품목중 어류제품이 전체의 34.7%로 가장 많고 뒤이어 의류가 25.2%, 철강류가 4.6%를 차지하고 있음.</p>
7. 2	<p>임동원 통일부장관, 금명간 남북 대화 재개 전망</p> <p>* 직원 월례 조회</p> <p>- 조만간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대화가 재개돼 남북관계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임. 아울러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2차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남북관계가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함.</p> <p>-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조속 완료 △개성공단 1</p>	<p>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 중국 항발</p> <p>* 단장 : 장운곤 부소장</p> <p>네덜란드 유럽·아시아 집단 남새화초온실합영대표단, 오스트리아 경제 및 노동성 대표단 평양 도착</p> <p>노동신문, '고약한 엉터리 선전' 제하로 대미 비난 논평</p> <p>- 불량배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우방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위체제를 수립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여론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p>	<p>미 상·하원 관계자 및 디펜스 포럼재단, 황장엽씨에게 방미 초청장 전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	<p>단계 공사 착수 △동해안 육로 연결 사업 추진 △이산가족문제의 근원적 해결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의 추진 등이 앞으로 주력해야 할 과제임.</p> <p>현대아산, 금강산 관광사업 대북 연체지불금 2천200만달러 북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해, 연체된 지불금을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을 통해 대북 송금</li> </ul> <p>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강연</li> <li>- 남북한 관계는 엄격한 상호주의보다는 포괄적 상호주의가 바람직하며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li> <li>- 봉쇄·강제는 냉전기를 통해 수동적이고 정태적인 방법임이 입증됐으며 따라서 포용정책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임.</li> </ul>	<p>평방, '결성기념일을 맞는 중앙교육회' 제하로 「재일본조선인 중앙교육회」 결성 46돌 축하 방송</p> <p>평방, 북송 비전향장기수 윤용기(6.13 사망)의 글 '운명의 태양을 받드립니다'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3	<p>통일부, (주)시스젠의 남북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취소</p> <p>- 통일부는 권오홍 (주)시스젠 대표가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함과 아울러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취소</p>	<p>북·쿠바, 군사 대표단 회담 개최(평양)</p> <p>* 북측 : 김영춘 차수, 오금철 상장 쿠바 : 혁명무력성 부상 겸 총참모장 로페스 상장 등</p> <p>백남순 외무상 호주방문 일정 종료후 평양 귀환</p> <p>뉴질랜드 친선 대표단 평양도착</p> <p>* 단장 : 국회 외교국방위원장 그라함첼릭</p> <p>노동신문, '우주에로 내달리는 군국주의 마차' 제하로 대일 비난 논평</p> <p>- 최근 미국에 찾아간 일본 방위당국자는 미 국방장관에게 일본이 앞으로 미사일방위계획을 추구할 수 있다고 밝힘.</p> <p>- 이는 일본이 독자적인 우주군사화를 위한 데로 한걸음 더 나가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음.</p> <p>- 일본이 군사대국화와 해외 침략의 길로 계속 내달린다면 그들에게 차려질 것은 무덤 밖에 없을 것임.</p>	<p>뉴욕 타임스, 미 대북 대화에 앞서 강경조건 제시 지적</p> <p>-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앞서 클린턴 전 행정부보다 더 많은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음.</p> <p>미 국무부, 북미대화 첫 접촉결과에 대한 북한측의 직접적인 응답 촉구</p> <p>- 우리는 북한측이 발표한 '6.18 성명'을 우리가 제시한 제안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창구를 통해 직접적인 응답이 있기를 기대함.</p> <p>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 남북한 동시방문 의사 표명</p> <p>*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중인 한승수 외무장관 면담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4	<p>김근태 새천년 민주당 최고 위원 방북 용의 표명</p> <p>* 새천년 민주당 홈페이지 인터뷰기사</p> <p>- 정치권 내부의 양해를 구 해 동료의원들과 평양을 방문할 용의가 있으며 김 정일 위원장을 만나 얘기 하면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겠음.</p> <p>한나라당 장광근 부대변인, 황 장엽씨 방미허용 촉구 성명</p>	<p>평방, 조국통일 3대원칙 강조</p> <p>- 7.4남북공동성명에 명기된 조 국통일 3대원칙은 남북한이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령이며 이를 기치로 삼아 통일투쟁을 벌여 나가 야 함.</p> <p>중방, '전쟁광신자의 평화타령' 제하로 미·일 정상회담시 부시 대통령의 발언 비난</p> <p>- 미국은 말로만 평화에 대해서 떠들어 댈 것이 아니라 범죄 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대아시아 지배야망부터 포기 해야 함.</p>	
7. 5	<p>한·미·일, 제16차 정책기 획협의회 개최(제주)</p> <p>* 수석대표 : 최영진 외교통 상부 정책기획실장(한), 리처드 하스 국무부 정책 실장(미), 야치 쇼타로 외 무성 총합정책국장(일)</p> <p>통일부, 2001년 상반기중 국 내외 대북지원 규모 2억8,873 만불로 집계</p> <p>- 국내지원은 총 1억65만불, 이중 정부차원의 지원은 6,555만불(65%), 민간차원 의 지원은 3,510불(35%)</p>	<p>평양원에총회사와 네덜란드의 유 럽·아시아합영그룹간 남새·화 초 재배를 위한 합영회사 설립 조인식 진행</p> <p>북한, 김일성 사망 7돌 관련 각종 행사 개최</p> <p>- 농업근로자들의 회고모임(7.5 연안군 오현협동농장)</p> <p>- 여맹원들의 회고 모임(7.5 여 성회관)</p> <p>-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무대(7.5 청년중앙회관)</p>	<p>독일 연방하원, 한반 도 평화·안정·통일 에 관한 결의안 채택</p> <p>* 남북한간 화해협력 노력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원을 이 끌어내기 위해 독 일의 각 정당이 참 여하여 마련</p> <p>- 결의안은 독일 정 부에 대해 △북한 이 핵비확산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초래 될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5	<p>- 국제사회의 지원은 1억 8,808만불 상당, 이중 UN 기구 1억7,012만불, 국제 NGO 799만불, 개별국가 997만불임.</p> <p>통일부, 남북당국회담 관련 언론보도 내용 부인</p> <p>- 한국일보 7.6자 가판 1면 '남북당국자 회담재개 접근' 및 경향신문 1면 '남북당국회담 내주 결정' 등 남북당국회담과 관련한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p>	<p>중국 공산당 창건 80돌 즈음 당 총서기 姜澤民의 '경축대회 연설' 내용 보도</p> <p>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부의장, 방북중인 뉴질랜드 친선 대표단 및 중국 우호 친선 대표단과 담화</p>	<p>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 EU 및 미국과 공동 노력하고 △북·미간 미사일 문제 협상 및 운반기술 수출금지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p> <p>베트남 외무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7.11-14중 베트남 방문 계획 발표</p>
7. 6	<p>통일부, 금년도 상반기 북한 경제 평가</p> <p>- 연초부터 「인민경제토대 정비」를 중점과제로 앞세우면서 산업전반의 기술적 재건을 모색한 결과 가뭄 및 이상고온 현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원자재·에너지 증대 등 「인민경제」 토대의 정비로 특히 수출부분의 생산이 전년 동기보다는 양호한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됨.</p>	<p>민족고전학학회, 일본당국의 검정 교과서에서 민족고전의 약탈·소각 죄행 미언급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p> <p>- 일본은 역사교과서에서 우리나라의 민족고전을 소각하고 약탈한 역사에 대하여 한 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인류 문명에 대한 파괴자, 약탈자로서의 후안무치성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드러내 놓았음.</p>	<p>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북한 지원 식량 비적절 분배론 반박</p> <p>- 지난 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에 지원된 식량의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식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장 지글러 특별보고자의 주장을 부인</p>
7. 7		<p>외무성 대변인, 황장엽 미국 초청 관련 중통 기자회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7		<p>- 미 국회의 일부 공화당 강경 보수 세력들이 황장엽을 미국에 끌어다 우리를 반대하는 또 하나의 모략극을 연출하려는 것은 행정부의 대조선 강경정책의 입김을 불어 넣어 우리를 한사코 고립 압살해 보려는 어리석은 책동의 일환임.</p> <p>평방, '침략적이고 예측적인 남조선-미국 호상방위 조약' 제하로 주한 미군 철수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철폐 주장</p>	
7. 8	<p>김성호 민주당 의원, 「탈북자 호칭변경을 위한 대안 보고서」 공개</p> <p>* 탈북자 202명 대상 설문조사</p> <p>- 전체응답자의 68%(138명)가 '탈북자'란 용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p> <p>- 호칭대안에 대해서는 △자유이주민 117명(58%) △자유북한인 36명(18%) △탈북인 11명 △남한인 10명 등임.</p>	<p>중방, 전력보상 문제 해결 논의가 북미간 선차적인 대화 의제라고 주장</p> <p>- 조미 협상에서 가장 긴질하고 현실성을 띠는 문제는 미국의 경수로 제공 지연에 따르는 우리의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것임.</p> <p>- 우리는 전력손실 문제를 조미 협상의 선차적인 의제로 논의 해결할 것을 요구함.</p>	<p>고이즈미 일본 총리,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논의 관련 언급</p> <p>* NHK프로그램</p> <p>- SOFA개정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미·일 안보협정이 필요하고 미군 주둔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이 문제를 장래 의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9	<p>김대중 대통령, 북한-EU간 국교 정상화 환영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앤서니 기든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총장 청와대 접견</li> <li>- EU국가들이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하는 것은 매우 잘된 것이며, 우리는 이를 권고한 입장에서 환영함.</li> </ul> <p>현대아산, 금강산 관광 이면합의설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면합의설에 대한 현대아산의 입장' 자료 배포</li> <li>- 지난 6월15일과 2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하여 여야 의원들에게 합의서와 확인서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고 열람하게 했으며, 그 이외의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음.</li> </ul> <p>금강산 쾌속선 「현대 설봉호」 시험 운항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14부터 상업운항</li> </ul> <p>양성철 주미 대사, ARF회의 기간중 제2차 남북외무장관 회담 제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특파원단 간담회</li> </ul>	<p>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의장, 중국 친선대표단과 담화 및 환영 연회 개최(만수대의사당)</p> <p>중방, '변함없는 반공화국 압살 야망의 발로' 제하로 주한 미군기지 MH-47E기 추가배치계획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군이 대구와 김해의 미군기지에 특수작전용 직승기 MH-47E기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 준비를 보다 완성하기 위한 책동의 하나로써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 야망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것임.</li> </ul> <p>중방,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장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공식방문 계획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목적 및 체류일정은 미보도</li> </ul>	<p>중국친선대표단,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40주년 기념행사 참가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 장춘윈(姜春雲)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부위원장</li> </ul> <p>베트남 외무부, 북한에 대한 쌀 추가 공급에 회의적 입장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신사 배포 보도 자료</li> <li>- 북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깊은 동정을 느끼나, 쌀 추가 공급은 베트남의 상황과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임.</li> </ul> <p>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미국의 대북 제의에 대한 북한 공식 입장 대기중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아직 우리가 한 제의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응답을 기다리고 있</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9			<p>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 현안을 논의하자는데 대한 대답과 의향을 그들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미국이 처리해야 할 1차적인 문제임.</p> <p>프랑스 르몽드紙, 중국 당국 탈북자 단속 강화 보도</p>
7.10	<p>김대중 대통령, 일류국가 도약 위한 남북한간 평화협력 강조</p> <p>* 세계 한인회장단 다과</p> <p>- 햇볕정책이란 평화공존, 평화교류하고 전쟁없이 서로 잘 살자는 것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만들고 남북이 평화협력을 이루면 반드시 일류국가 가 될 것임.</p> <p>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김정일 위원장 연내 답방 희망 언급</p> <p>* 프랑스 르몽드지 인터뷰</p> <p>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금강산 관광 관련 당국자간 회담 필요성 제기</p> <p>* 국회문광위 답변</p>	<p>김정일·김영남·홍성남, 조·중 조약체결 40돌에 즈음 중국 강택민·이봉·주용기와 축전 교환</p> <p>중방, '이제는 끝장을 낼 때가 되었다' 제하로 주한 미군 철수 주장</p> <p>- 남조선에 틀고 있는 미군은 조국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최대의 장애물임.</p> <p>- 6.15 북남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지난 1년 남짓한 기간의 조선 정세가 보여주는 것처럼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해 있을 명분은 더는 없음.</p> <p>- 미제 침략군은 우리 인민과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한결 같은 요구대로 모든 무기</p>	<p>장쩌민(姜澤民) 중국 주석, 북경서 북한 친선대표단 접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0	- 현대·아태위원회간 합의서 내용은 '남북관광기본합의서' 등 큰 틀로써 당국들이 담보해줘야 하고, 각론을 검토해봐야 함.	들을 거두어 가지고 남조선에서 즉시 물러가야 함.	
7.11	김대중 대통령,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 강조 * 군 주요지휘관 오찬  - 남북 화해 협력정책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내실있게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임.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간의 남북 협력기금 출연 상황 발표  - 정상회담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민간 출연금액은 약 15억원임(지난해 하반기 5억3천만원, 금년 상반기 9억2천만원) * '9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출연 총액 : 약20억원	중방, 북한 태권도 선수단의 국제태권도협회 개최 세계선수권대회(7.3-8, 이탈리아) 종합 우승 소식 보도 * 금메달 17개, 은메달 5개  중앙통신, 일본의 「2001년도 방위백서」 내용 비난  - 일본이 2001년판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우리에게 대해 대량 파괴무기의 개발·배치단행이니, 대규모적인 특수부대 유지니 하는 등 우리를 걸고 든 것은 저들의 군사적 대국화 책동의 범죄적인 진면모를 가리우기 위한 것임.  김정일 위원장, 황해북도 범안 양어장·범안 발전소 및 범안 협동농장 문화주택마을 현지지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방문차 평양출발 * 이광근(무역상), 강능수(문화상)·박길연(외무성 부상), 홍선옥(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등 동행	중국 국제방송, 장쩌민(姜澤民) 주석의 남북대화지지 입장 표명 보도 * 북경을 방문중인 북한 김윤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접견시 발언  - 중국은 북남 쌍방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의 자주 평화통일을 확고하게 지지할 것임.  재미 실업인연합회의 김봉섭 회장, 재미동포 실업인 북한 산업시찰 추진 언급 *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  -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재미 동포 실업인들에게 북한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1	<p>- 민간 출연 증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기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p> <p>유성희 전 대한의협회장, 의협 대외의료협력단 일원으로 방북중 평양에서 사망</p>	<p>중방, '인류의 양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 제하로 일본당국의 왜곡·날조 역사교과서 수정거부 움직임 비난</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베트남 주석 쩌 득 르엉과 회담</p>	<p>산업계에 대한 견문을 넓혀 주기 위해 이달부터 10월 까지 몇차례 걸쳐 북한산업시찰에 나선 계획임.</p> <p>리펑(李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북한 김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접견 시 북·중 우호협력 확대 다짐</p> <p>- 중·조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4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중·조 친선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으며, 앞으로 중·조 친선은 더욱 강화 발전할 것임.</p> <p>미 하원, 김창준 전하원 의원을 초청하여 황장엽씨 방미문제에 대한 의견 청취</p>
7.12	<p>유성희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시신, 판문점 통해 유가족에 인도</p>	<p>김정일 위원장, 중국 친선대표단 접견·만찬</p> <p>* 중국 친선대표단은 「조·중 조약체결」 40돌 기념행사 참석차 방문</p>	<p>히로세 요시카즈 日해상자위대 대변인, 한국정부의 한·일간 군사교류 중단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2	<p>장광근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의 대북 전력지원검토 발언 관련 성명 발표</p> <p>- 국회와 국민의 동의없는 대북전력지원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힘.</p> <p>최상룡 주일 한국대사,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日관방 장관에게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재수정 요청</p> <p>통일부, 10월직후 김정일 담방 추진설 관련 보도내용 부인</p> <p>-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 담방을 위해 10월 부시 대통령 방한 직후에 추진할 것이라는 동아일보 보도 내용(7월13일자 가판 1면)은 사실이 아님.</p>	<p>노동신문,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 제하 한미 연합기뢰전 훈련 비난 논평</p> <p>- 우리의 대규모 기뢰부설을 통한 항구봉쇄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벌인 이번 연합기뢰전 훈련은 명백히 북침을 노린 전쟁 연습임.</p> <p>노동신문, '남을 걸고 드는 악습은 버려야 한다' 제하로 미 국방장관 고문 윌리엄 슈나이더의 요미우리 신문 기자회견 내용 비난</p> <p>* 슈나이더는 기자회견시 미국이 미사일 방위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북한 때문이라고 언급</p> <p>- 얼마전 미국 국방장관의 고문인 윌리엄 슈나이더란 자가 도쿄에서 가진 요미우리 신문과의 회견에서 우리가 미사일 개발을 단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미사일방위가 필요하다고 떠벌였음.</p> <p>- 그의 말을 풀이하면 미제가 미사일방위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다름아닌 우리 공화국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명백히 후백을 진도하는 파렴치한 망발이 아닐 수 없음.</p>	<p>워싱턴 포스트, 美 4년내 초기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 추진 보도</p> <p>뉴욕 타임스, 원원전략 포기 등 미국의 새 군사 전략안 관련 보도</p> <p>- 미국은 '93년 이래 유지해온 원원 전략을 포기하고 △미본토 방어 △침략국 적대행위 예방 △1개 대규모 전쟁에서의 결정적 승리 △제한된 기간의 국지전 참가 등 4개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내용의 새 전략을 마련했다고 보도</p> <p>폴 월포워츠 미 국방부 장관, 북한의 미사일 대미 위협성 강조</p> <p>* 미상원 군사위 2002 회계연도 국방예산 심의회 참석 발언</p> <p>- 북한은 현재 수백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재래식 탄도미사일 에 대한 우리의 방어력은 취약한 편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3	<p>쾌속선 '설봉호' 출항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 6.31 '금강호' 동해항 귀항 이후 금강산 관광 일시 중단됨.</p> <p>여야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 참여의원 : 유재건·이창복·홍재형·김성순·함승희·조응규·박원홍</p> <p>김동신 국방장관, 해상경비 전력 재배치 언급            *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p> <p>- 북한 선박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따른 사후조치와 관련하여 제주해역 경비전력을 보강하는 등 그 동안 연안 위주였던 해상 경비태세를 연안과 원해(遠海)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도록 군 전력을 조정·배치했음.</p>	<p>최태복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당중앙위원회 비서, 만수당 의사당에서 우크라이나 공산당 대표와 환담</p> <p>중앙 TV, 김동신 국방장관의 방미(6.14-24)를 소재로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p> <p>중방, '수치를 모르는 자들' 제하로 일본당국의 과거 종군 위안부 범죄행위 부정·왜곡선전 비난</p>	<p>북미, 뉴욕에서 협상 재개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접촉            * 에드워드 동 美 국무부 한국과장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간 접촉</p> <p>- 회담 결과에 대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양국간 대화를 위한 회담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p>
7.14	<p>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 14명 입국 사실 확인</p>	<p>북-베트남 공동코뮤니케 발표</p>	<p>이타르타스 통신, 북러간 부채검증증서 체결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4	<p>- 최근 북한주민 14명이 제 3국을 경유하여 입국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원 및 입국 경위 등을 조사중에 있음.</p> <p>김대중 대통령, 장쩌민(姜澤民) 중국 국가주석에게 베이징시의 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 축하 축전</p>	<p>- 1차 남북정상회담·6.15남북공동선언 환영 및 실천 기대 표명</p> <p>- 북·베트남 양국간 정치·경제·문화 등 제 분야의 교류 협조 강화 합의 등 포함</p> <p>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캄타이 시판돈 라오스 주석과 회담</p> <p>이광근 무역상·강능수 문화상 등, 비엔티안에서 라오스와 부분별 회담 진행</p> <p>시사논평, '세계 최대의 핵위험 국가는 미국이다' 제하로 미 상원의 내년도 국방예산증액 승인 비난</p> <p>- 미 국회 상원에서 무려 60억 달러에 달하는 핵무기 개발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킨 사실과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을 위한 시험시설 건설을 강행하려는 사실을 통해서도 미국이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서는 것을 잘 알 수 있음.</p>	<p>* 블라디미르 체르누힌 러시아 재무 차관, 북한의 대 러시아 부채 상환 문제 협의 차 방북</p> <p>미국, 미사일 요격 실험</p>
7.15	<p>조홍규 한국관광공사 사장,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방향 관련 언급</p> <p>* 한국일보 인터뷰</p>	<p>노동신문, '뻘뻘스러운 자들의 잠꼬대' 제하로 일본당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수정요구 무시 결정 관련 비난 논평</p>	<p>장쩌민(姜澤民) 중국 국가주석 러시아 방문 (7.15-18)</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5	<p>-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 전문기관인 관광공사의 참여로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실성 있는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p>		
7.16	<p>통일부, 대북 경수로 건설비 관련 비용 이자 남북협력기금 부담 보도 부인</p> <p>* 조선일보 7월16일자 가판 2면 「북 경수로 공사비 이자만 361억」 제하 기사 관련 보도자료</p> <p>- 대북 경수로 건설비용 중 우리측 분담금은 국채발행 등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차입 받아 KEDO에 차관형식으로 지출하고 있음.</p> <p>- 또한 채원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바,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님.</p> <p>유엔군 사령부, 북한군 장교 사체 1구 북한에 인도</p>	<p>김정일 위원장, 공군사령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p> <p>*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정하철, 최칠남, 김기룡, 차승수, 이용철, 장성택, 이제강 참가</p> <p>중방, 日 자위대 해외파병 논의 움직임 관련 대일 비난</p> <p>- 해외에서의 군사 작전권을 자위대에 부여하고 군사행동 범위를 아시아와 세계적 판도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외 침략의 길을 넓히려는 일본 반동들의 흉심은 통할 수 없음.</p> <p>시사논평, '침략적 본성은 더욱 더 드러나고 있다'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미 육군의 4개 신속타격 전투여단 창설계획 비난</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7.15-16 라오스 지방도시 시찰</p>	<p>중국 외교부 대변인, 美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추진 비난</p> <p>- 미사일 방어체제는 전세계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해칠 것임.</p> <p>장쩌민(姜澤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러 선린 우호협력조약 체결</p> <p>리처드 바우처 美 국무부 대변인, 중·러 선린 우호협력조약 관련 언급</p> <p>- 그것은 우호조약이지 동맹조약은 아니며 상호 방위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았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6			<p>- 우리는 러시아 및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며 이들 두 나라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껴 왔음.</p>
7.17	<p>남북농민통일대회 남측 참가단 방북</p>	<p>김일성 출생 90돌 맞이를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진행(김일성 광장)</p> <p>북-라오스간 공동코뮤니케 발표</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라오스 출발·캄보디아 도착·시아누크와 회담</p> <p>피바다 가극단 창립 30돌 기념 보고회 진행(평양대극장)</p>	<p>프랑스 외무부, 허종 북한 순회 대사와 양국 상호관심사 논의 사실 발표</p> <p>체코 의회 대표단 북한방문</p> <p>네팔 국회 대표단 북한 방문</p>
7.18	<p>임동원 통일부장관, 남북당국간 회담 기대 표명</p> <p>*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p> <p>- 당국간 회담 일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앞으로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p> <p>통일부, (주) 하니비즈닷컴(대표 : 문광근)에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p>	<p>6.15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 금강산에서 개막</p> <p>* 북측 「농업근로자동맹」, 남측 「농민회총연맹」 및 「여성농민회총연합」 대표단 등 참석</p> <p>김정일-푸틴 상봉과 조·러 공동선언 채택 1돌 즈음 주러 북한대사 박의춘, 대사관서 연회 개최</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캄보디아 수상 훈센과 담화</p>	<p>G-8 외무장관 회의 개막(제노바)</p> <p>- MD 구축문제 및 지역분쟁 해소방안 등 협의</p> <p>독일 정부, 대북 원조용 쇠고기(3000톤) 수주내 선적 시작 발표</p> <p>국제엠네스티, 북한에 유엔인권위 협력 촉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8	<p>- 사업내용 : 북측 평양정보 센터와 합영으로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위한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중국 단둥에 설립</p> <p>임동원 통일부장관, 금강산 관광사업 지속 추진 필요성 표명</p> <p>* 국회 본회의 금강산관광 사업 긴급현안질의 답변</p> <p>-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의 여러 가지 의미와 효과를 감안할 때 금강산 관광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함.</p>		<p>- 북한 정부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유엔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것을 희망함.</p>
7.19	<p>김대중 대통령, 민족통일협의회 활동 치하</p> <p>* 민족통일협의회 임원 초청 다과회</p> <p>- 1981년 민간 통일운동의 효시로 출범한 민족통일협의회가 그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남북관계 진전에 이바지해온 점을 높이 평가함.</p> <p>통일부, 금강산 관광사업 대출금 상환 관련 입장 발표</p>	<p>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 금강산서 폐막식 진행 및 공동발표문 발표</p> <p>- 남과 북의 농민들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관철하는 데서 언제나 마음도 몸도 하나로 합치며 공동행동을 즉각 벌여 나갈 확고한 결의와 의지를 다졌음.</p> <p>-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농민들이 통일연대조직을 내오는 문제도 협의 추진하기로 함.</p>	<p>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의 인권보고서 심사 진행</p> <p>쿤라드 루브르아 주한 벨기에 대사, 김정일 위원장 서울 답방 관련 백남순 외무상 발언 전언</p> <p>* 한국기독교인문인클럽 주최 조찬토론회</p> <p>* 루브르아대사, 방북(6.18-23)기간 중 백남순 외무상 등과 면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19	<p>* 금강산관광사업 대출금 관련, 수출입은행의 심사보고서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발표</p> <p>- 수출입은행의 심사보고서는 관광공사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대출을 결정한 것임.</p>	<p>노동신문, '해상공격을 노린 군사적 훈련' 제하로 일본자위대와 미 해군의 공동소해특별훈련(7.19-29) 비난 논평</p> <p>김일성 탄생 90돌 맞이를 위한 군중대회, 평안남도·함경남도·양강도·개성시에서 진행</p>	<p>- 방북기간중 백외무상이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채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언</p> <p>니콜라이 악쇼넨코 러시아 철도장관, 김정일 위원장 8월초 러시아 방문 예정 언급</p> <p>베트남 외무차관, 백남순 북한 외무상의 제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불참 통보 확인</p> <p>데니스 블레어 미 태평양사령관, 亞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 희박 주장</p> <p>* 일본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p> <p>- 미국 국방부가 병력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작업을 시행하더라도 아시아 주둔 미군병력을 감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0	<p>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노력 당부</p> <p>*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 간담회</p> <p>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 13명 입국 사실 공개</p> <p>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설악~금강 연계상품 개발 추진 언급</p> <p>- 금강산 관광객이 설악권에서도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등 설악~금강이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음.</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캄보디아 공식방문(7.17-20) 관련, 북한-캄보디아 공동코뮤니케 발표</p> <p>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미사일 요격실험 강행 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미국의 미사일요격실험(7.14 캘리포니아주 마샬군도에서 미사일요격실험)은 미사일방위체계가 본격적인 수립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부득불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p> <p>노동신문, 북·러 공동선언 채택 1주년 관련 논평</p> <p>- 조로(북·러) 공동선언이 채택된 후 두 나라 사이에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가 심화되고 있으며, 조로관계의 발전은 두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됨.</p> <p>중방, '미국의 손탁에서 돌아날 수 밖에 없는 일본' 제하로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일본 어로실습선 침몰사건 등 비난</p>	<p>G-8 정상회담 개막 (제노바)</p> <p>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보고서 심사완료</p> <p>- 유엔인권이사회는 제네바에서 △북한의 사형제도 및 강제수용소 실태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여성차별 문제 △정당설립 △여행 및 거주이전의 자유 △독립적인 비정부기구(NGO)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p> <p>EU 집행위원회 대표단 방북</p> <p>- 시머스 길레스피 EU 집행위원장 한국담당관 등 4명의 대표단을 구성, EU의 대북원조 개선방향 등 협의차 방북</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1	<p>정세현 국가정보원장 통일특별보좌역, 북한의 군사경제의 폐쇄성이 인민경제의 부진 원인이라고 분석</p> <p>* 미래전략연구원 주최 세미나</p> <p>- 북한의 경제는 인민경제와 군사경제(제2경제)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고 제2경제는 자체의 회계원칙과 시스템에 따라 폐쇄적으로 운영됨.</p> <p>- 군사경제는 비교적 원활한데도 인민경제가 부진한 이유는 대북 지원 물자의 군사적 전용 결과라기 보다는 군사경제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봄.</p>	<p>시사논평, '전쟁광신자의 파렴치한 망발'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미 태평양사령관 데니스 블레이의 일본 외신기자 클럽 발언 (7.19) 관련</p> <p>- 우리에게 위협 국가라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우리의 이른바 위협을 겹고서 아시아 지역 주둔 미군 무력을 계속 유지 강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북침 전쟁을 기어이 단행해 보려는 음흉한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임.</p> <p>노동신문,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제하로 남한의 미국산 무기 도입 관련 비난</p>	<p>일·러 정상회의 개최 (제노바)</p> <p>- 북방영토·평화협약 체결 및 경험 증진 방안 논의</p> <p>G-8 정상회의, 한반도 및 마케도니아 정세에 관한 성명 발표</p> <p>- 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속 실현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 발표 이행 촉구</p>
7.22	<p>임동원 통일부장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중요성 강조</p> <p>* 대한상공회의소 개최 최고경영자 대학 강연(제주)</p> <p>-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 경제협력공동체 건설, 군사적 긴장완화, 휴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이라고 봄.</p>	<p>양형섭·최영림·조창덕 등 내각 위원회, 성·중앙기관, 당 행정책임 일꾼들, 평양시내 인민소비품 공장들 참관</p> <p>노동신문, '함부로 걸고 들지 말아야 한다' 제하로 대미 비난 논평</p> <p>- 북한은 현재 수백기의 재래식 탄도탄 미사일을 보유, 한반도 전쟁시 미국이 직면하게 될 가장 가공할 위협중 하나는 미사일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한 윌포워츠 미국 국방성</p>	<p>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 亞州 5개국 순방(7.22~31)차 워싱턴 출발</p> <p>- 순방 예정국 : 일본, 베트남, 한국, 중국, 호주</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2	<p>- 지난 3월 이후 소강상태에 놓여 있는 남북당국간 대화는 미국과 북한간 관계가 풀리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함.</p> <p>김고중 현대아산 부사장, 금강산관광사업 손익분기점 2006년으로 전망</p> <p>*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현대의 투자전략 심포지움</p> <p>- 육로관광 등으로 예상하는 관광객이 확보될 경우 오는 2006년에는 금강산관광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을 것임.</p>	<p>부장관의 상원 청문회 발언 (7.12)내용 비난</p> <p>「7.27 전승의 날」 즾음한 중앙미술전시회 진행(인민문화궁전)</p>	
7.23	<p>외교통상부, 北 비확산 의무조항 이행 평가</p> <p>* 2000년 외교백서</p> <p>-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 관련 시설 동결 및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인출한 사용후 연료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치 등 비확산 관련 의무사항을 계속 이행했음.</p> <p>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무장관 회의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 도착</p>	<p>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주북 중국대사와 「2001-2002 문화 교류 계획서」 조인</p> <p>인민보안성·철도성, 김일성 90회 생일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궐기 대회 개최</p>	<p>워싱턴 포스트, 중국의 탈북자 검거활동 강화 실태 보도</p> <p>* 국경없는 의사회 보고서 인용 보도</p> <p>중국 국제방송, 금년 상반기중 북-단둥(丹東)간 무역총액 9천 990만달러로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4	<p>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국 탕자시엔(唐家璇)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p> <p>- 한반도 정세 등 현안에 관한 의견 교환</p> <p>국가정보원, 북한 해외진출식당 현황 공개</p> <p>*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게재 자료</p> <p>- 86년 3월 오지리에 최초로 해외 북한식당을 설립한 이래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p> <p>-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총 40여개가 설립되어 있고 추후 추가적으로 불가리아, 호주 등에 신규 개설을 추진하고 있음.</p>	<p>평방, 함경남도내 성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 마감단계 진행 보도</p> <p>- 계획했던 33개중 27개의 대상 건설이 종료되고 6개가 마감되었음.</p> <p>외무성 대변인, 정전협정 체결 48돌 즈음 조선중앙통신사의 기자회견</p> <p>- 한반도에서 정전상태가 공고한 평화상태에로 전환되자면 무엇보다도 우리와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를 통하여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우리를 주적으로 삼고 있는 미군의 남조선 강점이 중식되어야 함.</p> <p>영국 신공산당 대표단 및 레이버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 클린포드 일행 등 평양 도착</p> <p>철도성 대표단 러시아 방문차 평양 출발</p> <p>평방, '군국주의 사고방식의 발로' 제하로 일본당국자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의향 비난</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신임 대통령에게 취임 축전 발송</p>	<p>제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PF) 외무장관 회의 참가 대표단,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공식 만찬</p> <p>뉴욕 타임스, 美 민주당의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추진 동향 보도</p> <p>- 최근 미국 민주당 진영내 안보전문가 그룹이 부시 행정부가 추진중인 미사일방어망 구축계획에 대응, 투입예산이 적고 기존의 군축협정을 위협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을 추진하고 있음.</p> <p>이타르타스 통신, 김정일 위원장 8월초 러시아 방문 예정 보도</p> <p>- 정부 고위소식통을 인용, 김정일 위원장이 8월 4일이나 5일경 시베리아 횡단 철도편으로 모스크바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4		<p>평방 '핵위협과 핵전파의 장본인은 미국이다' 제하로 대미 비난</p> <p>북한주재 각국 외교대표들, 판문점 북측지역 방문</p>	<p>KEDO-북한, 품질보장(Quality Assurance) 및 보증(Warranties)의정서 가서명</p> <p>* 동 의정서는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의정서중 8번째 의정서</p> <p>- 품질보장 부분은 품질활동 과정에서의 KEDO와 북한측에게 부여된 각각의 의무와 권리, KEDO와 계약자들에 대한 면책, 품질보장 관련 문서 및 기록의 제공범위와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p> <p>- 보증부분은 KEDO가 제공하는 경수로 2기의 전기출력, 주요부품, 초기장전 핵연료 및 건설물에 대한 보증과 관련한 세부기술사항과 조건 규정</p>
7.25	<p>통일부, 2001년 상반기 남북 교역액 197,290천달러로 집계</p> <p>*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p>	<p>「조국해방전쟁승리 48돌 경축 청년학생들의 전승 음악회」 진행(청년 중앙회관)</p>	<p>제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의, 하노이에서 의장성명 채택</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5	<p>- 반입액은 63,266천달러로 전년동기 1.9% 감소하였으며 반출액은 134,034천달러로 전년동기 3.1% 감소하였음.</p> <p>- 남북교역 참여업체수는 283개 업체, 품목수는 450개임.</p> <p>통일부, (주)우인방커뮤니케이션의 「통일염원 6.15 금강산 랠리」 협력사업 승인</p>	<p>허종 순회대사, 북미 대화 재개 위해 미국에 동등한 대우 요구</p> <p>* 제8차 아세안지역안보 포럼</p> <p>- 북미 협의가 재개된다면 동등한 입장에서 회담이 진행되어야 함.</p> <p>평방, 데니스 블레어 미 태평양 사령관의 일본 외신기자 클럽 발언 비난</p> <p>* 블레어 사령관 발언내용 : 아시아의 안정에 가장 큰 위협요소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며, 앞으로 미국은 북한이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공격을 격퇴할 수 있도록 아시아 지역방위에 계속 역점을 둘 것임.</p> <p>- 블레어 사령관의 발언을 강도적 논리이며 북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p>	<p>* 동성명에 남북한간 대화권고 및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중요성 등 포함</p> <p>제8차 아세안지역안보 포럼 외무장관 회의, 북한 등 회원국의 연례안보전망보고서 공개</p> <p>*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개관, 한반도 통일, 대외정책, 아태지역의 안보전망, 한반도의 평화·안정 확보의 수단과 방법 등으로 구성</p>
7.26	<p>한국이웃사랑회(회장 이일화), 2억5천만원 상당 대북지원</p> <p>* 비료, 경운기, 아동복 등 19종</p> <p>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노이)</p>	<p>평방, 김정일 위원장 러시아 방문 계획 보도</p> <p>-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 연방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가까운 시기에 러시아 연방을 공식 방문하게 됨.</p> <p>중방, 「북·유럽동맹간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 보도」 방송</p>	<p>아사이 신문, 김정일 위원장 러시아 방문 동정 관련 보도</p> <p>- 김정일 위원장이 7.26 아침 러시아에 입국하여 8.4-5 양일에 걸쳐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6		<p>* 백남순 외무상, ARF참가 EU 대표와의 회담을 통해 양자간 외교관계 설정기로 합의(7.25)</p> <p>- 외교관계 설정일은 2001년 5월 14일로 하기로 하고, 외교대표부 교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 문제들은 올해 가을에 토의하기로 합의하였음.</p> <p>「조국해방전쟁승리」 48돌 관련 행사 개최 및 보도</p> <p>- 육·해·공군 장병들의 충성의 결의 모임(전승기념탑 앞),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무대(칠골농장 문화회관), 「여맹인」들의 경축 노래무대(여성회관) 등 진행</p> <p>노동신문, '안정을 파괴하는 진짜 범인'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미 태평양지역 총사령관 블레어의 북한 위협론 발언(일본구락부 기자회견시)등 대미 비난</p>	<p>- 김정일의 특별 열차는 7.26 오전 북·러 국경을 넘어 핫산역에 도착하여 곧바로 하바로프스크를 향해 출발하였음.</p> <p>러시아의 소리방송, 8.4~5일중 김정일-푸틴간 공식회담 계획 보도</p> <p>이타르타스 통신, 김정일 위원장 서면 인터뷰(7.24) 출고</p> <p>잭 프리처드 미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 북한에 핵비확산협정(NPT)의무 준수 촉구</p> <p>* 하원국제위원회 아태소위 출석 발언</p> <p>- 북한은 IAEA가 명시한 핵비확산(NPT)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북한이 그 같은 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할 때까지 경수로 건설 계획은 중단될 것임.</p> <p>NHK, 김정일 위원장 핫산 도착 장면 방영</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7	<p>김대중 대통령, 미국에 대북 대화 적극 추진 권유</p> <p>*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접견</p> <p>-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는 서로 병행 발전해야 함. 이것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에도 중요하고 이것을 바라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임. 지금까지 볼 때 북한은 미국과 관계개선의 의지가 높다고 생각하므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권유함.</p> <p>통일부, 2001년도 상반기 북한의 무역실적 추정 집계 발표</p> <p>- 북한의 금년도 상반기중 무역총액은 15.1억달러로 작년 동기 무역총액(8.3억달러) 대비 81.9% 증가하였음.</p> <p>- 수출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2.9억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121.8% 증가한 12.2억달러임.</p> <p>- 상반기중 대중교역이 82.1% 증가, 대일교역은 465.8% 증가함으로써 북한의 총 교</p>	<p>중·평방,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사 서면 기자회견 (7.24)내용 보도</p> <p>주중 북한대사관, 자국대사관에서 '전승절' 48돌 즈음 사진전시회 및 영화감상회 개최</p> <p>중방,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 날뛰는 전쟁광신자들' 제하로 대미 비난</p> <p>평방, '일본의 추악한 역사왜곡 책동을 논함' 제하로 대일 비난</p>	<p>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북미 대화 재개 희망 언급</p> <p>* 김대중 대통령 예방시</p> <p>-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라며, 언제 어디서든지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조건없이 모든 의제를 다룰 수 있음도 밝혔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음.</p> <p>- 미국은 적을 원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으며, 찾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게 전했으며 남북 정상간의 2차 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는 것도 전했다.</p> <p>게오르기 마메도프 러시아 외무차관, 한반도 평화협상 적극지지 표명</p> <p>* 이재춘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 회동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7	<p>역규모 증가를 주도하였음. * 국별 무역실적 : 중국 3.1억달러, 일본 7.1억달러, 기타 4.9억달러</p> <p>임동원 통일부장관, 미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대북정책 관련 의견 교환</p> <p>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회담 * 회담후 공동기자 회견</p> <p>「통일염원 6.15 자동차질주 경기대회」 개막</p>		<p>유엔 식량농업기구(FAO) · 세계식량계획(WFP), 즉각적인 대북 식량 지원 호소</p> <p>- 북한에서 3개월 이상 계속된 가뭄으로 식량공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국제사회에 즉각적인 대북 식량 지원 호소</p> <p>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및 권고채택 내용 발표</p>
7.28		<p>중방, 계순희 선수의 2001년도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우승 소식 보도</p> <p>국제건축가동맹 대표단 평양 출발 * 단장 : 와셀리스 쓰구마스</p>	<p>조총련 관계자, 북한 여객선 '만경봉 92호'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北九州)항 도착 언급</p> <p>* 만경봉 92호는 일본 니가타현과 북한 원산을 매월 3회 왕복 운행하는 여객선으로 후쿠오카현에 입항한 것은 1998년 이후 처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28			미하일 카시아노프 러시아 총리, 한반도 중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사업 전망 긍정 평가 * TRS 개통 100주년 기념 국제회의
7.29	임동원 통일부장관,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 강조 * 이산가족 재회와 남북 화해협력을 촉구하는 대회 축사(임진각)  -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면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 교환을 확대하고 면회소 설치·운영 등 이산가족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평방,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원들의 단군조선시기의 대규모 부락터(평남 덕천시 남양리 소재)에 대한 발굴 및 연구 사업 진행 보도	FAO·WFP, 올 북한의 식량 상황에 관한 조사실시(6.23-7.3) 결과 발표  - 올 10월까지 북한은 476만9천톤의 식량이 필요하나 북한의 식량조달 능력은 423만3천톤으로 추정됨.
7.30	강원도 철원군, 북한측과의 농업교류 합의 내용 공개 * 방북결과보고회(철원군청)  - 북한의 철원군, 김화군, 평강군 등지에 벼재배 시험포를 설치하고 일정 규모의 벼 재배시험농장을 우리 영농방식으로 운영키로 합의하였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당 의사당에서 기니 대통령 특사 장 별 싸르 농업 및 축산상과 담화  「조국전선」 중앙위 대표단, 라오스·베트남 방문차 평양 출발 * 단장 :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강연학  중방, 남녀평등권법령 발표 55돌 즈음 '조선여성의 금지' 제하로 여권신장을 선전	주한 영국대사관,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 공식 개관 발표  국경없는 의사회(MSF), '북, 기아사태를 자연재해 결과로 부각 노력' 언급 * 프랑스 일간지 기자회견  - 북한은 기아사태가 자연재해의 결과인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30		<p>중방, 김정일 위원장의 7.24 이타르타스 통신사와의 회견에 대한 외무성과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소속원들의 반향 보도</p> <p>-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들도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대한 적대정책을 버린다면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p> <p>평방, '민족자주통일의 악랄한 원수' 제하로 미국의 대북정책 및 주한 미군의 군사훈련 등 비난</p>	<p>홍수 피해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고 언급</p>
7.31	<p>외교통상부, 한미 외무장관 회담(7.27) 협의내용 발표</p> <p>- 미국측은 우리측의 대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조속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음.</p> <p>- 미국측은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였음.</p> <p>- 양측은 대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양국 간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음.</p>	<p>평방, '우리의 상용무력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황포한 도전'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미국의 새 행정부가 우리의 상용무력의 위협에 대하여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우리에게 대한 도전임.</p> <p>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 총서기 디디에 세르피텔 일행 평양 도착</p> <p>나이지리아 국회대표단 평양 도착</p> <p>이란 외무성 총국장 하미르 부탈레비 평양도착</p>	<p>러시아 N-TV, 김정일 위원장 옴스크 방문 모습 보도</p> <p>이타르타스 통신, 북·러간 원자력 분야 협력 논의 가능성 보도</p> <p>미 하원 군사위원회 연구개발 소위원회, 2002년도 미사일 방어 체제 추진 예산 (81억 달러) 통과</p> <p>데이비드 머튼 유엔개발계획(UNDP)대표, '러, 북한의 폐쇄성 극복에 도움 가능' 언급</p>

■ 7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31	<p>「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관계자, 8.15 남북 공동행사 개최 협의차 방북</p> <p>통일부, 김정일 위원장 9월 답방 약속설 부인</p>	<p>중방, '집요한 군국주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제하로 일본 수상의 8.15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획 비난</p>	<p>- 러시아는 세계 어떤 국가보다 북한과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폐쇄성 극복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	<p>통일부, 2001년 상반기 남북한간 선박 운항 및 물동량 현황 집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 상반기중 남북한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982회로 전년 동기 1,009회에 비해 2.7% 감소했음.</li> <li>- 남북한간 해상물동량은 593,799톤으로 전년동기 393,476톤에 비해 50.9% 증가했음.</li> </ul> <p>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 한나라당의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지난달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승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통일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li> </ul>	<p>중방, '위협은 미국이 하고 있다' 제하로 미 국방성 부장관 월포위츠 발언 내용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포위츠는 7.28 CNN 방송에 출연, 북한이 장래 미국의 최대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발언</li> <li>- 우리가 미국의 최대의 군사적인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남조선에 더 많은 최신식 작전장비를 끌어들이고 또 이곳에서 영원히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꾸며낸 거짓임.</li> </ul> <p>김일성노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발표 1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 진행(인민문화궁전)</p> <p>최고인민회의의 대표단, 나이지리아 국회 대표단과 만수대 의사당에서 회담 진행</p> <p>평방, '조·미 대화재개는 미국에 달려 있다' 제하로 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제안인 핵 및 미사일, 상용무력 축감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경수로 제공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됨.</li> </ul>	<p>제67차 아·태의원연맹(APPU) 이사회 개막(서울 신라호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방안, 동남아 해상 해적 퇴치방안 등 역내 현안 토의</li> </ul> <p>교도통신, 북·러 정상회담시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중단철도 연계 확인 전망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	<p>통일부, 2001년 7월중 국내 외 대북지원 동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 7월중 국내 민간 단체의 대북지원은 26억 9,964만원(2천만불 상당)임.</li> <li>* 2001년 누계는 515억원으로 전년동기 145억원의 3.5배 수준</li> <li>- 2001년 7.31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1억9,342만불임.</li> <li>* UN어필 1억6,886만불, 개별국 997만불, 국제 NGO 1,459만불 등</li> </ul> <p>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 미국에 대북특사 파견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상·하 양원 외교·군사·통상 관련 전문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 연설 (워싱턴)</li> <li>- 만일 미국이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면 현재의 교착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임.</li> </ul> <p>현대아산, 7월중 금강산 관광 인원 2,911명으로 집계 발표</p>	<p>평방, '미국이 떠드는 미사일 위협설은 궤변' 제하로 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우리의 미사일 위협을 결코 저들의 전략적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놀음을 그만두어야 함.</li> </ul> <p>김일성의 노작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데 대하여' 발표 40돌과 김정일의 노작 '지질탐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 진행(청년 중앙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태복, 조창덕, 박남기, 손중호, 신태록, 전승훈, 염순길 등 참가</li> </ul> <p>평방 '독도는 조선의 신성한 영토' 제하 대담 보도</p> <p>평방, '모든 민족성원들에게 통일운동의 활동의 무대가 펼쳐져야 한다' 제하 대담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총련」을 비롯한 통일운동 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된다고 주장</li> </ul>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 의사당에서 나이지리아 국회대표단과 환담</p> <p>김중림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영국 신공산당 대표단과 환담</p>	<p>셀리그 헤리슨 센추리재단 연구원, 북미대화재개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실현을 위한 미국의 약속 이행 필요성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타임스 기고</li> </ul> <p>러시아 미하일 티타렌코 극동문제연구소장, 북러 정상회담이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타르타스 통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과 러시아간 전면적 협력관계는 한반도 안정강화와 남북한간 대화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임.</li> </ul> <p>이타르타스 통신, 러북 원자력 분야 협력 복원 가능성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는 북한과 지난 1992년부터 단절돼온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재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음.</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3	<p>국가정보원, 2001년 7월말 현재 국내 입국 북한 이탈주민 309명으로 집계 발표</p> <p>* 2000년 국내 입국 북한 이탈주민은 312명</p>	<p>평방, '조·일관계 개선에서 기본은 일본의 과거청산' 제하로 대일 비난</p> <p>- 일본에 대해 과거청산문제에 대한 성근한 입장·태도 및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등 요구</p> <p>평방, 「조선역사학회」의 글(7.31자) '독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조선의 신성한 영토이다' 보도</p> <p>평방, 고상문의 체험담 '미국은 우방이 아니다' 보도</p> <p>* 고상문은 '78.4 네덜란드에서 납북된 前 수도여고 교사</p>	<p>김정일 위원장 모스크바 도착</p> <p>* 러시아 부총리 일리야 클레바노프 영접</p>
8. 4	<p>국제적십자 연맹(IFRC), 디디에 세르피텔 사무총장 방한</p>	<p>청년학생대표단, 「제15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차 알제리 향발</p> <p>* 북한은 8.8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총련계 청년동맹 등 3개단체 15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 참가</p>	<p>김정일 위원장-푸틴대통령, 북·러 정상회담 개최</p> <p>* 정상회담 후 8개항으로 된 「모스크바 선언」 발표</p> <p>- 주요 내용 : △국제법적 원칙과 규범 준수,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제테러와 호전적 분립주의 반대 △북한의 미사일개발 계획은 평화적 성격임을 확인 △양국</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4			<p>친선관계 확대발전 강화 △정치, 경제 등 제 분야에서 쌍무협조 및 관계발전 노력 △전력분야 등 공동 건설 기업소 재건 추진 △북·러간 철도 연결사업 추진 △6.15 공동선언에 따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및 외부방해 불허용,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수행 확인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및 동북아평화 안정을 위해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데 대해 공동 인식</p>
8. 5	<p>국방부, 북한군 이승훈하사 북송 방침 결정 발표 * 북한군 송환은 '94년 2명, '96년 7월과 11월 각 1명, '97년 1명 등임.</p> <p>-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8.4 철원군에서 표류중 구조된 이하사를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5조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발표</p>	<p>평방, 미국의 MD추진은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이라고 주장</p> <p>- 냉전 종식이후 미국을 위협할 나라가 없음에도 MD체제를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방어체제가 아니라 공격체제이며 결국 어느 한 나라, 지역만이 아닌 전 세계를 겨냥한 전략체제임을 실증해주는 것임.</p> <p>「직맹」대표단, 중국·라오스·말레이시아 방문 후 평양 도착 * 단장 : 「직맹」 부위원장 이진수</p>	<p>크레믈린 대통령악단, 김정일 위원장 환영 공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6	<p>김대중 대통령, 미북 상호 신뢰 구축 필요성 강조 * 카터 전 미대통령 면담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있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은 서로 신뢰감을 갖고 접촉하는 것이 필요함.</li> <li>- 북한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해 안전보장과 경제회복을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직도 그 같은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li> </ul> <p>대한탁구협회, 코리아오픈탁구대회(9.15-18)에 북한 대표선수 초청 사실 발표</p>	<p>노동신문, 김정일 위원장 방려 관련 '혼연일체의 거세찬 흐름' 제하 정론 게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방려는 17년전 김일성이 올랐던 길을 답습하며 영도자에 대한 전인민적 숭배열의 분화구이며, 자주와 정의에로 나가는 인류의 운명과 21세기 세계 정치흐름에서 일대사변으로서 우리조국과 혁명의 역사에서 커다란 경사임.</li> </ul> <p>북한, 제53차 유엔 인권 소위(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시정과 일제 식민지배 희생자에 대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p> <p>노동신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제하로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계에 대한 대응조치 강구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미사일방위체계 창설에 달라붙으며 위협을 강화하기 때문에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하겠음.</li> </ul>	<p>세르피델 국제적십자사 사무총장, 방북(7.31-8.3) 결과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중 주로 인도적 지원에 관해 의견을 나눴고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위해 북한 실상에 관한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했음.</li> </ul> <p>미 국무부 바우처 대변인, 북·러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국제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환영해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김위원장의 방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틴 대통령이 김위원장에게 한국을 방문해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점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주목하고 있으며, 남북대화재개는 미국이 강조해온 중요한 요소임.</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7	<p>유엔사, 이승훈 하사 판문점 통해 북측에 신병인도</p> <p>양성철 주미대사, 미북관계 극적 진전 가능성 전망 * 연합뉴스 인터뷰</p> <p>-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6.6 대북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후 미국이 북한과 적극 대화할 자세를 보이고 있음. 부시 행정부가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어 북한도 진지하게 나온다면 극적인 상황진전도 가능할 것으로 봄.</p> <p>박준영 청와대 대변인, 「모스크바 공동선언」에 포함된 '주한미군철수 주장' 관련 정례브리핑</p> <p>-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주장은 미국이 재래식 무기 감축과 관련한 언급을 한 후 강화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어떤 입장인지, 근본적 변화인지, 전술적 변화인지 주시해야 함.</p> <p>-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결정할 문제이지, 북한이 결정할 문제는 아님.</p>	<p>노동신문, 주한미군 철수 촉구</p> <p>- 조미대결이 끝난지도 오래고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어 이행단계에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주둔해 있을 이유가 없고, 조미 사이에 협정을 체결 못할 근거가 없음.</p> <p>- 조선반도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그것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미군의 남조선 강점임.</p> <p>「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인민문화궁전)</p> <p>- 일본 당국이 태평양전쟁 남북한 희생자 증언집회에 참석할 북측대표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을 비난하는 기자회견 개최</p> <p>노동신문, '미국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제하로 북미대화 관련 논평</p> <p>- 부시 행정부가 우리와 진정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우선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의 공명정대한 대화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임.</p>	<p>러시아 외무부, 북·러간 노동력-채무 상계 공식 부인 성명</p> <p>- 러시아에서 활동중인 북한 전문가 및 인력의 근로조건은 러-북 양국간의 협약에 따라 러시아 민간인과 같은 권리를 누리도록 돼 있으며, 더욱이 노동력과 채무 상계 문제는 러·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음.</p> <p>미 국방부, 주한미군문제는 한미간 협의사항임을 강조</p> <p>* 크레이그 쿼글리 대변인 브리핑</p> <p>- 주한 미군의 주둔 문제는 한국정부와 협의할 사안이며 외국정부의 견해는 결정적 요소가 아님. 또한 앞으로 동 문제를 한국정부와 협의할 것이며 한국정부가 우리의 협의 상대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8	<p>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대출 신청 간소화조치 발표</p> <p>- 기업의 남북협력기금 대출 신청시 현행 구비서류 (경제협력자금 18종, 반출입 자금 21종)를 대폭 간소화(경협 11종, 반출입 12종)하여 8.13부터 시행키로 함.</p> <p>통일부, 「日朝協會 오사카연합회」 남북협력기금 출연사실 발표</p> <p>- 일본 공산당계열의 「일조협회 오사카연합회」는 일본 공산당 지부 등 단체 및 개인 1,000명으로부터 모금한 2,762,470엔중 절반인 1,381,235엔을 8.8 민간서울 사무소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였음.</p> <p>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공동 발원문 채택</p>	<p>외무성 대변인, 북미 대화 재개 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지난 6.18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그동안 여러차례에 있는 뉴욕접촉을 통해 조미대화 재개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명백히 밝혀왔고 대화제외에 대한 공식적인 대답도 이미 다 주었음.</p> <p>- 우리를 압살하려는 의도로 내놓은 의제들을 절대로 접수할 수 없으며 미국측이 이를 철회하기 전에는 미주 앉을 수 없음.</p> <p>「아·태 평화위」 대변인,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대미 비난 성명</p> <p>-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서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가로막기 위한 책동은 최절정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되었음.</p> <p>- 관광대가를 군사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터무니 없는 여론을 호도하였고, 관광대가를 미사일개발에 이용한다느니 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캠페니아를 벌였음. 미국이 지금과 같이 계속 금강산 관광사업을 방해하고 나선다면 그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임.</p>	<p>김정일 위원장,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 상봉</p> <p>제21회 하계유니버시아드(8.21-9.1, 베이징) 대회조직위, 북한의 참가 신청서 제출 확인</p> <p>* 북한은 2000.9월 시드니 올림픽에 참가후 올해 폴란드 자코파네에서 열린 동계유니버시아드와 오사카 동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종합대회에 잇달아 불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9	<p>장성민 민주당 의원, 대북 전력지원 문제 협의를 위한 3국(남·북한, 미국) 공동조사단 구성 제안</p>	<p>중방, '범죄적 정체는 다시금 드러났다' 제하로 일본의 「방위계획 대요강」 조기 수정 움직임 비난</p> <p>평방, '상용무기위협설은 우리에게 대한 횡포한 도전' 제하로 대미 비난</p>	<p>독일 농업부, 대북 쇠고기 6천톤 지원 계획 발표</p> <p>- 금년 4월에 지원키로 한 쇠고기 3만톤중 1차분 6천톤을 지원할 계획임. (지원시기는 미언급)</p> <p>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중국에 대해 모든 난민과 망명신청자에 대한 동등 대우 권고</p>
8.10	<p>서영훈 「한적」 총재, 적십자회담 제의 30주년(8.12) 즈음 대북 성명문 전달</p> <p>- 이산가족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 협의·확정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조속 개최 제안</p> <p>- 9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가족상봉 및 생사여부 확인 우선적 실시 등 제안</p> <p>이만섭 국회의장, 남·북한-러시아 철도 연결사업 수행을 위한 3국간 공동협의체 구성 제안</p>	<p>중방, 제15차 평양국제탁구초청 경기대회 예정 보도</p> <p>* 8.13-15, 몽골·이란·인도·일본·중국·캐나다 등 참가 예정</p> <p>조선노동당출판사, 주체사상총서 「김일성선집」 제38권 출판</p> <p>* '67.1-5월중 김일성의 연설·담화 등 27건 수록</p> <p>평방, '음흉한 목적을 추구한 미사일 위협설' 제하로 대미 비난</p> <p>- 우리는 미국이 조선반도 상공에 강력한 미사일 공격수단들을 설치해 놓고 반 공화국 군사적 공격을 기도하고 있는데 대하여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자위적 대응책을 보다</p>	<p>바이든 미 상원 외교위원장 방한</p> <p>국제전략화해연구소(워싱턴), 대북사업 특별기금 모금을 위한 북한영화 '홍길동' 미국 순회 공연 계획 발표</p> <p>- 이달중 뉴욕을 시빌로, 오는 9월 말까지 워싱턴, 애틀란타, 휴스턴, 등 8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상영할 계획임.</p> <p>조선신보, 총련지부 책임자 30~40대로 대거 교체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0		<p>강화해 나갈 것임.</p> <p>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등 해외 동포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참가차 평양 도착</p>	
8.11	<p>김대중 대통령, 조셉 바이든 미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대북정책 협력 당부</p> <p>* 미 상원의원 청와대 접견</p> <p>- 남북관계는 미북관계와 병행 발전해 나가야 함.</p> <p>-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p> <p>- 한미는 튼튼한 안보 동맹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대북 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해 나갈 것임. 미국도 초당적으로 대북정책에 협력해 주기를 바람.</p> <p>통일부, 2001년 상반기 남북간 항공기 운항 실적 7회로 집계</p>	<p>해양체육종목 위주의 '조국해방전쟁승리' 48돌 즈음 '전승컵 체육경기대회', 평양·함흥·청진시 등에서 진행</p> <p>재미동포전국연합대표(단장: 양은식)·자주민주통일아메리카연합대표단(단장: 한영애) 등, 「2001 민족통일대축전」 참가차 평양도착</p> <p>노동신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 제하로 미국의 MD 계획 비난</p> <p>- 미사일 위협의 주범인 미국이 우리의 있지도 않은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생억지이며 저들의 지배주의적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음.</p> <p>노동신문, '조선재침을 노린 위험한 움직임' 제하로 일본의 「방위계획 대요강」에 대한 재검토기한 단축 움직임 비난</p>	<p>리시아 소리방송, '김정일 위원장,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북·러 철도연결 계획전문가들과 상봉' 보도</p>
8.12		<p>「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해외준비위원회」 결성식 평양에서 진행</p> <p>* 공동의장에 박재로(조총련 부의장)·곽동의(재일한국민주</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2		통일연합대표단 단장·양은식(재미동포전국연합대표단 단장) 선출	
8.13	통일부, 8.15 남북공동행사참가를 위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의 방북승인신청에 대한 불허 방침 발표  - 정부는 동 행사에 대한 남북 양측 추진 주체간의 협의 결과와 남북관계 및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음.  -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행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본부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	제15차 평양국제탁구초청경기대회 개막식 진행 * 이란, 인도, 일본, 중국, 홍콩, 조총련, 캐나다, 북한 등 참가  평방, '6.15 북남공동선언은 21세 조국통일의 이정표' 제하로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  - 현 시기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중대하고도 원칙적인 문제는 6.15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임.  시사논평, '대화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제하로 대미 비난  - 북한이 재래식무기 감축협상을 거절하면 대화를 재개할 의향이 없다고 한 콘돌리자라이스 미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의 발언을 비난  외무성 대변인,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대표단의 일본 입국거부 관련 중통기자 회견  - 일본 당국이 비우호적인 대조	데무라즈 라미쉬빌리 주한 러시아 대사, 남북정상회담 적극 지원 표명 * 김중권 민주당 대표 예방시  - 러시아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며, 남북 긴장완화와 철도연결을 위해 협력을 다할 것임.  고이즈미 일본총리, 아스쿠니 신사 참배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ABM 협정 탈퇴 입장 언급  - ABM 협정은 6개월전에 상대국에 공지한 뒤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미사일 방어체제가 성공하면 러시아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3		<p>선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도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p>	<p>더라도 우리는 ABM 협정을 거부할 수 밖에 없음.</p>
8.14	<p>북한, 금년도 판문점 8.15행사 불개최 확인 * 남북연락관 전화 접촉</p> <p>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 임진각 도라전망대에서 통일기원 나비 날리기 행사 개최</p> <p>통일부,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추진본부」의 축전 참가를 위한 방북신청 승인 발표</p> <p>- 공동행사 개최문제에 대한 북측의 태도 변화와 3대헌장 기념탑 주변에서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추진본부측의 입장을 감안하여 방북을 승인키로 하였음.</p>	<p>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준공식 진행 * 북한의 조국통일 3대헌장은 △조국통일 3대원칙 △진민족대단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의미</p> <p>보건상 김수학 일행,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지역 제19차 보건사회회의(말디브) 참가차 평양출발</p> <p>청년예술단, 알제리의 국립극장에서 종합예술공연 진행 및 연대성 마라톤경기 출전</p> <p>탈북자 유태준 부부, 조선중앙통신·중앙방송위·통일신보·조선신보와 기자회견(인민문화궁전)</p>	<p>이타르타스 통신, 김정일 위원장 특별열차 내에서 8.15 기념행사 예정 보도</p> <p>- 김위원장의 특별열차가 8.15 극동 하바롭스크 부근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열차안에서 기념식물 치를 것이라고 보도</p> <p>브르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부시 행정부에 화해·협력 정책 중요성 인식 촉구 *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화해와 통일국제회의」(연세대) 주제발표</p> <p>- 지난해 6월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 회담은 한반도에서 통일을 예측 가능한 단계로까지 만들었음.</p> <p>-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이제라도 남북</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4			<p>정상회담이 탄생시킨 화해·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반도 정책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p> <p>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 대북포용정책 강력 지지 표명 * 국무부 정례 브리핑</p> <p>- 우리는 김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앞으로도 강력하게 계속 지지할 것이며, 또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진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p>
8.15	<p>김대중 대통령, 남북 및 북미대화 재개 촉구 * 광복절 경축사</p> <p>- 김대통령은 제5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햇볕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남북 및 북미간 대화를 위해 양측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p>	<p>「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대표단 평양도착</p> <p>「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진행 * 김영남, 김영대, 김용순 참석</p> <p>주러 북한 대사관, 조국광복 56돌 즈음 연회 개최</p>	<p>베트남 뉴스, 강령학 북한 「조평통」 중앙상임위원장 베트남 방문 보도</p> <p>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에게 광복절 관련 축전</p> <p>알렉산드르 첼코 러시아 철도차관, 북·러간 철도연결 준비 위한 북한 철도 점검 착수 언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5	<p>「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2001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개최</p>		<p>* 8.15 기자회견</p> <p>- 30명으로 구성된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내 TKR를 구성하게 될 960km에 이르는 철도를 재점검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준비를 완료하였음.</p>
8.16	<p>김동신 국방부장관, 한반도 안정과 관련 미 태평양군사령부 역할의 중요성 강조</p> <p>* 데니스 블레이어 미 태평양군사령관 예방시</p> <p>-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 태평양군사령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함.</p> <p>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 방북 용의 표명</p> <p>* CBS라디오 인터뷰</p> <p>- 남북평화정착을 위해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p> <p>3당 대변인,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남측 대표단 일부의 개막식 참석 관련 논평 발표</p>	<p>조국광복 56돌 즈음 8.15 해방탑 및 평양시 사동구역 소련군 열사묘에 화환 전달식 진행</p> <p>* 양형섭, 이광근, 박경선 등 참석</p> <p>「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폐막식,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에서 진행</p> <p>* 김영남, 김용순, 김영대, 류미영, 염순길 등 참석</p> <p>- 폐막식에 앞서 양측은 「일제만행 및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남, 북, 해외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부문별·단체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민, 종교, 경제, 여성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남북민간협력방안에 대해 논의</p> <p>노동신문, 「끝장낼 때가 되었다」 제하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 논평</p>	<p>APEC 고위관리회의 개막(중국 대련)</p> <p>- APEC 정상회의(10.20-21, 상해)의 제 등 협의</p> <p>러시아 베도모스티紙,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북한 무역대표부 개설 결정」 보도</p> <p>- 김정일이 지난주 상트 페테르부르크 방문을 통해 북한 무역대표부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p> <p>이타르타스 통신, 김정일 위원장 8.18 귀국 예정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며 방북단 귀환후 진상 파악 및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 촉구</li> <li>- 한나라당은 개막식 참석자들에 대한 처리와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li> <li>- 자민련은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의법조치 촉구</li> </ul>	<p>중방, '아시아 인민들에 대한 악랄한 도전' 제하로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난</p>	<p>제53차 유엔인권소위원회,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의안 채택</p>
8.17	<p>『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와 관련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행사를 지켜본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림.</li> <li>- 북측이 15일 개막식과 16일의 폐막식에 통일연대 소속 일부 단체 성원들을 실어나른 것은 유감스러운 일로 북측 준비위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함.</li> <li>- 집행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개별적 판단으로 북측 행사에 참가한 통일연대 소속 일부단체 성원들이 보인 태도는 합의에 기초</li> </ul>	<p>김정일 위원장, 강택민 중국 총서기 생일 75돌 즈음 축전</p> <p>노동신문, '일본을 파멸로 몰아가는 행위' 제하로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헌 집권자가 세계적인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요구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악랄한 도전이며 시대를 거꾸로 되돌려 보려는 망동임.</li> </ul> <p>중방, '민족통일대축전은 거래의 통일의를 과시한 통일 대화합' 이라고 보도</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 의사당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대표단 접견</p>	<p>러시아의 소리방송, '김정일 위원장 빨리야 올해말 서울 답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례 방문이 빨라도 올해말에 진행될 것이라고 평양의 외교소식통이 전했다.</li> <li>- 소식통에 의하면 서울 답례방문에 앞서 북한의 고위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함.</li> </ul> <p>이타르타스 통신, 김정일 위원장 하바로프스크 기착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7	한 공동행동의 원칙을 어긴 일입.	중방, '위인 충격' 제하로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美化 보도	
8.18	<p>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방북 후 귀환</p> <p>* 김사장은 6.8 합의서 이행을 위한 후속협약 8.16 방북</p> <p>- 김사장은 「아·태평화위」 관계자와 금강산관광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 조기 이행에 대한 현대측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북측도 현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언급</p>	<p>당중앙위·당군사위·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 방러 귀환 관련 공동보도</p> <p>-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 연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마치고 8.18 귀국하였음.</p> <p>노동신문, '속에 품은 칼부터 내놓아야 한다' 제하로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대북 위협 발언 비난</p> <p>백남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의사당에서 WFP 집행국장 카테린 버트니 일행과 담화 후 연회 개최</p>	<p>캐서린 버트니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국장 평양 방문</p> <p>- 식량분배상황과 가뭄 및 장마피해 현장 점검차 방북</p> <p>아타르타스 통신, 김정일 위원장 평양 도착 보도</p>
8.19		<p>「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 준비위원회」 대변인 논평 발표</p> <p>- 축전에 참가한 남측 대표들의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을 비난</p> <p>김정일 위원장, 함북주둔 제696군부대 시찰 및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상봉</p> <p>* 김영춘, 현철해, 박재경, 장성택, 주규창 등 동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19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남북단체들, 고려호텔에서 협의회 진행	
8.20	<p>국가안정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8.15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 관련 대책 논의</p> <p>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8.15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 관련 배경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8.15 평양행사를 계기로 향후 민간의 교류와 협력이 성숙, 발전된 모습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li> <li>-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민간교류가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북측의 통일전선에 이용되어서는 안됨.</li> </ul>	<p>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 위원장, 남측 기독교교회협의회 김동환 총무 등 종교단체대표들과 상봉(고려호텔)</p> <p>중국 홍십자회 대표단(단장 : 부회장 손애영) 평양도착</p> <p>중방, '무분별한 미사일전쟁 준비책동' 제하로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최근 동향 비난</p> <p>주북 중국대사관 공사 참사 이진에 대한 친선훈장 수여식 진행(만수대 의사당)</p>	<p>뉴욕 타임스, 북·러 관계 회복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러 관계는 1990년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뒤틀어지기 시작했으나 김정일의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미국의 MD에 함께 반대하면서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보임.</li> </ul> <p>부시 미 대통령, 미사일 방어체제 강행 재다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참전용사대회 치사(밀어키)</li> <li>- 미국은 탄도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연구·배치할 것임.</li> </ul>
8.21	통일부, 「8.15 남북공동행사」 관련 정부 입장 발표	「8.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대표단 공동보도문 발표	전면핵실험금지조약 준비위원회 개최(8.21-24, 비엔나)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1	<p>- 정부는 금번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행사 진행 상황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p> <p>-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이번 행사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보다 질서 있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p> <p>통일부, 제2회 학교통일교육 우수사례 공모 계획 발표</p> <p>- 공모분야 : 2000년 2학기 부터 2001 상반기까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한 통일교육 사례</p> <p>- 공모기간 : 2001.8.20-10.31</p> <p>「8.15 민족통일대축전」 평양 행사 참가 남측 대표단, 김포 공항으로 귀환</p>	<p>- 공동보도문 요지 : △6.15 남북공동선언 적극 실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단체간 연대 강화 △8.15 광복절 57돌 행사시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행사 개최 △민간급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사업 적극 활성화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공동행사 강화 및 학술 토론회 개최 등</p> <p>평방, '화해와 협력을 하자는 것인가' 제하로 대남 비난</p> <p>- 해군의 동해 해상기동훈련 (8.16-18)과 관련하여 우리 군당국자를 비난</p> <p>KEDO 대표단 평양도착</p> <p>- 경수로 제공협정 이행을 위한 고위급 전문가 협상차 방북</p>	<p>- 핵실험 감시체제 설치 등 CTBT 발효 준비작업 등 협의</p> <p>북·러 고위급 전략문제 실무회담 개최(8.21-22, 모스크바)</p> <p>피터 로드먼 미 국방부 차관보, 김정일 위원장 심중 파악 곤란 언급</p> <p>* 국방부 기자 간담회</p> <p>- 미북 대화가 재개 되면 우리로서는 만족스럽게 생각하나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김정일 위원장의 심중을 읽을 수 없음.</p> <p>-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을 의제로 제안했으나 아무런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고 공은 북한쪽에 넘어가 있음.</p>
8.22	<p>김대중 대통령,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 강조</p> <p>* 제10기 민주평통 운영위원 임명장 수여식</p>	<p>외무성 대변인,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 실시 비난</p>	<p>러시아 코메르산트 데일리紙, 북한 올 가을 대기근 예상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2	<p>- 남북관계가 당분간 정체 상태에 있지만 단념하지 말고, 인내심과 일관성과 성의를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함.</p> <p>- 언제 통일하느냐 하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함. 마치 기차가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고 평양에서 서울로 달릴 때, 언젠가 만나는 것처럼 일관되게 통일을 향한 길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언젠가는 통일에 이를 것임.</p> <p>임동원 통일부 장관, 방북승인 요건 강화 검토 언급 * 민주당 당무회의 참석시</p> <p>통일부, (주)엔트랙의 평양 정보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남북협력사업 승인</p> <p>- 사업내용 : 북측 광명성총회사와 합영으로 평양에 고려기술개발제작소 설립 추진</p> <p>통일부, 대북위탁가공기업 서전어패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p>	<p>- 남조선 군사 당국은 이 연습이 6.15선언과 배치되며 우리에게 대한 도전으로 그 후과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임.</p> <p>- 침략적 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이 대화에 대해 말은 많이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우리를 어느 때든지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기도를 보다 현대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임.</p> <p>- 실지로 북미간 대화를 바란다면 일방적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건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p> <p>중방, '비열한 반공화국 적대행위' 제하로 일본 교토시公安사무소의 재일조선인 등록문건의 조사를 비난</p> <p>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중 우호협회 부회장 일행과 환담</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 의사당에서 주북 불가리아 신임대사 지미또르짜네브로부터 신임장 접수</p>	<p>- 북한은 지난 봄 큰가뭄에 이어 8월에도 대홍수가 몰아쳐 쌀이 모자라 올가을을 넘기기 힘든 지경임.</p> <p>- 이번 식량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최소 600만톤의 쌀이 필요하지만 국제 구호단체들의 지원물량은 120만톤에 불과함.</p> <p>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개최(8.22-24, 중국 대련))</p> <p>미·중 미사일 전문가 회담 개최(8.22-24, 북경)</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2	<p>- 대출조건은 연리 6%로 대출한도 10억원이며, 대출기간은 개별대출 취급일로부터 1년내, 위탁가공품 반입일에 3개월을 가산한 기간내 대출</p>		
8.23	<p>김대중 대통령, 쩌 득령(Tran Duc Lu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p> <p>* 회담후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 공동성명 발표</p> <p>검찰, 「8.15 민족통일 대축전」 관련자 7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p> <p>박재규 전 통일부장관,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참가 유치 노력 필요성 제기</p> <p>* 부산아시아드지원협의회·부산시 주최 초청강연회</p> <p>- 북한의 부산아시안게임 참가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위해 노력해야 함.</p>	<p>외무성 대변인, 일본총리의 아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담화 발표</p> <p>- 우리는 계산할 것이 많은 일본의 최고위 당국자가 불미스러운 과거청산에는 아랑곳 없이 도리어 군국주의 망령들을 찬미하는 신사 참배놀음을 공개적으로 벌인 데 대하여 민족적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음.</p> <p>- 일본이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도덕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국제적으로 더욱 더 고립·배격당하는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임.</p> <p>노동신문, 「반드시 청산할 것이다」 제하로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 대책위원회」 대표단의 일본 입국 차단 비난</p> <p>- 일본 정부가 우리 대표단의 입국을 가로막은 것은 역사왜곡 행위로 하여 저들에게 쏠리는 비난의 화살을 조금이라도</p>	<p>부시 미 대통령, ABM 조약 탈퇴 계획 시사</p> <p>-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쪽에 편리한 시간표에 따라 ABM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음.</p> <p>도쿄신문,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9월초순 방북 가능성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3		<p>피해 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p> <p>청년절(8.28)즈음 전국청년과학기술전시회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p>	
8.24	<p>김대중 대통령, 남북관계에 대한 냉전적 사고 및 급진적 통일지상주의 경계 당부</p> <p>*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 간담회</p> <p>- 남북관계에 대한 냉전적 사고도, 급진적 통일지상주의도 경계해야 함.</p> <p>- 최근 남북관계가 일시적 정체를 맞고 있지만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대북 화해 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p> <p>전용학 민주당 대변인, 대북 햇볕정책 기초유지 언급</p> <p>-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야당총재도 지지하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임.</p> <p>김순권 경북대 교수, 북 울옥수수 수확 250만~300만톤 전망</p>	<p>노동신문, '북남공동선언에 도전하는 불량난' 제하로 대남 비난 논평</p> <p>-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 실시 및 평양축전 참가 일부 성원들의 사법처리 움직임 등을 미제의 전략과 지령에 따라 계획적으로 감행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호전적 책동의 한 고리라고 비난</p> <p>중방, 일본 관방장관의 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옹호 발언(8.18)을 '군국주의 부활 책동'이라고 비난</p> <p>라남탄광기계연합소 종업원들, 김정일의 현지 '말씀' 관철 쫓기 모임 진행</p>	<p>중국 국제방송, 한반도 문제 자주적 해결 주장</p> <p>- 남북 쌍방이 외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반도 문제를 해결해야만 반도의 정세를 진정으로 완화해 나갈 수 있음.</p> <p>케서린 버터니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국장, 유럽의 대북 쇠고기 지원 적절 평가</p> <p>- 유럽산 쇠고기를 주고 받는 것은 적절하며, 이 쇠고기는 공여국 식품안전기관과 전문가들에 의해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p> <p>독일 농업부, 9월말 대북 쇠고기 지원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4	서울지방법원, 「8.15 남북공동행사」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북한측이 쇠고기 지원에 따르는 모든 조건을 수용함에 따라 9월 마지막주에 1차 선적분 6천톤의 쇠고기를 독일 북서부 빌헬름스하펜 항구를 통해 북한으로 전달할 예정임.
8.25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자크 디우프 사무총장, 대북 식량지원방안 협의차 방한	<p>김수확 보건상 일행, WHO 동남아시아 지역 제19차 보건상회의(말디브) 참가후 평양 도착</p> <p>KEDO 대표단, 경수로대상 제공 협정 이행을 위한 고위급전문가 협상후 평양 출발</p> <p>노동신문,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라' 제하로 일본의 MD 지지입장 표명 비난</p> <p>중방 '허위적인 여론을 유포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미국의 외교정책연구기관인 대외관계이사회의 북한 플로토늄 보유 가능성 제기 관련 비난</p> <p>라선국제통신센터 조업식 진행</p>	<p>이타르타스 통신, 러시아 군사 위성 코스모스 발사 보도</p> <p>요미우리 신문,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내년 가을 은퇴 표명' 보도</p> <p>- 강택민 주석이 올여름 휴양지 베이징 다이허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에서 내년 가을 제16기 당대회를 마지막으로 덩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은퇴, 당·정·군 3권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5		사회과학원,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성명 발표	
8.26		<p>김정일 위원장, 용포혁명사적지와 울림폭포 시찰</p> <p>노동신문, '핵위협외장본인' 제하로 대미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북한 핵무기보유설을 기정 사실화함으로써 전제조건적인 협상재개 제의를 정당화하고 조미회담 중단과 지연 책임을 넘겨 씌우려하고 있다고 주장</li> </ul>	
8.27	<p>김대중 대통령,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 중요성 강조</p> <p>* 3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 부부 초청 만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 전쟁을 한다면 어디로 피난을 가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양쪽이 가공할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막아야 함.</li> <li>- 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면서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확고한 대비를 하고, 북한과는 대화를 해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해야 함.</li> </ul>	<p>중·평방, 강택민 중국 주석 북한 공식방문 예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청으로 강택민 중국 주석이 9.3-9.5 북한을 공식 방문하게 됨.</li> </ul> <p>평방, '공공연한 북침 전쟁연습' 제하로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훈련 관련 대남·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군사당국은 미제와 야합해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는 것이 6.15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배신이며 거래의 통일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li> </ul>	<p>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변인, 강택민 중국 주석 방북 계획 발표</p> <p>케서린 버티니 세계식량계획(WFP) 사무국장, 방북(8.21)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프레스센터</li> <li>- 북한 외무성의 백남순 외무상, 최수현 부상 등은 현재 북한에서 활동중인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접근을 지금보다 많이 허용해 줄 것을 약속했음.</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7	<p>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남북한 평화정착 사업(안) 제안</p> <p>*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 용역보고서</p> <p>- 제주를 매개로 남북한 통합을 지향하는 행사의 개최, 이산가족면회소설치, 정상급의 집 건립, 평화에 관한 연구와 교육훈련, 평화관련 국제회의 장소 제공을 위한 남북 평화센터 설치·운영 등 제안</p>	<p>있게 처신해야 할 것임.</p>	<p>- 북한 관리들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많은 기대를 걸고 남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음.</p> <p>- 북한의 올해 곡물작황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으나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고 단기적으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더 줄 것으로 예상함.</p>
8.28	<p>김대중 대통령, 에두아르드 쿠간(Eduard KUKAN) 슬로바키아 외교장관 접견</p> <p>- 김대통령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두 체제를 경험하고 과거 북한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슬로바키아가 북한의 개혁 개방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p> <p>정대근 농협회장, 2001 세계 협동조합(ICA)총회(10월)에 북한 농협대표 초청 계획 언급</p>	<p>노동신문, '평화와 화해과정을 파괴하는 행위' 제하로 을지포커스 렌즈 합동군사연습 비난 논평</p> <p>- 이 전쟁연습은 미국이 대화타령의 막 뒤에서 우리를 어느 때든지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것임.</p> <p>북한 「민화협」대변인, 「2001년 민족대추진」시 합의한 공동합의문 실천을 위한 해당 단체들간의 실무협의 제의</p>	<p>UN 아·태평화군축회의 일본 이시카와에서 개최(8.28-31)</p> <p>- 한·미·일·중 등 20여개국 참가, 한반도 정세 및 역내 안보 협력 방안 등 논의</p> <p>제2차 동북아 환경 평화 워크숍, 중국 연변에서 개최(8.28-31)</p> <p>- 두만강 유역의 생태계 보존과 개발의 균형적 발전 방안 논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8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장, 자크 디우프 UN 식량 및 농 업기구 총국장 면담</p> <p>김정일 위원장, 제2796 군부대 산하 전연초소 시찰과 갈마휴양 소 방문 및 김일성 훈장 수훈 軍공훈합창단의 공연관람 *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동행</p> <p>평방, '위험한 단계에 들어선 재 침준비 책동' 제하로 대일 비난</p> <p>- 일본의 2002년 다국간 잠수함 구조훈련 실시 결정을 재침전 쟁 준비 책동이라고 비난</p>	<p>게오르기 톨로라야 러 시아 외교부 부국장, 북한 개방 위한 주변 국들의 안정 보장 필 요성 제기</p> <p>* 한미경제학회·미 시간대학 경영대학 원 주최 북한 경제 관련 학술세미나 (8.27-28, 워싱턴)</p> <p>- 김정일 위원장은 주 변국가들의 안정보 장이 필요하며 그렇 지 않으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p> <p>리처드 바우처 미 국 무부 대변인, 북미 대 화 담보상태 언급 * 국무부 정례 브리핑</p> <p>- 미국은 북한과 뉴욕 창구를 유지하며 접 촉을 계속하고 있으 나, 아직까지는 북미 회담 재개와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없음.</p> <p>케서린 버티니 세계식 량기구(WFP) 사무국장, 금년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WFP 금년 예산 3억1천400만불 책정 확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29	<p>김대중 대통령, 부시 미 대통령 방한시 북미 대화 진전 문제 협의 계획 언급</p> <p>* 강원도 도정보고시</p> <p>- 부시 대통령이 10월 방한하면 무릎을 맞대고 협의해서 양쪽 회담이 진전되도록 할 것임.</p> <p>「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북측 「민화협」의 실무협의 제의 관련 논평 발표</p> <p>* 8.28 북측 민화협이 평양축전에서 합의된 단체별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갖자고 한 데 대한 논평</p> <p>- 남측은 빠른 시일안에 관련 절차를 거쳐 북측의 민화협 및 해당 단체들과 실무 협의에 나설 것임.</p>	<p>「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 대변인, 일본총리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비난 성명 발표</p> <p>- 일본에서 벌어진 야스쿠니 신사 참배노름은 일제에 의해 막심한 피해와 재난, 불행을 강요당한 전체 조선인민과 아시아 인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세계의 양심과 정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임.</p> <p>김병홍 주 뉴질랜드 신임 북한 대사, 뉴질랜드 총독 실비아 카트라이트에게 신임장 제정</p>	<p>샤론 워털 영국 기업자문국 대변인, 영국 財界 대표단 10월중 방북 계획 언급</p>
8.30	<p>과학기술부, 북한 과학기술 정보 전문 사이트 구축·운영 계획 발표</p> <p>- 북한 과학기술정보 전문 사이트구축에 착수하여 금년 12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p>	<p>김책공업종합대학대표단 러시아 방문차 평양 출발</p> <p>일본 '평화의 배' 대표단 남포항 도착</p> <p>「청년동맹」중앙위, 일본 고이즈미 총리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규탄 성명 발표</p>	<p>워싱턴 타임스, 'KEDO, 다음달 북한 경수로 건설 굴착공사 착수 계획' 보도</p>

■ 8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31	<p>외교통상부,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회의 개최 예정 발표</p> <p>- 9.6 동경에서 한·미·일 3국 대표단은 현 대북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p> <p>현대아산, 8월분 금강산 관광대가 42만800불 대북 송금</p>	<p>중방,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 발사 3돌 즈음, '우리 조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빛내시려고' 제하로 보도</p> <p>중방,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범죄적 행위' 제하로 뉴스위크紙의 일본의 역사왜곡 기사 관련 비난</p> <p>- 미국잡지 뉴스위크가 미국 당국과 한쪽이 되어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공공연히 두둔하는 것은 일본의 군국화를 견결히 반대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매우 불순한 처사임.</p>	<p>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협약위원회, 일본에 대해 군대 위안부에 대한 배상 방안 강구 권고</p> <p>중국 국제방송, 북한 상품전람회 개막(8.31-9.3, 북경) 소식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		<p>「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 박순희 위원장,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담화</p> <p>-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할 때까지 투쟁할 것임.</p> <p>중·평방, 비전향장기수 귀환 1돌 기념연회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진행 보도 * 양형섭, 김용순, 문재철 참석</p> <p>김정숙 사범대학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양강도 해산시에서 진행</p>	<p>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경수로발전소 건설허가 취득</p> <p>- 발전소건설허가는 북한측이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심사하여 경수로 발전소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건설 착수를 확인하는 절차</p>
9. 2	<p>통일부 대변인, 북측의 남북당국간 대화 제의 관련 논평 발표</p> <p>- 금일 북측이 남북당국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제의해 온 데 대해 환영함.</p> <p>- 정부는 앞으로 북측과 대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처해 나갈 것임.</p>	<p>임동욱 「조평통」 부위원장, 임동원 통일부장관에게 대화재개 전통문 발송</p> <p>- 온 거래의 의사를 반영하여 6.15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게 북남 당국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함.</p> <p>- 우리의 이 건설적인 제안에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함.</p>	
9. 3	<p>김대중 대통령,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 강조 * 제38회 방송의 날 리셉션</p>	<p>강택민 중국주석 평양 도착(9.3-5) * 김정일 위원장 공항 영접</p>	<p>일본 외무성 대변인, 북한의 남북대화 재개 제의 환영 논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정상회담은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함.</li> <li>- 부시 대통령이 10월에 방한하면, 무릎을 맞대고 대화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li> <li>- 햇볕정책은 흔들림 없이 이루어져야 함.</li> </ul> <p>국회 본회의,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p>	<p>노동신문, '끊임없이 강화되는 조중친선의 유대' 제하로 북중관계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택민 동지의 이번 방문은 새 세기에 더욱 튼튼해지고 있는 조중 친선의 유대의 과시로 됨.</li> </ul> <p>「조평통」 서기국, 북의 대화재개 제의에 대한 한나라당의 평가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나라당이 북의 대화재개 제의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고 있음.</li> </ul> <p>김정일 위원장, 강택민 주석과 단독회담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측 참가자 : 김영남, 조명록, 김영춘, 최태복, 강석주, 지재룡, 최진수</li> <li>* 중국측 참가자 : 전기침, 증경홍, 광백웅, 왕강, 대병국, 유화추, 왕국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남북간 대화가 북미 협의와 더불어 진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촉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함.</li> </ul> <p>강택민 중국주석, 북한 방문차 베이징 출발</p> <p>영국 파이넨셜 타임스, 강택민 중국주석의 방북을 대미협상용이라고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택민 주석이 걸어서는 북한에 쌀과 석유 등의 지원을 약속하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중국의 경제개혁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li> </ul>
9. 4	<p>김대중 대통령, 남북화해협력정책 지속 추진의지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대 종교단체 대표 오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었지만 의연한 자세로 정도를 가면서</li> </ul>	<p>김정일 위원장·강택민 주석, 대집단체조 관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경기장</li> </ul>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홍성남 내각 총리, 만수대의사당에서 강택민 주석과 담화</p>	<p>주방자오(朱邦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미 군사회담 계획(9.13-14, 괌)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 및 해상 안전 문제 등 협의</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4	<p>민족과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p> <p>-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바라는 민족 화해 협력의 길을 추구해 나갈 것임.</p> <p>임동원 통일부장관, 남북 당국대화 조만간 재개 전망</p> <p>- 북한이 당국간 회담에 호응해 온 만큼 남북 당국간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봄.</p> <p>손영래 철도청장, 한반도 종단철도(TKR)-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문제 관련 한·러간 협의 내용 설명</p> <p>* 러시아 주재 한국 특파원단 기자회견</p> <p>- 한국과 러시아는 TKR-TSR 연결사업을 위해 양국간 교통협력위원회와 철도대표부 설치, 철도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p>	<p>러시아 교통성 기술실무대표단 평양 도착</p> <p>* 단장 : 교통성 대외관계국장 바체슬라브 발라긴</p> <p>중방, 북한 가뭄 심각성 보도</p> <p>- 8.14부터 20여일간 북한 각지에 가뭄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가뭄은 9.11경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가을 남새를 비롯한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p>	<p>워싱턴 타임스, 강택민 주석 방북에 대한 서울의 기대감 보도</p> <p>- 강택민 주석의 방북에 대한 서울의 주된 희망은 강주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한국을 답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고무하는 것임.</p> <p>미 국무부, 북한의 남북대화 재개 제의 환영 논평</p> <p>프랑스 하원의원 대표단, 북한 방문차 베이징 출발</p>
9. 5	<p>남측 민간 대표단, 이르쿠츠크 가스관 북한통과 문제 협의차 평양 도착</p> <p>* 대표단 : 한국가스공사</p>	<p>강택민 중국주석, 김정일 위원장에게 방북시 환대에 대한 감사 전문</p>	<p>강택민 중국주석, 북한방문 종료후 귀국</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5	<p>김종술 부사장 등 6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자원부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 배관망의 북한 통과 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민간 실무협회가 9.6-7 양일간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발표</li> <li>- 금년 2월초 한국가스공사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 이르쿠츠크 가스전 타당성조사시 북한지역 통과노선을 검토하는 협의를 갖자고 제안하였고, 북측이 최근 이에 동의함에 따라 금번 실무협회의 개최</li> <li>-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사업은 한·중·러 3국 공동으로 이르쿠츠크 가스전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중국과 한국에 공급하기 위한 대형사업으로서, 현재 3국간에 파이프라인 경로를 포함한 타당성조사가 진행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방문이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김정일 총비서와 당과 인민이 우리에게 열정적인 환대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li> </ul> <p>중방, '날날이 드러난 검은 속셈' 제하로 일본의 자위대 해외군사 활동 합법화 움직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현집권자가 자위대 부대들의 군사작전 참가를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법적인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저들의 해외팽창 야망 실현에 가로 놓인 법적인 구속물을 제거해 버릴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임.</li> </ul> <p>김정일 위원장, 평양비행장에서 강택민 주석 환송</p> <p>김정일 위원장, '9월27일 닭공장' 현지지도</p> <p>*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정하철,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박용석 참석</p>	<p>중국 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김정일의 답방은 남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 위원장의 한국 답방문제는 남북한이 상의해서 결정해야 함.</li> </ul>
9. 6	<p>통일부 대변인,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제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금일 오전 남북</li> </ul>	<p>중·평방, 강택민 중국주석의 북한 공식 친선방문에 대해 상보</p>	<p>한·미·일, 동경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개최</p> <p>* 회의 후 공동 언론</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6	<p>장관급회담 우리측 대표단 수석대표 명의로 북측대표단 단장에게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9.15-18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냈음.</p> <p>통일부 대변인, 남측의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제에 대한 북측 답신 내용 발표</p> <p>- 북측은 9.6 오후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명의로 우리측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9.15-18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동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음.</p> <p>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 방안 관련 정책건의</p> <p>* 제10기 전체회의</p> <p>- 대화일정을 준수하고 약속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대화형식과 절차에 대하여 북한과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p> <p>- 당국간 정식으로 합의 서명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꾸준히 요구해야 함.</p>	<p>중방, '미사일 광증에 걸린 자의 망발' 제하로 일본 방위청장관 발언 비난</p> <p>- 일본 잡지 「세카이 슈오」를 인용, '일본이 미사일방위체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이라고 한 일본 방위청장관의 발언을 비난</p> <p>외무성 대변인, 주한 미군 관련 담화 발표</p> <p>-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는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임.</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유도선수 계순회에 노력영웅 칭호 및 국가훈장 제1급 수여</p> <p>노동신문, 미국의 유럽배치 무기의 아·태지역 이동 움직임 관련 비난</p>	<p>발표문 공개</p> <p>- 3국 대표단은 인도적인 문제를 포함, 대북정책추진에 있어 3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계속 견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음.</p> <p>미 국무부, 남북대화 재개 긍정적 평가</p> <p>*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정례브리핑</p> <p>- 우리는 남북한간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 및 안보의 열쇠라고 생각하며 남북대화 진전은 매우 긍정적인 사태진전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6	<p>-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하고 회담의 형식과 절차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p>		
9. 7	<p>김대중 대통령, 통일부장관에 홍순영 주중대사 임명</p>	<p>민족화해협의회, 독도영유권 학계토론회 개최 및 개천절행사 개최·축전참가 구속대표 석방 촉구 관련 성명 발표</p> <p>북한정권 창건 53돌 경축차 방북한 재일본조선인총합단 KCNA 기자회견</p> <p>평방, '추악한 역사왜곡책등은 용납될 수 없다' 제하로 대일 비난 대담 진행</p> <p>평북 염주군 다사노동자치구, 김일성의 현지지도사적비 '불멸의 영도업적, 길이 빛나리' 제막식 진행</p>	<p>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환영 논평</p> <p>* 히메노 쓰토무 내각 부공보관을 통해 발표</p> <p>- 남북한간의 대화가 앞으로 진전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연결되길 희망함.</p> <p>주룽지 중국총리 러시아 방문(9.7-12)</p> <p>러시아 외무부,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환영 성명 발표</p>
9. 8	<p>「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년 민족공동행사 남측 추진본부」, 9.7자 북측 「민화협」의 개천절행사 개최 제의 관련 논평</p> <p>- 우리는 북측이 희망한 대로 통일대축전에서 채택</p>	<p>공화국 창건 53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4.25문화회관)</p> <p>프랑스 사업헌신협회, 북한정권 창건 53돌 즈음 김일성에 금메달과 명예증서 전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8	<p>된 보도문의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임.</p> <p>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제 56차 유엔총회 의장직 수임차 출국</p> <p>- 한승수 장관은 우리나라가 유엔 총회 의장 수임국으로 내정됨에 따라 오는 1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56차 유엔총회 개회식에서 무투표방식으로 의장직에 오르게 될 예정으로 출국</p>	<p>국가규격화일꾼대표단 (단장 : 김형철), 「국제규격화기구(ISO)」 제 24차 총회(시드니) 참석차 평양출발</p>	
9. 9		<p>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정권 창건 53돌 즈음 축전 발송</p> <p>강택민·이봉·주용기, 북한 정권 창건 53돌 즈음 김정일·김영남·홍성남 등에 축전 발송</p>	<p>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 미일 동맹 강화 강조</p> <p>* 미일 강화 50주년 기념식 연설(샌프란시스코)</p>
9.10	<p>통일부, 8.15 평양축전참가자 방북허용 문제 기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p> <p>- 9.10자 일부언론에서 8.15 남북공동행사 남측 대표단의 방북승인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했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p>	<p>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 방북중인 프랑스 諸정당 국회의원 대표단(단장 : 하원의원 마로켄)과 담화</p>	<p>야태 육군참모총장 회의(PACC)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p> <p>* 한·미·일 등 아태지역 17개국 육군참모총장 참석</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0	<p>- 정부는 우리측 참가 인사들이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3대헌장기념탑 앞 행사를 허가할 수 없다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음.</p> <p>- 8.15공동행사 대표단 방북은 북측의 입장변화 통보와 우리측 추진본부의 정부 가이드라인 수용확약을 고려하여 방북승인 결정자인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하였음.</p> <p>산업자원부, 이르쿠츠크 가스관 북한통과 남북공동조사 합의 발표</p> <p>-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관의 북한 통과 타당성 조사 여부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협의(9.6-7, 평양)에서 양측은 공동조사를 추진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타당성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9월중 협의하여 최종 합의서에 9월말까지 서명키로 하였음.</p>	<p>외무성 대변인, 일본의 대형 운반로켓 H2A 발사시험 진행 관련 담화 발표</p> <p>- 우리를 표적으로 미사일과 그 체제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일본의 기도가 현실적인 위험단계에 이르고 있는 엄중한 사태는 위성발사 중지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부득불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음.</p> <p>프랑스 諸정당 국회의원대표단, 방북일정 종료후 평양 출발</p> <p>중방, '이제는 끝날때가 되었다 제하'로 주한미군철수 주장</p>	<p>이타르타스 통신, 북한 철도상황 실사 착수 보도</p> <p>-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중인 러시아 대표단이 9.10 북한 철도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북한발로 보도</p> <p>조이프 바이든 미 상원 외교위원장, 올 연말 북한방문 추진 언급</p> <p>- 상원일정이 끝나는 오는 11월이나 12월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1	김대중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역에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임명	<p>평방, '미사일방위체계 수립의 진짜목적은 무엇인가' 제하로 대미 비난</p> <p>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고문대표단과 담화(만수대예술극장)</p>	
9.12	김대중 대통령, 미국 테러사건 관련 비상 국무회의 소집	<p>외무성 대변인, 테러반대 입장 표명</p> <p>-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우리공화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행위는 지극히 유감스럽고 비극적인 것으로 테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음.</p> <p>김정일 위원장, 인민군 제821·제368·제757군부대 시찰</p> <p>중방, '미제의 대조선 압살기도는 변함이 없다' 제하로 주한미군 유지비 증액 비난</p> <p>- 한미간에 주한미군 유지비를 증액키로 한 데 대해 남조선 군사당국자들도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비난</p>	<p>미·러 외무차관 회의 개최(9.12-15, 런던)</p> <p>- MD추진 및 ABM 조약 개폐문제 등 협의</p> <p>강택민 중국 주석- 부시 미국 대통령, 테러 척결 국제협력 합의 (전화통화)</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3	<p>홍순영 통일부장관, 대북포용정책 지속 추진 언급 * 취임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li> <li>- 평화를 확보해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자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함.</li> </ul> <p>남북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명단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 대표단 : 홍순영 통일부 장관(수석대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윤형규 문화관광부 차관, 이봉조 통일부 실장, 서영교 통일부 국장</li> <li>- 북측 대표단 : 김령성 내각 책임참사(단장), 조성발 내각 사무국 참사, 최성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허수립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총사장 겸 무역성 광명성 지도국 처장, 김만길 문화성 국장</li> </ul>	<p>조평통 대변인,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9.15-18, 서울)개최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북남상급회담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북남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는가 못하는가는 전적으로 남측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얼마나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음.</li> </ul> <p>단군민족통일협의회 제7차 전원회의 평양에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에서는 올해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계획과 관련한 분공안,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구성안, 위원보선문제들이 토의됨.</li> </ul> <p>노동신문, '미·일 반동들의 음흉한 전쟁흥계' 제하로 미·일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 안보조약 체결 즈음 일본 외상과 미국 국무장관의 샌프란시스코 회동 관련 비난</li> </ul>	<p>경수로 기초굴착공사 착공 참가단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마크 보글라 홍보부장 및 한국전력 정경남 대외사업단장 등 61명</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4	<p>제5차 「총련」 고향방문단(71명) 인천공항 도착</p> <p>「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북측 「민화협」에 8.15통일대축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 접촉(9.24-26, 금강산)제의</p>	<p>중·평방, 미국 테러 참사 소식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에 대한 이번 습격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금 세계 사회계는 앞으로의 사태발전에 대해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 있음.</li> </ul> <p>중방, '실패를 면치 못한 부시의 강권정책' 제하로 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에서 부시정권 출범 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강권정책은 약자의 몸부림임.</li> <li>- 부시 행정부의 강권정책이 미국을 어떤 처지에 빠뜨릴 것인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함.</li> </ul> <p>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김영대 위원장, 일본의 로켓 H2A 발사 시험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이 로켓 발사시험까지만 이상 우리의 위성발사 중지와 관련한 종래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다 강력한 자위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함.</li> </ul>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의사당에서 정권창건 53돌 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담화</p>	<p>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 테러 지원국에 지속적 군사 공격 감행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ul> <p>러시아 교통성 기술 실무조사단(15명) 북한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단은 9.4 방북한 실무조사단 1진과 함께 TKR-TSR 연결 관련 경제성, 궤도규격 및 교체 가능성 등 구체적 조사에 착수</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5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인천 공항 도착 * 김령성 단장(내각참사), 조성발, 최성익, 허수립, 김만길 대표 등 27명	천도교청우당위원장 류미영, 일본의 대북적대시 정책 및 군국화 책동 비난 담화 발표  - 일본이 과거죄행을 미화분식하고 군국주의화하고 있음.	
9.16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일차 회의 진행	김정일 위원장, 인민군 제194군부대 시찰  노동신문, '보상을 회피하려는 술책' 제하로 전후 보상문제에 관한 일본외상 발언 비난  - 미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50주년 기념식에서 일본 외상이 전후 보상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말한 것을 비난	
9.17	김대중 대통령,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등 접견  -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하고 최근 남북 관계가 소강상태에 있다가 장관급회담이 재개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남북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여 회담에서 많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함.	전기석탄공업성 대표단, 북·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54차 회의(중국) 참가차 평양 출발  노동신문 대표단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  임순길 「직총」 중앙위 위원장, 일본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과 군국화 책동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일본은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성근하게 하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하여 적대시 정	제45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개최(비엔나)  - 핵안전조치 강화·원자력 안정성 제고문제 논의  모하메드 알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한에 핵안전조치 이행 촉구 * 제45차 총회 개막 연설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7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일차회의 진행	책을 계속 실시하면서 죄많은 저들의 과거를 미화분식하기 위하여 날뛰고 있음.	
9.18	<p style="text-align: center;">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lt;주요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국간 대화·협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접촉과 왕래·협력사업을 적극 지원</li> <li>-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10.16-18)</li> <li>-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통</li> <li>-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빠른 시일내 실무접촉 개최</li> <li>- 육로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10.4 개최</li> <li>- 남·북·러 철도 연결 협력, 가스관 연결사업 검토</li> <li>-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통과 협의를 위한 해운 실무접촉 개최</li> <li>- 임진강유역 수방 대책 협의를 위해 11월중 현지조사 착수</li> <li>- 경협 관련 4개 합의서의 빠른 시일내 발효</li> <li>- 동해 공동어로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li> <li>-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10.23-26) 및 실무접촉 개최</li> <li>- 태권도 시범단(10월 북측 시범단, 11월 남측 시범단)교환</li> <li>- 제6차 장관급회담 10.28-31 개최</li> </ul>		<p>한미 외무장관회담 개최</p> <p>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북미 대화 재개 촉구</p> <p>* 한미 외무장관회담후 기자회견시</p> <p>미국 외교협회(CFR),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문제 우선적 외교과제로 처리 권고</p> <p>* 한반도 특별반 보고서</p> <p>주방자오(朱邦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남북회담 재개 환영 표명</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8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참가 북측 대표단 귀환	중방, 테러습격사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복 움직임 보도  김정일 위원장, 인민군 제535군부대 및 211군부대 시찰  「조선민주여성동맹」 박순희, 일본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군국화 책동 규탄 담화 발표  「범민련」, 새로 수정된 「강령·규약」 북·남·해외본부 동시 발표  -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 인정 및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관련 부분 삭제  - 교류와 협력, 인도주의 관련 부분을 새롭게 명시	
9.19	통일부, 2001년 1-8월중 남북교역동향 발표  - 2001년 1-8월중 남북교역액은 253,190달러로 전년 동기 295,739천달러 대비 14.4% 감소하였음.  - 반입액은 91,547달러로 전년 동기 88,101천달러 대비 3.9% 증가하였음.  - 반출액은 161,643천달러로	평방, 한반도 주변지역의 미군 군비증강 움직임 비난  - 미제의 변함없는 대조선 침략 야망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음.  김정일 위원장, 김책공업종합대학 방문 과학기술 발전 위한 사업제시 * 최태복,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장성택, 주규창 동행  - 우리의 과학기술을 최단 기간	미·러 외무장관회담 뉴욕에서 개최  - 대테러 보복공격·미국의 MD 추진문제 등 협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 미 테러 보복 공격관련 미군 지원책 발표  - 고이즈미 총리는 기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19	<p>전년동기 207,638천달러 대비 22.2% 감소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목교역수지는 70,096천달러로 남한이 흑자이나, 비거래성교역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는 북한이 47,037천달러 흑자임.</li> <li>- 교역업체는 321개이며, 교역품목수는 511개임.</li> </ul>	<p>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능 있는 과학기술인재를 더 많이 육성해야하며 정보화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들과 기술교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의사당에서 주북 몽골 신임대사 칸키이 부드로진 롬보로부터 신임장 접수</p>	<p>자회견에서 △미군 등에 대한 의료·수송 등의 지원 활동 실시을 위한 자위대 파견 △주일 미군기지 및 국내 중요 시설 경비 강화 △정보수집을 위한 자위대 함정 파견 △파키스탄 및 인도에대한 긴급 경제 지원 △아프카니스탄 지원 등 발표</p> <p>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 신임대사, 대테러 국제 제휴 구축 선언</p>
9.20	<p>김대중 대통령, 경의선 철도·개성공단 도로사업 의의 강조</p> <p>* 대전시청 업무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의선 철도와 개성공단 도로, 동해안 육로관광 등은 단순히 교통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비무장지대와 군부가 접하고 있는 전선을 여는 것임.</li> </ul> <p>한나라당, 대북 쌀지원 촉구 성명 발표</p>	<p>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북경 경유 평양도착</p> <p>중방,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제하로 대일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테러보복 공격작전 관련 일본당국의 적극적 해외파병 움직임은 즉각 중지되어야 함.</li> </ul> <p>중방, '일본을 아시아침략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미국' 제하로 미국의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지원움직임 비난</p>	<p>당가선(唐家璇) 중국 외교부장 방미(9.20-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테러 공조문제 협의 및 상해 APEC 정상회의 개최문제 논의</li> </ul> <p>NATO 특별이사회 개최(브뤼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O 회원국간 테러 대처 공동방안 논의</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0	<p>- 쌀재고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풀어주기 위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인도적 차원에서 약 200만석의 쌀을 북한동포에 지원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결정했음.</p>	<p>장재언 「북적」 중앙위 위원장,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인 선정 관련 대남 전통문 발송</p> <p>김정일 위원장, 인민보안성 군견훈련소 시찰</p> <p>* 이용무, 김국태, 이명수, 현철해, 이용철, 장성택 등 동행</p> <p>체신대표단(단장 : 체신상 이금범)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p>	<p>일본 정부, 테러 보복 공격에 대한 일본의 후방 지원법인 「미국 등에 대한 지원 법안」(가칭) 개요 마련</p>
9.21	<p>「한적」,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자 300명 선정</p> <p>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 평가 및 미국테러 대참사가 북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타워호텔)</p> <p>「한적」총재,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추진일정 관련 대북 전통문 발송</p> <p>- 방문 후보자 200명 명단은 9.28, 방문후보자 명단에 대한 회보서는 10.8, 지원인원·취재기자·방문단 최종명단은 10.11 교환할 것을 제안</p>	<p>중방, '파렴치한 수작'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미 중앙정보국 보고서 내용 중 '북한의 대중동·남아시아·북아프리카 미사일 부품 수출' 부문에 대해 비난</p> <p>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정치일꾼 대표단 평양출발</p> <p>중국 인민해방군 친선 참관단 평양 도착</p> <p>제12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개막식 진행</p> <p>* 변영립, 이광호 등 참가</p> <p>- 이번 경연 및 전시회는 프로그램 경연부문과 전시회 부문, 성·중앙기관의 컴퓨터화 전시회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p>	<p>EU 특별 정상회의 개최(브뤼셀)</p> <p>- 미 테러사태 이후 국제정세 및 EU의 대응방향 논의</p> <p>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테러 보복전쟁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 배제 언급</p> <p>* BBC 기자회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1		<p>김정일 위원장, 인민문화궁전에서 「중앙문학예술부문 창작가·예술인들의 시범문답식 학습경연」 참관</p> <p>* 전병호, 계응태, 한성룡, 최태복, 김국태, 정하철, 김중립, 최기남, 최철남, 강능수, 현철해 동행</p> <p>「농근맹」 중앙위, 일본의 '반공화국 적대시정책과 군국화 책동' 관련 규탄 성명 발표</p> <p>-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책동과 현 당국자의 야스구니 신사 참배 놀음으로 안팎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는 아랑곳없이 대형 로켓트 발사 시험을 강행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음.</p>	
9.22	<p>서영훈 「한적」 총재,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추진 일정 관련 대북 수정 제의</p> <p>- 생사확인 의뢰자 명단 교환은 9.26, 생사·주소확인 결과 회보서 통보는 10.8, 방문단 100명 최종 명단 교환은 10.10로 제의</p>	<p>사회과학원대표단 및 조선민족음악위원회대표단, 중국·일본 방문차 각각 평양 출발</p> <p>루마니아 사회주의노동당 대표단 평양도착</p>	<p>美州기구(OAS) 비상총회 개최(워싱턴)</p> <p>- 미 테러사태 관련 미주상호방위조약 발동여부 논의</p> <p>대북식량지원 일본 사찰단, 원조 식량 분배에 문제점 없다고 언급</p> <p>* 기자회견(북경)</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정부 사찰단의 일원인 자민당 소속 중의원 시오자키 야스히사와 타키 마코토 의원은 북한에 지원한 쌀의 관리 및 분배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급</li> </ul>
9.24	<p>김하중 외교안보수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개최 (9.23)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고와 관련한 대미 지원조치로 △이동외과 수준의 의료지원단 파견 △수송자산 제공 △원활한 협조를 위한 연락장교단의 파견 △반테러 국제연대의 적극 참여 △미국과의 테러관련 정보 협조 등을 결정하였음.</li> </ul>	<p>노동신문,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의 망동' 제하로 대일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당국이 미국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사시범의 확대 적용 및 해외파병을 위한 자위대법의 개정움직임을 보이고 있음.</li> </ul> <p>캄보디아공화국 공보성 대표단 평양도착</p> <p>평방, '범죄적 목적을 노린 미제의 우주군사화 책동' 제하로 미국의 레이더무기를 이용한 미사일 요격실험계획 비난</p> <p>김일성의 자강도 현지지도 10돌 기념보고회 강계시에서 진행 * 연형묵, 최기룡 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계시에서 진행된 동 기념보고회에서 최기룡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임명</li> </ul>	<p>러시아 소리방송,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에 안드레이 카를로프 임명 보도</p> <p>고이즈미 일본총리 訪美(9.24-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對테러 보복 공격을 둘러싼 공동 대응방안 논의</li> </ul> <p>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총회 개최 (9.24-28, 오타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미사일 행동규약 채택을 위한 회원국간 이견조율</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5	<p>남북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의뢰자 200명 명단 각각 교환</p> <p>* 남북연락관 접촉</p> <p>통일부, 대북정책 추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p> <p>* 조사기간: 9.22-23</p> <p>조사대상: 일반국민 1,542명</p> <p>- 조사결과 64.9%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긍정 평가하고 가장 큰 성과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61.6%),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조기 착수」(24.1%) 등을 꼽았음.</p> <p>- 국민 대다수(76.8%)가 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 81%가 찬성하였으며,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60.0%가 찬성하였음.</p> <p>- 여론은 향후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32.2%),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28.7%)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음.</p>	<p>KEDO 대표단 및 몽골 대표단 평양 도착</p> <p>김영남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의사당에서 주북 신임대사 안드레이 까를로프로부터 신임장 접수</p> <p>평방, '북조선위협론을 떠드는 자들의 검은 속심' 제하로 미·일 비난</p> <p>- 미·일의 호전세력들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모략선전을 벌이는 가운데 MD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p> <p>중방, 「통일연대」 등 '남조선의 각급 단체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p> <p>김형철 국가규격화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단, 제24차 국제규격화기구 총회(시드니) 참가후 평양 도착</p>	<p>한·러 정책협의회 개최(9.25-27, 모스크바)</p> <p>- 금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에 따른 양국간 주요현안에 대해 협의</p> <p>데니스 맥웨인 영국 외무부 차관, 영국 무역대표단 방북계획 발표</p> <p>- 10여개업체로 구성된 영국의 무역대표단이 10.16-19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p> <p>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 부시 대통령의 10월 아시아 순방 일정 변경 발표</p> <p>- 부시 대통령은 오는 10.20-21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만 참석할 예정이며 서울, 동경, 북경은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6	<p>홍순영 통일부 장관, 금강산 관광 당국간 회담 10.3-5 금강산 개최 대북 제의</p> <p>-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육로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 활성화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10.3-5 금강산 지역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김령성 단장 앞으로 보냄.</p> <p>- 전통문에서 우리측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 3명과 수행원 5명 그리고 적정수의 지원인원과 기자로 구성되는 대표단을 보낼 것임을 밝힘.</p> <p>한국능률협회 남북산업교류협력단, 정보기술 및 경영 관련 도서 1천200권 대북 기증</p>	<p>제20차 윤이상 음악회 개막(모란봉극장)</p> <p>* 강능수(문화상), 故윤이상 부인·딸, 기타 예술인 참가</p> <p>조-중 친선앙어장 명명식 진행</p> <p>노동신문 논설, 남북현안 자주적 실천 강조</p> <p>- 조국통일은 강한 의지와 실천 없이는 이룩될 수 없음. 북남이 6.15 공동선언을 통해 약속한 대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며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p> <p>황남 벽성군 장현과수농장,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제막식 진행</p> <p>백남순 외무상, 방북중인 몽골 외무성 대표단(단장 : 국무비서 바싼자빈 간볼드)과 담화</p>	<p>NATO 국방장관회의 개최(나폴리)</p> <p>- 미국의 군사작전 관련 지원방안 논의</p> <p>미국, 네바다주에서 임계이하 핵실험 실시</p> <p>- 핵무기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자료 수집 목적</p> <p>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 가입 협상 개시 용의 표명</p> <p>미국 하원, 2002회계연도 국방예산안(3천440억달러)채택</p>
9.27	<p>김대중 대통령, 「세계평화의 날」 20주년 기념식 축하 메시지</p> <p>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금강산 카지노 개설 승인 신청 계획 언급</p> <p>*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발언</p>	<p>「전국이발·미용경연」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 진행</p> <p>* 이용선(상업상) 등 참가</p> <p>중방, 남한 미군주둔지역에서 '군사기지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 보도</p>	<p>제14차 세계관광기구(WTO)총회, 대미 테러 규탄 결의안 채택</p> <p>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노력 언급</p> <p>* 임시국회 연설</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7	<p>- 현대아산이 주체가 돼 금강산 카지노 개설에 대한 승인을 곧 정부에 신청할 계획임.</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의사당에서 루마니아 사회주의노동당대표단과 담화</p>	
9.28	<p>외교통상부 대변인, 한·러 정책협의회 개최(9.26) 결과 발표</p> <p>- 금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한·러 정상회담 및 외무장관회담 추진, 양국 외무부간 정책협의체 활성화 등 실질적인 경협 증진방안 등에 합의하였음.</p> <p>홍순영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금강산관광 당국간 회담 우리측 대표단 명단 통보</p> <p>* 대표단 : 조명균 통일부 국장(수석대표), 박양우 문화관광부 국장, 양성호 건설교통부 심의관</p> <p>제1차 한·중 합참 부장급 군사협력회의 개최(북경)</p> <p>* 한국 합참 전략기획부장등 5명, 중국 총참모부 외사판공실장 등 5명 참석</p> <p>-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안보정세 평가 및 양국간 군사교류 협력발전 방안 논의</p>	<p>제15차 「윤이상음악연구토론회」 진행(인민문화궁전)</p> <p>평방, 평양산원 최근 부인증양과 개설 소식 보도</p> <p>대외문화연락위-조·중친선협회 중앙위, 인민문화궁전에서 중국 정권 창건 52돌 즈음 연회 개최</p> <p>당 창건 56돌 기념 「전국노동자 체육경기대회」 5·1 경기장에서 개막</p> <p>김책공업종합대학 교직원·학생들, 김정일 현지지도(9.19) 과업관철 궤기모임 진행</p> <p>중방, 미국의 테러작전 관련 비난</p> <p>- 이집트·이란·오스트리아·중국 등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테러 군사적 보복작전의 본격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p> <p>북측, 금강산관광 당국간회담 10.3-5 금강산 개최 동의</p>	<p>미·요르단 정상회담 개최 (워싱턴)</p> <p>- 미국의 대테러 공격에 대한 이슬람권의 지지 요청</p> <p>아디사이 보다라믹 태국 상무장관, 대북 쌀 50만톤 수출 협상 진행 언급</p> <p>- 재고누적을 해결하기 위해 쌀 수출협상을 진행중이며, 이번 수출 물량은 북한이 50만톤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28	<p>대한태권도협회, 북 태권도 시범단 공연 10.20-22 제의</p> <p>-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남한 공연을 40명 규모로 구성해 10.20-22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해달라는 서한을 9.28 판문점을 통해 북측 태권도위원회 황봉연 위원장에게 보냄.</p>	<p>「조선반핵평화위」 대변인, 일본의 대형 운반로켓 발사시험 관련 담화 발표</p> <p>- 이번 발사시험은 일단 사태가 조성되면 단번에 세계 일류급의 군사력과 핵무기로 아시아 인민들의 머리위에 군림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음.</p> <p>평양예술단 소그룹, 독일 순회 공연 시작</p> <p>- 이번 공연은 재독동포협력회와 독일의 문화후원단체인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공동초청으로 9.28 베를린, 9.29 프랑크푸르트, 10.6 도르트문트에서 개최 예정</p>	
9.29	<p>대한적십자사, 북한 주민 사체 1구 북측에 인도 발표</p>	<p>노동신문, 중국 정권창건 52주년 기념 논설 '창조와 건설의 자랑찬 노정' 보도</p>	
9.30			<p>유엔아동구호기금, 국제사회에 대북지원 호소</p> <p>- 올해 지원목표액 1천50만여달러 가운데 316만여달러를 확보하는데 그쳤으며 국제사회에 대북지원 호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		<p>평방, 북한대표 56차 유엔총회 연설(9.26) 내용 보도</p> <p>- 유엔이 강대국들로 하여금 약소국의 자주권을 위협하고 분쟁문제를 지배주의 실현목적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함. 핵무기 소유국들은 핵무기 철폐시간표를 제시하는 등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위한 신뢰를 조성해야하고 유엔활동에서 이중기준 적용이 철저히 배격되어야 함.</p>	
10. 3	<p>금강산 관광활성화 남북당국 간회담 남측 대표단 장전항 도착</p> <p>* 대표단은 10.3 설봉호편으로 속초항 출발</p>	<p>개천절 행사 단군릉에서 개최</p> <p>* 류미영, 김영대, 오익제, 려원구 참석</p> <p>- 기념사 : 전체 조선민족이 김정일의 사상과 의지를 높이 받들고 6·15 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 것임.</p>	<p>러시아 소리방송, 북한의 미군유해 17구 인도 소식 보도</p> <p>- 6.25전쟁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미군 유해 17구가 10.2 평양으로부터 일본 도쿄 남서부 요코다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비행기로 인도되었음.</p>
10. 4	<p>금강산 관광활성화 남북당국 회담 제1일차 전체회의 진행(금강산 여관)</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및 백남순 외무상, 안드레이 카를로프 신임 주북 러시아 대사와 환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5	<p>금강산 관광 활성화 남북당 국간회담 제1차 회의 개최 (10.3-5)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측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육로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활성화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음.</li> <li>-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음.</li> <li>- 남과 북은 10.19부터 제2차 회의를 갖기로 하였음.</li> </ul> <p>김대중 대통령, 남북간 화해시대 개막을 국민의 정부 최대 성과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국회 연설문</li> <li>- 훗날 역사가 평가할 국민의 정부의 최대 성과는 반세기의 남북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함.</li> </ul>	<p>중·평방, 금강산 관광활성화 남북당국간 회담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 사업의 중요성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기초를 강조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하는 등 원칙적인 입장을 보도했으나 쌍방제안과 남측입장 등 회담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음.</li> </ul> <p>중방, '이중기준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제하로 엘바라데이 IAEA 총국장의 대북 핵사찰 발언 비난</p> <p>문화성 혁명사적관 창립 30돌 기념보고회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하철·강능수 등 참가</li> </ul>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여객기 추락 관련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조전 발송</p> <p>제1방송국 창립('61.9.11) 40돌 기념보고회 진행</p>	<p>미국, 외국 테러단체 명단(26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테러단체 명단은 미 국무부가 2년마다 갱신, 관보인 '페더럴 리지스터'에 발표</li> </ul> <p>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위 불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적군파의 활동여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위에 변화를 주지 않음.</li> </ul> <p>이형철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 미 테러사건 유감 공식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총회 본회의 5일째 회의 발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달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사건은 국제사회를 크게 놀라게 했으며 유감스럽고 비극적인 것임.</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6	<p>김대중 대통령, 한반도에서의 평화수호 노력과 평화형성 노력 병행 강조</p> <p>* 경향신문 창간 55주년 회견</p> <p>- 평화를 지키는 노력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나가야 할 문제임. 빈틈없는 국방태세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정치적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군비 축소 등 평화프로세스를 이행해 나가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일이 될 것임.</p>	<p>중방,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1차 남북당국간회담 성과 보도</p> <p>- 이번 회담은 금강산관광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한 좋은 방도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유익한 회담임.</p> <p>중방, '북조선위협론을 떠드는 자들의 검은 속심' 제하로 미·일 비난</p> <p>- 미·일 반동들이 우리의 군사적 위협을 떠드는 데는 그를 구실로 무력증강을 다그쳐 세계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을 이루어 보려는 음흉한 속심이 깔려 있음.</p>	<p>요미우리 신문, 집단적 자위권 허용 관련 긴급 제안</p> <p>- 총리는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하며 차제에 비생산적인 집단적 자위권 논란과 결별해야 함.</p>
10. 7		<p>김정일 위원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 49돌 생일 관련 축전 발송</p> <p>중방, 「6.15 공동선언 실천연대」 결성 보도</p>	<p>부시 미 대통령,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공격 개시 발표</p>
10. 8	<p>남북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후보자 200명 생사확인 결과 교환</p>	<p>노동신문, '이중 기준은 허용될 수 없다' 제하로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북한 핵 검증·사찰 거론사실 비난 논평</p>	<p>고이즈미 일본총리 중국 방문</p> <p>-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양국간 정상회담 개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8	<p>김대중 대통령,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 관련 특별 담화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행동은 정당한 것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협력할 것임.</li> <li>- 정부는 이번 사태가 경제적·외교 안보적으로 우리에게 미칠 파장에 대해 이미 면밀한 검토를 마쳤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책도 강구해 놓고 있음.</li> </ul> <p>국가안정보장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 관련 추후 전개될 양상에 따른 단계별 대비책 점검</li> </ul> <p>한·러 국방정책 실무회담 개최(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테러사건이후 국제 및 한반도 안보정세 토의</li> </ul>	<p>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추대 4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인민문화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 :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li> <li>- 김정일에 의해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되었으며 통일위업에 일대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국가경제력을 튼튼히 다지는 것은 현시기 가장 중요한 과업임을 강조</li> </ul> <p>평방, '민족의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제하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5 공동선언의 핵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임.</li> </ul> <p>항복소재 홀동광산 칠성대 1호 발전소·옥란발전소 및 옥란분광산 등의 건설조업식 현지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안보 및 군축 관련 결의안 초안 논의</li> </ul> <p>동북아 제한적 비핵화 회의(10.8-9, 서울)</p> <p>러시아 소리방송, 제2차 러시아 철도기술 실무대표단 방북계획 보도</p>
10. 9	<p>2001년도 제3차 통일고문회의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영식 의장 등 통일고문 19명 참석</li> </ul>	<p>중국공산당 중앙위, 노동당 창건 56돌 즈음 당 중앙위에 꽃바구니 전달</p>	<p>미·중 인권대화 개최 (10.9-11, 워싱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9	<p>남북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명단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문점 적십자 연락관 접촉을 통해 10.16-18간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방문할 이산가족 각 100명과 지원인력 및 취재진 등 명단 교환</li> </ul> <p>강현욱 민주당 정책위원장, 대북 쌀 지원 관련 당정협의 계획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쌀 재고가 충분한 만큼 30만톤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며 당정협의를 거친 뒤 대북 쌀 지원 문제를 야당과도 협의할 것임.</li> </ul> <p>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제의(10.6)에 대한 북측 회신 전통문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 국방부가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경의선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서명 교환을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을 10.12과 10.15에 갖자고 제의(10.6)한 데 대해 남북 군사 실무회담 북측 단장 류영철 인민무력부</li> </ul>	<p>평방, 외신 인용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 사실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10.8 새벽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고 하면서 진행사항을 논평 없이 사실내용만 자세히 보도</li> </ul> <p>평방, '과거청산을 회피하려는 비열한 책동' 제하로 대일 비난</p> <p>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대 아프카니스탄 '군사적 보복' 관련 중통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거나 지역의 정세와 안전을 파괴하는 무력행사·전쟁의 방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면밀히 주시해 나갈 것임.</li> <li>-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수단은 그 어떤 경우이든 그와 같은 목적에 전적으로 부합하여야 함.</li> </ul> <p>노동신문 논설, 새로운 자본주의 착취론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세기의 자본주의적 착취는 지능노동을 기본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음. 정보산업</li> </ul>	<p>영국 해외 투자지원처(BCB), 영국 무역대표단 북한 방문(10.16) 계획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6-20 8개 민간회사와 영국석유공사 및 로열 더치셀 그룹 등이 참여하는 무역대표단이 영국과 북한간 경제협력과 교역 가능성 탐색 및 논의차 방북할 예정임.</li> </ul> <p>부시 미국 대통령,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파견 결정내용 상·하원 공식 통지(CNN 방송)</p> <p>북대서양조약기구 의원총회, 미국 주도의 對테러전쟁 지지 결의문 채택</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9	<p>부국장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를 통한 전화통지문에서 '검토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음.</p> <p>한국언론재단·외교안보연구원, '한반도 화해와 협력' 제하 평화포럼 개최</p> <p>* 조엘 위트 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고하리스스무 시즈오카대 교수, 류 밍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연구원, 장형수 한양대 교수, 박재규 경남대 북한대학원장, 조순승 미주리대 명예교수,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등 참석</p>	<p>시대 자본주의적 착취의 특징은 또한 정보기술의 이용에 기초하여 진행된다는 것인데, 자본가들이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더 많은 이윤을 끌어 모으려는 데 목적이 있음.</p> <p>- 이렇듯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보산업의 발전은 고용노동에 대한 자본착취를 더욱 강화하게 함으로써 계급적 모순과 대립을 보다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임.</p>	
10.10		<p>당 창건 56돌 맞이 당·정·군 간부 및 각계층 근로자들 금수산기념궁전 참배</p> <p>평방, '믿을 것은 오직 우리 민족 자체의 힘' 제하로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p>	<p>블레어 영국 총리, 대테러 전쟁 확산 가능성 시사</p> <p>* 영국 BBC방송 인터뷰</p> <p>- 대테러전쟁의 첫번째 단계는 아프간에 대한 공격이지만 또 다른 나라가 테러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추가적인 군사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1	<p>김대중 대통령,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접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미국의 대아프카니스탄 군사행동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테러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함.</li> <li>- 이에 대해 켈리 차관보는 최근 남북대화가 재개돼 남북간에 여러 관련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서 김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함.</li> </ul>	<p>중앙TV, IAEA 연례총회에서 대북 핵확산금지 의무이행 촉구 결의문 채택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결의문 채택을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비난</li> </ul> <p>중방, '노골적인 해외침략책동' 제하로 미국의 대테러작전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병참지원 움직임 비난</p> <p>안드레이 가를로프 주북 러시아 대사, 자국대사관에서 북한과의 외교관계 설정 53돌 즈음 연회 개최</p> <p>평방, '우리당의 통일정책은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책' 제하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정당성 강조</p>	<p>브라질 연방상원, 대북 포용정책 지지 결의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이 회담에서 발표된 남북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포함해 향후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진전된 추가조치가 있기 바랍.</li> </ul> <p>교토통신, '세계식량계획(WFP), 일본에 대북 식량지원 요청' 보도</p>
10.12	<p>김대중 대통령, 남북현안 관련 북측에 분명한 입장 표명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 간담회</li> <li>- 북측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태권도 시범단 방문을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 입장을 북측에 분명히</li> </ul>	<p>「조평통」 대변인, 제4차 이산가족상봉사업 및 태권도시범단 파견 연기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것을 통해 안보태세를 역설하고 군의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을 공언하고 있음. 이는 6.15 북남공동선언 정신에 배치되며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행위임.</li> </ul>	<p>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부시 대통령 내년초 방한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시 대통령의 내년초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번 방한이 연기된</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2	<p>표명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p> <p>북측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연기 담화(10.12) 발표 관련 대북 전문문 발송(10.12)</p> <p>* 홍순영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명의</p> <p>- 북측이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깊은 유감을 표시함.</p> <p>- 만약 중요한 합의사항인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연기된다면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이 개최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p> <p>-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태권도 시범단 파견의 일정을 계획된 대로 진행함으로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남북관계가 원활히 진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p>	<p>- 우리는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를 고려하여 제4차 흠어진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과 우리측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 파견을 부득이 당분간 미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p> <p>중방, 북-러 외교관계 53돌 관련, '날로 발전하는 조-러 친선' 제하의 보도</p> <p>평방, '통할 수 없는 미사일 위협설' 제하로 대미 비난</p> <p>-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자위적 행동이며,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기 위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사일을 만들지 않을 것임.</p> <p>평방, '조국통일 위업실현의 확고한 담보' 제하로 민족자주적 통일 강조</p>	<p>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음.</p> <p>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북한 주재 영국 외교관들의 고충 보도</p> <p>- 북한과 수교 후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들어간 영국의 외교관들이 통신수단 확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마크 그로스먼 미국 정무 담당 차관, 테러 사태 이후 북미 관계 불변 언급</p> <p>* 미국 전직외교관들의 모임인 DACOR 개최 세미나(세계은행 회의실)</p> <p>- 9.11 테러사건 직후 북한이 테러 규탄성명을 내기는 했으나 북미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2	<p>통일부 대변인, 북측의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및 태권도 시범단 방문 연기 관련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이 일방적으로 남북 이산가족방문단과 태권도 시범단 방문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li> <li>- 특히 북측이 우리 내부 문제를 연기사유로 거론한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임.</li> <li>- 정부는 북측이 이번 담화를 즉각 철회하고 장관급 회담의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함.</li> </ul>		
10.13	<p>민주당 대변인, 이산가족 상봉 지연 및 대북 쌀 지원 문제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당직자 회의 결과 브리핑</li> <li>- 북한이 어제 테러에 대비한 군·경찰의 경계강화를 빌미로 이산가족상봉 등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일방적으로</li> </ul>	<p>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북측단장 김택룡, 제2차 회담 금강산 개최 대남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은 전화통지문에서 10.19 개최하기로 합의한 제2차 회담장소는 이미 제기한 바 있고 회담 토의 의제에 맞으며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는 금강산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li> </ul>	<p>일조농업협회 창립총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조농업협회는 일·북간 농업분야 기술교류 등을 목적으로 지난 85년 발족한 '일·조 농업농민우호 교류협회'를 근간으로 해 개편한 것임.</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3	<p>보류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해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대해 정부가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북한측에 통보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 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임.</li> <li>-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대북 쌀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북 쌀 지원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자 쌀값을 안정시키는 농업정책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로서 식량지원은 규모와 방법 및 방식 등에 대해 여야정치권의 합의와 남북 당국자간 논의에서 결정될 것임.</li> <li>- 포괄적 상호주의를 견지하되, 이산가족상봉과 쌀 지원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li> </ul>	<p>평방, '또 다시 드러난 반인륜적 행위' 제하로 미국의 생화학전 훈련 비난</p> <p>평방,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 제하로 보안법 철폐 촉구</p> <p>평방, '자주성을 지키는 것이 통일의 길' 제하로 민족자주적 평화통일 강조</p> <p>개성시 문화유적관리소 문화유적 보수공사 진행</p> <p>쿠바 외무성대표단 방북(10.13-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남, 김기남, 양형섭, 백남순 등 당·정 간부와 면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시다회장은 새 새기를 맞이한 일본의 과제는 일·북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양국 친선을 위해 민간 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피력</li> </ul>
10.14	<p>통일부, 북한 식량 70만톤 대남 지원요청 언론보도 내용 부인</p> <p>* 동아일보 10.15자 가판 1면 '북한, 당초 요청 식량(70만톤) 기대에 못 미치자</p>	<p>노동신문, '파멸을 재촉하는 무모한 짓' 제하로 일본의 자위대법 개정과 해외침략 움직임 비난</p> <p>해주공업대학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진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4	<p>이산가족 상봉 연기' 제하 기사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일보 기사내용 중 '북한이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각종 남북간 접촉과정에서 남측에 식량 70만톤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li> <li>- 북측은 5차 남북장관급회담 과정에서 식량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인 양은 언급한 사실이 없음.</li> </ul>	<p>중방, 러 신문보도 인용 '북한·미국 위기와 전망' 제하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비난 및 북·미 대화 등 관계개선의 필요성 제기</p>	
10.15	<p>김대중 대통령,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개최</p>	<p>자강도 소재 희천공작기계공장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진행 * 연형묵 등 참가</p>	
10.16	<p>정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촉구 및 금강산관광 당국간 회담·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제의 대북 전통문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순영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명의</li> <li>-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사업의 일정을 하루 속히 새롭게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함.</li> <li>- 회담장소 문제는 그 동안 남북이 서로 왕래하면서</li> </ul>	<p>중방, 호주정부 대북 식량지원 사실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년부터 여러 차례 인도주의 원조물자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도 우리가 가뭄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500만 호주달러 상당의 밀을 지원했음.</li> <li>조총련 조선대학교학생 조국방문단,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송 비전향장기수들과 상봉</li> <li>중방, 세계식량의 날(10.16) 즈음 농업증산투쟁 촉구</li> </ul>	<p>유럽연합(EU), 대북 원조계획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 겨울 북한 어린이들을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24만5천 유로의 원조를 제공키로 하였음.</li> <li>- 이번 원조는 북한 4개 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 및 영유아 7만4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6	<p>회담을 진행해 오던 전례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측 지역에 안전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음. 금강산관광 당국간 회담은 이미 우리측이 제의한 대로 설악산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 마땅함.</p> <p>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p> <p>- 북측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연기에 따른 남북관계 대응방안 논의</p> <p>통일부, 남북경제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 승인</p> <p>- 협력사업승인 : (주)G-한신·한신 그라스·북경유리 유한 공사가 공동으로 북한의 광명성총회사와 합작, 유리제품 생산공장을 평양에 설립코자 하는 사업 승인</p> <p>- 협력사업자 승인 : (주)IMRI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합작으로 발포성 수지 생산공장을 설립코자하는 사업 승인</p>	<p>- 전 인민이 토지정리, 물길공사 등 대자연 개조사업과 종자혁명, 농업기술 개발 등 증산투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농업생산 전망은 밝음.</p> <p>- 아울러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식량문제에 달라붙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p> <p>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박창련 위원장, 우리측 김진표 위원장 앞 대남 전통문</p> <p>- 남북경추위 제2차 회의를 10.23-26에 진행하되 금강산 개최 제의</p> <p>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북측 김택룡 단장, 우리측 조명균 수석대표 앞 전통문</p> <p>-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간 회담을 10.19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의</p>	<p>카라가노프 러시아 외교국방정책위원회 회장 방한</p> <p>부시 미 대통령, 통일 이후에도 주한 미군 유지 언급</p> <p>* 연합뉴스 기자회견</p> <p>- 미군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극동지역 전반에 보장과 안정을 제공하는 매우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통일 이후에도 미군을 한반도에 계속 유지할 작정이며 감축할 의도는 전혀 없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7	<p>이한동 국무총리, '대북식량 제공은 남북당국자회담에서 결정' 언급</p> <p>* 국회정치분야 대정부 질 문 답변</p> <p>- 대북식량제공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시기와 규모, 조건 등은 조만간 남북당국자회담에서 결정할 것임.</p> <p>통일부, 2001년도 1-9월중 남북교역 동향 집계 발표</p> <p>- 2001년 1-9월중 남북교역액은 291,107천달러로 전년동기 329,993천달러 대비 11.8% 감소하였음.</p> <p>- 기간중 반입액은 109,970천달러로 전년동기 105,278천달러 대비 4.5%증가, 반출액은 181,137천달러로 전년동기 224,715천달러 대비 19.4% 감소하였음.</p> <p>- 1-9월중 거래성 교역은 157,267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8% 감소, 비거래성 교역은 133,840천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하였음.</p>	<p>노동신문, '자주적 입장은 북남 공동선언 이행에서 견지되어야 할 근본 입장' 제하 논설</p> <p>- 통일문제해결에서 외세의 간섭이 허용되면 통일의 목적 자체를 실현할 수 없게 됨.</p> <p>- 자주적 입장은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며, 이를 견지하는 것은 공동선언을 옹기 이행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구임.</p> <p>- 중요한 것은 사대주의와 외세 의존사상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며,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 등 모든 차이를 뒤로 미루고 만족적 단합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함.</p> <p>청년학생들,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75돌 즈음 주체사상탑·개선문 등지에서 경축 야회 진행</p> <p>중방,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52돌 즈음 관련 김정일 축전에 대해 중국의 당 및 국가 지도자들이 답전을 보내왔다고 보도</p>	<p>토마스 허바드 주한미국대사, 대테러 전쟁에 북한동참 기대 언급</p> <p>* KBS 특별인터뷰</p> <p>- 미국은 북한의 테러반대 성명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북한이 단순한 성명발표를 넘어서 더 큰 기회를 붙잡길 원하며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기를 바람. 또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북한이 잘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기 바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8	<p>김대중 대통령 상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p> <p>- 김대통령은 방중기간중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칠레 등 8개국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갖고, 테러대응을 위한 상호협조 방안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협의차 출국</p> <p>홍순영 통일부장관,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연기 배경 관련 언급</p> <p>* 국회 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p> <p>-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문화적·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업으로 보고 그 충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됨.</p>	<p>중·평방, 미국의 아프칸 탈레반 세력에 대한 연속공습 및 미국내 탄저균 발생 사실 보도</p> <p>김정일 위원장, 혁명가극 「피바다」 공연관람</p> <p>* 조명록, 김일철, 전병호, 최태복, 김국철, 정하철, 김기남, 최철남, 강능수, 현철해 동행</p> <p>평방, 8.15 축전 참가 남측 범민련 관계자 구속 관련 비난 보도</p> <p>- 범민련 의장단협의회에 참가하여 강령과 규약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구속한 것은 용납 못할 범죄행위임.</p> <p>남북장관급회담 북측 김령성 단장,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 앞 전통문</p> <p>- 귀측이 북한군의 동향을 놓고 대책을 논의한 다음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한 것 자체가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과 제5차 북남상급회담 합의사항을 위반한 엄중한 행위임.</p> <p>- 귀측이 우리와 화해하고 단합할 의지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납득할 수 있게 환경과 분위기부터 일신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함.</p>	<p>제16차 한미 안보연구회 연례학술세미나 개최(10.18-20, 워싱턴)</p> <p>- 볼튼 미 국무차관, 풀너 헤리티지재단 회장 등이 참석하여, 방위비 분담,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KEDO의 미래 등을 논의</p> <p>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한·중·일 연결 가스관 건설 촉구(이타르타스 통신)</p> <p>* APEC 외무장관 회담(상해)후 기자회견</p> <p>-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안정을 위해 한·중·일을 연결하는 가스관을 연결하여야 함.</p> <p>유엔 인도지원조정국, 북한관리 호주 연수 사실 공개</p> <p>* 북한 상황보고서 (인터넷)</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8		<p>- 오는 10.19 금강산에서 합의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이 제 날짜에 열릴 수 없게 된 조건에서 이 회담을 10.25에 가지며,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5에, 제6차 상급회담은 예정대로 10.28에 모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p> <p>중방,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견어치워야 한다' 제하로 대미 비난</p> <p>- 우리는 미국에서 테러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엔 성인국으로서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음.</p>	
10.19	<p>김대중 대통령 -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한·러 정상회담 개최(상해 인터컨티넨탈 호텔)</p> <p>- 김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8월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관한 평가를 청취, 푸틴 대통령은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의사를 확인</p>	<p>노동신문, '위험한 해외침략 기도' 제하로 대일 비난</p> <p>- 테러공격을 계기로 일본이 평화헌법(9조) 수정을 통해 자위대를 공식군대화 하려고 하고 있음.</p> <p>중방, '남조선강점 미군을 늘리기 위한 술책'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을 감축하면서 주한미군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음.</p>	<p>EU 특별 정상회의 개최(벨기에)</p> <p>- 미 테러사태 관련 대미 지원방안 협의</p> <p>부시-장쩌민, 대테러 공동노력 합의</p> <p>- 부시 대통령과 장주석은 상하이에 있는 영빈관에서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9	<p>김대중 대통령 -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한·중 정상회담 개최(상해 금강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통령은 장쩌민 주석으로부터 북한과 중국 정상간의 교환방문 결과를 청취, 장쩌민 주석은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을 평가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li> </ul> <p>김대중 대통령 - 부시 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개최(상해 리츠칼튼 호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 현황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확인</li> </ul> <p>통일부, 북측의 2001년도 비료 20만톤 분배결과 문건 접수 사실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은 10.16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적」 장재언 위원장 명의의 분배 결과 문건(9.25자)을 전달해 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배지역 : 9개 시·도, 97개 시·군·구역(평남 18%</li> </ul>		<p>국제적인 테러에 따른 위협의 중대성에 대해 이해를 함께 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만약 테러와의 싸움에 협력한다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p> <p>부시 미 대통령, 북한의 미북대화 호응 기대 피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상해 리츠 칼튼호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미북대화를 갖자고 제의했으며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를 기대함.</li> <li>- 지금은 북한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한반도의 평화적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인바, 김정일 위원장이 그 기회를 잡기를 희망함.</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9	<p>황남 141% 황북 13.7% 등)</p> <p>북한이탈주민지원 부산지역 협의회 발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거주지 보호담당관과 부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li> </ul> <p>부산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 부산 아시아게임 북한 초청장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운용 조직위원장 명의로 된 공식 초청장을 국제 택배편으로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발송</li> </ul>		
10.20	<p>김대중 대통령 -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한·일 정상회담 개최(상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5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 및 이행 방안, 테러 대책을 비롯한 APEC에서의 협력방안, 오는 11월 ASEAN+한·중·일 정상회의 및 WTO 각료회의에서의 협력문제 등에 대해 의견 교환</li> </ul>	<p>「조평통」 서기국, 남북대화 관련 환경·분위기 조성 및 북측제의 회담일정 수락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흠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사업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도 변함이 없음.</li> <li>- 우리측은 남측이 진실로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존중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li> </ul>	<p>제9차 APEC 정상회의 개최(10.20-21, 상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0		<p>바라다면 어떤 행태로든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환경과 분위기부터 일신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임.</p> <p>노동신문, '가짜 인도주의 모자를 벗어야 한다' 제하로 대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일자 연기 요청 및 비상경계 조치 실시 등 비난</li> </ul> <p>제5차 「민족면역의 날」 개막 모임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수학(보건장), 에이길 쏘렌센(WHO 주북대표) 등 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지역에는 천연두·홍역이 없어졌고 비루스에 의한 소아마비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li> </ul>	
10.21	<p>김대중 대통령, 통일의 당위성과 현실간 혼동 곤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CCTV인터뷰</li> </ul> <p>- 1,300년간 통일됐던 국가가 50여년 분단됐다고 해서 갈라설 수 없음. 그러나 통일의 당위성과 현실을 혼동해서는 안됨. 통일을 서두를수록 더 안될 수도 있으므로 경제, 사회 측면 등의 통일에 대한 전제를 다져나가야 함.</p>	<p>「복적」 중앙위 대변인,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위한 환경조성 촉구 담화 발표</p> <p>- 지난 10월 18일부 우리측 전화통지문에서 밝혀둔 바와 같이 남측은 무엇보다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남조선에 조성된 살벌한 환경과 분위기부터 일신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p>	<p>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북한 APEC 참여 지원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EC 정상회의 폐막후 기자회견</li> </ul> <p>- 북한의 APEC 참여는 북한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북한이 APEC 참여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지원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APEC 참여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난해 브루나이 APEC에서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li> </ul>
10.22	<p>정부, 합의사항 미이행에 대한 대북 유감 표명 및 제6차 장관급회담 평양 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순영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명의 대북 전 통문 발송</li> <li>- 북측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연기, 당국간회담 장소 금강산 고집,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질 등에 대한 유감 표명</li> <li>- 제5차 회담의 합의사항 이행 일정 재조정을 통한 향후 남북관계 발전 방향 협의의 필요성 제기</li> <li>-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우선적 실현 촉구</li> </ul>	<p>노동신문, '대화에 성실하게 나와야 한다' 제하로 남북대화 연기 관련 책임 전가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이 대화 앞에 계속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사태의 엄중성이 있음.</li> <li>- 남측이 북남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6.15 공동선언을 함께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우리측의 거듭되는 대화제의를 성실하게 받아들여야 함.</li> </ul>	<p>세계식량계획(WFP), 북에 긴급 식량 지원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0.9-10 강원도 지역에 4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수천ha의 논이 침수돼 5만톤의 벼가 유실되었음. 식량난 해결을 위해 1천850톤의 밀을 피해지역으로 긴급 수송하고 있음.</li> <li>교도통신, '북한, 상하이에 유학생 20명 파견' 보도</li> <li>- 북한은 올 9월 학기부터 상하이에 건축을 배우기 위해 건축과 도시공학을 전공하는 학생 20여명을 보냈음.</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3	<p>홍순영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문제 제도적 해결 노력 의지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격려사</li> <li>- 정부는 이산가족들이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회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li> </ul>	<p>북측,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재차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김령성 단장은 우리측 홍순영 수석대표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0.28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재차 제의</li> <li>- 동 전통문에서 북측 단장은 제6차 북남상급회담을 금강산에서 할 데 대한 우리측의 거듭되는 제안은 상급회담 자체를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2회씩 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귀측 지역 제주도에서 가졌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중으로 이에 대한 대답을 보내 줄 것을 요청</li> </ul> <p>외무성 대변인, 부시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직전 발언 관련 비난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미국과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입장임.</li> <li>-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외교정책에서는 일관성이 어느 정도 보존되는 것이 상식인데 부시 행정부에 와서 그렇게</li> </ul>	<p>토마스 허바드 주한미 대사, 테러사태에 대한 북한측 반응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li> <li>- 북한이 테러사태에 대해 유감표명과 반대성명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 조치이나, 북한이 국제연대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덜 동참하는 것도 사실임. 북한이 자신의 방법으로 테러에 대해 대처하고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적절함.</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3		<p>안되는 것이 의문임.</p> <p>노동신문,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제하로 테러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테러를 반대하는 것은 세계평화와 안정,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임.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해치려 덤벼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임.</li> </ul>	
10.24	<p>홍순영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대북 전통문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차 장관급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측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평양 인근인 묘향산에서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li> </ul> <p>통일부, 2001년 1-9월중 남북한간 선박 운항 및 물동량 집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 1-9월중 남북한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1,200회로 전년 동기 1,434회에 비해 16.3% 감소하고, 남북한간 해상물동량은 674,798톤으로 전년 동기 574,072톤에 비해 17.5% 증가하였음.</li> </ul>	<p>중방, 제56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10.17) 북측대표 연설내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측이 북한 미사일 위협문제를 중심으로 MD를 추진하고 있음. 세계의 모든 군축문제를 유엔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함.</li> </ul> <p>「유엔의 날」 관련 '유엔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제하로 성원국들의 자주권과 발전 보장, 공정한 국제관계와 질서수립 등 강조</p> <p>노동신문, '예의 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제하로 남한내 일부사회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 남조선에서는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민족간의 관계로 보지 않고 완전히 다른</li> </ul>	<p>잭 프리처드 美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 북한에 테러 대책 관련 협력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조지타운대 개최 세미나(워싱턴)</li> <li>- 북한은 테러 사건이 미국에 대해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더욱 유익한 행동을 취해야 함.</li> </ul> <p>아시아 신문, '북, 테러참사 직후 미국에 애도표명 문서전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지난 9.11 동시 다발 테러 발</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4	<p>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말경 공포 예정</li> <li>- 남북한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종전 1년6개월에서 3년 이내로) 및 교류절차 간소화 포함</li> </ul>	<p>민족간의 관계, 적대적 관계로 보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고 반인륜적 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음.</p> <p>노동신문, '끈질긴 해외침략 야망' 제하로 일본의 자위대 해외파병 비난</p>	<p>생후 약 15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보도</p> <p>조엘 워트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연구원, 북미 관계 개선 전망 불투명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조지타운대 개최 세미나(워싱턴)</li> <li>- 북한의 실상과 미국의 대북 정책 입안자의 인식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당분간 북미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전망</li> </ul>
10.25	<p>김대중 대통령,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김정일 위원장에게 서울답방 권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계 대표 오찬 간담회</li> <li>- APEC 정상회의에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서울 답방을 권유했다고 말했다.</li> </ul>	<p>북측,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거듭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김령성 단장은 우리측 수석대표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거듭 주장</li> <li>- 북측은 전통문에서 지금까지</li> </ul>	<p>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워싱턴에서 창립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레드 아이클 박사,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의원,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 등 15명의 이사진으로 구성</li> <li>- 이 위원회는 향후</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5		<p>북남상급회담 장소는 평양과 서울에서 각기 2회씩 개최하고, 남측지역인 제주도에서 한번 진행하였으므로 이번에 북측 지역인 금강산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p> <p>- 제6차 북남상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하여 언제나 금강산 지역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며 남측이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호응하여 회담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p> <p>노동신문사·중앙통신사·중앙방송위 기자 언론인들, 인민문화궁전에서 신문·보도·방송혁명의 전통과 업적을 고수하고 보도선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궤기 모임 진행</p>	<p>활동과제에 △북한 주민에 대한 긴급 식량원조로 제공되는 식량 분배에 대한 검증 △대북 경제원조에 대한 북한 인권개선, 난민 보호 및 기근구제와의 조건부 연계 △탈북자 처벌금지 및 중국내 탈북자 정치 난민 자격 인정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 개방 방안 모색을 통한 북한 주민 개방화 조치 등 포함</p>
10.26	<p>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금강산 육로관광 등 문제 협의차 정몽헌 회장 11월초 방북 계획 언급</p> <p>* 기자간담회</p> <p>- 당국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육로관광 시행, 특구지정 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의 진행을 확신하고 있음.</p> <p>- 당국간 대화 재개여부를</p>	<p>평방,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할 민족자주의 기치' 제하로 민족 자주 강조</p> <p>- 외세와 반통일 세력의 책동으로 지금 남조선은 6.15 북남공동선언 채택 이전의 시기의 대결상태로 되돌아 갔음. 6.15 북남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자주통일의 날을 앞당겨 나가야 함.</p>	<p>미 국무부, 북한을 '종교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CIP)'으로 규정</p> <p>*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정례브리핑</p> <p>- 10.25 의회에 제출한 국제종교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 북한이 종교자유와 관련한 특별관심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6	<p>이달 말까지 지켜본 뒤 아태평화위측과 추후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정몽헌 회장이 11월초 북한을 방문할 예정임.</p>	<p>중방, '자체의 군사력이 강해야 한다' 제하로 군사적 역량 마련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의 튼튼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없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갈 수 없음.</li> </ul> <p>평남 회창군 소재 회창 발전소 조업식 김일철 등 참가하여 진행</p>	<p>상국에 추가로 포함되었음.</p> <p>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북미 대화 준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부 정례 브리핑</li> <li>- 미국은 북한과 아무런 조건없이 언제, 어느 곳에든지 진지한 대화를 가질 준비가 돼있으며, 미국의 기존 대북기조와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 북측이 어떤 현안을 논의하기를 원하든 의제에 상관없이 우리는 개방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li> </ul>
10.27	<p>김대중 대통령, 「한적」 창립 96주년 기념식 축하 영상 메시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업적에 대한 격려 등 전달</li> </ul> <p>서영훈 「한적」 총재, 이산가족 상봉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적」 창립 96주년 축하</li> </ul>	<p>노동신문, '날로 드러나는 전쟁세력의 정체' 제하로 일본정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 개정안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법 개정안에 일본 자위대가 유엔 평화군의 기본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동결한 조치를 해제하며, 자위대의 해외파견, 무력의 무기사용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li> </ul>	<p>북-EU, 평양서 4차 정치대화 개최(10.27-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EU 정치대화는 '98년부터 매년 개최</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7	<p>- 북한 적십자회에 제4차 이산가족 교환 방문의 조속한 재개와 함께 이산가족 면회소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다시 한번 촉구함.</p>	<p>국제적 공헌을 구실로 한 일본 반동들의 해외침략 기도가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것임.</p> <p>중방, 러시아 등 독립국가협력체 나라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군사연습을 자위적 군사력 강화조치라고 옹호</p> <p>북한과 유럽동맹 사이의 관계발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유럽연합 대표단 평양도착 * 단장 : 벨지크 외무성 아시아 담당국장 반 호트</p>	
10.28		<p>평방, '자주적 입장은 북남 공동선언 이행에서 견지되어야 할 근본 입장' 제하로 민족의 자주권 강조</p> <p>-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임.</p> <p>- 북남 사이에 아무리 좋은 합의를 이룩해 냈다 하더라도 외세 의존의 길로 나간다면 그것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음.</p>	<p>유엔식량기구(FAO) · 세계식량계획(WFP), 금년 북한 식량 수확량 354만톤으로 전망 * 북한 곡물생산 평가단 특별보고서</p> <p>- 쌀 정곡기준 133만 9천톤, 옥수수 148만2천톤, 감자 188만2천톤(곡물로 환산시 41만1천톤), 겨울보리와 밀 등 이모작 작물 17만8천톤, 수수 등 기타 곡물 7만4천톤</p> <p>- 위 생산량은 지난해 수확량 257만3천톤에 비해 38%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8			<p>증가한 것이지만 국내 필요량 501만1천톤에 비하면 146만7천톤이 부족하다고 분석</p>
10.29	<p>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제5차 ASEAN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예정(11.4-6) 발표</p> <p>- 김대통령은 위 기간중 최근 남북관계 진전동향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역차원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임.</p> <p>안상영 부산시장, 부산아시안 게임 북한 참가 의사 타진 내용 언급</p> <p>- 10.26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국제경기연맹 총회에 참석한 장웅 북한 IOC 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부산아시안 게임 참가 문제 등을 요청한 결과 '검토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음.</p>	<p>노동신문 논평, '부시의 고약한 협담을 규탄한다' 제하로 APEC 회의전 가진 기자회견 내용 비난 및 미북관계 정상화 희망 시사</p> <p>-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도외시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조미대화는 클린턴 정권 말기의 입장수준에 도달하여야 논의될 수 있을 것임.</p>	
10.30	<p>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올 상반기 싱가포르-북한간 교역액 7천415만 8천달러로 집계</p>	<p>중방, '위험계선에 이른 재침전쟁 준비' 제하로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법제화 움직임 비난</p>	<p>퍼시 웨스트루트 EU 아시아 담당국장, '북한, 내달 테러 자금 봉쇄 유엔협약 서명 예정' 언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30	<p>- 상기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2천26만달러에 비해 333% 증가</p> <p>- 싱가포르의 대북한 수출은 7천121만달러로 지난해 2천45만1천달러에 비해 348% 증가, 수입은 294만2천달러로 지난해 180만9천달러에 비해 162% 증가</p> <p>최용섭 광주 보건대 교수, 대북 포용정책은 불가피한 선택 언급</p> <p>* 전남대 사회과학원 개원 기념 통일문제연구협회의회 광주·전남권 학술회의</p> <p>-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은 정책 추진 속도와 방향, 그리고 목표에서는 시각차와 불만이 있어도 큰 흐름에서는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선택임.</p> <p>- 시각차와 불만을 줄이려는 끊임없는 설득과정을 통해 대북정책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이해시키는 것은 정부여당의 몫임.</p>	<p>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안드레이 까를로브, 김정일 위원장 방러 성과 기념 연회 개최</p> <p>* 홍성남, 김일철, 연형묵, 김국대, 정하철, 조창덕, 백남순, 박남기 참석</p> <p>철도운수부문 열성자회의 개최</p> <p>* 김용삼(철도상) 참석</p> <p>농업성 대표단(단장 : 농업상 김창식), 유엔 FAO 제31차 총회 참가차 이탈리아 항발</p> <p>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CIRF) 연례보고서」 내용 비난 조선중앙통신(KCNA) 기자회견</p> <p>- 미국이 종교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터무니 없이 걸고 든 것은 초보적인 국제법의 원칙을 짓밟는 횡포하고 오만무례한 행위임.</p> <p>-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 나라의 종교시설 등을 파괴하고 교인들을 살해한 만행부터 응당 시인하고 사죄하여야 함.</p> <p>-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되고 있으며 교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음.</p>	<p>* 피시 국장은 10.27부터 3일간 북·EU간 정치대화를 위한 EU대표단 일원으로 방북</p> <p>- 아마도 내달쯤 테러리즘 자금을 봉쇄하기 위한 유엔협약에 서명하려 한다고 북한측이 말했다고 전언</p> <p>중국 국제방송, '중국 기업, 북한 라진·선봉시에 라선 신흥담배 시장 설립' 보도</p> <p>영국 BBS 방송,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 희망' 보도</p> <p>- 북한이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차단하고 있는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길 갈망하고 있으나 대미관계는 여전히 골치아픈 상태로 유지되고 반미 선전활동도 지속되고 있음.</p>

■ 10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31		<p>중방, 외신 보도를 인용 미국의 대 아프카니스탄 공격 소식 보도</p> <p>노동신문, '총포소동이 대화를 그르치고 있다' 제하 우리측 야외 군사기동 훈련 비난 논평</p> <p>- 제6차 상급회담이 일정에 올라 있는 이때에 전쟁연습 소동을 벌이는 것은 대화의 분위기를 해치고 그 앞길에 더욱 복잡성을 조성하는 고의적인 반대화 행위임.</p>	<p>교토통신, '일본정부 내 달초 대북 식량지원 본격 협의 착수 예정' 보도</p> <p>- 일본 정부는 세계 식량기구가 최대 20만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해온 데 따라 북한에 대한 추가 식량 지원 문제를 놓고 빠르면 11월초 연립여당측과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	<p>통일부, 북한의 인터넷사이트 개설 보도 관련 안내자료 발표</p> <p>* 문화일보 11.1자 1면에 북한이 최근 인터넷사이트 實利은행을 개설하였으며, 동 은행에 가입하면 북한에 있는 실리은행 가입자들과 전자우편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된 법규내용 안내</p> <p>- 남북교류협력법(제9조)상 북한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단순히 열람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회원가입·전자우편·주문판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의미있는 의사전달로서 북한주민접촉승인을 요함.</p> <p>- 따라서 동 실리은행 사이트에 우리 국민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자우편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아야 함.</p> <p>통일부, 2001년 10월중 국내외 대북지원 동향 발표</p> <p>- 2001년 10월중 국내 민간</p>	<p>중방, 함남 검덕 및 지초덕 일대의 2천여정보 천연수림 개간 사업 진행 보도</p> <p>평방,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무료 의무교육제도' 제하로 북한의 교육제도 선전</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알제리 혁명 47돌 즈음 알제리 대통령에게 축전</p> <p>- 나는 알제리혁명 개시 47돌에 즈음하여 당신과 알제리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냄.</p> <p>- 나는 이 기회에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함.</p>	<p>이타르타스 통신, 북-러간 석유·가스 회담 이달 시작 보도</p> <p>-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석유·가스 수출입 문제 외에 전기공급을 위한 기술적 문제들도 토의할 예정임.</p> <p>제임스 브라운 주한미 대사관 부대변인, 북한의 테러협약 비준용의 표명 환영 언급</p> <p>- 북한이 10월말 유럽연합(EU) 대표단의 방북과정에서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비준 가능성을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함.</p> <p>- 우리는 북한이 EU와 대화에서 테러자금 조달 억제 조약을 비준할 용의가 있음을 암시했다고 들었음.</p> <p>-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에 북한이 동참하는 것을 환영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	<p>단체의 대북지원분은 41억 9,040만원(약322만불)로서, 11개 독자창구를 통해 15회에 걸쳐 지원품을 전달하였음.</p> <p>- 10월말 현재 2001년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억 4,372만불임.</p>		
11. 2	<p>통일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제의 발표</p> <p>- 정부는 11.2 오전 남북장관급회담 우리측 대표단 홍순영 수석대표 명의로 북측 대표단 김령성 단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금강산지역에서 하자는 북측 제의를 수용하면서 회담 날짜는 11.9-12까지 할 것을 제의하였음.</p> <p>-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당국간 회담들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내외의 우려도 표명하였으며, 남북간의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예정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도 표명하였음.</p>	<p>조선종교인협의회,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 관련 규탄 성명 발표</p> <p>- 우리 나라를 방문한 많은 국제 종교기구들과 세계 여러 나라 종교단체들 및 종교인들도 우리 종교인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대하여 공감 인정하고 있음.</p> <p>평방, 미국의 무력이동 관련 대미 비난</p> <p>- 미국은 중동에서의 무력이동을 구실로 주한 미군을 비롯한 한반도 전투력을 계속 증강시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p> <p>중앙 TV 시사해설, 주한 미 사령관의 발언내용 등을 소재로 미국의 북한위협설은 대북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3		<p>외무성 대변인, '반테러 국제협약들'에 가입 결정 발표 * 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우리는 세계적으로 테러를 근절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 왔으며 이번에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반테러 투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할 데 대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기로 결정하였음.</p> <p>- 이와 함께 「인질반대 국제협약」에도 가입하기로 하였음.</p> <p>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관련, 남측 제의(11.2) 수락 대남전통문 발송</p> <p>-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과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야 함.</p> <p>- 우리측은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11.9-11까지 금강산에서 제6차 북남상급회담을 가질 것을 귀측에 통지함.</p>	<p>러시아의 소리방송, 러시아 극동 電力 대북 공급준비 보도</p> <p>- 러시아가 극동지역 전력을 북한에 공급할 준비에 들어갔으며, 이와 관계된 북·러협상이 이달중 시작됨.</p> <p>- 북한의 전력 생산량이 현재 설비 및 연료 부족으로 발전용량의 20%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KEDO의 경수로 공사 지연과도 관련 있음.</p> <p>데이비드 모턴 세계식량계획(WFP) 북한 주재 대표, 대북 식량지원 호소(기자회견)</p> <p>- 북한의 올해 식량수확이 지난해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필요량에 비해서 147만톤이 부족한 바, 부족분중 일부는 일본과 한국 및 미국의 원조로 메워지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3			<p>- 내년 1월이면 지원국의 식량공급이 끝날 것이므로 어린이들이 한겨울에 식량난에 직면하지 않도록 지원국의 식량지원을 되살려야 함.</p>
11. 4		<p>노동신문, 일본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의 「테러대책지원법안」 통과 비난 논평</p>	
11. 5	<p>김대통령, 주룽지(朱鎔基) 중국총리와 회담</p> <p>*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브루나이 방문중 쉐라톤 호텔에서 회담</p> <p>- 김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설명하고, 지난 9월 강택민 중국 주석이 북한에 대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촉구한 것을 평가하였음.</p> <p>- 주총리는 중국이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음.</p>	<p>「농근맹」 대표단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p> <p>* 단장 : 「농근맹」 중앙위원장 송승섭</p> <p>중방, 4.15기술혁신돌격대의 「전국기술혁신경기」성과 보도</p> <p>- 김일성 동지의 탄생 90돌을 맞으며 4.15기술혁신돌격대간의 전국 기술혁신 경기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p> <p>-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기술혁신 경기 제1단계 기간에 2만3천여건의 기술혁신안과 새 기술이 창안되었음.</p>	<p>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및 실무협의체 신설 합의</p> <p>* 김대중 대통령, 주룽지 중국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간 정상회담시 합의</p> <p>ASEAN+한·중·일 정상회의 개최(11.5-6, 브루나이)</p> <p>- 동아시아 협력방안 논의 및 반테러 선언 채택</p> <p>* 한·중·일 정상회담 및 韓·中, 韓·馬聯, 韓·泰國간 개별 정상회담도 개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5		<p>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주북 파키스탄 신임대사 술탄 하비브와 담화</p>	<p>조선신보, 북한산 김치 내달 일본 시판 예정 보도</p>
11. 6	<p>홍순영 통일부장관, 대북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문제 사실상 연계 언급 * 국회 통일의교통상위</p> <p>-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양곡지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며, 대북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사실상 연계되어 있음.</p> <p>신용석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탈북자 전문직업교육 필요성 주장 * 한국자유총연맹 발행 월간지 '자유공론' 11월호 기고</p> <p>- 탈북자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바라고 있음.</p> <p>- 탈북자들은 같은 집단내에서 전문적으로 경쟁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정과 노력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p>	<p>평방, 종자론 구현 강조 보도</p> <p>- 종자론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더욱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치고 21세기를 창조와 건설의 세기로 빛내어 나가야 함.</p> <p>- 실력이 있어야 종자론을 훌륭히 구현하여 새 것을 부단히 창조해 나갈 수 있으며, 좋은 종자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님.</p> <p>주북 폴란드 신임대사 보이제흐 까후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신임장 제정</p> <p>노동신문, 일본 국회의 자위대 해외파견법 승인 비난</p> <p>- 10.29 일본국회에서 자위대 해외파견법을 승인한 것은 자위대 무력의 해외파견이 합법화 됨으로써 군대보유와 전쟁의 포기를 선언한 일본 평화헌법의 제9조는 사멸된 것이나 다름이 없음.</p>	<p>체프리 밀러 미 육군 소장, 독수리 훈련과 연합전시증원연습 통합 실시 언급</p> <p>- 연합연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3월께 실시하는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을 연계해 실시하기로 했음.</p> <p>- 이에 따라 '61년부터 매년 가을에 실시해 오던 독수리 훈련은 내년으로 연기됨.</p> <p>잭 프리처드 한반도평화회담 특사 지명자, 미북 접촉 사실 확인 *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p> <p>- 부시 행정부와 북한간의 접촉창구인 뉴욕채널이 열려 있으며, 우리는 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6	<p>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의 반테러 국제협약 가입 결정 환영 논평</p> <p>- 정부는 9.11 미국 테러 이후 반테러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표명한 북한이 이번에 2개의 반테러 국제협약에 가입키로 결정함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테러방지 및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함.</p>	<p>김정일 위원장, 제264군부대 예술선무대 관람</p> <p>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대변인, 미국의 북한 '종교문제 시비' 관련 규탄 담화 발표</p>	<p>근 2-3주 사이 수차례에 걸쳐 이 채널을 이용했음.</p>
11. 7		<p>중방, 동등한 조건하에서의 북미 대화 주장</p> <p>-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미 두나라 관계는 두나라 인민의 이익에 맞게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동등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음.</p> <p>- 조미대화과 관련해서 어디까지나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이 조미 쌍방이 다 동등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p> <p>김정일 위원장, 칠보산 유원지 현지지도</p> <p>* 홍석형, 박수길(함북 인민위원장), 박민균(명천군 위원회 당 책임비서) 등 영접</p>	<p>러시아의 소리방송, 몽골의 대북 수해 지원 물품 전달 소식 보도</p> <p>- 몽골 정부는 지난 달 홍수피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육류 1만 톤과 육류가공품을 지원했음.</p> <p>마이니치 신문, '일본, 금년 대북 쌀 지원 유보 방침' 보도</p> <p>- 일본 외무성측은 현재 일본과 북한의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외교적인 역학관계를 감안할 때 대북관계를</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7		<p>중방, 북한대표가 10.31 유엔총회 제56차 회의 전원회의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p> <p>「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관련자 구속 비난 담화 발표</p> <p>- 8월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성원들을 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탄압하는 것은 6.15 공동정신에 위반되는 행위임.</p>	<p>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연내 쌀 지원계획이 없다고 하였음.</p>
11. 8	<p>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대표 39명, 실봉호편으로 금강산 향발</p> <p>* 대표단 : 홍순영 통일부장관(수석대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윤형규 문화관광부 차관·이봉조 통일부 실장·서영교 통일부 국장(이상 대표)</p> <p>- 홍순영 장관은 출발에 앞서 이번 회담에서는 테러와의 전쟁 등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교환하고 이를 기초로 남북간에 안정을 지켜나가는게 얼마나 긴요한 일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며, 북측도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 안정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언급</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캄보디아 독립국 48돌 즈음 캄보디아 국왕에 축전</p> <p>중방, 김창식 농업상의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제31차 총회에서 연설 내용 보도</p> <p>- 김창식 농업상은 상기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FAO의 비료 지원제공 및 기술협조가 북한의 농업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하였음.</p>	<p>미 의회 조사국 래리 닉시 박사, 부시 행정부에 대북 호혜 조치 필요성 촉구</p> <p>- 미국은 북한에 재래식 무기 감축을 요구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힌 적이 없으며, 미국이 호혜주의에 입각해 재래식 병력 감축문제를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 의제는 협상의 걸림돌이 될 뿐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8	<p>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북 위탁가공 참가업체 모집 발표</p> <p>- 섬유류 대북 위탁가공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를 오는 14일까지 모집, 중개상을 통해 서면 및 견본을 이용하여 남북 양측이 위탁가공비와 품질 등에 대해 협의한 뒤 의견이 일치할 경우 타이렌 등에서 직접 접촉해서 계약을 추진할 계획임.</p>		<p>러시아 일간지 노비에 이즈베스티아紙, 북·러 전력지원 의정서 체결 보도</p> <p>- 최근 북한 전력공업성 대표단이 하바로프스크주를 방문해 연해주 전력의 대북한 수출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했으며, 지원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초기 단계인 만큼 연해주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력 총량의 2-3% 수준이 적정선일 것임.</p>
11. 9	<p>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일차 전체회의 개최(금강산여관)</p> <p>- 우리측은 기초연설을 통해 우리측의 경제태세를 문제삼은 북측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한반도가 국제적 긴장에서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가 어느때보다도 필요함을 강조</p> <p>- 북측은 최근 테러와 관련한 우리측 조치에 대해</p>	<p>중·평방,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소식 보도</p> <p>- 북측 단장은 지난 9월 제5차 북남상급회담에서 쌍방이 6.15 북남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당면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했지만 오늘 합의사항 이행이 예상밖의 사태로 중단되고 북남관계가 곡절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지적하였음.</p>	<p>일본 자위대함 인도양으로 발진</p> <p>-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지원을 위한 일본 자위대의 호위함 2척과 보급함 1척이 인도양으로 발진</p> <p>후안 마누엘 수아레스 토로 리베로 스페인 적십자총재, 국제적십자 연맹 총재로 선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9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 측이 취한 비상경계태세가 북측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	<p>김정일 위원장, 제165군부대 시찰 및 제324군부대 예술 선전대 공연 관람</p> <p>평방,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p> <p>-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 인민들이 적분자로 몰아 탄압 처형하며 6.15 북남공동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p>	<p>이한동 국무총리,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예방</p> <p>- 이총리는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국의 유엔총회 의장직 수행과 대북 포용정책을 유엔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p> <p>- 아난 총장은 남북한 방문이 향후 적절한 시기에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p>
11.10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일차 전체회의 및 수석대표 접촉	<p>김정일 위원장, '112호 닭공장' 현지지도</p> <p>중·평방,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단장 발언 보도</p> <p>- 북측단장은 남측이 조성한 엄청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중단된 북남사이의 내왕 일정을 재조정할 것은 물론 쌍방사이의 협력·교류를 위한 좋은 합의들로 이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p>	<p>이한동 국무총리, 유엔 반테러 조치에 동참 표명</p> <p>* 제56차 UN 총회 기조연설</p> <p>- 우리는 안보리 결의 1373호 등 유엔이 취한 제반조치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테러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p> <p>- 이와 함께 반테러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난민</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0			<p>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p>
11.12		<p>중방, 우리측 국방부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주적' 발언 등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6일에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에서 국방부로서는 주적 개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음.</li> <li>- 이는 동족을 주적으로 보는 견해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소리이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속에 칼을 품고 회담장에 나와서 웃음을 짓는 것이야말로 위선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음.</li> </ul> <p>노동신문,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 태도 시정 촉구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 미군 무력증강 책동은 전쟁위험을 증대시킬 뿐이며,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태도를 바꾸고 대화 분위기 마련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면 북미 대화재개 문제가 풀릴 것임.</li> </ul> <p>김정일 위원장, 제397군부대 시찰 * 이명수, 현철해, 박재경 등 동행</p>	<p>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반테러리즘 결의안 채택</p> <p>遲浩田 중국 국방장관, 북경에서 북한군 친선 참관단과 면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3		<p>태국 정부무역대표단 및 주북 신임 뉴질랜드·덴마크 대사 평양 도착</p> <p>노동신문,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움직임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의도는 상임이사국의 모자를 쓰고 정치대국 행세를 하면서 세상만사를 저들의 이기적 목적 실현에 유리하게 다루어 나가자는 것임.</li> <li>- 일본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자리를 넘겨다 보기 전에 죄 많은 과거부터 깨끗이 청산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신의를 얻어야 함.</li> </ul> <p>독일의 대북 지원 냉동소고기(수천톤) 기증식 남포항에서 진행</p>	<p>미·러 정상회담 워싱턴에서 개최(부시-푸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도탄 요격 미사일(ABM)협정 대체를 비롯한 군비 축소 문제 등 논의</li> </ul>
11.14	<p>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 제3일차 전체회의 개최후, 남측 대표단 설봉호편으로 귀환</p>	<p>최고인민회의의 대표단, 만수대의사당에서 인도네시아 인민대표회의의 대표단과 회담</p> <p>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회담 종료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상급회담 전망을 어둡게 만들어 놓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의 무성의와 특히 남측 수석대표의 전횡과 불순한 태도에 있으며, 남측의 태도를</li> </ul>	<p>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비확산을 위한 부채경감법」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법안은 러시아의 대량무기 확산 금지 노력을 대가로 러시아 부채를 탕감해주는 법안으로써,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대량살상무기</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4		<p>지켜 볼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차 북남상급회담 북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취한 남측 수석대표의 대화 부정적이며 독선적인 처사에 대하여 항의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함.</li> <li>- 우리는 남측 수석대표라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li> </ul> <p>중방, 평남 대동군 소재 순화발전소 건설 완공 임박 보도</p>	<p>파괴·확산 금지 계획 경비(37억 달러)를 러시아의 대미 부채에서 감해주도록 하고 있음.</p> <p>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회의 개최(11.14-15, 워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연합 방위태세 및 대테러 대응문제 등 논의</li> </ul>
11.15	<p>홍순영 통일부 장관, 금강산 육로관광 계속 협의 언급 * 국회 예결위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 육로관광로 개설 문제를 북측과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임.</li> </ul> <p>연합뉴스, 「2002 북한연감」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직후인 2000. 7월부터 2001. 8월까지의 남북관계를 비롯해 북한의 주요 뉴스와 정보 및 자료를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모두 9개 분야로 나누어 사진·</li> </ul>	<p>평방, '민족적 자존심은 조국통일 운동의 원동력' 제하로 자주적 통일 강조</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북 덴마크대사로부터 신임장 접수</p> <p>평방, 남포시 돌격대원들 개천-태성호 물길굴 공사 완공 보도</p> <p>중·평방,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 관한 상보 방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고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했으나 남측은 시종일관 조성된 현 긴장상태를 수습하고 쌍방</li> </ul>	<p>콘돌리자 리이스 백악관 대변인, 미사일 방어체제 실험 진행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러시아간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방어체제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시 대통령은 강력한 방법으로 미사일 방어체제의 테스트 프로그램을 진행해나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음.</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5	<p>도표와 함께 수록</p>	<p>합의사항들을 이행하려는 입장에 서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으며, 공동보도문의 최종합의를 고의적으로 뒤집고 결렬시킨 본심은 민족보다 외세를 우위에 놓고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사대주의적 근성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임.</p> <p>인민군 김두성 부대에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현지지도 사적비 건립</p>	
11.16	<p>김대중 대통령,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접견</p> <p>- 김대통령은 키신저 전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확고한 한미 동맹관계 유지와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p>	<p>피바다 가극단, 평양대극장에서 김정일이 보낸 선물 전달 모임 진행</p> <p>중방, 한미 연안상륙훈련 실시 비난</p> <p>- 미제와 남조선 당국이 12일 서부 전선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안상륙훈련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도발적인 전쟁연습이었으며, 이것은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온 겨레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고 용납 못할 범죄행위임.</p>	<p>데니스 블레어 미 아시아·태평양 사령관, 미·중 군사협력 확대 희망 피력</p> <p>- 미국과 중국은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군사분야에서 더욱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p>
11.17	<p>이한동 국무총리, 남북 화해협력 지속 추진 언급</p> <p>* 제62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기념사</p> <p>- 우리는 어떤 난관도 극복</p>	<p>노동신문,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관련 대남 비난</p> <p>- 남측이 우리의 용단과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마련된 이번 회담에 나았으면 응당</p>	<p>교토통신, 일본 해상자위대 내년 봄 다국적 훈련 추진 계획 보도</p> <p>- 일본 해상자위대가 내년 4월께 나가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7	<p>하겠다고 의지로 남북간에 화해와 교류협력을 확고히 정착시켜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함.</p>	<p>민족의 이익과 염원에 맞게 북남관계 문제를 풀어나가는 올바른 관점과 입장부터 가졌어야 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남측은 북남관계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부터 대결적인 자세를 가지고 회담에 임하였음.</li> <li>- 이번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으며 특히는 남측 수석대표의 무례하고 몰상식한 전횡과 독선적이며 불순한 추태에 있음.</li> <li>-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사실과 다른 여론을 내돌리고 있는 것은 완전히 흑백을 전도하고 북남관계 발전에 제동을 거는 행위임.</li> </ul> <p>중방, 함남 낙원군 서성협동농장 및 김책시 은어수산협동농장의 김일성 혁명사적표식비 제막식 진행 보도</p>	<p>키현 앞바다에서 한국, 미국, 러시아 등 20여개국 해군이 참가하는 다국간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런 계획은 헌법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그로 할렘 부룬트란트 WHO 총국장 일행 평양 방문</p>
11.19	<p>김대중 대통령,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초청 오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통령은 한·러 양국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대북한 관계가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으며, 고르바초프 전 소련</li> </ul>	<p>「기자동맹」 제8차대회 개막(인민문화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하철 당비서와 김성국 기자동맹 중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동맹 중앙위 사업총화, 규약개정, 중앙지도기관선거 등 3개 안건을 토의</li> </ul>	<p>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한반도 통일 위한 6자회담 추진 필요성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대 인촌기념관 특강</li> <li>- 한반도 통일의 대</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9	<p>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김대통령의 일관된 햇볕정책에 경의를 표하며, 남북한의 화해협력은 아·태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p> <p>홍순영 통일부장관, 남북관계 소강국면 예상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보고</p> <p>- 북한 내부동향으로 볼 때 북측은 대남 강경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당분간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p> <p>「한적」, 북한 선박 및 선원 송환</p> <p>* 동 선박은 11.18 오전 11시 20분경 강원도 고성군 저진 동방 25마일 해상에서 표류중 해경에 의해 예인된 선박임.</p> <p>김동신 국방부장관, 북한 화생방 및 세균전 능력 보유 언급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p> <p>- 북한은 6개 저장시설에 2,500~5,000톤의 화학무</p>	<p>- 사회주의 붉은기 진군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수행 등 선군정치 옹호와 강성대국건설 선전에 총력집중할 것을 강조</p> <p>노동신문 논설, 주한 미군 조속 철수 주장</p> <p>-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975년 유엔 총회 제30차 회의에서도 압도적 다수의 유엔 성원국들의 찬성에 의해서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 데 대한 조선 문제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었음.</p> <p>-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 데 대한 유엔 총회의 결정은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요구를 세계 인민들이 채택한 것임.</p> <p>홍동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고문 영결식 진행(애국열사능)</p> <p>세계보건기구(WHO) 평양대표부 개소식 진행</p>	<p>외상환 해결을 위해 남·북한 및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이후에 더 폭 넓은 문제를 다루는 동북아 대화채널을 만들어야 함.</p> <p>제5차 생물무기조약(BWC) 평가회의 개최 (11.19-12.7 제네바)</p> <p>- 남북한 등 144개국 참석하에 BWC 이행 검증체제 구축 방안 등 논의</p> <p>미국, 북한을 생물무기 개발국으로 지목</p> <p>*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 생물무기조약(BWC) 제5차 평가회의 기조연설</p> <p>- 북한은 수주일내에 군사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생물학적 매개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9	<p>기를 저장하고 있는 등 화생방·세균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생물무기는 탄저균, 천연두 균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충분한 배양이 가능함.</p>		
11.20		<p>평방, '민족자주의 원칙은 통일 문제 해결의 근본원칙' 제하로 자주적 평화통일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천만 겨레의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몇해 안에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음.</li> </ul> <p>평방, 일본의 자위대 지원활동 규정 기본계획에 대한 결정(11.16)을 '일본 반동들의 노골적인 해외파병 책동' 이라고 비난</p> <p>평방, '미제는 해방자의 탈을 쓴 침략자' 제하로 미국이 남북 분열의 장본인이라고 비난</p> <p>「범민련」 남·북·해외본부, 결성 11돌 즈음 공동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노골적인 외세 내정 간섭과 남한 수구보수세력의 준동으로 6.15공동선언 이행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으며, 8.15축전 참가 구속자를 석방하여야 함.</li> </ul>	<p>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 북한의 반테러 관련 국제 협약 참여 환영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안보통일포럼 초청 강연</li> <li>- 북한이 테러재정지원금지 국제협약과 인질반대 국제협약에 참여키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북한이 국제적 테러반대 연대에 동참해 많은 공헌을 하기를 기대함.</li> </ul> <p>유럽연합(EU), 북한의 수해복구에 20만유로(2억2천만원) 지원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인도조정국(OCHA) 인터넷 웹사이트</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1	<p>김대중 대통령,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WHO 사무총장 접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통령은 브룬트란트 사무총장 방북시 WHO의 주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논의한 것은 WHO의 대북 보건사업확대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WHO가 북한 주민의 보건상태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li> </ul> <p>통일부, (주)국양해운에 남북 경제 협력사업(자)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 인천-남포간 해상운송사업 및 남포항 하역시설 개선 사업</li> </ul> <p>한나라당, 북한에 생물무기 개발 중단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부대변인 성명</li> <li>- 북한이 엄청난 살상능력을 가진 생물무기를 개발 보유중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개발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함.</li> </ul>	<p>평방,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전횡을 끝내야 한다' 제하로 한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11.16, 워싱턴)을 통해 미국은 내년도 주한미군 유지비 증액 및 F-15전투기의 구매 등을 요구했음.</li> <li>-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의 호전 세력들이 미군의 남조선 강점 영구화와 남조선에 대한 무력증강 책동에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음.</li> <li>- 남조선 군사 당국자들은 민족을 등지고 외세와 공조하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민족반역자의 더러운 누명을 쓰고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임.</li> </ul>	<p>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WHO 사무총장, 대북 의료 지원 호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li> <li>- 북한의 긴급구호 대상자중 5%만이 보건·의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 의료 지원을 늘려야 함.</li> </ul>
11.22	<p>국방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실시 발표</p>	<p>중방,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책동' 제하로 대남 비난</p>	<p>중국 신화통신, 한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 긴급기사로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과학연구소는 11.22 사정거리 100km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음.</li> <li>- 금번 실시한 시험발사는 서해상에 위치한 00 시험장에서 변산반도 서쪽 50km 지점을 지향했으며, 수분 후 목표지점에 정확히 낙하되었음을 확인했음.</li> <li>- 이번 시험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거하여 미국정부에 기 통보되었으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규정 범위내에서 실시되었음.</li> </ul> <p>국방부, 국방백서 발간 주기 및 시기 조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발간해오던 국방백서를 금년부터 발간주기는 격년으로 하고, 발간시기는 10월에서 5월로 조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소식통을 인용, 남조선군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li> </ul> <p>평방, '청년학생들은 반미 투쟁의 선봉대가 되어야 한다' 제하로 남한 청년학생들의 반미투쟁 선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미 자주화 투쟁의 승리는 민족의 대단결에 있으며,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합하여 투쟁해야 의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으며 자주통일을 이룩할 수 있음.</li> </ul> <p>중방,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반통일 세력' 제하로 남한의 군부 호전세력 등이 미국과 야합하여 북한 압살야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p> <p>「총련」 조선신보사 김원택 사장 일행 평양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국방부가 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발표한 후 오후 7시9분 영문 긴급기사로 첫 소식을 전하면서 '한 정통한 한국 정부 소식통은 이 마사일이 동중국해상에 떨어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li> <li>- 그러나 오후8시 28분 영문 종합기사에서는 미사일이 서해상에서 시험 발사돼 변산반도 서쪽 50km에 위치한 서해상에 떨어졌다고 보도</li> </ul> <p>스티븐 외트위그 주한미군 대변인,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발사와 무관' 언급</p> <p>일본 교도통신, 한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청 관리의 말을 인용, 한국이 발사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물체가 동중국해에 떨어졌</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2			<p>으며, 이로 인해 아무런 위험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보도</p>
11.23	<p>이병웅 「한적」 총재 특별 보좌역, 이산가족 상봉 장애 법률 개정 필요성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적·대한국제법학회 공동주최 '제20회 국제 인도법 세미나'</li> <li>-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되는 관계법이 일부 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li> </ul> <p>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 학생 위한 한겨레 겨울학교 개설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한겨레 겨울학교'를 내년 1.3-23까지 서울 성수중학교에서 개설할 계획임.</li> <li>- 이번 겨울학교는 탈북 학생 25명과 현직교사, 자원 봉사자 등 40여명이 참가해 국어·영어·수학 등을 공부할 계획임.</li> </ul> <p>김대중 대통령, 70년대부터 햇볕정책 원리 주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시청 업무보고</li> </ul>	<p>중방, '지배주의 야망의 발로' 제하로 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새 행정부는 우리를 제1주적으로 보면서 그 무슨 미사일 문제니, 상용무력문제니 하는 따위의 당치 않는 구실을 내 대면서 우리 공화국을 일거에 압살하려고 기승을 부렸음.</li> <li>- 미국 행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좋게 발전하던 북남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어서 제동을 걸었음.</li> </ul> <p>라남탄광기계연합소, 김정일 현지도 관철 꺾기모임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석형(함북 당 책임 비서), 박수길(함북 인민위 위원장) 등 참석</li> </ul> <p>노동신문,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경비임부 관련 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주둔 미군이 자기들의 기지에 대한 경비임무를 일본에 떠맡긴 것은 전후 반세기에 넘는 오늘날까지도 전승국의 특권을 방패로 강점군</li> </ul>	<p>노다리 시모니야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소장, 한반도 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 효과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담대학 특별강연</li> <li>- TKR과 TSR이 연결되면 한·러간의 교역량이 96년의 38억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며, 북·러간의 교역량도 지난 80년대의 10억달러 수준으로 증가, 결국 한반도와 유럽의 교역량을 높일 것임.</li> <li>- 철도연결 사업은 남북 경험확대의 중요한 기초가 되며 간접무역형태에서 직접무역과 투자형태로 전환을 가속화, 한반도 경제구조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3	<p>- 남북문제는 오래 전 70년 대부터 햇볕정책의 원리 를 주장해 왔음. 1단계 남 북 평화공존, 2단계 남북 교류협력 등을 통해 동질 성을 회복하고 신뢰를 회 복해 10년, 20년 후에 통 일하자는 것임.</p>	<p>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 하여 주는 것임.</p>	
11.24		<p>중방, 국방부의 '주적' 규정 방침 관련 비난</p> <p>- 남조선 국방부가 내년에 발표 하게 될 이른바 국방백서란 데서 공화국 북반부를 여전히 주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 인 바, 이것은 남조선 군사 당국자들에게 통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오직 북남 사이 에 군사적인 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해서 북침을 단행할 야심 만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p> <p>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중국 외 교부 대표단과 「조-중 국경통과 지점 설정 및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조인</p>	<p>중국 외교부 대표단 및 라오스 민족정치 및 행 정과학원 대표단 등 북 한 방문</p>
11.25		<p>대흥단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 자들, 김정일의 제시과업 관철 필기모임 진행</p> <p>* 김정일 제시 과업 : '대흥단군 을 감자농사혁명의 본보기로 만들라'는 것</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5		<p>「조평통」 서기국, 통일부장관 비난 보도 제813호 발표</p> <p>- 제6차 북남상급회담이 결실없이 막을 내리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1년반동안 계속되어오던 당국 대화 자체가 중단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무성의와 특히는 북남상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의 분별없는 반복 대결자세에 있음.</p>	
11.26	<p>오경훈 한나라당 부대변인, 대북정책 관련 논평</p> <p>- 대북 포용정책이 남북관계의 기본이 돼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으나 일방적 베풀기, 선심성 퍼주기가 아닌 전략적 상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p>	<p>중방, '라남의 봉화는 21세기 강성부흥을 위한 총진격으로 부르는 혁신의 봉화' 제하로 탄광기계 노동계급의 애국적 헌신성과 혁명적 군인정신을 강조</p> <p>전국 공장·기업소 후방일꾼 회의 개최(중앙노동자회관)</p> <p>* 김중립, 조창덕, 김창식, 연순길(보고) 등 참석</p>	<p>부시 미 대통령, 북한에 대량파괴무기 확산 중단 촉구</p> <p>* 기자간담회(백악관)</p> <p>- 대량파괴무기를 생산, 테러리스트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경우, 대량파괴무기 개발국가도 테러리스트와 다를 바 없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를 원하며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7	<p>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92주년 학술세미나(11.27-12.4) 참석차 방북</p> <p>합참, DMZ내 우리측 초소에 대한 북측의 총격사실 발표</p> <p>- 11.27(화) 10:4분경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장파리 북방 7km 지점에 위치한 적 GP에서 아군GP로 2~3발의 사격을 실시하여 아군 GP에서는 경고방송과 함께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하였음.</p> <p>- 적 사격중 1발은 아군GP 병커 유리창을 파손하였고 나머지는 GP 철책에 맞았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음.</p>	<p>중방, '초래할 엄중한 후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제하로 우리측 군배치 관련 비난</p> <p>- 보도에 의하면 26일 14시 30분경 남조선 군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770호 근처에 2대의 전투장갑차를 들이밀면서 정세를 긴장시킨 바, 이것은 남조선 호전분자들이 북남 쌍방무력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계단식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p> <p>노동신문 '북침무력 개편을 위한 반환 놀음' 제하로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의 결과(연합토지관리계획 발표) 관련 대미 비난 논평</p> <p>함경북도, 도내 여러부문 사업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지도 '말씀' 관철 궤기 모임 진행(청진시)</p> <p>중방, '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는 사회주의 경제의 생명선' 제하의 노동신문 글 보도</p>	<p>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OOG) 회의 개최(샌프란시스코)</p> <p>* 임성준 외교통상부 차관보(한국),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미국), 다나카 히토시 외무성 아주국장(일본) 참석</p> <p>- 3개국은 회의종료 후 발표한 공동언론문에서 북한이 최근 2개의 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가입키로 한 것을 긍정 평가하고, 국제 반테러 노력에 대한 협력 및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p> <p>- 또한 남북대화의 진전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94년 제네바 북미 핵합의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한 지지와 함께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7			<p>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p> <p>모스크바시 정부대표단 평양 방문</p>
11.28	<p>김동신 국방부장관, 북한 생물무기 연간 1톤 생산능력 보유 추정 언급</p> <p>* 국회 예결위 답변</p> <p>- 북한은 생물무기를 연간 1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된 것은 아님.</p> <p>홍순영 통일부장관, 분야별 회담 추진 필요성 언급</p> <p>* 국회 평화통일포럼 제3차 정책포럼 기조연설</p> <p>-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회담을 적극 추진해 실천적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필요함.</p> <p>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중단 촉구</p> <p>* 시민단체 대표 기자회견</p> <p>-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남</p>	<p>평방, '용납할 수 없는 반통일 세력' 제하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 관련 대남 비난</p> <p>-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과 우익보수세력이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 암살할 야심을 드러내고 있음.</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주북 중국대사 王國章에게 훈장(공화국 친선훈장 제1급) 수여식 진행</p> <p>평방, '남조선을 전쟁 불장난터로 만든 미제' 제하로 남한내에서의 미군 군사훈련 비난</p> <p>- 남의 땅에 들어와 침략전쟁연습의 화약내를 계속 풍기며 생태환경을 무참히 파괴하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재난과 불행을 들씌우고 있는 미제 침략군의 죄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p> <p>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 비난 중앙통신 기자회견</p>	<p>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북한 對 이집트 미사일 판매 보도 부인</p> <p>* 중동통신 인터뷰</p> <p>- 북한이 이집트에 미사일을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는 순전히 거짓임.</p> <p>요한손 유럽축구연맹 회장, 2002월드컵 축구대회 남북한 분산 개최 불가능 언급</p> <p>* 2002년월드컵 조직위원회 회의(부산)</p> <p>- 남북한이 분산해서 월드컵을 개최한다는 것은 훌륭한 의견이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8	<p>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을 중단하고 이 법의 개정예 앞서 민간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p>	<p>- 우리에게 테러모자를 씌운 미국이 우리의 반테러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제반사실은 이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전망이 사실상 요원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부득불 대응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음.</p>	
11.29	<p>국방부 대변인, 북한군의 비무장 지대내 총격사건에 대한 대북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1.27 10:42분경 중서부 전선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북측 GP에서 우리측 GP를 향해 수발의 기관총 사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li> <li>- 이에 대해 유엔사는 같은 날 오후 군사정전위 특별조사단을 현장에 파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사건을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 사안으로 확인하고, 이 사건을 북측과 논의하기 위해 비서장급 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이를 거부한 후 현재까지 일체 응답을 하지 않고 있음.</li> <li>- 북한군은 이번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사측의</li> </ul>	<p>중방, '날로 강화되는 군사적 위협' 제하로 주한 미군 전력 배치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제가 남조선에 현대적인 작전장비들과 최신식 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남조선 호전분자들이 무력 현대화를 다그치도록 부추기고 있음.</li> </ul> <p>중방, '과거청산은 일본자신을 위한 길' 제하로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과서 왜곡사실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조선인민과 세계 인민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역사 왜곡 놀음을 그만두고 과거 죄악에 대하여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함. 이것은 바로 일본 자신을 위한 일임.</li> </ul> <p>조선민주법률가협회, 일본인 납치 의혹문제 관련 규탄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납치 의혹 소동은 우리에게 테러국</li> </ul>	<p>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개최(11.29-30 비엔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일 등 35개 이사국 참가, 핵안전조치 강화방안 강구</li> </ul> <p>토마스 허바드 주한미국대사, 미북 대화 관련 미국 입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협회 주최 조찬 강연회</li> <li>- 미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고 준비도 되어 있으며,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지 조건없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전달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음.</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9	<p>접촉제외에 즉각 응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임.</p> <p>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방북</p> <p>-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와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차 방북</p>	<p>가, 테러지원국가, 인권이 유린된 나라라는 감투를 씌워 존엄 높은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자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하여 더욱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음.</p>	<p>세계식량계획(WFP), 내년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호소</p> <p>* 존 파월 WFP 아시아 담당국장 기자회견(대한상공회의소)</p> <p>- WFP는 내년 북한에 61만톤의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2억1천500만달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국제사회에서 지원해줄 것을 호소</p>
11.30	<p>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북한 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 촉구 결의안」 채택</p> <p>사단법인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감귤 및 당근 대북 지원 계획 발표</p> <p>- 오는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말까지 5차례에 걸쳐 제주-남포간 해상으로 제주산 감귤 1만톤과 당근 4천톤을 지원하기로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와 합의하였음.</p>	<p>노동신문 2만호 발행 기념 중앙보고회 진행(인민문화궁전)</p> <p>* 최태복, 정하철, 김기남, 최칠남 등 참가</p> <p>중방, '온사회에 차넘치는 송고한 도덕기풍' 제하로 공산주의 도덕에서 기본핵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있다고 주장</p> <p>외무성 대변인, 일본당국의 조총련 중앙본부 및 지방본부들에 대한 강제수색 관련 규탄성명 발표</p>	<p>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대북 경수로 건설 지연 가능성 언급</p> <p>- 원자로건설이 특정 단계로 진척되기 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진전시킬 수 없음.</p> <p>- 사찰관의 작업을 제때에 하려면 일정상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상황임.</p>

■ 11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30	<p>종단 대표들, 남북관계 개선 및 민족화해 등 촉구 기자회견(프레스센터)</p> <p>- 불교 조계종, 천주교중앙협의회, 기독교교회협의회 등 7대종단 8개단체는 △ 남북문제에 관한 정치권의 정쟁 중단 △북한의 남북대화·교류 재개 △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의 적극 지원 △ 미국과 북한간의 성의 있는 대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	<p>권철현 한나라당 대변인, 북한군의 휴전선 총격사건 관련 논평</p> <p>- 이번 총격사태만큼은 결코 국방부 성명 한장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분명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함.</p> <p>장성민 민주당 의원, 김정일 위원장 월드컵 개막식 초청 제안</p> <p>* 보도자료</p> <p>- 월드컵 축구대회시 미·일·중·러 등 4강 정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막식 초청 및 남북한과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테러 및 교통관계 장관회의 개최를 제안</p>	<p>노동신문, 미국의 남한내 미사일 요격레이더 배치 계획 비난</p> <p>- 미국이 남조선에 미사일 요격레이더를 배치하려 하고 있는 것은 임의의 시각에 우리에게 미사일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임.</p> <p>일본당국의 총련 중앙본부 강제수색 규탄 군중집회 개최(인민문화궁전)</p> <p>러시아 모스크바시 대표단 및 유고대사 밀로라드 꼬소바츠 일행 등 평양 출발</p>	<p>찰스 카트먼 KEDO 사무총장 북한 방문</p> <p>- 북측과 대북 경수로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등 협의차 방북</p> <p>스웨덴 특별사절단 평양 방문</p> <p>* 단장 : 외무성 정치국 부총국장 보리에 옹그린</p>
12. 2	<p>김대중 대통령 유럽 순방차 출국</p> <p>- 순방기간(12.2~12)중 영국, 노르웨이, 헝가리 및 유럽의회 방문</p>	<p>「청년동맹」중앙위, 일본당국의 총련 중앙본부 강제수색 규탄 성명 발표</p> <p>- 일본이 이번에 총련에 대한 전면적인 검거·수색 높음을 벌인 것은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고 우리를 고립 압살해 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이 계획적임을 보여주는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3	<p>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문제 관련 공청회 개최</p>	<p>노동신문, '의도적이고 모략적인 정치탄압 책동' 제하로 일본 수사 당국의 총련본부 수색 관련 비난 및 시죄와 구속자 석방 촉구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당국은 총련에 대한 정치적 탄압 행위를 당장 견어치우고 그에 대해 사죄해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한 사람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해야 함.</li> <li>- 만일 일본 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에 대하여 매어달린다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임.</li> </ul> <p>관광총국 대표단, 세계관광 본부 방문차 평양 출발</p> <p>* 단장 : 여승철 총국장</p> <p>중방, 복합미생물비료 및 고려약비료 생산과 이용에 관한 과학기술 성과 전시 및 경험 발표회 (11.28~12.1) 진행 보도</p>	<p>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북한, 「품질보장 및 보증 의정서」 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을 방문한 찰스 카트만 KEDO 사무총장과 김희문 북한측 경수로대상 사업국장간에 서명</li> <li>- 「품질보장 및 보증 의정서」 내용중 품질보장 부분은 KEDO가 수행하는 품질보장활동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품질보장활동과정에서 KEDO와 북한측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 KEDO와 계약자들에 대한 면책, 품질보장관련 문서와 기록의 제공범위 및 시기에 관한 내용</li> <li>- 보증부분은 KEDO가 제공하는 경수로 2기의 전기출력, 주요부품, 초기장전핵원료 및 건설물에 대한 보증과 관련한 세부기술사항 및 보증 조건에 대한 내용</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3			<p>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서울 사무소 개소                      * 소장 : 제임스 코바르</p>
12. 4	<p>한영 정상회담(김대중 대통령-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 영국 총리공관</p> <p>- 김대통령은 영국이 북한의 개방을 위해 계속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블레어 총리는 김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확인하였음.</p> <p>김대중 대통령, 북미대화 가능성 언급                      *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와 회견</p> <p>- 미국과 북한은 감정적으로는 별로 좋은 편이 아니지만 양쪽 모두 대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북한 자신의 필요성, 국제적인 권고, 미국의 대화의지 표현 등으로 볼 때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p>	<p>무역대표단 태국 향발                      * 단장 : 이광근 무역상</p> <p>외무성 대표단, 영국·스페인 등 방문차 평양 출발                      * 단장 : 최수현 외무성 부상</p> <p>스페인 특별사절단 방북일정 종료 후 귀국</p> <p>평방, '반통일 악법 철폐는 시대적 요구' 제하로 보안법 철폐 주장</p> <p>- 보안법이 철폐되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룩되게 될 것임.</p> <p>중방, '세계여론에 대한 악랄한 도전' 제하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한 일본 국회의 최종 승인을 비난</p>	<p>랄프 A, 코사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태평양 포럼 총재, 북한의 태도 변화 촉구                      * 한반도 문제 전망 보고서</p> <p>- 햇볕정책은 한반도 평화 및 안정,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용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이므로 북한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5	<p>홍순영 통일부 장관, 찰스 카트만 KEDO 사무총장 면담</p>	<p>김정일 위원장, 주북 러시아 신임 대사 안드레이 카를로프 접견 * 김영춘, 강석주, 박재경 등 배석</p> <p>노동신문, '우리는 그 어떤 정세 속에서도 끄떡없다' 제하로 선군정치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시기 선군정치로 자기의 사상, 자기의 제도, 자기의 위업을 고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선군정치로 그 모든 것을 고수할 것임.</li> <li>-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총대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만일 우리가 틀어진 총대가 든든하지 못하였더라면 자기의 사상, 자기의 제도, 자기의 위업을 고수하지 못했을 것임.</li> </ul> <p>중방, '비핵원칙은 말뿐이다' 제하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말까지 무려 37톤의 방대한 플루토늄을 축적한 것은 일본이 결코 비핵 국가가 아니며 그들의 핵무장화가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li> </ul>	<p>「총련」, 일본 검·경찰의 총련에 대한 압수수색 항의 집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일 총련은 125 저녁 도쿄의 조선중고급학교 내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소속 회원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지난주 일본 검찰과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총련 중앙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6	<p>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 성공 확산 언급</p> <p>* 노벨평화상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12.6) 주제발표문</p> <p>- 지금 남북관계는 다시 정체상태에 있으나 저와 우리 국민은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 반드시 성공의 길은 다시 열리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왜야하면 햇볕정책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임.</p> <p>외교통상부 대변인, 아프가니스탄 과도정부 구성 합의에 대한 성명 발표</p> <p>- 대한민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제 정파들이 UN 주재하에 11.27부터 독일 본에서 금후 아프가니스탄 신 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를 갖고, 12.5 임시 과도정부 구성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함.</p>	<p>김일성종합대학, 백두산 3대장군의 현지도 사적비 제막시 진행</p> <p>중방, 미국의 미사일 요격시험(12.3) 비난 보도</p> <p>- 12.3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위계획에 따른 미사일 요격시험을 감행하므로써 미국은 국가미사일방위계획 실현을 위한 미사일 요격시험을 5차례 감행했음.</p> <p>- 범죄적인 국가미사일 방위체계 전개에 더욱 무분별하게 달라붙고 있는 미국의 이 같은 책동은 세계적인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p>	<p>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개최(12.6~7, 서울)</p> <p>* 장선섭 경수로 기획단장, 잭 프리처드 미국 대사, 다카노 고지로 일본 대사, 장피에르 랭 EU 대사, 찰스 카트먼 KEDO사무총장 등 참석</p> <p>리빈(李濱) 주한 중국 대사, 남북화해 지지 언급</p> <p>* 한중포럼 창립총회 특강</p> <p>-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근본적 이해에 부합되므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남북 화해에 확고부동한 지지를 보내고 한반도가 최종적으로 자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게 계속 건설적인 작용을 발휘하고자 함.</p>
12. 7	<p>김대중 대통령, 남북대화 재개 전망</p> <p>* 노르웨이 NRK TV 회견</p>	<p>중방, 청류관 창립 20돌 기념보고회(12.6) 진행 보도</p> <p>- 청류관은 지난 20년동안 당과</p>	<p>리빈(李濱) 주한 중국 대사, 탈북자 난민 인정 곤란 언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7	<p>- 북한도 기본적으로 대화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 한반도 주변 4대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남북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봄.</p>	<p>수령의 영도 밑에 수도의 민음직한 급양 봉사기지로 강화·발전되어 해마다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므로써 국가의 이익을 주었으며 인민생활을 높인데 이바지하였음.</p> <p>중방, '비열한 행위'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미국 당국자들은 최근에 그 무슨 대량살육무기 개발 여부에 대하여 트집을 잡다 못해서 이제는 생화학무기 위협이요 뭐요하면서 그 검증의 필요요성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음.</p> <p>-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육무기를 생산한다는 그런 모자를 씌워가지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정치적인 모략책동임.</p>	<p>*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강연</p> <p>- 탈북자 난민 판정 여부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독립주권국이며, 또 내부 정치 상황이 안정된 한국의 국민을 난민으로 판정할 어떤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p> <p>일본 참의원, PKO 협력법 개정안 가결</p> <p>- 이 법안에는 정전 감시 및 지뢰제거 작업 등 유엔평화유지군 주요업무에 자위대의 참가를 허용하고, 무기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p>
12. 8		<p>수산성 대표단, 북·러 어업공동위 제15차 회의 참가차 평양 출발</p> <p>* 단장 : 김규락 부상</p> <p>노동신문, '패망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하로 일본의 자위대 해외파견 움직임 비난</p>	<p>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 북·일 관계 정체 유감 표명</p> <p>* 도쿄신문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반동들은 과거의 침략과 전쟁행위를 정의로 묘사하면서 군국주의 정신과 침략사상을 고취하며 해외팽창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책동을 맹렬히 벌이고 있음.</li> </ul>	
12.10	<p>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 25명,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법」 개정안 국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에는 탈북자의 법률용어를 '북한 이탈자'에서 '북한 이주민'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li> </ul> <p>현대아산, 북한측과의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협의 연기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12.10 북한측 관계자와 만나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연기요청으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회담일정도 잡히지 않았음.</li> </ul>	<p>「직총」대변인,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관련 규탄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일본 반동들이 앞뒤가 맞지 않은 납치사건을 또다시 꼬집어 내어 소동을 피우고 있는 데는 미제와 야합하여 자주적인 우리 공화국을 테러국가, 테러지원국가, 인권 유린국으로 몰아부쳐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날을 따라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시키고 우리를 고립 압살하자는데 그 불순한 목적이 있음.</li> </ul> <p>평방, '조국의 운명이자 민족의 운명' 제하로 6.15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 강조</p> <p>평방,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및 연구사들의 최신 과학기술 연구성과 보도</p>	<p>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KEDO간 협력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간에 체결된 협력방안은 EU의 KEDO 가입기간을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 연장 조건을 달고 있으며, 연장조건으로 △EU가 KEDO에 매년 2천유로 지원 △EU의 KEDO 이사직 유지 △KEDO 사무국내 EU 대표 증원 △EU의 KEDO 사업수주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음.</li> </ul> <p>북·러, 제15차 어업협상 개시(모스크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간 어업분야 협력문제 등 논의</li> </ul>
12.11	<p>김대중 대통령 유럽의회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간 철도연결 사업의</li> </ul>	<p>평방, '화해와 단합에 찬물을 끼얹는 범죄행위' 제하로 대남 비난</p>	<p>李濱 주한 중국대사, 한반도문제 평화적 해결 필요성 언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1	<p>중요성 강조</p> <p>서영훈 「한적」 총재,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연내 실시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개최 제의 대북 전통문 발송</p> <p>-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연내에 실시할 것을 제의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12.14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p> <p>조규철 한국외국어대학 총장 및 엄홍철 한밭대학총장 북한 방문</p> <p>- 재미동포 김진경씨와 함께 북경을 거쳐 평양을 방문, 4박5일간 남북한 대학간 교류문제 및 평양과학기술대학 설계문제 등에 대해 논의차 방북</p>	<p>- 남조선당국이 비상경계조치, 각종 군사연습 실시 등 북남 대결과 반민족 반통일책동을 벌임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치닫게 하고 있음.</p> <p>중방, '숨길 수 없는 침략자의 정체' 제하로 제주도 인민봉기('48.4.3) 진압의 주범이 미군이라고 비난</p> <p>자강도 소재 고품1호·고품2호 발전소 조업식 진행</p> <p>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 일본당국의 총련에 대한 정치탄압 규탄 집회 진행(인민문화궁전)</p>	<p>*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초청 간담회</p> <p>- 리빈 대사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 갈등설에 대해 중국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며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데는 반대한다면서, 군사충돌이 일어날 경우 최대 피해자는 한반도 국민이며, 긴장완화로 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언급</p>
12.12	<p>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2001년 상반기 무역총액 집계 발표</p> <p>- 금년 상반기 북한의 무역총액은 전년도 대비 78.6% 증가한 15억1,093만달러인</p>	<p>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노동자들, 총련 탄압 규탄 집회</p> <p>노동신문 사설, '리남의 봉화를 높이들고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제하로 생산독려</p>	<p>난민협약 50주년 기념 각료회의(12.12-13, 제네바)</p> <p>중국 신화통신, 북·중국경에 대형 무역시장 탄생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2	<p>것으로 잠정 집계. 이 중 수출은 2억4,43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7.5% 감소하였으나, 수입에서 12억 6,663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보다 117.7%나 증가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같은 수입급증은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이 국제시세보다 비싼 일본쌀(5억3,485만달러)로 조달되면서 대일 수입액이 급격히 증가(전년동기 대비 476%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li> <li>- 일본의 쌀 지원금액을 전체 교역액에서 제외한다면, 수입은 7억3,178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6.2%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역액은 9억7,608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6% 증가하였음.</li> </ul> <p>연합뉴스, 2001년 북한 10대 뉴스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뉴스는 △신북방 3각 관계 정립 △새경제 캠페인 '라남의 봉화' 발기 △컴퓨터 열기와 신사고 △천년만의 왕가품 및 물난리 △반테러 협약 가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남의 봉화 따라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여야 다음해에 강성부흥에로의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li> <li>-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의 마지막 전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 돌격전을 벌여야 함.</li> </ul> <p>중방, '날로 악랄해지는 해외 팽창 책동' 제하로 대일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기본업무에 참가하며 저들의 관리하에 있는 사람들을 이른바 보호한다는 간판 밑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유엔 헌장이나 일본의 헌법헌법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위반 행위임.</li> </ul> <p>「청년동맹」 대변인, 일본인 납치의혹문제 관련 규탄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및 한국과의 국경무역을 목표로 하는 초대형 국경무역도매시장이 압록강 입구에 위치한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연해 국경도시 동강(東港)시에 개설되었음.</li> </ul> <p>왕 광야 중국 외교부 부부장, 난민지위 심사절차 강화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난민협약 50주년 기념 각료회의 기조연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협약의 망명절차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법 이민의 묵인과 범죄자의 도피 등 국제적인 난민보호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관련국가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해를 미치게 될 것임.</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2	<p>△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6년만에 찾아온 식량증산 △파문 빛은 8.15 민족통일대축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 △악화된 대미관계, 개선된 대 서방외교 등을 올해 북한 10대 뉴스로 선정</p>		
12.13	<p>청주시, 대북 의류 전달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시는 시청 광장에서 북한동포돕기 의류 선적 출발식(12.14)을 가질 예정이다.</li> <li>- 이번에 북한에 보낼 의류는 청주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 자원봉사센터, 해원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알뜰 시장을 열어 6개월여만에 마련한 것으로, 겉옷과 내복류, 이불 등 총 1만7천여벌로 시가로는 2억3천3백여만원 상당에 이릅니다.</li> </ul> <p>기독교탈북자회 등 탈북자 관련 5개단체, 탈북자 호칭 변경 청원 국회 제출 * 탈북자연합회 창립 기자회견</p>	<p>노동신문, '매우 위험한 움직임' 제하로 대일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일본 국회의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개정안 채택은 정치대국 야망의 군사적인 법적토대 마련과 자위대의 해외침략 합법화를 위한 조치임.</li> </ul> <p>중방,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끝내야 한다' 제하로 주한 미군 철수 주장</p> <p>홍성남, 양형섭, 최영림, 내각위원회, 성·중앙기관, 연합기업소 일꾼들,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참관</p> <p>평방, '유엔사무총장,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 움직임에 반대 표명'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에 의하면 최근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려하고 있다</li> </ul>	<p>유엔난민협약 50주년 기념 각료회의 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보호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사안의 복잡성에 주목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li> </ul> <p>부시 미 대통령,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탈퇴 발표</p> <p>부시 미 대통령,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에 ABM 탈퇴 통보</p> <p>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의 ABM협정 탈퇴 관련 성명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3	<p>- 탈북자 및 일반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적절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을 「자유이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청원서를 제출함.</p> <p>금강산 사랑연대 준비위원회 발족</p> <p>-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금강산 관광에 대한 각종 법적, 제도적 규제 해제 요구 등 여야 정당 및 관계기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범국민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p>	<p>는 여론이 나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반테러 등을 확대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p> <p>철도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 진행</p>	<p>- 미국은 그 동안 여러 차례 ABM 탈퇴 방침을 밝혀 왔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전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미국의 이번 결정이 실수라고 생각함.</p> <p>- 러·미 양국은 다른 핵무기 보유국들과 달리 미사일 방어 체제를 뚫을 효과적인 무기체계를 갖고 있음. 따라서 미국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함.</p>
12.14	<p>통일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의 농산물 대북지원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결정 발표</p> <p>- 정부는 12.13 제87차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의 농산물 대북 지원에 따른 수송비·조작비 중 15.8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p>	<p>중방, '대량 살육무기를 확산시키는 장본인은 미국이다' 제하로 미국의 미사일 요격시험 비난</p> <p>- 미제가 추진시키고 있는 미사일 요격시험은 본질에 있어서 미사일 문제에서 대국들을 누르고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음.</p> <p>- 미제는 이런 목적으로부터 세계</p>	<p>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 미국의 ABM 협정 탈퇴 선언 이해 입장 피력</p> <p>* 기자회견</p> <p>- 후쿠다 장관은 미국의 ABM 협정 탈퇴선언과 관련, 냉전후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전략</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4	<p>* 동 운동본부는 2001년산 감귤 10,000톤, 당근 4,000톤 등 농산물 14,000톤의 대북지원과 관련, 수송비 등 24억원에 대해 기금 지원을 신청(11.5)</p> <p>통일부, 2001년도 북한의 물가동향 조사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시장의 물가가 다소간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안정화되고 있으며 지역간 가격차이도 점차 완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li> <li>- 북한에서의 상거래 행위가 점차 조직화·대규모화되고 있는 등 자본축적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음.</li> </ul>	<p>인민들의 것처럼 강한 반대와 항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요격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임계전 핵 시험을 계속하고 있음.</p> <p>중앙 TV, 각국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미국이 2단계 테러응징 대상으로 북한을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미 비난</p> <p>「명월구 회의」 70돌 즈음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개최</p> <p>* 명월구 회의 : 1931.12.16 김일성이 연길 명월구에서 반일 투쟁을 위해 소집한 당 및 공청 간부회의</p> <p>단군민족통일협의회 대변인, 남한에서의 단군상 파손 관련 규탄 성명 발표</p> <p>전자자동화설계사업소 창립 30돌 기념보고회 진행(천리마 문화회관)</p>	<p>페리다임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자세를 이해한다고 언급</p> <p>신화통신,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ABM 협정 존속 필요성 강조 발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이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현 상황에서 ABM 협정을 존속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li> </ul>
12.15		<p>당중앙위 국제부 대표단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p> <p>* 단장 : 지재룡 부부장</p>	
12.16	<p>북한의 경수로사업 관계자 20명, 원자력발전소 시찰차 남한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DO·북한간에 체결한</li> </ul>	<p>노동신문, '함부로 도발을 걸지 말라' 제하로 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에게 대해 미사일 확산문제를 걸고드는 미국의 태도는</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6	<p>훈련의정서에 따라 참조 발전소인 울진 원자력발전소의 훈련시설 시찰 등을 위해 북한의 경수로 사업 관계자 20명이 남한 방문</p>	<p>반공화국 압력공간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 조미 관계를 극단한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며 군사적 도발을 걸기 위한 명분과 조건을 마련해 보려는 위험한 기도임.</p> <p>중방, 외무성 및 주북 영국대사관이 평양과 런던에서 양국의 외교관계 설정 1돌 즈음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고 보도</p>	
12.17	<p>2001년도 제4차 통일고문회의 개최</p> <p>- 조영식 의장을 비롯한 통일고문 26명이 참석, 2002년도 통일고문회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토의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간담회를 가짐.</p>	<p>평방, 미국의 탄도탄 요격미사일제한조약 탈퇴 보도</p> <p>「북적」, 일본의 납치의혹 관련 보도 발표</p> <p>- 일본측이 모략적인 납치소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고 우리 인민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여 행불자 소식 조사사업에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어 우리는 소식 조사사업을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게 되었음.</p> <p>-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측이 요청한 행불자 소식 조사사업을 전면 중지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임.</p> <p>「조평통」 대변인, 남측의 비상경계조치 지속 관련 담화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은 북남관계는 안중에도 없이 벌써 몇 달째 대화 일방을 심히 자극하는 비상경계조치를 지속시키고 있음.</li> <li>- 우리는 남측이 시간을 아끼고 용단을 내려 더 늦기 전에 온 거래가 납득할 수 있는 전환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하루빨리 북남관계가 정상궤도에 들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함.</li> <li>-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그것을 확고히 지켜나가며 북남사이의 합의된 모든 일정들을 이행해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li> </ul>	
12.18	<p>정부, 2002년도 국정지표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12.18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2002년도 국정지표를 △일류 경제경쟁력 실현 △중산층과 서민생활향상 △남북화해와 협력 증진 △완벽한 공명선거 실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 등 5개로 확정</li> </ul> <p>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발간</p>	<p>중방, 평북 창성·피현군 등에서 10여개의 중소형 발전소 완공 임박 보도</p> <p>인민무력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0돌 관련 '위대성에 대한 발표회'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록, 김영춘 참가</li> </ul> <p>김일성의 평남 숙천군 현지지도 40돌 관련 중앙보고회 개최</p> <p>노동신문, '일본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제하로 주미 일본대사의 대량파괴무기 관련 대북사찰 발언 비난 논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생방전하에서의 개인·집단 보호요령 및 생화학 테러 관련사항,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문제, 경수로사업 현황, 미사일 수출 통제 시스템 및 미국의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추진사항,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제적 통제체제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배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얼마전 미국주재 일본대사관은 자는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 그 무슨 압력을 가하여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관련한 유엔 사찰을 수락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악의에 차서 떠들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였음.</li> <li>- 일본은 한사코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매어 달리며 우리와 대결의 길로 나갈수록 우리군대와 인민의 대일 적개심은 더욱 세차게 불타오를 것임.</li> </ul>	
12.19	<p>통일부, 2001년 1-11월중 남북교역 동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 1-11월중 남북교역액은 362,682천달러로 전년동기 399,765천달러 대비 9.3% 감소하였음.</li> <li>- 반입액은 155,989천달러로 전년동기 140,558천달러 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반출액은 206,693천달러로 전년동기 259,207천달러 대비 20.3% 감소하였음.</li> </ul> <p>「한적」, 제19차 대북구호물자 지원계획 대북 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li> </ul>	<p>중방, '노골적인 해외 침략준비책동' 제하로 일본당국의 공중급유기 구입 예산배정 결정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얼마전 일본당국이 2001년부터 2005년도 사이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르는 공중급유기 구입에 우선 약 1천만엔의 자금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할당할 데 대한 결정을 내렸음.</li> <li>- 이는 공중급유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전쟁장비들을 더 많이 끌어들여서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만들며 나아가서는 해외 침략을 기어코 단행해 보자는 것이 바로 일본 당국자들의 진짜 속셈임.</li> </ul>	<p>리처드 바우처 미국무부 대변인, 테러전 보고서 유엔 제출 사실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373호가 규정한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음.</li> <li>- 이는 국제연대차원의 국제테러전 일환으로 취한 미국의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임.</li> </ul> <p>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하노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9	<p>내의와 약품 등 3억1천여 만원 상당의 대북구호물자 지원계획 통지문건을 북측에 전달</p>	<p>평방, '살인마들에게 천백배 복수를' 제하로 주한미군의 과거 만행 비난 및 철수 요구</p>	<p>- 양국간 군사교류·협력 확대방안 논의</p>
12.20	<p>통일부 대변인, 「조평통」 담화(12.17) 관련 논평 발표</p> <p>* 12.17 북한은 「조평통」 담화를 통해 우리측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환적 조치 등을 요구</p> <p>-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간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없이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야 함.</p> <p>- 북측이 금번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평가하며, 조속히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함.</p> <p>- 금번 북측이 제기한 문제들도 상호 인정과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대화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오해가 해소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임.</p> <p>- 우리측은 남북관계 발전을</p>	<p>「김정일의 선군혁명 영도업적의 위대성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 진행(인민문화궁전)</p> <p>* 최태복, 양형섭 등 참석</p> <p>중방, '인종주의 왕초' 제하로 대미 비난</p> <p>- 최근 미국은 어느 한 유엔회의에서 우리 나라에 그 무슨 인권문제가 있는 듯이 걸고들고 있으나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음.</p> <p>- 지금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 있음.</p> <p>-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서의 인권문제를 논하기 전에 인권의 난무장인 자기 나라의 실태부터 조사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임.</p> <p>노동신문, '계획적인 파쇼적 탄압공세' 제하로 대남 비난 논평</p> <p>- 최근 대구 고등법원은 각종</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0	<p>위해 대화로 현안문제를 풀어 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음.</p> <p>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발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농수산업, 광공업, 경제총량, 남북한 교류 등 남북한의 주요 통계 자료 발췌 수록</li> </ul> <p>제8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회의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및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과 「남북한간선박운항 승인에 관한 고시」를 제정</li> </ul>	<p>집회와 시위를 주도했다느니 이적표현물을 제작했다느니 하는 터무니 없는 죄명으로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 학생에게 중형을 들뜨우는 악독한 만행을 저질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남조선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한총련과 의로운 청년학생들에게 억지로 죄를 만들어 씌워 탄압하는 남조선당국을 민족의 울분을 담아 준열히 규탄함.</li> </ul> <p>평양시 청년학생들, 김정일 최고 사령관 추대 10돌 경축집회 개최(청년중앙회관)</p>	
12.21	<p>통일부, 「금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와 전망」 자료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도 북한경제는 전부문이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낮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됨.</li> </ul>	<p>중방, '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하로 대일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얼마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진행된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종군위안부 제도를 운영한 일본 정부에 유죄를 선고했다고 함.</li> </ul>	<p>푸틴 러시아 대통령 영국 방문(12.21-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테러 공조 및 러시아의 WTO 가입 문제 등 논의</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1	<p>- 내년도 북한 경제시책은 대내적으로는 내년 생일 행사의 대대적 개최를 전후하여 일정기간 동안 '라남의 봉화' 기치 아래 집단적 생산문화, 자본주의 비판 등에 주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서방의 선진과학기술 도입과 외자유치를 위해 상황에 따라 적응해 나가는 이원적 경제시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p> <p>- 내년도 북한의 경제성장은 남북관계 호전, 대미·일 관계개선 등으로 남한 및 국제사회로부터 외부수혈이 확대되지 않은 한, 금년도와 같은 제로성장 내지 저성장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p> <p>홍순영 통일부장관, 대북 식량지원 방침 발표 * 기자 간담회</p> <p>-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써 대북 화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시에 국제기구의 식량지원 요청에 동참함으로써 국제</p>	<p>- 이로써 일본은 어떻게 하나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은폐하려던 책동이 더는 가리워질 수 없게 되었고 국제적인 배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p> <p>- 그러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시 종군위안부 제도를 운영한데 대해 유죄를 선고한 여성국제전범법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범죄 인정과 사죄도 하지 않고 있음.</p> <p>중방, 미국의 확산 움직임 관련 대미 비난</p> <p>- 보도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의 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비밀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p> <p>-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다른나라들을 반대하는 파괴 모략 압해 책동에 얼마나 매달리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음.</p> <p>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0돌 즈음 중앙사진전람회 개최</p>	<p>강신권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세계협의회 집행위원장, 미주지역 이산가족 상봉 관련 대북 협의 내용 언급 * 연합뉴스 전화통화</p> <p>- 12.20 미국을 방문한 북한측 대표와 미주 한인들의 재북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마치고 협약만 남은 상태임. 연내에 협약을 체결하면 내년초부터 상봉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1	<p>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북한에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 톤을 지원키로 하였음.</p>		
12.22		<p>김정일 위원장, 인민군 제2833군부대 시찰 및 제529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관람</p> <p>* 김영춘, 김일철, 연형묵 등 동행</p> <p>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김정일의 현지지도 사적비 건립</p> <p>인민무력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0돌 즈음 주북 무관단 초청 연회 개최</p> <p>증방, 김정일 총비서 금년 130여개 부대 시찰 보도</p> <p>평양, 미국이 소형 핵무기 사용을 획책하고 있다고 보도</p> <p>- 워싱턴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 간섭과 침략에 소형 핵무기들을 대대적으로 사용할 것을 획책하고 있음.</p> <p>- 19일에 공개된 미 국방성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미국 국방성 관리들과 핵관련 부문 과학자들은 지하 대상물들을</p>	<p>아프카니스탄 과도정부 출범</p> <p>- 향후 6개월간 국토·경제 재건작업 수행</p> <p>일본 해상보안청,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출현 '괴선박' 추격 격침</p> <p>- 일본 해상보안청은 12.22 새벽 일본 자위대로부터 가고시마현 아마미 오시마 서북 약 240km 해상에서 괴선박이 출현했다는 통보를 받고 항공기와 순시선을 파견,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하고 도주하자 기관포 공격을 가하여 '괴선박'을 격침시킴.</p> <p>- 일본 해상보안청은 '괴선박' 침몰 이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2		<p>타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함.</p> <p>- 이것은 핵 광신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음.</p>	<p>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든 괴선박 승무원 15명 중 3구의 시체를 발견 인양</p> <p>- 해상보안청은 시신이 착용하고 있는 구명조끼에는 한글 문자 표시가 있었고, 한글이 표기된 과자가 발견되었다고 발표</p>
12.24	<p>현대아산, 금년도 금강산 관광객 5만8천700명으로 잠정 집계</p> <p>- 연말 방문예정인 관광객을 포함해 올해 금강산 관광객은 총 5만8천700명으로 집계되었음.(지난해 관광객의 27.7% 수준)</p>	<p>평양시 청년학생들, 김정일의 최고 사령관 추대 10돌 경축 무도회 진행(김일성 광장)</p> <p>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 1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4.25문화회관)</p>	
12.25		<p>외무성 대표단, 에스파니아·영국·이탈리아·스위스 방문후 평양 귀환</p> <p>평양 봉수교회, 성탄절 기념예배 진행</p>	
12.26	<p>김대중 대통령, 남북관계 안정적 발전의 중요성 강조 * 군 주요지휘관 오찬</p>	<p>평방, 일본의 '괴선박'에 대한 사격(12.22)비난</p> <p>- 지난 22일 동중국 해역에 정</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가 일방적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 사실도 그렇지 않지만 남북 긴장 고조 때 부담해야 할 그런 부담은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외국 투자가가 몰려오는 것도 한국이 안전하기 때문임.</li> <li>- 과거 62년부터 97년까지 외국투자가 246억불, 지난 4년간 외국투자가 501억 불임.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임. 이런 의미에서도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해 있던 국적 불명의 선박이 일본 순시선들의 무차별적인 기관포 사격으로 침몰되는 사상 유래없는 사건이 발생했음.</li> <li>- 자기 나라 수역도 아닌 남의 나라 수역에까지 침범하여 감행한 일본의 범죄 행위는 국제법도 모르는 불법무도한 해적행위이고 용납 못할 현대판 테러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음.</li> <li>-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동들은 저들의 해적행위를 정당방위로 묘사하면서 침몰된 국적 불명의 선박이 북의 간첩선일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여론까지 퍼뜨리고 있음.</li> </ul>	
12.27	<p>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도 대북정책방향 등 논의</li> </ul>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김일성 생일 90돌 즈음 대사(면)를 실시함에 대한 정령(12.13)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 동지의 탄생 90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노동교화형을 받은자들에게 주체91(2002)년 1월부터 대사를 실시함.</li> <li>-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되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임.</li> </ul>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7		<p>외무성 대변인, 동중국해상 '괴선박' 출현 사건 관련 대일 비난</p> <p>- 며칠전 일본당국은 '정체불명의 배'를 추적한다는 구실밑에 술한 함선과 비행기를 동원하여 남의 나라 수역까지 쳐 들어가 배를 침몰시키는 무력행사를 감행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번 사건을 우리와 결부시키는 여론을 제멋대로 내돌리고 있음.</p> <p>외무성 대변인 아프칸 임시 정부수립(12.22) 관련 기자회견</p> <p>- 우리는 아프카니스탄에서 광범한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임시정부가 구성된 데 대하여 환영하며, 이번 임시정부 수립이 아프카니스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첫 걸음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임시정부가 민족의 화목을 도모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며 지역의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람.</p>	
12.28	<p>통일부, 「2001년 북한정세 평가 및 2002년 전망」 보고서 공개</p> <p>이종석 세종연구소 실장, 금강산 관광사업 국민기업화 필요성 주장</p>	<p>평방, 북문제연구소 연구원 장현진의 글 「2001년 평양 10대 열풍」 (북한판 올해 10대 뉴스) 소개</p>	<p>아프간 평화유지군 본진 현지 배치</p> <p>박의춘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 북·러 관계 발전 전망 언급</p> <p>* 러시아의 소리방송 인터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8	<p>*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준비위원회」 주최 토론회</p> <p>-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긴요한 사업이므로 금강산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기업 창설을 목표로 범국민적인 주주운동을 전개하고 여기서 모은 돈과 현대아산의 기존 출자분, 정부의 신규 출자분 등을 합해서 새로운 국민기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p>	<p>〈2001년 평양 10대 열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새 세기의 첫 충격(1월 김정일의 중국 상해 방문)</li> <li>② 영생하는 기업가(故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빈소에 김정일 명의 조문단 파견)</li> <li>③ 열띤 수교 경쟁 (상반기 서방국가들과 수교 현황)</li> <li>④ 복받은 가수(4월 김연자 평양 공연)</li> <li>⑤ 평양에 간 EU사절(5월 EU 의장인 페라손 스웨덴 총리 방북)</li> <li>⑥ 통일의 메아리(5월-8월 남북 노동자·농민토론회 및 통일 대축전 개최)</li> <li>⑦ 제1국제 사변(7월-8월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li> <li>⑧ 경사에 또 경사(강택민 중국 총서기 평양 방문)</li> <li>⑨ 강성부흥 대진군 선언(11월 경제슬로건 ‘라남의 봉화’ 제시)</li> <li>⑩ 축구계의 평양 혜성(12월 제 13차 아시아 여자축구선수권 대회 우승)</li> </ol> <p>주북 신임 중국대사 우등허(武東和) 평양도착</p>	<p>- 박대사는 신년을 맞아 러시아의 소리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러 사이에는 경제와 군사, 과학,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향후 양국간의 발전 전망이 매우 좋다고 언급</p>
12.29	<p>서영훈 「한적」총재, 장재언 「북적」위원장에게 연히장 발송</p> <p>* 판문점 적십자 연락관 접촉</p>	<p>중방, 중소형 발전소 건설 사업 소식 보도</p> <p>- 함경북도 청진시 및 각 군내</p>	<p>도쿄신문, 대북 경수로 완공 2009년으로 연기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9	<p>- 올해는 남북 적십자간에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민족화합과 인도주의 구현을 위한 사업들이 한층 더 발전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바람.</p>	<p>에서 구룡1호·칠보산2호 등 중소형 발전소가 활발히 건설되고 있음.</p> <p>평방, '분열장벽을 지체없이 허물어야 한다' 제하로 콘크리트 장벽 해체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 문제가 옹게 해결되자면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와 긴장상태가 해소되고 통일을 가로 막는 콘크리트 장벽과 같은 온갖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야 함.</li> <li>- 콘크리트 장벽을 그대로 두고 자주통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임.</li> <li>- 남조선 당국이 민족적 화해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대결과 불안, 전쟁의 상징이며 반통일 차단물인 콘크리트 장벽을 해체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li> </ul> <p>중방, '라남의 봉화가 타오르는 영광의 해' 보도</p>	<p>- KEDO의 대북경수로 제공시한이 당초 목표연도인 2003년에서 2009년으로 6년 늦어지게 되어, KEDO측이 경수로 완공일정의 연기를 북한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으나, 북한측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보상금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p>
12.30	<p>「2002년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소속 대표단 설봉호편으로 방북</p>	<p>「공장·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진행(「직총」 중앙회관)</p>	<p>중국 베이징 방송, 북한 경수로 시찰단 남한 방문 동향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30	<p>-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설맞이 남북 공동행사의 일정과 참가 규모, 행사 내용 등에 대해 협의차 방북</p> <p>김희문 경수로 대상사업국장 등 북한 경수로 시찰단, 남한 방문 일정 종료후 평양 귀환</p> <p>통일부, 올해 김정일 위원장 공개활동 83회로 집계</p> <p>- 북한 언론에 보도된 올해 김위원장의 공개활동은 △군부대 방문 7회를 포함한 군관련 행사 39회 (48%) △경제부문 20회 (24%) △대외활동 12회 (14%) △기타12회(14%) 등으로 집계</p>	<p>평양, '반통일분자들은 민족안에 있을 자격이 없다' 제하로 남한 내 일부 세력 비난</p> <p>-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바라지 않는 내외의 반통일 분자들과 우익 보수세력들은 올해에 날로 높아가는 민족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관계를 다시금 대결어로 몰아가려고 6.15 북남공동선언이행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있음.</p>	<p>- 북한 경수로 시찰단 20명이 2주간의 남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 북한 기술인원 280여명이 남한에서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기술교육을 받게 됨.</p> <p>로스엔젤레스 타임스,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위기 보도</p> <p>- 금강산 관광의 문제점으로 북한 당국의 관광객에 대한 심한 규제, 관광대가 요구 및 현대자산의 자금난 등을 거론</p>
12.31		<p>노동신문,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하로 대미 비난</p> <p>- 미국은 우리를 군사적 압살의 첫번째 대상으로 점찍어 놓고 의도적인 도발을 결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음.</p>	



## 南北對話年表

(2001. 1. 1~12. 31)

發行日：2002년 3월

發行處：統一部 南北會談事務局

([dialogue.unikorea.go.kr](http://dialogue.unikorea.go.kr))

印刷處：웃고文化社(☎ 2267-3956)

